

신약
11

BELIEVER'S BIBLE COMMENTARY
HEBREWS, JAMES, 1,2 PETER

윌리엄 맥도날드 신자 성경주석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윌리엄 맥도날드 '신자 성경주석'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유 지 훈 옮김

BELIEVER'S BIBLE COMMENTARY
BY
WILLIAM MACDONALD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전도출판사

BELIEVER'S BIBLE COMMENTARY

HEBREWS, JAMES, 1, 2 PETER

WILLIAM MACDONALD

THOMAS NELSON PUBLISHERS
Nashville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전도출판사

410-82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1233-4
전화: (031) 914-2732, 팩스: (031) 917-4520

Evangelical Publication Inc.

1233-4, Jeongbalsan-dong, Ilsandong-gu,
Goyang-si, Gyeonggi-do, 410-828, KOREA

차 례

약어표.....	6
저자 서언	7
편집자 서언	9
신약성경 서론.....	13
히브리서	21
히브리서 서론.....	22
1. 본체적인 면에서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1:1-4:13)	31
2. 제사장 직분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4:14-10:18) ...	68
배도 / 84	
3. 경고와 권면(10:19-13:17).....	136
4. 축복과 기도로 편지를 맺음.....	201
현대인을 위한 히브리서의 교훈 / 205	
참고 문헌	208
야고보서.....	211
야고보서 서론	212
1. 인사(1:1).....	219
2. 고난과 시험(1:2-17)	222

3. 하나님의 말씀(1:18-27).....	235
4. 편파주의에 대한 책망(2:1-13)	244
십계명 / 251	
5. 믿음과 행위(2:14-26).....	256
6. 혀, 그 사용과 남용(3:1-12).....	265
7. 참된 지혜와 거짓된 지혜(3:13-18).....	275
8. 탐욕, 그 원인과 치유책(4장)	282
9. 부자들과 그들에게 임할 환난(5:1-6)	295
10. 인내에 대한 권면(5:7-12).....	301
11. 병든 자에 대한 기도와 치유(5:13-20)	305
하나님의 치유 / 306	
참고 문헌	317
베드로전서.....	319
베드로전서 서론	320
1. 신자의 특권과 의무들(1:1-2:10)	328
2. 신자의 관계(2:11-4:6)	368
그리스도인의 복장 / 386	
침례 / 406	
3. 신자의 봉사과 고난(4:7-5:14).....	417
참고 문헌	437
베드로후서.....	439
베드로후서 서론	440
1. 인사(1:1-2).....	447

2. 그리스도인의 강인한 성품 계발에 대한 권고(1:3-21).....	449
3. 거짓 교사들의 출현에 대한 예언(3장)	470
4. 기롱하는 자들의 출현에 대한 예언(3장)	490
참고 문헌	508

약어표

- ASV-미국 표준역(American Standard Version)
FWG-그란트의 숫자 성경(F.W. Grant's *Numerical Bible*)
JND-다아비의 새번역(John Nelson Darby's *New Translation*)
JBP-필립의 의역본(J.B. Phillips' Paraphrase)
KJV-흠정역(King James Version)
KSW-(Kenneth S. Wuest's *An Expanded Translation*)
LB-현대어 성경(Living Bible)
NASB-새 미국 표준역 성경(New American Standard Bible)
NEB-새 영어성경(New English Bible)
NIV-새 국제역 성경(New International Version)
NKJV-새 흠정역(New King James Version)
RSV-개정 표준역(Revised Standard Version)
RV-개정역(Revised Version<England>)
A.D-주후(主後; *Anno Domini*, in the year of our Lord)
B.C-주전(主前; Before Christ)
NU-가장 오래된 헬라어 비평 사본

저자 서언

“신자 성경 주석”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진지한 학도가 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집필되었다. 그러나 어떤 주석도 성경을 대신할 수는 없다. 다만 주석이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은 일반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해준 다음 보다 깊은 연구를 하도록 독자를 성경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다.

본 주석은 쉽고 비전문적인 언어로 집필되었으며, 학적이거나 신학적인 인상을 풍기지 않는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신구약 성경의 원어들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때문에 말씀의 실질적인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어떤 그리스도인도 성경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딤후 2:15).

본 주석의 논조는 간결명료하므로 독자는 어떤 구절에 대한 도움을 얻기 위해 여러 쪽에 걸친 설명을 애써 다 읽어볼 필요는 없다. 분주히 돌아가는 현대생활은 진리가 짧고 간결하게 제시될 것을 요구한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구절들을 그냥 지나치지는 않았다. 많은 경우에 다양한 설명들을 소개함으로 독자로 하여금 어떤 설명이 문맥과 나머지 성경의 가르침에 가장 부합하는지 스스로 결정하도록 배려해 주었다.

성경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말씀을 삶에 실제로 적용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주석은 어떻게 성경본문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 구현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고자 노력한다.

만일 본서가 목적 그 자체로 사용된다면 도움을 주기보다 오히려 덧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본서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일을 독려하고 주님의 교훈에 대한 순종심을 일깨우는데 사용된다면 그 목적을 이룰 것이다.

모쪼록 성경에 영감을 불어넣으신 성령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추구하는 독자의 마음에 빛을 비취 주시기를 바란다.

편집자 서언

“주석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1950년대 후반에 어떤 성경교사가 엠마오 성경학교(지금의 엠마오 성경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던진 충고였다. 그 중 적어도 한 학생이 지난 30년 동안 그 말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 그 교사는 본 “신자 성경 주석”의 저자인 윌리엄 맥도날드였고, 그 학생은 당시에 갓 입학한 신입생이었던 본 편집자 아더 화스타드(Arthur Farstad)였다. 그는 평생에 단 한 권의 주석만 보았는데 헤리 A. 아이언사이드의 에베소서 강해서인 “하늘에 속한”(In the Heavenly)이 그것이었다. 10대 시절 어느 해 여름에 그 책을 숙독한 후에 아더 화스타드는 주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1. 주석이란?

주석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왜 우리는 주석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가? 최근에 한 유명한 그리스도인 발행인이 성경에 관계된 책을 15가지로 분류했다. 따라서 혹 어떤 이들이 정확히 어떻게 주석이 스테디바이블이나 심지어 성구사전, 성경지도, 성경사전 등과도 다른지를 알지 못한다 해도 그것은 전혀 놀랄 일이 못된다.

주석은 절별 혹은 단락별로 성경 본문에 대해 “논평을 하거

나”(comments) 도움을 줄만한 언급을 한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주석을 저만치 제껴두며 “저는 단지 강단의 말씀을 듣고 성경 자체만 읽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 제법 경건한 말처럼 들리나 그렇지 않다. 주석은 단지 최선의(그리고 가장 어려운) 형태의 성경강해(하나님의 말씀을 절별로 가르치고 전하는 것)를 문자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어떤 주석들(가령 아이언사이드 주석)은 설교를 그대로 책으로 출간했다. 게다가 모든 시대 모든 언어로 된 유명한 성경강해서들이 영어로 보급된 실정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많은 강해서들이 너무 오래되고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고 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반 신자들로서는 절망할 정도는 아니라 해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런 까닭에 이 “신자 성경 주석”이 간행된 것이다.

2. 주석의 종류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성경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이 주석을 집필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주석은 매우 개방적인 것에서 매우 보수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하다. 본 “신자 성경 주석”은 성경을 신앙과 삶 모두에 절대 충분한 영감되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매우 보수적인 주석이다.

주석은 매우 전문적인 것(예를 들어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구문에 대해서까지 세세한 설명을 가한 것)에서 매우 간략한 것에 이르기까지 아주 범위가 넓은데 본 주석은 그 중간 어딘가에 위치한다. 전문적인 설명은 주로 각주로 돌렸으나 본문 해설에 관한 한은 난이도에 관계없이 대충 얼버무림 없이 충실히 다루었다.

맥도날드 형제님의 글은 “강해가 풍부하다.” 형제님의 글의 목적

은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제자”를 양성하는 일을 돕는데 있다.

주석은 또한 신학적인 진영에 따라서 보수적인 것과 자유주의적인 것, 개신교적인 것과 로마 카톨릭적인 것, 전천년적인 것과 무천년적인 것 등으로 나뉘는데 본 주석은 보수적이며 개신교적이며 그리고 전천년적이다.

3. 본서를 사용하는 방법

본 주석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으나 다음 순서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1) 대강 훑어봄

만일 여러분이 성경을 좋아하거나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이 책을 여기저기 조금씩 읽으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2) 특정 구절에 대한 참조

어떤 구절에 대해 의문이 생길 경우 여러분은 해당 구절이나 문맥에 대한 설명을 찾아봄으로써 분명 적절한 자료를 얻게 될 것이다.

(3) 교리에 대한 연구

안식일, 침례, 선택, 삼위일체 등에 대해 알고 싶으면 그 주제를 다루는 구절들을 찾아보라.

(4) 책별 연구

만일 성인 주일학교나 정규집회에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있다면 매주 해당 본문을 미리 공부해 뒀으로써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토론을 하면 더 큰 유익이 있다). (물론, 만일 인도자도 본서를 주요 참고서로 사용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은 다른 주석을 추가로 사용할 수도 있다!)

(5) 성경 전체에 대한 연구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 전체”를 상고해야 한다. 성경 전체에는 난해한 본문이 흩어져 있으며 본서와 같은 주의 깊고 보수적인 책이 당신의 성경공부를 크게 증진시킬 것이다.

성경공부는 광활한 사막을 여행하듯이 그 출발이 막막하고 아득하지만 조금씩 진보하면서 꿀맛과 같이 달콤한 시간이 된다.

맥도날드 형제님은 30년 전에 제게 “주석을 무시하지 말라”고 충고해 주신바 있다. 새 흠정역본(New King James text)에 맞춰 편집을 하면서 이 성경주석을 매우 주의 깊게 연구해 봄으로써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주석을 즐겨 사용하라!”는 충고를 독자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다.

신약성경 서론

“이 신약성경 책들의 역사적, 영적인 면에서의 가치는 그 책들의 수나 양에 도저히 비견되지 않으며, 그 책들이 삶과 역사에 미친 영향은 헤아릴 수조차 없다. 여기 에덴에서 동이 트기 시작한 시대의 정점이 있다. 구약의 예언의 그리스도는 복음서의 역사의 그리스도요, 서신서의 경험의 그리스도와, 계시록의 영광의 그리스도가 되신다.”-W. 그레햄 스크로기

1. “신약”의 뜻

신약성경을 연구하는 깊은 바다, 혹은 그 중 한 책을 연구하는 비교적 작은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기 전에 우리가 “신약”이라고 부르는 거룩한 책에 대한 몇 가지 일반적인 사실을 간략히 개괄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약속”(testament)과 “언약”(covenant)은 둘 다 동일한 헬라어 단어(*디아테케*)를 옮긴 것이며, 히브리어로는 한 두 곳에서 어떤 번역이 더 나은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기독교 성경상의 용어로는 “언약”이란 의미가 확실히 더 낫게 여겨지는데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간의 하나의 협정, 맹약, 혹은 “언약”을 이루기 때문이다.

기독교 성경은 옛(혹은 “오랜”) 약속과 대조해서 “새” 약속(혹은 언약)으로 불리운다.

두 약속 모두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았으며, 따라서 모든 그리

스도인들에게 유익하다. 그러나 자연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특히 우리 주님과 그분의 교회에 대해, 또 그분이 그분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에 대해 말씀하는 성경의 그 부분에 보다 종종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어거스틴에 의해 다음과 같이 훌륭하게 표현된바 있다.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 속에 드러나 있다.”

2. 신약성경 정경

“정경”(canon, 헬-카논)이란, 어떤 사물을 측정 내지 평가하는 “기준”(rule)을 가리킨다. 신약성경의 정경은 영감 받은 책들을 집대성한 것이다. 그러면, 이 책들만이 정경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혹은 이 27권의 책 모두가 정경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기독교 초기부터 여타 기독교 서신 및 문헌들(이단적인 것을 포함해서)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 책들이 옳은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종종 주장하기를 A. D 3세기 후반에 한 교회회의가 정경목록을 정비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 그 책들은 기록된 즉시 “정경적이었다.” 경건하고 분별력 있는 제자들은 베드로가 바울의 서신들을 인정했듯이(벧후 3:15-16) 처음부터 영감 받은 성경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일부 교회들에서는 한동안 일부 성경(유다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등)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어떤 책이 마태나 베드로, 요한, 혹은 바울, 혹은 마가나 누가와 같은 사도의 범주에 드는 사람에 의해 기록되었을 경우

에는 그 책의 정경성에 대해 아무 의문이 없었다.

신약성경 정경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교회회의는 사실 여러 해 동안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온 것을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말하자면 교회회의는 책들의 “영감된 목록”을 정비한 것이 아니라 “영감된 책들”의 목록을 정비한 것이었다.

3. 저자 문제

신약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야고보, 베드로, 유다 및 히브리서의 익명의 저자(히브리서 서론 참조)를 감동하사 집필하도록 하셨다. 신약성경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문제를 이해하는 최선의 정확한 이론은 “이중 저작권”이다. 신약성경은 부분적으로는 인간적이고 부분적으로는 신적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인간적인 동시에 전적으로 신적인 것이다. 신적인 요소가 인간적인 요소로 하여금 아무 실수도 범하지 않게 했다. 그 결과 원본상 무오무류한 책이 나오게 되었다.

이 기록된 말씀에 비견되는 유용한 유추는 살아있는 말씀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적인 속성이다. 그분은 부분적으로는 인간이고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니라(희랍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 신적인 속성이 인간적인 속성으로 하여금 여하한 과오나 죄를 범하지 못하게 했다.

4. 연대 문제

약 1천년이 걸쳐 완성된 구약성경(BC 1400-400)과는 달리 신약성경

은 불과 반세기만에(A.D 50-100) 집필되었다.

신약성경의 현재 순서는 모든 시대 교회를 위해 매우 적합한 순서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애로 시작하여 교회를 말하고 그런 다음 그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제시하고 끝으로 교회와 세상의 장래를 밝힌다. 그러나 이 책들은 집필 순서대로 배열된 것이 아니다. 이 책들은 필요가 발생하는 대로 집필된 것이다.

초기의 책들은 필립스(Phillips)가 부르는 대로 “어린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들”이다. 야고보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서 등이 기독교 첫 세기 중반에 기록된 최초의 신약성경들일 것이다.

복음서들은 그 다음에 기록되었는데 마태나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고 다음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순으로 기록되었다. 끝으로 아마도 1세기 끝 무렵에 계시록이 기록되었다.

5. 분류

신약성경은 내용상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역사서-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바울 서신, 공동 서신

예언서-요한계시록

이 책들에 대한 적절한 통찰을 지닌 그리스도인은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히 구비하게” 될 것이다.

많은 신자들로 하여금 바로 그런 자질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본 주석을 펴내는 우리의 바람이다.

6. 언어

신약성경은 “일상 언어”(“코이네”, 혹은 “일상 헬라어”)로 기록되었다. 이것은 오늘날 영어만큼이나 잘 알려지고 널리 사용된 1세기 당시 거의 전 세계적으로 사용된 제2의 언어였다.

히브리어의 정감 있고 다채로운 표현법이 구약성경의 예언과 시 및 일반 해설에 꼭 알맞듯이 헬라어는 신약성경을 위해 섭리적으로 예비된 놀라운 표현 도구였다. 헬라어는 알렉산더 대제의 정복 활동을 통해 널리 보급되었으며 그의 군대는 대중을 위해 헬라어를 단순화 내지 대중화시켰다.

헬라어는 동사의 시제, 격, 어휘 및 기타 요소들의 정밀성으로 인해 서신서(특히 로마서와 같은 책)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교리적인 진리들을 표현하는데 적격이었다.

“코이네” 헬라어는 지식층을 위한 문학적인 언어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속 언어”(street language)나 조악(粗惡)한 헬라어도 아니다. 신약성경의 일부분(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은 거의 문학적인 수준에 이른다. 또한 누가는 때때로 고전적인 기법을 사용하며 바울도 때로는(고전 13,15장 등) 아름다운 문학적인 표현법을 동원한다.

7. 번역

영어는 많은(아마도 너무 많은) 역본을 지니는 축복을 받았는데 이들은 다음의 네 가지 일반적인 유형으로 분류된다.

(1) 문자적인 번역

J. N. 다비역, 영어 개정역(English Revised Version, 1881)과 그 미국판, 미국 표준역(American Standard Version, 1901) 등의 역본은 지나치게 문자적이다. 이것은 그 역본들로 하여금 연구를 위해서는 유용하지만 예배나 공중 성경공부나 암기를 위해서는 취약하다. 흠정역(KJV)은 위의 역본들에 비해 그 위엄과 미려함이 뛰어난데 그런 까닭에 많은 그리스도인 회중들은 흠정역을 선호해 왔다.

(2) 완전 직역(Complete Equivalence)

매우 문자적이며, 영어어법이 허락할 경우 히브리어나 헬라어 표현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는 동시에, 좋은 표현법이나 속어가 필요할 때는 보다 자유로운 번역을 시도한 역본들이 있는데 흠정역(KJV), 개정 표준역(RSV), 새 미국 표준 성경(NASB), 새 흠정역(NKJV) 등이 거기에 속한다. 불행히도 개정 표준역(RSV)은 신약은 대체로 믿을만 하나 구약의 경우 많은 메시아 예언들을 가볍게 다루는 과오를 범했다. 오늘날 심지어 전에는 건전했던 몇몇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위험한 경향이 엿보인다. 본 “신자 성경 주석”은 새 흠정역(NKJV)에 맞춰 편집을 했는데, 새 흠정역(NKJV)은 고어체 대명사(*thee*와 *thou*)를 사용하지 않은 채 미려한(그러나 고풍적인) 흠정역(KJV)과 현대 영어 사이에서 가장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그것은 대부분 현대어 성경에는 빠져있는 많은 동사와 단어들을 내포하고 있다(본 주석의 해설란에서 그 실례들을 볼 수 있다).

(3) 탄력적인 직역(Dynamic Equivalence)

이 유형의 번역은 완전 직역보다는 자유로운 번역으로써 때로는

독자가 그것을 인식하는 한 유효한 기술인 의역(意譯, paraphrase)을 사용한다. 모팻역, 새 영어 성경(NEB), 새 국제역 성경(NIV), 예루살렘 성경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역본들은 요한과 바울이 만일 오늘날, 그것도 영어로 집필한다면 사용했을 만한 구조로 전체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시도했다. 이러한 방법론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취해질 경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4) 의역(Paraphrase)

의역이란 본문을 개념 단위로(thought by thought) 의미를 전달하는 번역 방법을 말하는데 이 번역은 종종 자료를 “추가”하는데 많은 자유를 누린다. 이것은 어휘 선택에 있어 원문을 너무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항상 “지나치게 장황한 번역”이 될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현대어 성경(Living Bible)은 복음적이긴 하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해석상의 문제점들을 많이 내포한다.

J.B. 필립스의 의역본(그는 그것을 역본으로 부른다)은 문자적인 관점에서 매우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 그는 거기서 베드로와 바울이 “그들의” 어휘로 의미했다고 믿는 것을 “그의” 어휘로 말하고 있다.

위의 네 유형 중 적어도 세 유형의 역본을 소유하는 것이 비교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에는 완전 직역본이 본 주석에서 제시되는 것과 같은 세세한 성경연구를 위해 가장 안전한 역본이라 믿어진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서론

“성경에서 히브리서만큼 기자(記者)가 누구인지에 관한 논쟁이 많은 책도 없으며, 영감(靈感)에 있어서 히브리서만큼 확실한 책도 없다.” -코니베어 앤 하우슨.

1. 정경 안에서의 독특한 위치

히브리서는 여러 가지 점에서 독특하다. 시작은 서신서 형식이 아니지만 마지막은 서신서 형식으로 끝난다. 히브리서는 틀림없이 이탈리아(Italy)에 있는 성도들, 혹은 그곳으로부터 온 성도들에게 전해진 것으로써 특별한 부류의 신자들, 아마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일 것이다. 이것은 히브리서가 본래 작은 가정교회에 보내진 편지이며, 따라서 뿌리와 목적을 중시하여 전통을 고수하는 크고 유명한 모임과는 별로 연관성이 없다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 히브리서는 신약성경 가운데 가장 문학적인 책이다. 그것은 시적(詩的)이며, 70인역(B.C 27년경에 완성된 가장 오래된 헬라어역 구약성경—역주)으로부터 인용한 문구들로 가득하다. 히브리서는 대단히 많은 어휘를 포함하고 있으며, 헬라어가 동사의 시제나 문장의 구체적인 부분에서 매우 세밀하게 사용되었다.

어느 면에서는 (레위기와 비교하여 볼 때) 매우 유대적이지만 그리스도

의 십자가의 실제로부터 단순한 종교적 의식으로 타락한 것을 경고하는 부분은 기독교계에 항상 필요한 권고이다. 본 서신서의 중요성을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2. 기자

비록 초기 흠정역(KJV) 성경의 역본들이 히브리서 서두에 바울의 이름을 기록해 놓기는 했지만 히브리서의 기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기독교 초기의 동방교회(알렉산드리아 양쪽인 디오니시우스와 클레멘트)는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견해는 많은 논란을 거친 후에 아타나시우스 내부에서 정확성을 인정받았고 마침내 서방의 교회도 이 견해를 받아들이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오늘날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초기에는 히브리서의 내용이 바울의 기록임을 암시한다는 주장이 인정을 받았고 실제로 그렇게 인정할만한 많은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원문에 나타난 문체(文體)는 바울이 기록한 일반 서신서의 문체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이것이 바울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니라고 주장할만한 근거는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문학적 소질에 따라서 문체는 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역사의 흐름에 따라 히브리서 기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많은 사람들이 거론되었는데, 예를 들어 바울과 문체가 비슷할 뿐만 아니라 그를 매우 잘 알고 있는 누가나 바나바, 실라, 빌립,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등이 바로 그들이다.

루터는 문체와 내용이 구약성경에 능하며 훌륭한 웅변가였던 아볼로의 그것과 일치한다고 제안했다(아볼로의 고향인 알렉산드리아는 수사

학과 웅변술로 유명한 도시였다). 반면, 아볼로가 히브리서를 기록했을 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만약 본토 알렉산드리아인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면 히브리서에 담긴 이론과 상황들이 알렉산드리아인의 전통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증으로 제시한다.

주님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을 명시하지 않으신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추측하는 바와 같이 바울이 본 서신서를 기록했다면, 그는 자신에 대한 유대인들의 편견을 고려하여 자기 이름을 일부러 밝히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추측을 하느냐와 상관없이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확실히 아신다”라는 고대의 금언(金言)보다 앞설 수는 없다.

3. 기록 연대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기록된 시기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확히 추측할 수 있다. 로마의 클레멘트 교회에서 이 책이 읽혀졌으므로(AD 95) 외적인 증거는 히브리서가 1세기에 기록되었음을 시사한다. 폴리갑(Polycarp)과 순교자 저스틴(Justin)도 본 서신서를 인용하기는 했어도 저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알렉산드리아의 디오니시우스는 바울에 의한 서신으로 히브리서를 인용했으며, 클레멘트는 바울이 그 책을 히브리어로 기록했고 누가가 그 책을 번역했다고 말했다(하지만 히브리서는 번역서처럼 보이는 않는다). 반면에 이레니우스(Irenaeus)와 히폴리투스(Hyppolytus)는 바울이 히브리서의 기자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터툴리안(Tertullian)은 바나바가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

다.

내적으로는 히브리서 기자가 제2세대(주님을 친히 보았으며 주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과 사도들의 전하는 말을 들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짐-역주)의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주는 것처럼 보이는 증거들이 있으며(2:3, 13:7) 따라서 이것은 히브리서가 야고보서나 데살로니가전서처럼 매우 초기에 쓰여진 책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10:32 참조). A.D 66년에 시작된 유대 전쟁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지 않고 성전에서 여전히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서신서가 쓰여진 시기는 필경 예루살렘의 파괴(70년) 이전이거나 66년 이전일 것이다. 핍박에 관한 언급이 있긴 하지만(12:4) “신자들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는” 상태에 있었다. 만약 이달리아가 이 편지의 수신지라면, 네로 황제의 피로 얼룩진 핍박을 고려할 때 이 편지가 쓰여진 시기는 늦어도 64년 중반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 시기는 대략 63년에서 65년 사이일 가능성이 높다.

4. 배경 및 주제

전체적인 면으로 볼 때 히브리서는 하나의 종교체제를 떠나서 다른 체제로 전환할 때 수반되는 극한 갈등을 다루고 있다. 지난날의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하는 고통과 이방인 취급을 당해야 하는 시련과 긴장감, 그리고 배교자에게 가해지는 엄청난 핍박이 극복해야 할 싸움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 편지에서의 쟁점은 단지 하나의 낡은 종교체제에서 그것과 비슷한 다른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근본적으

로 유대교를 떠나 그리스도교로 돌아가야 하는 문제이다. 본 서신서 기자(記者)가 언급했듯이 그림자로부터 실체어로, 형식적인 것으로부터 진실된 것으로, 지나간 것으로부터 궁극적인 목표로, 일시적인 것으로부터 영원한 것으로, 요컨대 좋은 것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으로 돌아가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또한 인기 있는 데로부터 인기 없는 데로, 다수에서 소수로, 핍박을 가하는 입장에서 핍박을 받아야 하는 상태로 내려가야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 외에도 더 많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편지는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 그들은 초대교회 때에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들었으며, 그들이 전한 복음을 확증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았다. 그들은 다음 세 가지 중에서 적어도 한 가지에 해당하는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참된 구원을 얻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침례를 받은 후 지역교회에 더해졌지만 사실은 진실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또한 구원의 복음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다. 본 서신서는 처음 두 부류의 사람들, 즉 분명하게 거듭난 이스라엘 사람들과 단지 외적으로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어떤 유대인이 조상들의 믿음을 저버리면 그는 변절자요 배교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고 다음에 열거된 목록들 중에서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처벌을 받았다.

- 자기 가족들에 의한 상속권 박탈

-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의 축출
- 고용기회 상실
- 재산소유권 박탈
- 육체적, 정신적 고통
- 공개적인 멸시와 조롱
- 투옥
- 순교

물론 피할 수 있는 길은 항상 열려 있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유대교로 복귀한다면 이것보다 더한 핍박도 면할 수 있었다. 본 신서의 의미와 숨은 동기를 살펴본 대로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유대교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사용된 강력한 논쟁점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 선지자들이 물려준 부요한 유산.
-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역사 가운데 표현된 천사들의 빛나는 사역.
- 율법 수여자로서의 뛰어난 인물 모세와의 관계.
- 훌륭한 군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같은 민족으로서의 자긍심.
- 아론의 제사장직의 영광.
-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할 처소로 선택하신 지극히 거룩한 장소(지성소).
- 모세를 통해 허락하신 율법의 언약.
-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만들어진 성소 안의 기구들과 영광의 휘장.
- 성소 안에서의 봉사, 특히 대속죄일 날의 기념의식(유대인의 연중 행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임).

우리는 1세기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이러한 전통적인 종교 의식의 영광을 자랑하면서, “너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이 있다. 너희는 자랑할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초라한 다락방에 겨우 식탁 하나, 그리고 떡과 포도주가 전부라니! 이것들이 너희들을 위해 남겨진 전부란 말인가?”라고 냉소 섞인 비난을 퍼붓는 것을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너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히브리서는 참된 대답을 제시하고 있다. 그 대답은 한 마디로 그리스도이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 선지자들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
- 천사들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
- 모세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
- 여호수아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
- 아론의 제사장 직분보다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
- 더 나은 성소 안에서 섬기신 그리스도
- 더 나은 언약을 맺게 하신 그리스도
- 모형적인 성소의 기구와 휘장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 자기 몸으로 죄를 위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염소와 송아지의 반복적인 제사보다 훨씬 뛰어난 제사를 드리신 그리스도

더 밝은 햇빛의 광채에 자리를 물려주고 시야에서 사라져 가는 별들처럼, 유대교의 모형과 그림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인격과 사역의 영광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박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주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혹독하고 광적인 반대에 직면해야 했다. 이것은 참

된 신자들을 두려움과 절망 속으로 빠지게 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라는 격려가 필요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을 바라보며 인내해야만 했다.

단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배교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고백한 후 주님을 부인하고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분의 보혈을 모독하고 성령님을 멸시하는 죄였다. 이러한 고의적인 범죄에는 회개함과 용서가 주어지지 않았다. 유대의 믿는 자들에게 보내진 이 편지에는 이러한 죄에 대한 반복적인 경고가 들어있다. 2장 1절에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흘러 떠내려가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3장 7-19절에는 반항하며 마음을 강박케 하는 죄로, 6장 6절에는 타락하고 배도하는 죄로, 10장 25절에는 모이기를 폐하는 것으로, 10장 26절에는 의식적이고 고의적인 죄로, 그리고 12장 16절에는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마지막으로 12장 25절에는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듣기를 거절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경고는 동일한 죄, 즉 배도의 죄를 다양한 관점에서 책망한 말씀이다.

히브리서의 교훈은 1세기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시기 적절한 교훈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유가 된 영원한 축복들과 특권들을 항상 되새길 필요가 있다. 반대와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라는 격려는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된다. 또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한 후에 다시 의식적인 종교로 돌아가는 것에 관한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5. 개요

1. 본체적인 면에서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1:1-4:13)
 - (1)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1:1-3)
 - (2)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1:4-2:18)
 - (3)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3:1-4:13)

2. 제사장 직분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4:14-10:18)
 - (1) 아론의 제사장 직분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4:14-7:28)
 - (2) 아론의 사역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의 사역(8장)
 - (3) 구약의 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의 제사(9:1-10:18)

3. 경고와 권면(10:19-13:17)
 - (1) 그리스도를 경홀히 여기지 말 것에 대한 경고(10:19-39)
 - (2) 구약성경의 본을 따라 믿음을 지킬 것에 대한 권면(11장)
 - (3)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한 권면(12장)
 - (4) 그리스도인의 다양한 은혜들에 대한 권면(13:1-17)

4. 축복의 기도로 편지를 맺음(13:18-25)

1. 본체적인 면에서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 (1:1-4:13)

1)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1:1-3)

1:1 신약성경 중에 본 서신서만큼 곧장 핵심으로 들어간 서신서는 없다. 은혜로운 인사와 전할 말을 생략하고 본 서신서 기자는 서둘러 자기의 주제를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는 마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고 싶은 거룩한 열망에 깊이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우선 선지자들에 의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이들을 통한 계시를 비교한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로써 하나님의 대언자들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존귀한 사자들이다. 그들의 사역의 영적인 부요는 구약성경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하지만 그들의 사역은 부분적이고 단편적이었다. 일정한 분량의 계시가 그들 각자에게 위임되었지만 그것은 모든 경우에 부분적이었다.

진리가 부분적으로 그들에게 계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율법, 역사, 시, 그리고 예언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다. 때로는 구두(口頭)와 문자로 전해졌다. 또

어떤 때에는 이상, 꿈, 상징, 혹은 무언극 형식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 사용되었든지 그것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계시가 임시적이고 점진적이며 그 전달방식이 다양하다는데 있다.

1:2 간헐적이고 부분적이며 차등적인 구약성경의 예언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최종적이고 완전한 계시에 의해 그 빛을 잃게 되었다. 선지자들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통로였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였다. 요한은 이것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요 1:18)라고 잘 표현했다. 주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관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요 14:9)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지자들보다 한없이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본 서신서 기자는 먼저 그분을 “만유의 후사”로 묘사한다. 이것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정하심을 따라 그분의 소유가 되었으며 그분의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능동적인 대리인이다. 그분은 별들의 하늘과 대기권의 하늘, 땅과 인간들을 지으셨으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오신 분이다. 영육간의 모든 창조물들은 바로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다.

1:3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완전함을 그분 안에서 또한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도덕적 혹은 영적인 모든 영광이 그분 안에 나타나 있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이시므로 이것은 물론 육체적인 형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아버지를 나타내신다는 뜻이다. 그분보다 더 아버지를 닮은 형상은 생각할 수 없다. 하나님이신 아드님은 그분의 말씀과 행하신 일을 통해 인간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온전히 드러내신다.

주님은 또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 그분은 태초에 말씀으로 온 세계를 창조하셨다(11:3). 주님은 아직도 말씀하시며 그분의 능력의 말씀이 생명을 지탱하고 만물을 붙드시며, 우주를 창조의 질서대로 운행하게 하신다. 만물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그분 때문이다(골 1:17). 오묘한 과학적 사실들에 대한 단순명료한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 과학자들은 분자를 하나로 묶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려고 무척 노력한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대한 힘이며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러한 힘을 발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

우리 구세주의 영광은 모든 영광중에서 가장 뛰어난다. 그분은 친히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창조자요 만물의 유지자가 죄를 짊어진 자가 되셨다. 우주를 창조하는 데에는 그분의 말씀만이 필요했다. 우주를 지탱하고 운행하시는 데에는 도덕적인 문제가 개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분의 말씀만 있으면 충분하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영원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만 했다. 만유의 주님이 자기를 낮추어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아이삭 왓츠(Isaac

Watts)는 “너무나 놀랍고 기이한 하나님의 사랑! 내 온 영혼과 생명,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리네!”라고 찬송하며 주님의 대속을 기렸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존귀케 되신 주님을 볼 수 있다. 주님은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앉으셨다”는 것은 안식의 상태를 뜻한다. 이것은 또 다른 수고를 대비한 안식이 아니라 모든 일을 끝마친 후의 만족스러운 쉼을 의미한다. 이러한 안식은 구속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은 영예와 특권의 자리이다(1:13). 주님의 영광스러운 승리로 인해 하나님은 그분을 존귀케 하셨다. “우편”은 또한 권능(마 26:64)과 즐거움(시 16:11)의 자리이다. 구세주의 못 박히신 손에는 만유를 통치하시는 자의 ‘홀’이 쥐어져 있다(벧전 3:22).

창조에서부터 갈보리까지, 그리고 영광을 받으신 때까지의 주님의 길에서 우리는 선지자들의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비록 그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었는지라도 그들은 그림자 속으로 잊혀져 갔다. 그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 증거했다(행 10:43). 하지만 주님이 오신 후 그들은 기쁨으로 주목을 받는 자리에서 물러났다.

2)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1:4-2:18)

1:4 본 서신서의 논쟁의 다음 단계에서는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유대인들은 천사들의 사역을 매우 높게 평가했으므로 이러한 증명은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천사들을 통하여 율법이 주어졌으며(행 7:53; 갈 3:19), 그들의 존재는 하나님의 옛 백성들의 전 역사에 걸쳐 빈번하게 출현했다. 만약 어떤 유대인이 유대교를 떠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고자

할 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이러한 중요한 민족적, 종교적 유산으로부터 분리시키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큰 논란을 야기하는 문제였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를 얻음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써(1:4-14), 그리고 인자로서(2:5-18)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을 얻는다는 것이었다.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으로써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으로 입증되었다. 이것은 주님이 천사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다는 것과, 또한 주님이 본래부터 그들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천사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얻으신 것은 주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로 높이 되신 결과이다. 육신을 입으시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해 주님은 천사보다 잠깐 동안 낮아지셨다(2:9).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높이셨고 지극한 영광중에 그분을 보좌에 앉히셨다.

주님이 본래부터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은 그분의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의 신분과 관계가 있다. 천사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은 “아들”이라는 이름이다.

1:5 메시야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구약 성경으로부터 두 구절이 인용되었다. 첫 번째 구절인 시편 2편 7절에서 하나님은 그를 아들이라고 부르신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첫째 그리스도는 영원히 아들이시라는 것과, 둘째 육신을 입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것, 셋째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부활하심(골 1:18)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되셨다는 것이다. 바울은 이 구

절을 비시디아 안디옥의 한 회당에서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첫 번째 강림에 적용했다(행 13:33).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결코 어떤 천사에게도 자기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다. 천사들의 무리가 집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어진 적은 있다(욥 1:6; 시 89:6 난외주). 그러나 그것 역시 천사들이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줄 뿐이다.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될 때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구절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인용되었다. “나는 그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이 말씀이 솔로몬에 관한 언급처럼 보이지만 성령님께서서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다윗의 위대한 아들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해석하신다. 하나님은 천사들에 대해 이와 같은 표현으로 언급하신 적이 없다.

1:6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임을 입증하는 세 번째 증거는 그리스도가 그들의 “경배의 대상”이시라는 것이다.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사자이며 종들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가 말하는 바를 확증하기 위하여 신명기 32장 43절과 시편 97편 7절을 인용한다.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만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 오게 하실 때”를 미리 내다보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언급이다. 그 때에 그리스도는 공개적으로 천사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실 것이다. 이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한다. 참 하나님 외에 다른 피조물을 경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천사들로부터 경배를 받

아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만아들”이라는 표현은 시간적인 면에서 첫 번째라는 의미와 서열 혹은 존중함을 받는 면에서 첫 번째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와 로마서 8장 29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18절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1:7 그분의 뛰어나신 아들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천사들을 영들로(혹은 바람으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천사들의 주인이시다. 그들은 바람처럼 즉시, 그리고 불과 같은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

1:8 “아들” 안에 있는 영광의 빛은 비할 데 없이 영광스러운 빛이다. 우선 그분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으로서 일컬음을 받는다. 시편 45편 6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메시아에 대하여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라고 묘사하신다. 여기에 또다시 그리스도의 신성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으며, 이것은 전통적인 히브리서 원문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히브리서의 모든 장들은 구약성경으로부터 적어도 한 구절 이상 인용하고 있다).

그분은 또한 영원한 주권자이시다. “그분의 보좌는 영영하다.” 그분의 나라는 바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일 것이며 달이 완전히 차서 결코 기울어짐이 없음과 같을 것이다. 그분은 의의 왕이다. 시편 기자는 그분이 “의의 흙을 쥐고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한다. 그것은 이러한 왕이 온전히 정직과 성실로 통치하실 것을 나타내주는 시적인 표현이다.

1:9 그분의 개인적인 의는 그분이 “항상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것으로부터 온다. 이것은 틀림없이 주님의 33년 동안의 지상에서의 삶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아들의 인격과 행위 가운데서 어떠한 흠이나 실패도 찾을 수 없으셨다. 그분은 주권자로서의 자신의 합당함을 입증했다.

아들의 이러한 뛰어남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분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그의 동류들보다 승하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최고의 자리를 부여하셨다는 의미이다. 여기에서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한다. 그리스도에게는 다름 아닌 성령님이 주어졌다(요 3:34). 그분의 “동류”는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모든 대상을 포함하지만 동류라는 표현이 그분과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동류 가운데는 천사들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지만 아마 이 표현은 주님의 유대인 형제들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1:10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시다. 이것은 시편 102편 25-27절에 의해 입증된다. 그 시편에서 메시아는 “나의 하나님이여...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24절)라고 기도한다. 겹세마네와 갈보리에서 드러진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의해 이렇게 응답된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하나님이 10절에서 그분의 아들을 주(主), 즉 여호와로 칭하고 계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부인할 수 없는 결론은 신약의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여호와라는 사실이다.

1:11-12 여기에서는 창조물들의 유한성과 창조주의 영원성이 대조되어 있다. 창조물들은 결국 멸망할 것이나 주님 자신은 영존하실 것이다. 해와 달, 별들과 산들, 바다, 그리고 강들은 영원히 존재할 것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쇠퇴해 가도록 지어졌다. 시편 기자는 그것들을 옷에 비유한다. 옷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낡아지며 입을 수 없게 된 후에는 새 것으로 교체된다.

눈으로 뒤덮인 높은 산들과 찬란한 빛을 발하는 태양, 아름다운 별들로 장식된 밤하늘을 바라보라. 그 다음에는 장엄한 운율의 다 음과 같은 말씀을 들어 보라.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1:13 아들의 뛰어남을 입증하기 위해 시편에서 또 다른 구절이 인용되었다(시 110:1). 그 시편에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초대하신다.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나님이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물론 한 번도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에게는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가장 높은 지위와 무한한 능력을 상징하며, 모든 원수를 발등상이 되게 한다는 것은 우주적인 통치와 지배를 상징한다.

1:14 천사들의 임무는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것이다. 그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들이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로 그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둘째로 죄의 형벌과 권세로부터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죄의 실재로부터는 구원을 받지 못한, 다시 말해서 아직 세상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은 성도 각 개인에게 “수호천사”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는 왜 이 사실을 놀라게 받아들이는가?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을 대항하여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분명히 존재한다(엡 6:12). 구원 얻을 후사들을 보호하는 거룩한 천사들이 있다는 사실이 의아스럽게 생각되는가? 하지만 우리는 수호천사의 존재가 아니라 종이 우주의 주권자보다는 낮은 존재인 것처럼,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낮은 존재라는 이 구절의 주된 핵심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한다.

2:1 본 서신서 기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천사들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신 분임을 밝히면서 자기의 논증을 마친다. 또한 인자로서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을 보여주기 전에 그는 잠시 멈추어 서신서들에 나타나 있는 엄숙한 경고들 중의 하나를 소개한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에 관한 경고이다.

복음을 수여하신 자의 위대함과 그 선물의 중요성 때문에 복음을 듣는 자들은 그 복음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복음의 수여자로부터 마음이 떠나 그림자인 종교형태로 다시 돌아갈 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 이것은 배도의 위협, 즉 다시 회개함이 없는 범죄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2 유대인들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천사들의 사역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했다는 사실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러한 예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는 수만의 천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수여하시는 광경일 것이다(신 33:2; 시 68:17). 율법이 천사들을 통하여 선포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케 된 것과, 모든 불순종이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았다는 것도 역시 사실이다. 이 모든 것은 기꺼이 인정할 만하다.

2:3 이제 주제는 좀 더 중요한 것으로 옮겨간다. 만약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 보응을 받았다면, 복음을 등한히 여긴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율법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행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해 준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지만, 복음으로는 구원을 알게 된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은 율법을 어긴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율법은 하나님에 의해 천사들을 통하여 모세에게, 그 다음에는 백성들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복음은 주 예수님에 의해 직접 선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에 의해서, 그리고 구세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증되어졌다.

2:4 하나님께서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기적들과 성령님의 은사로써 증거하셨다.” ‘표적’은 영적인 진리를 알리기 위해 주님과 사도들의 의해 행해진 기적들이었다. 예를 들면, 오천 명을

떡이신 일은(요 6:1-14) 뒤이은 생명의 떡에 관한 진리(요 6:25-59)의 기초를 제공했다. ‘기사’(奇事)는 구경꾼들로 하여금 경이감을 불러일으킬 의도로 행해진 기적들이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요 11:1-14). ‘기적’은 자연법칙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한다. ‘성령님의 은사’는 타고난 재능을 뛰어넘어 전혀 다른 방법으로 말하거나 행동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능력을 말한다.

이 모든 기적들의 목적은 복음의 진리를 확증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히 전통적으로 믿기 전에 표적을 보기 원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었다. 신약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확증적인 기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약간의 증거들이 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다른 시대에는 이와 같은 기적들을 결코 행하지 않으신다고 단정을 내릴 수는 없다.

“자기 뜻을 따라”라는 표현은 이러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성령님에 의해 그분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 주어졌다는 의미이다. 그러한 능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다. 또한 사람 편에서 요구되거나 혹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졌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다.

2:5 우리는 1장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리스도는 또한 인자(人子)로서 천사들보다 뛰어나시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나 낮아지심이 수치스러울 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음을 감안한다면 그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유대인

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단지 인간에 불과했으며 따라서 천사들보다 더 못한 존재로 받아들여졌다.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구절들은 예수님이 단지 인간으로서도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이심을 보여준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 있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다. 장차 올 세상은 선지자들이 자주 예언했던바 평화와 번영의 황금시대를 의미한다. 우리는 그 시대를 일컬어 ‘천년왕국’이라고 부른다.

2:6 종국에 세상을 다스리게 될 그 나라는 천사들이 아니라 사람에게 주어질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시편 8편 4-6절 말씀이 인용되었다. 어느 의미에서 인간은 미물에 불과한 하찮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생각하시며 권고하신다.

2:7 창조의 단계에서는 인간이 천사들보다 더 낮은 지위를 부여받았다. 인간은 지식이나 활동이나 능력의 면에 있어서 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는 죽음에 굴복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는 인간은 영광과 존귀로 관 씩워질 존재로 정해져 있다. 정신과 육체의 한계가 극복되어질 것이며 이 땅에서 존귀한 위치에 오르게 될 것이다.

2:8 정해진 날이 이르면 만물이 인간의 권위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천사들의 무리와 동물과 식물, 조류와 어류의 세계, 그리고 행성들의 체계, 요컨대 창조된 전 우주의 영역이 그의 통제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 1:28)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왜 만물들이 현재 인간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인간이 죄로 인하여 자기의 통치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피조물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된 것은 바로 아담의 죄 때문이었다. 다스리기가 쉬던 피조물들의 세계가 죄가 들어온 이후 다스리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으며, 자연에 대한 인간의 통제력은 도전과 제약을 받게 되었다.

2:9 인자가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 다시 오실 때 인간의 통치권은 회복될 것이다.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아담이 잃어버린 것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 더 많은 것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만물들이 인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대신 예수님을 보고 있으며 그분 안에서 인간이 결국 세상을 지배할 것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다.

예수님은 잠시 동안, 특히 그분의 33년간의 지상 사역의 기간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셨다. 하늘로부터 베들레헴, 갓세마네, 골고다, 그리고 무덤으로 이어진 그분의 행적은 겸손과 낮아지심으로 특징지어진다. 하지만 지금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계신다. 그분의 높아지심은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면류관으로 이어지는 십자가의 결과이다. 이 모든 것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은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시는 것이었다. 구주께서는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의 대속물로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다. 그분

은 인간으로서, 인간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들이 다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몸으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다.

2:10 인간의 통치권을 구주의 낮아지심을 통해 회복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과 온전히 합치되는 일이었다. 죄는 하나님의 질서를 망가뜨렸다. 혼돈으로부터 질서가 회복되기 전에 죄는 반드시 의롭게 처리되어야 한다. 죄를 없애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피 흘림과 죽임을 당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요구하시는 일이었다.

지혜로운 계획자이신 하나님은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로 묘사되고 있다. 그분은 모든 창조의 목적이요 목표였다. 만물은 그분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하지만 그분은 또한 모든 창조의 근원이시요 창시자이시다. 아무 것도 그분 없이 창조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다.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그분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화롭게 됨을 위해 치러진 값은 어떤 것인가? 우리의 구원의 주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셔야 했다. 그분의 도덕적 성품에 관한 한 그분은 항상 온전히 무죄하시다. 그분의 개인적 성결의 관점에서 볼 때에 그분은 전혀 온전케 되실 필요가 없으셨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로서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그분은 마땅히 온전

케 되셔야만 했다.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의 죄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받으셔야만 했다. 우리는 그분의 흠 없는 삶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분의 대속적인 죽음이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 자신이 기뻐하실 만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발견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이었다.

2:11 다음 세 구절은 예수님의 온전한 인성을 강조한다. 그분이 만약 아담이 잃어버렸던 통치권을 다시 찾는다면, 그분이 참 인간 이시라는 것이 증명된다.

먼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라는 사실이 나타나 있다. 이것은 그들이 다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개역성경에는 그들이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의미로, “출생이 같으니”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에서 거룩케 하시는 자이시다. 그분에 의해 구별함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복이 있을진저! 거룩케 된 사람이나 물건은 하나님 자신의 목적과 기쁨을 위해 일상으로부터 구별된 것이다.

성경에는 네 종류의 거룩이 있다. 구원 이전(*pre-conversion*)의 거룩, 신분상의 거룩, 실제적인 거룩, 그리고 완전한 거룩이 그것이다. 이것에 관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해설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져 있다. 그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구절이다. 독자들은 거룩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히브리서의 여러 구절들을 주의 깊게 살

펴보아야 하며, 각각의 기록이 어떠한 종류의 기록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잘 분별해 보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분이 참 사람이 되셨기 때문이다. 우주를 다스리는 영원한 주권자가 사람이 되셔서 피조물을 향해 형제라고 부르실 만큼 자기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2:12 그 대답은 시편 22편 22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주님은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다. 또한 그 구절에서 주님은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써 자기 자신과 백성들을 동일시하는 주님으로 묘사되고 있다. 주님은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는 순간에도 구속받은 무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그 날을 찬양 중에 바라보셨다.

2:13 그리스도의 인성을 증명하기 위해 유대인의 성경으로부터 두 구절이 더 인용되었다. 이사야 8장 17절에서 주님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에 관해 말씀하신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은 참된 인성의 가장 위대한 표시 중 하나이다. 18절에서는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인용되고 있다. 여기에는 그들이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한 가족의 일원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2:14 인자의 겸손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제 그분의 열정으로 인해 우리에게 임한 네 가지 중요한 축복들에 대해 숙고해

보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그 첫 번째는 “사단의 멸망”이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거룩과 구원과 자유를 위해 그리스도께 주신 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자녀들이 혈육에 속하였으므로 주 예수님도 함께 혈육에 속하셨다. 그분은 자기의 신성을 겉으로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흠(육체)의 옷”으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가리셨다.

하지만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멈추지 않으셨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 주님은 갈보리의 모든 길을 걸으셨다.”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여기에서 ‘멸하다’는 단어의 의미는 존재 자체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안녕 내지는 복지(well-being)의 상실을 의미한다. 그것은 효력의 상실 또는 무소유의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사단은 여전히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대적하는 일들을 활발히 벌이고 있지만 그는 십자가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그의 시간은 촉박하며 그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그는 패배당한 원수이다.

사단이 사망의 세력을 쥐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그가 죽음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죄가 이 세상에 처음 들어오게 된 것은 사단을 통해서였다. 하나님의 거룩은 범죄한 모든 사람들의 죽음을 명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마귀는 그 형벌의 실행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단의 이러한 능력은 이민족(異民族)들 가운데서 그의 대리자 격인 무당이나 마법사들이 어떤 사람에게 저주를 내릴 때 그 사람이 아무 자연적인 원인이 없는데도 죽임을 당하는 데서도 볼 수 있다.

성경에는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신자를 죽게 할 수 있다는 언급이 한 군데도 없다(욘 2:6). 따라서 그는 신자의 죽음의 때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 때로 악인들을 통하여 신자들을 죽일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몸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둘 다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경고하셨다.

구약시대의 성도인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것은 그 당시에는 미래의 사건이기는 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믿는 자로서 그들이 주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휴거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모든 살아있는 신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그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유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계 1:18)를 가지고 계신다.

2:15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두 번째 축복은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십자가 이전에는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을 사로잡아 평생토록 종노릇하게 했다. 구약성경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약간의 빛이 주어지긴 했지만 전체적인 윤곽은 여전히 불확실과 두려움과 절망적인 문제 중의 하나였다. 그 때에는 희미했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후에는 분명해졌다(딤후 1:10).

2:16 세 번째의 놀라운 축복은 “죄에 대한 명확한 이해”이다. 주

남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천사들을 도와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도와주시기 위해서”였다. 여기서 ‘돕다’(give aid to)라는 단어는 ‘붙들어 주다’(to take hold)는 뜻의 ‘에피람바노’(epilambano)를 번역한 것이다. 이 동사의 의미가 어떤 사물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에 ‘강렬하게 사로잡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이 문맥에서의 ‘도와주다’ 또는 ‘구해주다’라는 개념 속에는 그러한 의미가 암시되어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인 유대인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의 영적 자손인 모든 세대의 믿는 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그들이 천사들이 아닌 인간들이라는 것이다.

2:17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점에서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다. 그분은 참으로 완전한 인성을 취하셨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는 이 중요한 한 가지 사실만을 제외하고는 인간의 욕망, 사고(思考), 느낌이나 감정, 그리고 애정의 지배를 받으셨다. 우리의 인성은 외적인 요인인 죄의 영향권 아래 있지만 그분의 인성은 가장 이상적인 것이었다.

그분의 완전한 인성은 하나님과 연관된 많은 사항들에 있어서 “자비롭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기에 적합한 것이었다. 그분은 인간을 향해서는 자비롭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충성된 분이 되실 수 있으시다.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분의 주된 역할은 백성들의 죄를 속해주는 것이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그때까지 어떠한 제사장도 한 적이 없는, 그리고 할 수도 없는 일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흠 없는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이었다. 주

남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기꺼이 죽임을 당하셨다.

2:18 네 번째 축복은 시험받는 자들을 도우시는 것이다. 그분 자신이 몸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받는 사람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분 자신이 직접 시험받는 위치에 서 계셨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실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자격의 문제를 숙고해 보아야 한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자기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을 받으신 것이지 결코 자기 안에 존재하는 죄악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다. 광야에서 마귀에게 받으신 시험은 이러한 진리를 잘 보여준다. 사단은 예수님께 나타나 외적인 자극을 가지고 그분을 시험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결코 자기 안에 존재하는 욕심이나 욕망에 의해 죄에게 시험을 받으실 수 없으셨는데, 그 이유는 그분 안에 죄가 없었으며 죄에게 반응을 보일만한 것이 아무 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분에게는 그것이 온전히 시험이요 고난이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적으로 끊임없이 유혹과 맞서 싸워야 하는 고통을 주는데 반해서, 그것은 주님으로 하여금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시험을 통과하는 고통을 주었을 뿐이다.

3)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3:1-4:13)

3:1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국가적 영웅 중 한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본 서신서 기자의 전략의 세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말 씬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에게 주어졌다. 모

든 참된 신자들은 신분상으로 거룩하며 실제의 생활에서도 거룩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거룩해졌으며 이제 그들 자신의 삶을 통해 거룩함을 나타내야 한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땅에서의 부르심을 받은 것과 비교할 수 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약속의 땅에서의 물질적인 축복을 위해(그들 역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부르심을 받았다. 교회시대의 신자들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축복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으며 장차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해 보라. 그분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으로서 주목을 받으시기에 심히 합당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을 “우리의 사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표하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표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3:2 하나님의 아드님과 모세 사이에는 기꺼이 인정할 만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스럽게 행했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드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하셨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집’은 광야에서의 성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대표한 전 영역을 가리킨다. 그것은 이스라엘 집, 곧 하나님의 옛 지상 백성들이다.

3:3 하지만 그 이상의 공통점은 찾아볼 수 없다. 다른 모든 점에서 주님께게는 비교할 수 없는 우월성이 있다. 첫째로, 주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는데 이는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과 일반이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 자이시며, 모세는 그 집의 일부분일 따름이다.

3:4 둘째로, 주님께서 모세보다 뛰어나신 이유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게 마련이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3절, 골로새서 1장 16절,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은 주 예수님께서 창조 때에 능동적인 대리자(active Agent)로서 역사하셨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피할 수 없는 결론이다.

3:5 그리스도께서 더 뛰어나신 분이심을 증명하는 세 번째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다. 모세는 장차 임하실 메시아에 대해 사람들에게 미리 증거하며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충성했다(민 12:7). 그는 장래에 이루어질 것,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복된 소식에 대해 증거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모세를 믿었더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요 5:46)라고 말씀하신 이유이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은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눅 24:27)

3:6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종이 아니라 아드님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하셨다. 아드님으로서의 그분의 신분은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집은 그분 자신의

집이다.

여기에서 본 서신서 기자는 “하나님의 집”이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한다. 그 집은 주 예수님 안의 모든 참된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사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¹⁾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대하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견고히 붙잡고 있는 것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구원이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역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인내에 의한 것이라는 말이 된다. 그러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만일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인내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실재를 믿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약속에 대한 신뢰심을 잃어버리고 형식과 의식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거듭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음과 같은 경고는 바로 그러한 배교를 경계하기 위함이다.

3:7 본 서신서 기자는 이 책에서 두 번째로 마음을 강박하게 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으며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서는 그분이 처음 시편 기자를 감동하여 “오늘날 그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와 같이 지금도 여전히 시편 95편 7-11 절을 통해 말씀하신다.

3:8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즉시 그 말씀에 귀를 기

1) (3:6) NU에는 “끝까지 견고히”(firm to the end)라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다.

올려야 한다. 그분의 말씀을 의심한다는 것은 그분을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는 것과 일반이며 그분의 노를 격동시킨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범한 역사였다. 그것은 불평과 욕심과 우상숭배와 불신과 반항에 대한 실망스런 기록이다. 예를 들어 르비딤에서 그들은 물이 부족한 것을 불평하며 그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지 의심했다(출 17:1-17). 바란 광야에서 믿음 없는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 찬 악한 보고를 했을 때(민 13:25-29), 백성들은 중 되었던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민 14:4).

3:9 하나님께서는 매우 분노하셔서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것을 명령하셨다(민 14:33-34).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군사들 중에서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민 14:28-30).

이스라엘이 40년을 광야에서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 약 40년 동안 다루신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 결과 A.D 70년 예루살렘이 파괴되어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나라들 가운데로 흩어졌다.

3:10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행위는 하나님의 강렬한 징벌을 초래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항상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고의적으로 그분의 도를 무시하는 행위로 인해 그들을 징벌하지 않을 수 없으셨다.

3:11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셔서 그들이 그분의 안식, 곧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하셨다.

3:12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경험으로부터 우리를 위해 성령님께서 이끌어내시는 적용에 대해 다루고 있다. 히브리서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독자들은 “형제”라 칭함을 받는다. 이것은 그들이 모두 참 신자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살아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불신의 악한 마음을 끊임없이 경계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불신은 항상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한다.

3:13 한 가지 방책은 “피차 권면”하는 것이다.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의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는 형식적인 종교생활에 얽매어 그리스도를 외면하지 말라고 매일 피차 권면해야 한다.

이런 권면을 해야 할 의무가 인도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형제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주목하라. 이것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즉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는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 “오늘”은 은혜 받을 때이자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는 것은 “죄의 유혹으로 인해 강박케 된 마음 상태”를 가리킨다. 죄는 짓기 전에는 종종 아름답게 보인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책망에 대해 변명할 구실을 찾게 만들고, 거룩의 표준을 낮추며, 사람들의 심미안(審美眼)에 호소하는 의식들과, 세

상에서도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는 약속을 제공한다. 하지만 후에는 혐오감만 남을 뿐이다. 그것은 죄 용서함과 무덤 저편에 대한 소망,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허락하지 않는다.

3:14 우리는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된다. 이런 구절들은 종종 구원을 받은 후에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가르치는데 오용된다. 그러나 성경의 일반적인 견해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산 바 되었으며, 믿음으로 받는 것이며, 변화된 삶으로 증명된다는 것임을 고려할 때 그러한 해석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 참된 믿음은 항상 지속성을 갖는다. 우리는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 붙잡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구원을 받은 증거로서 붙잡는 것이다. 믿음은 구원의 뿌리이며, 인내는 그 열매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할 자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자신들이 진실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증명하는 자들이다.”

3:15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편 7-8절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케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반복하면서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에 대한 개인적인 적용을 마친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이 슬픈 권고가 이제 복음을 뒤로하고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다.

3:16 이 장은 이스라엘의 배도를 역사적으로 조명하면서 끝을 맺는다. 연속적인 세 개의 질문과 대답으로 이스라엘의 반항과 도전,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분의 보응을 살펴보면서 본 서신서 기자는 결론을 내린다.

반항(rebellion)-하나님께 반항했던 자들은 바로 “모세의 인도를 받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었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예외였다.

3:17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킴(provocation)-“사십 년 동안” 여호수아의 노를 격동시켰던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약 60만명 정도였으며, 40년이 끝날 무렵 광야에는 그만한 숫자의 무덤으로 장식되었다.

3:18 하나님의 보응(retribution)-그들은 불순종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었다.

간략하나마 이러한 질문과 대답을 상고해 보는 것은 비웃음을 당하던 소수의 참된 신자들을 떠나 종교의 허울만 가지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던 다수의 사람들 편으로 돌아서려는 유혹을 받던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다수가 항상 옳다고 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돌아보는 이 장에서는 오직 두 사람만이 옳았고, 수십만 명은 그릇된 것으로 드러난다.

A. T. 피어슨은 이스라엘이 범한 죄의 심각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그들의 불신은 4중적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했다. (1)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강렬한 비난이었으며, 그분을 거짓말쟁이

로 만들었다. (2)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강렬한 비난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을 연약하고 무능력하여 그들을 인도하기에 부적합한 분으로 간주하는 것과 일반이었기 때문이다. (3) 그것은 그분의 변함없음에 대한 공격이었다. 비록 그들이 그러한 내용의 말을 직접 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눈 대화는 그분이 변덕스러운 하나님이며 그분이 전에 행하셨던 이적들도 지금은 행하실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암시하는 것이었다. (4) 그것은 또한 아버지다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공격이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라고 우리를 격려하시지만 실제로는 약속하신 바를 이행할 의향이 없는 분으로 여겼다.”²⁾

이와는 반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사실이며,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며, 그분의 성품은 변함없이 은혜로우시며, 그분은 너무나 신실하심으로 이행하지 못할 어떠한 소망도 갖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3:19 결론(conclusion)-반항하는 자녀들을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은 ‘불신’이었으며,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람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도 역시 불신이다.

다음 구절은 본 서신서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 중의 하나이다. 종합적인 면에서 교훈의 내용은 아주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의 논점의 정확한 흐름에 대해서는 주석가들 사이에서도 일치되는 견해가 거의 없다.

2) (3:18) Arthur T Pierson, further documentation unavailable.

4장 1-13절의 주제는 하나님의 안식과 그 안식에 들어가기까지의 인내의 필요성이다. 이 부분을 자세히 상고하기에 앞서 성경에 언급된 몇 가지 종류의 안식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1) 하나님께서는 창조사역을 마치신 여섯째 날 후에 안식하셨다(창 2:2). 이 안식은 수고의 결과로 오는 피곤으로부터 쉬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사역에 대한 만족을 뜻한다. 그것은 충만한 만족의 안식이었다(창 1:31). 하나님의 안식은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방해를 받았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 5:17)라고 말씀하셨다.

(2)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안식의 땅으로의 역할이 목적이었다. 그들 대부분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며, 들어간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의도하셨던 것과 같은 안식을 얻는데는 실패했다. 가나안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영원한 안식의 모형과 그림으로 사용되었다. 가나안에 이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예를 들면, 고라, 다단, 아비람) 불신으로 인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현대의 배도자들에 대한 그림이다.

(3) 오늘날 신자들은 주 예수님의 다 이루신 사역을 통해 자기들의 죄값이 치러졌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양심의 짐을 누리고 있다. 이것은 우리 구주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라고 약속하신 안식이다.

(4) 신자들은 또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통하여 안식을 누린다. 구원의 안식이 구원의 확신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임에 반해 이 안식은 섬김의 안식이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5) 마지막으로 하늘나라의 아버지 집에서 믿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안식이 있다. 4장 9절에 표현되어 있는 이 미래의 ‘안식’(Sabbath rest)은 신자가 누리게 될 최종적인 안식으로서 다른 안식들은 바로 이 안식의 모형이요 그림자이다. 이 안식이 히브리서 4장 1-13절의 중요한 주제이다.

4:1 아무도 이 안식의 약속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는 안된다. 그것은 과거에 완전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취되어 짐으로써 이미 끝나버린 약속이 결코 아니다. 따라서 이 구절에 담긴 제안은 아직 유효하다.

하지만 신자라고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확신해야 한다. 다만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아니라면, 그리스도를 떠나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헛된 종교체제로 돌아갈 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

4:2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복음을 들은 자들이다(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의 복된 소식을 들은 자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안식의 복음으로부터 아무 유익을 얻지 못했다.

그들이 실패한 원인에 대해 2절에 관한 번역본을 살펴보면 두 가지 가능한 설명이 언급되어 있다. 새흙정역(NKJV)에 따르면, 그들이 실패한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믿음과 화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말씀의 토대 위에서 행하지 않았다.

새흙정역의 난외주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한

자들과 믿음으로 연합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 즉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은 두 정탐꾼들과 믿음으로 연합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두 경우 모두 주된 개념은, ‘불신’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그들에게 주기로 예비해 놓으셨던 안식을 그들로 하여금 누리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4:3 사고(思考)의 연속성이 이 구절에 와서 모호해진다. 서로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 개의 문장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각 문장들에서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우리는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믿음은 그 문을 여는 열쇠이다. 이미 지적했듯이 오늘날의 신자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양심의 안식을 즐긴다(요 5:24). 하지만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영광의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라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의 안식은 바로 그 미래의 안식을 의미하는 것 같다.

다음 문맥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이점을 강화시켜 준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시편 95편 11절에서 인용). 믿음은 받아들여지게 하되 불신은 내어 쫓게 만든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확신하지만 믿지 않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확신을 가질 수 없었다.

세 번째 문맥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라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 아마 가장 간단한 설명은 앞의 구절들과의 문맥을 살펴봄으로서 가능할 것이다. 앞부분에서 하나님은 안식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미래시제를 사용하셨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미래시제는 어떤 사람들이 불순종으로 인해 그것을 몰수당했지만 하나님의 안식이 아직 선택가능하며, 하나님의 일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4:4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창조사역을 끝마치신 후에 안식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으로 증명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저자가 인용구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성경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 당시에는 장과 절로 나누어져 있지 않던 성경으로부터 성경구절을 인용하는 문학적 기교를 나타낸다. 이 구절은 창세기 2장 2절의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과거시제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안식이 단지 역사적 사건에 속할 뿐 예언적 의미는 없으며 오늘날의 우리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4:5 창조의 사역 후에 하나님의 안식이 마감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기자(記者)는 다시 시편 95편 11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는 미래시제를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그는 “하나님의 안식을 창세기

2장에서 이미 완성된 사건으로 제한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안식을 아직 유효한 어떤 사건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4:6 지금까지의 논증을 통해 우리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계속해서 안식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았다. 안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은 항상 열려져 있다.

광야에서 방랑한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으로 인해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이 약속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4:7 다음 단계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절당한지 500년 후의 다윗의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어떤 기회의 날이 남아있다는 뜻으로 “오늘날”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기자는 이미 3장 7,8,15절에서 시편 95편 7-8절을 인용했다. 그는 이제 그 말씀을 다시 인용하여 하나님의 안식의 약속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다윗의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것과 마음을 강박케 하지 말 것을 간청하고 계셨다.

4:8 물론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들조차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셨던 최종적인 안식을 즐기지는 못했다. 가나안에는 싸움이 있었다. 또한 죄와 질병, 슬픔, 고통, 그리고 죽음이 있었다. 만

일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을 다 소진했다고 가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시대에 또다시 안식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4:9 선행(先行)구절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런 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다.” 여기에서 본 기자는 ‘안식’(sabbatismos)을 뜻하는 또 다른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단어는 *sabbath*와 연관이 있는 단어로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의미한다. 이것은 결코 끝나지 않고 지켜질 영원한 안식이다.

4:10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처럼 수고로부터의 안식을 즐긴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였을 수도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우리를 위해 구속사역을 마치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 자신의 부질없는 노력을 던져버리고 부활하신 구속자를 믿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를 내어주신 분을 위해 사랑의 수고를 하는데 기꺼이 우리 자신을 헌신한다. 우리의 선행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열매이다. 우리는 주님을 봉사하는 일에 싫증을 느끼지는 않지만 가끔 지칠 때도 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수고로부터 자유케 될 것이다. 이것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수동적이 된다는 말이 아니다.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섬기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나 피곤함이나 걱정, 압박, 그리고 고통이 없을 것이다.

4:11 선행구절들은 하나님의 안식이 아직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 구절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 주시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우리는 단지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한 후에 고난과 핍박의 절정의 순간에 그분을 부인하게 만드는 그 어떠한 유혹에도 힘써 대항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경히 여겼으며, 그들이 종 되었던 땅 애굽을 동경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데에 관심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결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 우리는 그들의 본을 보고 경계를 받아야 한다.

4:12 12절과 13절은 불신은 결코 숨기지 못한다는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다. 불신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 받게 된다. 여기에 사용된 말씀을 뜻하는 용어는 요한이 자기의 복음서 서두에 사용한 친숙한 단어인 ‘로고스’(logos)가 아니라 ‘레마’(rhema)라는 단어이다. 이 구절은 살아있는 말씀인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곧 성경을 뜻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living)-끊임없이 그리고 능동적으로 역사한다.

“운동력이 있다”(powerful)-능력이 있으며 또한 능력을 준다.

“찌른다”(cutting)-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쪼갬다”(dividing)-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부분인 혼과 영을 찢어 쪼갬다. 또한, 관절과 골수, 다시 말해 외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관절과, 보이지는 않지만 뼈의 생명인 골수를

찢러 쪼갬다.

“**감찰한다**”(discerning)-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식별한다.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곧 우리를 판단하는 일을 한다.

4:13 둘째로, 불신은 살아 계신 주님에 의해 검증 받게 된다. 여기에서는 대명사가 비인칭에서 인칭대명사로 바뀌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분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아무 것도 그분의 눈을 피할 수 없다. 그분은 절대적으로 전지(全知)하신 분이다. 그분은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언제나 알고 계신다. 물론 이 문맥의 중요한 요점은,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단지 사실에 대한 지적인 동의인지를 그분은 분별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2. 제사장 직분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 (4:14-10:18)

1) 아론의 제사장 직분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4:14-7:28)

4:14 이 구절들은 이 책의 기자가 3장 1절에서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소개했던 자기 생각의 강력한 흐름을 다시금 취하고 있다. 이 말씀들은 그리스도를 그분의 연약한 백성들을 실족함으로부터 지키실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의 원천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이 말씀들은 “모든 것을 면밀히 조사하는 자로서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동정하는 분으로서의 그리스도”로 강조점을 바꾸고 있다. 말씀이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비출 때(12-13절), 우리는 자비와 은혜를 받기 위하여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

우리의 놀라운 주님의 뛰어나신 모습을 주목해 보라.

(1) 주님은 큰 대제사장이시다. 모세의 시대에는 많은 대제사장들이 있었다. 그러나 큰 대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제사장은 한 사람도 없었다.

(2) 주님은 대기권의 하늘과 별들의 하늘을 통과하여 셋째 하늘, 곧 하나님의 처소로 올라가셨다. 이것은 물론 주님의 승천과 아버

지 보좌 우편에서의 영광 받으심을 의미한다.

(3) 주님은 인간이시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분이 출생하실 때에 주어진 이름이며, 특히 그분의 인성과 관계있는 이름이다.

(4)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에 대해 사용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동등하신 분임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주님의 인성(人性)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그분께 자격을 부여하며, 주님의 신성(神性)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분께 자격을 부여한다. 그러므로 그분이 큰 대제사장이라고 불린 것은 지극히 합당하다.

4:15 그 다음에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체휼하심에 대해 숙고해 보아야 한다. 아무도 몸소 다른 사람과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사람을 진실로 동정할 수는 없다. 사람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경험을 체휼하셨으므로 우리가 받는 시험들을 이해할 수 있다. (주님은 결코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체휼하신 것은 아니므로 우리가 범하는 죄까지 동정하시지는 않는다.)

“가슴을 에는 모든 고통…;

간고(艱苦)를 많이 겪으신 자께서는 다 이해하신다네!”

주님은 우리와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신 완전함을 온 힘을 다해 수호하고 있으며, 우리 또한 그래야 한다.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셨으며(고후 5:21), 죄를 범치 않으셨고(벧전 2:22), 그분 안에 는 죄가 없으셨다(요일 3:5).

주님은 하나님으로서든지 인간으로서든지 죄를 지을 수 없으셨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분은 자기 자신의 뜻대로는 아무 것도 하실 수 없었으며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셨다(요 5:19). 그리고 아버지 역시 주님을 죄를 범하도록 인도하실 수 없으셨을 것이다.

주님께서 만약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라면 그분의 시험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은 궤변이다. 시험의 한 가지 목적은 단적으로 말해 그분이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다.³⁾ 만일 당신이 금을 시험한다면, 금은 순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험은 효력이 더 클 것이다. 만일 불순물이 섞여있다면 그 시험이 그것을 드러낼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약 주님이 죄를 범할 수 없는 분이셨다고 한다면, 그분은 완전한 인성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는 주장은 틀린 것이다. 죄는 인성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낯선 침입자이다. 우리의 인성은 죄에 의해 훼손당했다. 그분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만일 예수님께서 한 인간으로서 세상에서 죄를 범하셨다면, 인간으로서 하늘에서 그분이 범죄하지 않도록 막는 것은 무엇인가? 그분이 아버지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실 때에 그분은 자기의 인성을 버려두고 가지지 않았다. 그분은 세상에서 완전한 삶을 사셨던 것처럼 하늘에서도 완전하시다.

4:16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라”는 자비로운 초청이 이어진다. 우리의 담대함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3) (4:15) 신학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범할 수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에 관한 교리를 라틴어의 두 가지 표현, “*non posse peccare*”(not possible to sin-죄를 범할 수 없는)와 “*posse non peccare*”(possible not to sin-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을 통해 분별한다. 이 중에서 참된 교훈은 “*non posse peccare*”이다. 그리스도는 죄를 범할 수 없는 분이시다.

죽으셨으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살아 계시다는 지식에 근거한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그분께 나아올 수 없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분께 접근할 수 있었으며, 그것도 일 년에 단 한번뿐이었다. 우리는 밤낮 어느 때나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자비”를 얻을 수 있다. 그분의 자비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며, 그분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행해야 하지만 행할 힘이 없으므로 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몰건(Morgan)은 다음과 같이 이것을 잘 표현했다.

“나에게는 ‘때를 따라’라고 번역된 헬리어 본문이 그 말과 정확히 일치하는 ‘마침 제때에’라는 말의 구어적(口語的) 표현임을 지적하는 것이 결코 수고로운 일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때에 돕는 은혜와 자비(내가 그것을 꼭 필요로 하는 그 때와 그 장소에 합당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요! 당신은 유혹에 의해 공격을 받습니다. 공격의 순간에 당신은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은혜는 꼭 필요한 그 때에 당신을 돕기 위해 거기 있습니다. 저녁기도시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거기 유혹의 불길로 타고 있는 도시의 거리에서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꼭 필요한 그 때에 당신을 도울 은혜가 거기 있을 것입니다.”⁴⁾

지금까지 예수님은 선지자들이나 천사들, 그리고 모세보다 뛰어

4) (4:16) G. Campbell Morgan, “Choice Gleanings Calendar.”

나신 분으로 소개되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이 아론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 직분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제사장 직분이라는 중요한 주제에 관해 상고해 보자.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그분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수단으로써 인간 제사장 제도를 제정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레위 족속과 아론의 가족으로부터 이어지도록 명령하셨다. 이 명령은 레위 족속, 혹은 아론의 제사장 직분으로 알려져 있다.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또 다른 제사장 직분인 족장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이 구약성경에 언급되어 있다. 그는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오래 전 아브라함 시대에 살던 사람으로 왕과 제사장으로서 봉사했다. 우리가 살펴볼 말씀들을 통해 이 책의 기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라는 것과 이것은 아론의 제사장 직분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처음 네 구절에서 우리는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설명을 읽을 수 있다. 그 다음 5-10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되시기에 합당함이 자세히 주로 대조를 통해 나타나 있다.

5:1 아론과 같은 제사장들의 첫 번째 자격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된 자”여야 한다. 다시 말해 그는 사람이어야만 한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을 위해 행동하도록 임명되었다. 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봉사했던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속한 자였다. 그의 주요한 직분 중의 하나는 “죄를 위한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다. ‘예물’은 하나님께 바쳤던 모든 종류의 헌물(獻物)과 관계있는 표현이며, ‘제사’는 죄를 위한 대속물

로써 피가 흘러졌던 제물들을 의미한다.

5:2 그는 “인간적인 연약함을 동정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했으며, 무지하고 미혹 받는 자들을 온유하게 대해야 했다. 자기 자신이 연약에 휩싸여 있으므로 그는 자기의 백성들이 당면하는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무지하고 미혹당하는 자들’이라는 이 구절의 표현은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고의적이 아닌 죄들을 위한 제사였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고범죄에 대해서는 율법에 용서를 위한 아무런 처방이 주어지지 않았다.

5:3 제사장 자신이 인간이라는 사실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동일시하는 면에서는 도움이 되었지만 그의 죄악된 본성은 장애물이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했다.

5:4 제사장의 직무는 사람들이 직업으로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아론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아야 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로 제한되었었다. 아론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은 아무도 성막이나 성전에서 섬길 수 없었다.

5:5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성(人性)을 입으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신 분이시므로 제사장으로서 합당하심을 증명한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관한 한 그것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셨다. 그것은 신적인 부르심(sov^{er}eign call)이었으며, 인간적인 계보(系譜)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제사장이 가졌던 관계보다 더 나은 관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우리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아들이시며, 영원한 아들이시며, 육신을 입으신 아들이시며, 부활하신 아들이시다.

5:6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더 나은 반열에 속한 것인데, 그 이유는 시편 110편 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월함은 7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될 것이다. 여기에서의 두드러진 사상은 아론의 제사장 직분과는 달리 이 직분은 “영원한” 것이라는 점이다.

5:7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참 인간이다. 이 책의 기자는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그분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겪은 다양한 인간적 경험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분의 삶과, 특히 겐세마네 동산에서의 그분의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들을 주목해 보라. 그분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이 단어들은 모두 그분의 생애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로,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사시는 자로, 그리고 죄와는 상관없이 인간의 모든 감정을 체휼하는 자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기도는 죽음(dying)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기도가 아니었다. 오히려 죄인들을 위해 죽는 것이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의 진정한 목적이었다(요 12:27). 그분의 기도는 사망(death)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함이었으며, 자기 영혼이 음부에 내버려지지 않기를 원

하는 기도였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때 응답되었다. 그분은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으셨다.”

5:8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 어떻게 사람이 되실 수 있었느냐는 성육신(成肉身)의 심오한 진리에 다시 한 번 더 직면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셨지만 한 아들, 즉 많은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다. 이 놀라운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받으신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웠다. 그분이 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분이 만일 하늘에 머물러 계셨더라면 결코 알지 못했을 경험들 속에 자신을 들어가게 했다. 매일 아침마다 그분의 귀는 그날 필요한 교훈들을 아버지께로부터 받기 위해 열려 있었다(사 50:4).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항상 복종했던 아들로서 경험적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5:9 그러한 “순종을 통해 주님은 온전케 되셨다.” 이것이 그분의 개인적인 인격에 관한 언급이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완전한 분이셨기 때문이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사역, 그분의 삶은 온전히 흠이 없으시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분이 온전케 되셨다는 의미일까? 그 대답은 우리의 구주로서의 그분의 직무적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그분이 만일 하늘에 머물러 계셨더라면 결코 우리의 온전한 구주가 되실 수는 없었다. 그러나 육신을 입으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필요했던 일들을 온전히 이루셨으며, 이제 그분은 온전한 세상의 구주

로서의 영광을 획득하셨다.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그분은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근원이시지만 오직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다.

여기에서의 구원은 순종에 대해 조건적이다. 다른 많은 구절들에서 구원은 믿음에 대해 조건적이다. 모순처럼 보이는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의 결과이다(롬 1:5, 16:25-27).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다.” 그러나 구원하는 믿음이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참된 신약성경적 의미로 볼 때, 순종이 없이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5:10 근본적인 제사장 직분을 영광스럽게 완수하신 후에 주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는 칭함을 받으셨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제사장 직분이 아론의 반열의 제사장들에 의해 수행된 그것과 유사하다는 것을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실, 유대의 제사장들의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사역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이었다.

5:11 여기에서 이 책의 기자는 주제를 벗어난다. 그는 그리스도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 직분이라는 주제를 더 다루고 싶어 하지만 할 수 없다. 그는 자기 독자들의 미성숙을 책망하고 동시에 배도의 위협성에 대해 심각하게 경고해야 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부담을 느낀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슬프게도 사실이다. 둔한 귀는 깊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자 하시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받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없는 때가 얼마나 자주 있겠는가(요 16:12).

5:12 이 책의 기자는 히브리인들에게 그들이 오랜 동안 충분히 교훈을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수준에 도달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다. 그러나 비극적인 사실은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그들에게 가르칠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신자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단계까지 성숙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 사람이 서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특별한 가르침의 은사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모든 신자들이 어느 정도 피차 가르치는 사역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사역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가 아니다.

“...젓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육체적인 영역에 있어서 젓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단계로 성장하지 못하는 아이는 심각한 장애에 빠져 있는 아이이다.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형태의 성장장애가 있다(고전 3:2).

5:13 “젓”을 먹는 상태에 머물러 있기만 하는 믿음을 고백한 신자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은 결국 잃어버리게 되며, 영원한 유아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들은 영적인 일들에 대해 예리한 분별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엡 4:14).

5:14 “단단한 영적 식물은 성장한 자들의 것이며,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빛을 순종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양식을 취하며,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판단력을 향상하여 그들 자신을 도덕적, 그리고 교리적 위험에서 구원한다.

이 문맥 속에서 독자들이 “선악을 분별하라”고 요청받고 있는 특별한 의미 속에는 기독교와 유대교의 관계를 올바르게 분별해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유대교 그 자체로서는 아무 악한 것이 없다. 레위기 속의 율법체제는 하나님 자신에 의해 소개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를 미리 예시하기 위한 의도로 주어졌다. 그분은 그림자와 의식(儀式)인 모형들의 실체이시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그분의 그림자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것은 죄이다. 그리스도께 대한 애정과 필적하는 모든 것, 그리고 인간들에 대한 충성은 죄이다. 영적으로 성숙한 신자들은 아론의 제사장 직분의 열등성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우월성의 차이를 이해할 줄 안다.

6:1 5장 11절에서 시작된 경고가 이 장 전체를 통하여 계속된다.

이것은 신약성경 가운데 가장 논쟁이 되는 구절들 중의 하나다. 많은 경건한 사람들도 그 해석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독단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이 부분의 문맥과 나머지 신약성경의 일반적인 교훈과 가장 일치한다고 여겨지는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독자들은 “그리스도 도의 초보”, 즉 문자적 의미로 “그리스도의 초보의 말씀”(the word of the beginning of Christ) 혹은 “그리스도의 기초적인 말씀”(the beginning word of Christ)을 떠나라는 권면을 받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구약성경에서 가르쳐졌던 종교의 기본적인 교리,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케 하기 위해 마련된 교훈을 의미한다고 이해한다. 이러한 교훈들은 1절과 2절 후반부에 목록이 나와 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것이지만 이것들은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리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최종적으로 완성될 건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속성을 가진 교훈들이다. 그 교리들에는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가 빠져 있었다. 본 기자의 권고는 이런 것들이 무익하므로 버리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성숙을 향해 나아가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교리들을 떠나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유대교의 시대는 영적인 유아의 시기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기독교는 완전한 성숙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기초가 놓여졌으며, 그 다음 단계는 그러한 기초 위에 건축하는 것이었다. 교리적인 기초는 구약시대에 놓여졌는데, 여기에는 이하에 제시된 여섯 가지 근본적인 교리들이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이것들은 시작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와 그분의 본체(本體),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관한 신약성경의 위대한 진리들은 성숙

의 단계의 사역에 해당된다.

구약성경의 첫 번째 교리는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이다. 이것은 메시아의 선구자들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선포되었었다. 그들은 모두 믿음이 빠져있다는 의미에서 죽은 행실에서 돌아서라고 사람들에게 촉구했다. 여기에서의 죽은 행실이란, 이전에는 옳은 일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무익한 행동들을 가리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성전 예배와 관련된 모든 봉사들은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의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고 말았다.

둘째로, 이 책의 기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대해 언급한다. 이것은 또다시 구약성경의 강조점에 대한 언급이다. 신약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의 대상이신 분으로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무용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빠뜨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이제 합당하지 않다.

6:2 “침례”에 대한 교훈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침례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⁵⁾ 그것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생활 속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던 씻는 의식을 가리킨다(9장 10절을 참조하라).

“안수의식”은 레위기 1장 4절과 3장 2,16,21절에 묘사되어 있다. 제사장은 제물을 바치는 자와 제물을 동일시하는 행동의 표시로써 동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 동물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 이러한 의식은 대속(代贖)의 진

5) (6:2) 이 구절은 원문의 단어들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세례”(baptism)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는 “*baptisma*”인데, 원문(原文)에서는 “의식적인 씻음”(ritual washings)의 의미하는 “*baptismoi*”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리를 모형적으로 보여주었다. 우리는 이 안수의식이 초대교회 시절에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행해진 안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믿는다(행 8:17, 13:3, 19:6).

“죽은 자의 부활”은 욥기 19장 25-27절과 시편 17편 15절에서 가르쳐지고 있으며, 이사야 53장 10-12절에 암시되어 있다. 구약성경에 단지 희미하게 보여지던 것이 신약성경에는 새 것으로 밝히 드러나 있다(딤후 1:10).

구약성경의 마지막 근본적인 진리는 “영원한 심판”에 관한 것이었다(시 9:17; 사 66:24). 이러한 첫 번째 원리들은 유대교를 대표하는 것이었으며,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준비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것들에 만족하여 머물러 있지 말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더 완전한 계시를 향해 나아가야 했다. 독자들은 “그림자에서 실체으로, 상징에서 원형(原形)으로, 표면적인 것에서 핵심으로, 자기 조상들의 종교적인 죽은 형식에서 살아 계신 실체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고 요청 받고 있다.”

6:3 본 서신서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하는 자기의 소원을 토로한다.⁶⁾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가 아니라 그들 편에서 제한적인 요소가 존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완전한 영적 단계에 이르게 하실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진실한 믿음과 인내로써 능동적으로 말씀에 반응해야만 한다.

6:4 우리는 이제 배도에 대한 경고의 심장부에 와 있다. 이 경고

6) (6:3) 대부분의 사본에는 “...And let us do this”라고 기록되어 있다.

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틀림없이 이 사람들은 전에 회개를 경험했던(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사람들이었다. 이제 다시 새로워지는 회개는 불가능하다는 명백한 언급이 나온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 대답은 4절과 5절에 나와 있다. 우리는 그들이 맛보았던 놀라운 특권들을 조사해봄으로써 이 모든 진술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실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들이 거둬냈었다는 명백한 언급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그들이 맛본 그러한 근본적인 요소들이 구원받는 믿음, 주님의 피에 의한 구속 또는 영생이라는 언급도 나오지 않는다.

그들은 “한 번 비침을 경험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었다. 그들은 구원의 도에 대해 어둡지 않았다. 가룟 유다는 비침을 경험했었지만 그 빛을 거절했다.

그들은 “하늘의 은사(恩賜)를 맛보았다.” 하늘의 은사는 바로 주 예수님이시다. 그들은 그분을 경험했지만 분명한 믿음의 행동에 의해 그분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먹어보거나 마셔보지 않고서도 맛을 음미할 수는 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쓸개 탄 포도주를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을 맛보셨지만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마 27:34). 그리스도를 맛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인자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지 않고는, 다시 말해 진심으로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는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요 6:53).

그들은 “성령에 참여한 자였다.” 우리는 이것이 틀림없이 구원받았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기 전에, 성령님께서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구원의 예비적 사역을 수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

다. 성령님께서서는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며(고전 7:14), 형식적인 특권의 위치에 놓기도 하신다. 그분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믿지 않는 자를 책망하신다(요 16:8). 그분은 사람들을 이끌어 회개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야말로 그들의 유일한 소망임을 증거해주신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성령님의 내주(內住)를 경험하지 않고서도 성령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

6:5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서 자신도 모르게 감동을 받아 그것에 이끌렸다. 그들은 돌발 위에 떨어진 씨앗과 같았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였지만 자신들 안에 뿌리가 없었다. 그들은 잠시 동안 인내했지만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닥쳐오자 곧 믿음을 저버렸다(마 13:20-21).

그들은 “내세의 기쁨을 맛보았다.” 여기에서 능력은 “기적”을 의미한다. ‘내세’란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세상을 다스리실 때 임할 평화와 번영의 미래, 즉 천년왕국 시대를 말한다. 초대교회 시절에 복음의 전파와 함께 역사했던 기적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행해질 이적과 기사들의 전조(前兆)였다. 이 사람들은 1세기에 행해진 기적들에 대해 증인이었으며, 사실 그들은 그것에 참여한 자들이었다. 오병이어(五餅二魚)의 기적을 예로 들어보자. 예수님께서 오천 명을 먹이시는 것을 본 후 사람들은 강 저편까지 예수님을 따랐다. 구주께서는 그들이 기적을 맛보았지만 진심으로 자기를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셨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

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요 6:26).

6:6 앞에서 언급한 특권들을 맛본 후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⁷⁾ 그들은 배도하는 죄를 지었으며, 빛이 지옥으로 향하는 길을 비추는 지점까지 나아간 자들이다.

배도자들의 엄청난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라는 표현 속에 나타나 있다. 이것은 단순히 그분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그분을 경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그분에 대한 적극적인 배도와 그분을 반대하는 세력과의 연합, 그리고 그분의 본체와 사역을 비웃는 것을 가리킨다.

배 도

배도자들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 후 그리스도인의 교회에 헌신하다가 그 다음에는 자신들의 믿음의 고백을 내던지고 단호히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저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과 함께 하는 자들이다. 배도는 미혹당한 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의식적이고도 고의적이며 악의적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불신자들에 의해 저질러질 수 있는 범죄이다.

이것은 복음을 들었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평범한 불신자들의 죄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반복적으로 초청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께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는 배도자는 아니다. 그는 만일 자신을 구주

7) (6:6) NKJV의 각주의 번역이 더 훌륭하다. 문맥과 어형(語形) 면에서 “and fallen away”이라는 표현이 선행구절들과 더 일치한다.

께 의탁하기만 한다면 여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 물론 그가 불신 가운데 죽는다면, 그는 영원히 잃어진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가 주님께 대한 믿음을 행사한다면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배도는 타락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참된 신자도 그리스도를 멀리 떠나 방황할 수 있다. 그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 있을 뿐이다. 그는 심지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지점에까지 나아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죄를 자백하고 버리기만 한다면 충만한 교제를 회복할 수 있다(요일 1:9).

배도는 복음서에 언급되어 있는 죄 사함 받을 수 없는 죄와는 다르다. 그것은 주 예수님의 기적을 귀신의 왕에 의한 것이라고 비방한 죄였다. 그분의 기적은 실제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해진 것이었다. 그러한 기적을 마귀에 의한 것이라고 한 것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성령님을 마귀라고 부르는 것과 일반이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와 같은 죄는 이 세상에서나 혹은 오는 세상에서 결코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막 3:22-30). 배도는 영원한 죄이며 그 결말도 같다는 점에서 성령님을 훼방하는 죄와 비슷하다.

나는 배도가 요한일서 5장 16절에 언급된 “사망에 이르는 죄”와 같다고 믿는다. 요한은 신자라고 고백하고 지역교회의 활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관해 쓰고 있었다. 그들은 나중에 노스틱(Gnostics) 학파의 거짓된 교리를 받아들여서 반감을 품고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를 떠났다. 그들이 고의적으로 떠난 것은 그들이 결코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요일 2:19).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공개적으로 부인함으로써(요일 2:22), 그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으며, 그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무익한 일이다(요일 5:16).

진지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히브리서 6장이나 비슷한 다른 구절들을 읽을 때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 사단은 특히 이런 구절들을 사용하여 육체적, 정신적 혹은 감정적인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동요시킨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졌으며 회복할 소망이 없다고 두려워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지점을 넘어 표류하고 있다고 염려한다. 그들이 그런 것에 관해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배도자가 아니라는 단적인 증거이다. 배도자들은 그러한 두려움을 갖지 않을 것이며, 뉘우침이 전혀 없이 그리스도를 부인할 것이기 때문이다.

배도하는 죄가 신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죄는 우리 시대에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예를 들어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잠시 빛 가운데서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생활에 어떤 변화를 보이는 젊은이에게 적용된다. 그는 혹독한 핍박을 당하는 중에 있을 수도 있다. 또 엄청난 부도덕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 혹은 대학생활 중에 무신론자인 교수의 반기독교적 주장에 의해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 진리를 충분히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고의적으로 진리에서 돌아선다. 그는 완전히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관한 모든 근본적인 교훈들을 악의적으로 짓밟는다. 성경은 그런 사람이 회개하여 다시 회복되거나 성경에 대한 확증을 다시 경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난 많은 사람을 알고 있다. 하지만 한 사람도 그분께 다시 돌아 온 사람은 보지 못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배도의 물결

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살후 2:3; 딤편 4:1). 그러므로 배도에 대한 경고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에 더욱 시기적절한 교훈이다. ♠

6:7 이제 이 책의 기자는 참된 신자(7절)와 배도자(8절)에 대한 대응물을 찾고자 자연계로 들어간다. 두 경우 모든 사람은 땅에 비유된다. 4절과 5절에 언급된 특권들은 원기를 돋우는 비에 비유되어 있다. 식물의 수확은 그러한 특권을 받은 사람의 궁극적인 반응을 표현한다. 이것은 또한 그 땅이 축복받은 땅인지 저주받은 땅인지를 드러내준다.

참된 신자는 “비를 흡수하여 유익한 채소를 내고”, 하나님에 의해 축복을 받은 땅과 같다.

6:8 배도자는 비를 잘 흡수하기는 했지만 가시와 엉겅퀴, 즉 죄의 열매 외에는 아무 것도 생산하지 못한 땅과 같다. 그것은 받아들이지는 했지만 결코 유익한 식물을 내지 않는다. 그것은 쓸모 없는 땅이다. 그것은 이미 저주를 받았으며, 그것의 운명은 불에 살라지는 것이다.

6:9 9절과 10절에는 앞부분에서 묘사된 배도자들이 불신자임을 뜻하는 두 개의 강력한 암시가 있다. 첫째로, 대명사의 갑작스런 변화가 돋보인다. 배도자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they)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참된 신자들에 대해 말할 때는 “너희”(you), 그리고 “너희의”(your)라는 대명사를 사용한다.

두 번째 암시는 더욱 명확하다. 그는 신자들에게 “사랑하는자들

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라고 말한다. 그가 4-6절, 그리고 8절에서 서술한 내용에는 구원에 대한 언급이 없다.

6:10 구원에 수반되는 두 가지 사항, 즉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는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사랑의 수고’였다. 그들의 믿음은 선한 행위의 삶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들은 믿음 안의 성도들을 위한 능동적인 사랑으로 참된 기독교의 특징을 실천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그분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계속했다.

6:11 다음 두 구절은 다른 부류의 사람들, 즉 이 서신서의 기자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쓰여진 것 같다. 이 사람들은 유대주의로 돌아갈 위험에 처해 있는 자들이었다.

첫째로, 히브리서 기자는 참된 신자들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실현함으로써 보여주었던 것과 “동일한 부지런함”을 그들이 보여주기를 소원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소망이 하늘에서 실현될 때까지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계속 견고히 서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진실하다는 증거였다.

6:12 그들은 자기의 발을 뒤쳐지게 하거나 자기의 마음을 나태해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힘을 내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참된 모든 신자들을 본받아야” 한다.

6:13 6장의 마지막 부분은 확신과 인내를 가지고 전진하라는 12

절의 권고와 연결되어 있다. “아브라함”의 예가 믿는 자의 소망이 확실하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자극과 확증으로서 제시된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가 손해인 것처럼 보인다. 그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포기한 사람이며, 자기 믿음에 대하여 보여줄 만한 눈에 보이는 아무런 형체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모든 것은 장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렇다면 그가 자기의 소망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는가?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하나님께서 장래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실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 약속 안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을 때, 그분은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크이가 없으므로 그분 자신으로 맹세하셨다.”

6:14 그 약속은 다음과 같은 창세기 22장 16-17절 말씀 안에 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맹세하셨으며, 그러므로 그것의 성취는 확실한 것이었다.

6:15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으며 “인내로써 견디었다.” 그리고 그는 실제적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요행을 바라지 않았다. 그 약속이 깨어질 위험은 전혀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우주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다. 하나님의 어떤 약속도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던 것이나 다름없이 그 약속의 성취는 분명하다.

6:16 인간사에 있어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보다 더 큰 사람으로 맹세한다. 예를 들어 법정에서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겠다고 약속한 후에 “오, 하나님 맹세하였사오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는 말을 덧붙인다. 그들은 자신들이 말하려는 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 하나님께 호소한다.

사람들이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 맹세를 할 때, 그 맹세는 보통 모든 논쟁을 끝맺게 한다. 그것은 그 맹세로써 그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고 이해되어지기 때문이다.

6:17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그분 자신이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하기를 바라셨다. 실제로 그분이 맹세 없이 약속만 하셨더라도 충분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 이상으로 그것을 더 확증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에다가 ‘맹세’를 더하셨던 것이다.

“약속을 기점으로 받는 사람들”은 믿음으로써 신실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모든 사람들이다. 이 약속이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에 대한 약속을 하셨을 때, 그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하고 완전하게 성취되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축복들은 그 약속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6:18 신자들은 이제 의지할만한 “변치 않는 두 가지 사실, 곧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맹세”를 가지고 있다.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한 그 어떠한 것도 상상할 수 없다.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신다. 그 다음에 그분은 그것을 맹세로써 확증하신다. 재론할 필요가 없는 결론은 “신자들은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이다.

6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본 저자는 네 가지 표현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온전한 진실성에 대해 확신을 심어준다. (1) 피난처(a city of refuge), (2) 닻, (3) 앞서 가신 이(forerunner), (4) 대제사장.

먼저, 참된 신자들은 이 멸망의 세상으로부터 피해 ‘하늘의 피난처’로 가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들의 여정을 격려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기의 말씀과 맹세에 근거한 쇠하지 않는 소망을 주셨다.

6:19 삶의 시련과 폭풍 속에서 이 소망은 ‘영혼의 닻’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리라는 것을 아는 지식은 이미 실현되어 회의와 절망의 사나운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만큼 확실하다.

닻은 요동하는 이 세상의 모래밭에 내려진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소 안에 내려졌다. 우리의 소망은 닻과 같기 때문에 그것은 휘장 안의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안전을 의미한다. 닻이 그곳에 안전하게 있듯이 우리 또한 그곳에 있게 될 것이다.

6:20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앞서 가신 자’로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분의 임재는 궁극적으로 그분께 속한 모든 자들이 그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에 대한 보증이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보잘

8) (6:18) 대부분의 사본에는 “might have strong consolation”라는 가정법(subjunctive)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We have strong consolation”과 같은 직설법(indicative)의 형태로 기록되었다. 후자의 표현이 보다 정확하다.

것없는 신자라 할지라도 이미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에 있게 될 거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앤더슨(Anderson)은 이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앞서 가신 이’(forerunner)라고 번역된 단어는 다른 신약성경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 단어는 레위 계통의 직분에서는 결코 생각할 수 없는 사상(思想)을 표현하고 있다. 왜냐하면 오직 대제사장만이 대표자로서 지성소 안에 들어갔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무도 따라 들어갈 수 없는 장소에 들어간 사람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앞서 가신 예수님은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 역시 있게 될 거라는 보증이 되신다. 앞서 가신 이로서 그분은 (1) 우리의 장래의 있을 곳이 ‘거기’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으며, (2) 우리를 대신해서 하늘의 영광을 소유하셨으며, (3) 자기 백성들이 자기가 있는 그곳으로 들어올 때 그들을 환영할 수 있으며, 하늘나라의 왕 앞에 그들을 세울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⁹⁾

네 번째 표현은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이다. 우리 주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분의 영원한 대제사장 직분은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리라는 확실한 보증이다. 우리가 그분의 죽음에 의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것이 분명한 만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는 그분의 생명에 의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역시 분명하다(롬 5:10).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으로서 언급한 것은 우리에게 이 주제가 5장 10절에서 이 책의 기자가 당시 확산되고 있던 배도에 대한 경고를 하다가 잠시 중단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이제 그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이 아론의 그것보

9) (6:20) D. Anderson-Berry, *Pictures in the Acts*, p. 36ff.

다 더 뛰어나다는 본래의 주제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는 능숙하게 토론의 주제로 되돌아간다.

7:1 ‘멜기세덱’은 인간 역사의 무대에 잠깐 동안 나타났다가 사라진 불가사의한 인물이었다(창 14:18-20). 수세기가 지난 후에 그의 이름은 다윗에 의해 언급되었다(시 11:4). 그 다음에 또 몇 세기가 지난 후에 그 이름은 히브리서에 다시 등장한다.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난 모형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그의 생애의 자세한 면모를 제시해 놓으셨다는 것이다.

7장의 처음 세 구절에서 우리는 그에 관한 몇 가지 역사적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그가 왕과 제사장의 직무를 겸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 그는 살렘(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일컬어짐) 왕이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는 자기 백성들의 정치적, 영적 지도자였다. 물론 종교적인 것과 비종교적인 것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이상(理想)이었다. 죄악된 인간이 다스릴 때 교회와 사회가 분리되게 되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통치를 하실 때만이 그 둘의 연합이 가능하다(사 32:1,17).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군사적인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그를 만나 축복해 주었다. 이 행동의 의미는 7절에 담겨져 있다. 만일 우리가 구약성경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행동의 깊은 의미를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7:2 아브라함은 전리품의 십분의 일을 왕이자 제사장인 이 수수

끼끼 같은 인물에게 주었다. 다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십일조의 숨은 의미를 알기 위해서 4절과 6절, 그리고 8절로 10절을 상고하기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 준다. 우리는 벨기세텍이라는 이름과 그의 칭호에 관해 배운다. 그의 이름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며, 그의 칭호(살렘 왕)는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다.

의(righteousness)가 먼저 언급되고 그 다음에 평강(peace)이 언급된 것은 의미가 있다. 먼저 의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평강이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 십자가에서, “공호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시 85:10). 구주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의로운 요구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다.

7:3 벨기세텍에 관한 수수께끼는 그가 “아버도 없고 어미도 없으며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는 말씀을 읽을 때 더욱 깊어진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진술을 그 문맥에서 떼어놓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가 하늘이나 혹은 다른 행성에서 온 방문자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해의 열쇠는 이 진술의 문맥 속에 있다. 여기에서의 주제는 제사장 직분이며, 본 저자는 벨기세텍의 제사장 직분과 아론 계통의 제사장 직분을 구분하고 있다. 아론 계통의 제사장 직분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레위 족속이나 아론의 가족

으로 태어나야 했다. 족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또 그의 자격은 출생으로 시작하여 죽을 때까지였다.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은 아주 달랐다. 그는 제사장의 가족으로 출생함으로써 제사장 직분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주권에 의해 그를 택하여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의 제사장 직분에 관한 한 그는 아비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 그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리고 그의 출생이든 그의 죽음이든 그에 대한 기록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그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하다.

우리는 멜기세덱이 결코 부모가 없거나 태어난 적도 없거나 죽은 적도 없다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그것은 초점이 아니다. 문제는 제사장으로서의 그의 사역이 그런 것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제사장 직분과 관련해서 필수불가결한 이러한 계보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은 것이다.

그는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의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사람”이었다.

이제 이 책의 기자는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이 아론의 제사장 직분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 그 증거에는 세 가지 논증이 있다. 그것은 십일조와 축복에 관한 논증,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대신한 직무의 변화에 관한 논증, 그리고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의 영원성에 관한 논증이다.

7:4 4절부터 10절까지에서 우리는 첫 번째 논증을 다룬다. 그것은 독자들에게 멜기세덱의 뛰어난에 대해 숙고해보라고 요청하면

서 여느 때와는 다른 감탄적인 어조로 시작한다. 아브라함은 족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전리품의 십분의 일”을 바쳤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들 중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십일조를 받은 멜기세덱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없다.

7:5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율법에 의해 자기 민족으로부터 십분의 일을 취하도록 허락되었다.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그들의 신실한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온 자기들의 족보를 조사했다.

7:6 그러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십분의 일을 취했을 때, 그것은 비인습적이고 특별한 취급이었다. 메시아가 나올 민족의 조상으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백성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경의를 표한 것이다.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은 인종의 벽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또 한 가지 의미 깊은 사실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것이다. 그는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며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말했다(창 14:19,20).

7:7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그것은 보통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축복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것은 물론 인격적, 도덕적인 면에서의 월등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신분적인 면에서 월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증들을 구약성경에 근거하여 검토할 때, 우리는 이스라

엘 독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을 지를 그려보아야 한다. 그들은 항상 아브라함을 가장 위대한 민족적 영웅으로 존경했으며 그것은 타당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아브라함이 비유대인 제사장을 자기보다 높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다. 한 번 생각해 보라! 이 기사는 그들의 성경에 항상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그것을 한 번도 주목해 본 적이 없었다.

7:8 아론 계통의 제사장 직분에 있어서는 십분의 일이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에게 드러졌다. 각 제사장은 자기의 세대 동안에만 섬기고 그 다음에는 다음 세대에게 그 임무를 넘겨주는 제사장 직분의 끊임없는 계승이 있었다. 멜기세덱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의 죽음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는 그 직무가 영원하다는 점에서 독특한 한 제사장을 충분히 상징적으로 나타내 줄 수 있다.

7:9 아브라함으로부터 십분의 일을 취함으로써 멜기세덱은 실질적으로 레위에게서 그것을 취한 것이다. 레위는 제사장 족속의 머리였으므로 그것은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쳤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멜기세덱이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 결과가 되는 것이다.

7:10 과연 어떠한 사고의 연결고리에 의해서 레위가 멜기세덱에게 십분의 일을 드렸다고 말할 수 있는가? 첫째로, 아브라함은 실제로 십분의 일을 바친 사람이었으며 레위의 조상이었다. 레위는 비록 태어나지 않았을 때였지만 그는 아브라함의 허리, 즉 족장 아브

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날 운명을 지니고 있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십분의 일을 바쳤을 때 자기의 모든 후손들을 위해 대표자로서 행동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레위, 그리고 그로부터 이어질 제사장들은 멜기세덱과 그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 두 번째 위치를 얻은 것이었다.

7:11 우리는 11-20절에서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이 아론의 제사장 직분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두 번째 논증을 대하게 된다. 그 논증이란, 제사장의 직분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을 대신하는 것이었다. 만일 후자의 것이 그 목적을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이루었다면,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는 ‘온전함’(perfection)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죄는 결코 제거되지 않았으며, 예배자는 결코 양심의 안식을 얻지 못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 세워진 제사장 직분은 궁극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제 다른 종류의 제사장 직분이 효력을 갖게 되었다. 드디어 완전한 제사장이 나타났으며, 그의 제사장 직분은 아론의 반차를 좇은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것이었다.

7:12 제사장 직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은 그 제사장 직분의 근거가 되었던 율법적인 구조 역시 바뀌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이것은 대단히 근본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모든 옛 질서의 종말을 고하며, 새로운 질서의 도래를 알리는 표시이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7:13 율법 안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레위 자손의 율법에 의해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없도록 금지된 지파에 속하셨다는 사실로 보아 명백하다.

7:14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신 가계(家系)는 유다 지파이다. 모세의 율법은 그 지파에 속한 어느 누구도 제사장이 되도록 위임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율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7:15 이 책의 기자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율법에 크나큰 변화가 있었다는 또 다른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멜기세덱과 같은 특별한 제사장이 일어났으며, 그리고 그 직무에 대한 그의 자격이 아론의 아들들의 그것과는 아주 다르다는 것이다.

7:16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육체의 혈통에 관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킴으로써 적법하게 임명되었다. 그들은 레위 지파나 유다의 가계에 출생해야만 했다.

하지만 주님께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다. 그것은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본체적이고 원래부터 소유하고 있는 능력의 문제이다. 그분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다.

7:17 이것은 다윗이 메시아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 미리 내다보고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한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의해 입증된다. 여기에서의 강조점은 ‘영원히’라

는 말씀에 있다. 그분의 생명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도 결코 다함이 없다.

7:18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을 세운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하기 때문에 폐하여졌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취소되었다.

어떤 의미에서 율법이 연약하고 무익하다는 것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었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연약하고 무익한 것을 주실 수 있는가?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사장 직분의 궁극적인 법으로 의도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상적인 제사장 직분이 도래할 것에 대한 준비였다. 그것은 완전하고 최종적인 제사장 직분에 대한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그림이었다.

7:19 그것은 또한 아무 것도 온전케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연약하고 무익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성소 안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결코 들어갈 수 없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러한 어쩔 수 없는 간격은 죄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을 끊임 없이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더 나은(좋은) 소망”이 생겼다. 더 나은 소망은 주 예수님 자신이다. 그분을 자기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완전한 중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7:20 변화는 제사장 직분의 반열과 제사장 직분에 대한 율법에 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제사장 직분에 취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일어났다. 여기서의 논의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과 관련된 하나님의 맹세의 의미에 대한 것이다. 맹세는 변개시킬 수 없으며 영원한 어떤 것을 소개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레인스베리(Rainsbury)는 이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세야말로 실로 우리의 복스러우신 주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의 효험과 영원함에 대한 보증이다.”¹⁰⁾

7:21 아론의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임명되었다. 그러므로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그들의 제사장 직분은 예비적이며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임명하실 때에는 맹세로써 친히 말씀하셨다. 맹세의 형식은 시편 110편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핸드릭슨(Henderson)은 다음과 같이 이것을 표현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기 보좌의 영원한 진리와, 그리고 자기 성품의 불변의 속성들을 그리스도의 임무 뒤에 놓으셨다. 만일 그것들이 변한다면, 새로운 제사장 직분도 변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제사장 직분은 영원하다.”¹¹⁾

7:22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맹세에 의한 것일 뿐 아니라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는 말씀이 이어진다. 아론 계통의 제사장 직분은 옛 언약의 일부분이었다. 그

10) (7:20) A. W. Rainsbury, “Able to Save to the Uttermost,” *The Keswick Week, 1958*, p. 78.

11) (7:21) George Henderson, *Studies in the Epistle to the Hebrews*, p. 86.

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새 언약과 관계가 있다. 언약과 제사장 직분은 함께 시작되고 또 함께 끝난다.

새 언약은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의 왕국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과 맺으실 무조건적인 은혜의 동의이다(렘 31:33-34). 오늘날 신자들은 새 언약의 축복의 일부를 즐기고 있다. 하지만 새 언약의 완전한 성취는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회복되고 구원받을 때 비로소 실현될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분 자신이 보증이시라는 의미에서 새 언약의 보증이다. 자신의 죽음과 장사,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의로운 기초를 놓으셨다. 그분의 영원한 제사장 직분 역시 그 언약의 조건들이 틀림없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7:23 우리는 이제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의 위대함에 관한 세 번째이자 마지막 논증을 다루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그 수가 많았다. 이스라엘의 역사 동안 84명의 대제사장들이 있었으며, 그 밑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다. 제사장들이 하는 임무는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다른 사람의 손을 필요로 했다. 그들의 사역은 이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방해받을 수밖에 없었다.

7:24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제사장 직분에는 그러한 장애가 없다. 그분의 제사장 직분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지 않으며, 그 직분의 효력에 있어서 어떠한 방해물도 없다. 그것은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다.

7:25 그분은 영원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또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죄인들을 죄의 형벌로부터 구해 주시는 그분의 사역을 언급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로 본 서신서 기자는 성도들을 죄의 권세로부터 구해 주시는 그분의 사역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 말씀은 구주로서의 그분의 역할을 말하고 있다기보다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분의 역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신자들은 잃어질 염려가 전혀 없다. 그들의 영원한 안전은 그들을 위한 그분의 영원한 중보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분은 또한 하나님 우편에서의 성도들을 위한 그분의 현재의 사역이 죽음에 의해서 결코 방해받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

7:26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그분의 본체적인 뛰어남으로 인해 아론의 제사장들보다 훨씬 뛰어나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온전히 거룩하시다. 그분은 사람들을 다루심에 있어서 간계와 꾀사가 없으시다. 그분은 개인적인 인격 면에서 흠이 없으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로서 그분의 삶은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 지금 그리고 영원히 그분의 지극한 영광을 볼 때 그분은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시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7:27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과는 달리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날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시다. 그 이유는 그분이 단번에 영원히 이루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실 필요가 없다. 그분이 이전의 제사장들과 다른 세 번째 놀라운 점은 그분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

서 자기 자신을 드리셨다는 것이다. 그분은 제물로서 자기 자신을 드리셨다. 이 주님의 은혜는 놀랍고도 비길 데 없는 은혜이다.

7:28 율법은 인격적인 면에서 약점을 가진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들은 의식(儀式)에 의해서만 거룩함을 입었을 뿐 언약과 실패에 휩싸인 인간들이다.

율법 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맹세는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맹세는 이 장(章)의 21절에 언급되어 있으며, 시편 110편 4절로부터 인용되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부분에는 조금 암시만 주어져 있다. 인간의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한 제사장 직분에 의해 대치되었다. 구약성경 이후에 인간이 인간제도에 의해 제사장적인 체계를 세우고 우리의 위대하신 대제사장의 사역을 흉내 내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인가!

2) 아론의 사역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의 사역(8장)

8:1 다음 구절들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아론의 사역보다 뛰어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이유는 그분이 “더 나은 성소”에서 (1-5절) 섬기셨으며, “더 나은 언약”(7-13절)과 관련된 사역을 담당하셨기 때문이다.

이제 이 책의 기자는 자기의 논증의 핵심에 와 있다. 그는 이미 논의된 사항을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서신서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대제사장이 있다. 우리에게 놀라운 대제사장

이 있다는 말속에는 승리의 감정이 들어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성막과 제사장 직분이 있다. 우리에게는 제사가 있고, 의식이 있다. 우리는 성전과 아름다운 제사장의 의복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던 유대인들의 비방에 대한 대답이다.

신자들의 확신 있는 대답은 이렇다. “물론 그 말은 사실이다. 하지만 당신들은 그림자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것이 성취된 것을 보고 있다. 당신들은 의식을 자랑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다. 당신들은 모형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바로 그 본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제까지 다른 어떤 대제사장도 자기 일을 완수한 확신을 가지고서 거기에 앉은 사람이 없으며, 아무도 그러한 명예와 권세의 자리에 오른 적이 없다.”

8:2 그분은 하늘의 성소에서 백성들을 섬기신다. 이것은 참 장막이며, 땅에 있는 장막은 이것의 단순한 모형이요 본이다. 참 장막은 땅의 장막처럼 사람에게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 세워진 것이었다.

8:3 대제사장의 주요한 임무 중의 하나는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 역시 이것을 행하셔야만 한다는 말씀이 이어진다.

‘예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형태의 헌물을 일컫는 일반적인 용어이며, ‘제사’는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예물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드리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9장에 이르기까지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어져 있지 않다.

8:4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무슨 예물을 드리시는가의 문제는 잠시 접어두고 그분이 만일 땅에 계셨다면 성막이나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는 자는 되지 않으셨을 거라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 우리 주님은 유다 자손의 계보에서 태어나셨으며, 레위 지파나 아론의 가족으로 오지 않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서 성소에서 섬기는 자격을 얻지는 못하셨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을 읽을 때 그분이 성소나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주변 지역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 어떠한 대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셨으며, 또한 그분이 제사장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단지 그분이 승천하신 후의 일인지에 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4절의 핵심은 그분이 세상에서는 레위의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는 없었으며,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섬길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요컨대, 요한복음 17장의 주님의 기도는 대제사장의 기도이며, 그분이 갈보리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리신 것은 분명히 제사장으로서의 행동이었다(2:17 참조).

8:5 땅에 있는 성막은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이었다. 성막의 제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그분께 접근할 수 있었던 양식을 묘사하는 것이었다. 맨 먼저 바깥뜰을 두른 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번제단이 있었으며, 다음에는 물두멍이 있었다. 그곳을 거쳐 제사장들이 성소로 들어갔으며, 하나님이 자

기 자신을 나타내셨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갔다.

성막은 결코 하나님이 거하시는 궁극적인 거룩한 장소로 지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모형이요 그림자였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도록 부르셔서 그에게 성막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명확한 청사진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형은 더 높은 곳, 하늘에 있는 영적인 실체에 대한 본(本)이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이토록 힘주어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림자를 좇는 데서 돌이켜 참 형상으로 나아가야만 할 때에 오히려 참 형상을 떠나 그림자에 불과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유혹을 받을지 모를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함이다.

5절은 구약시대의 제도가 하늘에 있는 실제의 모형이라는 교훈을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 그러므로 그것은 근거 없는 상상력에 의해 인도되지 아니하고 성경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지켜진다면 예표론적인 가르침을 정당하게 지지해 준다.

8:6 이 구절은 더 나은 성소라는 주제에서 “더 나은 언약”에 대한 토론으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직분과 아론의 제사장들의 직분이 대조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직분은 그분이 증보하시는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뛰어난 만큼 아론의 제사장들의 직분과 비교하여 훨씬 더 뛰어나다.

두 번째로는 그 이유가 제시되어 있다. 즉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에 근거한 것이므로 옛 언약보다 낫다. 그리스도의 직분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좋은 직분이다. 그분은 동물이 아니라 바로 자

기 자신을 드리셨다. 그분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의 가치를 드리셨다. 그분은 죄를 단지 덮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제거하셨다. 그분은 신자들에게 매년 죄를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양심을 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바깥에 멀리 서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분은 또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중보자로서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떨어진 간격을 메우시기 위해 서 계신다.

그리피스 토마스(Griffith Thomas)는 다음과 같이 언약들을 간결하게 비교했다.

“그 언약은 조건적이 아니라 절대적이며, 세속적이 아니라 영적이며, 지역적이 아니라 우주적이며, 한시적이 아니라 영원하며, 국가적이 아니라 개인적이며,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이기 때문에 ‘더 좋은 언약’이다.”¹²⁾

그것은 더 좋은 약속을 근거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언약이다. 율법의 언약은 순종에 대해서는 축복을 약속했지만 불순종에 대해서는 죽음을 경고했다. 그것은 의(義)를 요구했지만 의롭게 될 수 있는 능력은 주지 못했다.

새 언약은 무조건적인 은혜의 언약이다. 그것은 의를 전혀 찾아볼 수 없던 곳에 의를 공급한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의롭게 살라고 가르치며, 그들로 하여금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고 그렇게 할 때에 보상을 준다.

8:7 첫 언약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사람과

12) (8:6) W. H. Griffith Thomas, *Hebrews: A Devotional Commentary*, p. 103.

하나님 사이에 이상적인 관계를 맺게 해주지 못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결코 최종적인 언약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두 번째 언약이 언급되었다는 사실은 첫 언약이 이상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8:8 실상 문제는 첫 언약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로 보전대 율법도 기록하며 계명도 기록하며 의로우며 선하다”(롬 7:12). 문제는 율법의 대상자인 사람들에게 있었다.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그분은 언약에게서가 아니라 언약의 백성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셨다. 첫 언약은 순종을 맹세한 사람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었으며(출 19:8, 24:7), 따라서 그것은 조건적인 것으로서 영원히 지속될 속성을 지니고 있지는 않았다. 새 언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연주곡이다. 새 언약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유대인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예레미야 31장 31-34절을 인용한다. 논증의 쟁점이 되는 부분은 새 언약의 ‘새로운’(new)이라는 단어이다. 만약 첫 언약이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것이었다면 왜 새 언약이 소개되었겠는가?

첫 언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특별한 약속을 주셨다. 앞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 언약은 교회가 아니라 주로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회개하고 구속함을 받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기 위해 임하실 때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그 동안에는 그 언약의 축복의 일부분을 모든 신자들이 누리는 것

이다. 이런 이유로 구주께서 포도주 잔을 그의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전 11:25)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헨더슨(Henderson)은 이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는 첫째로 이스라엘에 대해 비증을 두는 해석과 둘째로 오늘날의 교회에 대한 영적인 적용 사이를 구별한다. 우리는 지금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 언약의 축복을 즐기고 있다. 그렇지만 새 언약은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스라엘을 위해 더 넓고 더 깊게 나타날 것이다.”¹³⁾

8:9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새 언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손을 잡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새 언약이 첫 언약과 어떻게 다른지에 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이 구절의 나머지 부분에 그 대답이 암시되어 있다. 새 언약이 첫 언약과 다른 이유에 대해 후반부에는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율법의 언약은 조건적이었기 때문에 실패했었다. 그것은 그 언약의 근원이 아닌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은혜의 새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실패의 가능성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 자신에게만 달려있고, 그분은 실패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예레미야서에서 인용한 말씀은 급격한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예레미야 31장 32절의 본문에는 “내가 그들의 남

13) (8:8) Henderson, *Hebrews*, p. 92.

편이 되었어도”라는 말씀이 있다. 예레미야서의 초기 번역들 중에는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고(혹은 외면하고)”라는 번역이 들어 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감동하시고 성경의 보존을 감독하신 성령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인도하셔서 히브리서에서 이 표현을 선택하게 하셨다.

8:10 “내가 ...하리라”(I will)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주목하라. 옛 언약은 사람이 행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 말하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관해 이야기한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는 때가 지난 후에 그분은 자기의 법을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하실 것이다. 그들은 징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하게 될 것이다. 율법은 더 이상 돌 위에 기록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심비(心碑)에 기록될 것이다.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은 친밀함을 이야기한다. 구약성경은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서 있을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은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라고 말한다. 이 말씀은 또한 무조건적인 보호와 깨어지지 않는 관계에 대해 이야기한다. 보혈의 값으로 이루어진 이 유대관계(紐帶關係)를 방해하는 것은 영원히 없을 것이다.

8:11 새 언약은 또한 주님에 대한 보편적인 지식을 포함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통치기간 동안에는 사람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그분을 마음으로 알 것이

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사 11:9).

8:12 가장 좋은 것은 새 언약이 불의한 사람들과 그들의 죄에 대해서 긍휼과 용서를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율법은 관용과 용서를 용납하지 않았다.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히 2:2).

율법은 또한 모든 죄들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없었다. 율법은 죄를 제거하는 방법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속죄(atonement: 이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가려주다’라는 뜻의 ‘cover’에서 왔음)의 방법만을 제공해 주었다. 율법에서 설명되어 있는 희생들은 사람에게 의식적(儀式的)으로,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종교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구비시켜 주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 의식적인 깨끗함은 표면적인 것으로서 사람의 내면적인 생활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그것은 도덕적인 깨끗함이나 정결한 양심은 주지 못했다.

8:13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소개하셨다는 사실은 첫 언약이 폐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고백한 일부 신자들은 그렇게 하려는 유혹을 받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본 기자는 그들에게 율법의 언약은 지나간 것이라는 경고와 더불어 더 나은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밝힌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다.

3) 구약의 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의 제사(9:1-10:18)

9:1 본 서신서 기자는 8장 3절에서 모든 대제사장들은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약간 언급했다. 그는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이 드린 제사에 대한 토론과 그것이 구약성경의 제사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설명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주제를 소개하기 위해 그는 성막의 제도와 예배의 규정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한다.

9:2 ‘성막’은 장막처럼 된 구조물로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 거할 때부터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다. 성막 둘레의 지역은 바깥뜰이라고 불리는 곳으로서 기둥들 사이를 세마포를 펼쳐 두른 일련의 늦기둥으로 이루어진 담에 의해 둘러싸여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동편에 있는 문을 통해 성막 뜰로 들어갈 때에는, 번제단으로 와서 거기에서 희생제물을 잡아 불에 태워 제사를 드렸다. 그 다음에 물을 담은 커다란 솥으로 만든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그들의 손과 발을 씻었다.

성막 자체는 길이가 약 15m, 넓이는 5m, 그리고 높이는 5m였다. 첫 장막인 성소는 길이가 10m, 그리고 두 번째 장막인 지성소의 길이는 5m였다.

성막은 염소털로 만든 포장과 비바람에 잘 견디도록 동물 가죽으로 만든 포장에 의해 덮여졌고, 양측 벽과 후방 벽은 금으로 입혀진 나무 널빤지로 이루어져 있었다. 성막의 전면에는 잘 수놓아 만든 휘장이 있었다.

성소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제사 기구들이 있었다.

(1) 상(table). 이것은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으로써 그 위에는 이스

라엘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개의 떡이 놓여 있었다. 이 떡은 “임재의 떡”(bread of the Presence)이라고 불렸는데, 그 이유는 그 떡들이 하나님의 얼굴 혹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2) **등대**(lampstand). 이것은 정금으로 만든 등대로써 일곱 가지가 위를 향해 나있으며 이것들은 각각 등잔을 받치고 있었다.

(3) **금향단**. 이 위에는 아침과 저녁으로 거룩한 향이 타오르고 있었다.

9:3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가 있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밝게 빛나는 구름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 거기에는 이 세상에서 속죄의 피를 가지고 사람이 하나님께 접근하도록 허락하시는 유일한 장소였다.

9:4 원래의 성막의 이 두 번째 구별된 장소에는 사면을 금으로 싼 큰 나무 궤인 언약궤가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만나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율법을 기록한 두 비석이 들어 있는 금향아리가 놓여져 있었다. (성전이 건축된 후에는 율법의 비석 외에는 언약궤 안에 아무 것도 없었다-왕상 8:9 참조).

4절은 또한 지성소 안에 금향로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다.¹⁴⁾ 향로로 번역된 헬라어는 향단(성소 안에 있는 물건으로 출애굽기 30장 6절에 묘사됨)을 의미할 수도 있고, 대제사장이 향을 담아 옮겼던 향로를 의미할 수도 있다. 이것은 후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좋은 해석이다. 본 서신서 기자는 향로를 지성소 안에 있는 기구로 분별하는데, 그 이유는 향로가 속죄일에 대제사장에 의해 향단으로부터 지

14) (9:4) “*thumiaterion*”이라는 단어는 향을 태우기 위한 장소 혹은 물건이다.

성소 안으로 옮겨지기 때문이다.

9:5 언약궤의 뚜껑은 속죄소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 위에는 그룹이라고 일컫는 두 개의 금으로 된 모형이 있었다. 그들은 날개를 활짝 펼치고 머리는 언약궤 위 속죄소를 내려다보며 얼굴을 서로 마주하고 있었다.

본 서신서 기자는 이러한 간단한 묘사로 설명을 마친다. 그의 목적은 이런 것들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성막의 기구들과 그것들이 묘사하고 있는 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9:6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제사와 유대교의 제사를 비교하기 위하여 먼저 율법이 요구했던 모든 것들에 관해 설명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율법의 제사에 관해 언급할 사항이 많지만 그는 모든 율법의 체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한다. 그것은 대속죄일에 드러졌던 제사이다(레 16장). 만일 그가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일정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날에 대제사장이 하는 사역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역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만 한다면, 그는 자기가 전달하고 싶어 하는 요점을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된다.

제사장들은 둘째 장막, 곧 성소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자기들의 섬기는 예를 수행하였다. 일반 백성들은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고 밖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9:7 세상에서 오직 한 사람, 즉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다. 한 민족, 한 지파, 한 가족 가운데서 선택된 그 사람만이 일 년 중에 오직 한 날 속죄일에만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가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과 무지 가운데 놓인 백성들의 죄를 위해 드리는 피를 담은 그릇을 가지고 들어가야 했다.

9:8 여기에는 깊은 영적 진리가 들어 있다. 성령님께서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간격이 있다는 것과 사람은 반드시 중보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중보자는 오직 희생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치고 계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예배자들에게 아직 열려져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실물교훈이었다.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이와 같은 불완전한 접근만이 계속 이루어졌다. 다비(Darby)는 이것을 “아직 첫 장막이 존재하는 동안에는”이라고 표현했다. 이 성막은 솔로몬의 통치 동안에 세워진 성전으로 교체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그리고 부활 때까지 여전히 존재했다. 하나님께 나아감에 관해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원칙은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돌이 될 때까지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9:9 성전의 체계는 현재까지의 상징이었다. 앞으로 올 더 좋은 것에 대한 그림으로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에 대한 불완전한 모형이었다.

예물과 제사는 경배자로 하여금 양심의 문제에 있어서 결코 완전케 해줄 수 없었다. 만약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졌다면 드

리는 자의 양심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9:10 사실 레위인들의 예물과 제사는 의식적(儀式的)인 더러움의 문제만을 다루었다. 그것들은 깨끗한 음식과 부정함의 음식을 가려서 먹고 마시는 것, 사람에게서 의식적인 부정함을 제거해 주는 씻는 예식과 같은 외면적인 것들과 관계있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도덕적인 더러움을 다루어주지는 못했다.

예물은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있던 사람들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깨끗한 상태에 머물러있게 해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구원이나 죄로부터 깨끗함을 얻는 것과는 관계가 없었다. 사람들은 그 때의 관점에서 보면 미래에 속한 일이었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

그 당시의 제사는 제한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개혁의 때까지 말려진 것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것과 그분이 드릴 온전한 제사를 예시(豫示)해 주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언급된 개혁의 때는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의 시대를 가리킨다.

9:11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 곧 그분을 영접하게 될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축복의 대제사장으로 나타나셨다.¹⁵⁾

그분의 성소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다. 그것은 이 세상의 건물들의 재료로 건축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손으로 지은 바 되지 않았다. 그것은 하늘의 성소,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15) (9:11) The NU text reads "that have come."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이
그분이 봉사하는 곳이라네.
그분이 섬기는 하늘 바로 그곳에서
하늘의 제사장 직분이 이루어지네.
그분 안에서 율법의 그림자의 형상이
온전한 모습을 되찾고
이제 그 그림자는 물러갔다네.”

(토마스 켈리).

9:12 우리 주님은 영원히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승천하실 때에
그분은 갈보리에서의 구속사역을 완수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데로 들어가셨다. 우리는 ‘영원히’라는 말에 대하여 즐거워하는 것
과 감사를 드리는 것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일이 완전히 이
루어진 것에 대하여 주님을 찬양하라!

그분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를 드리셨다. 동물의
피는 죄를 영원히 없게 하는 능력이 없다. 그것은 단지 종교적인 의
식에 의해 일시적으로 죄를 사하는 효과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리스도의 피는 무한한 가치가 있다. 그 능력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존재할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물론 그 능력
은 믿음으로 그분에게 나아오는 자들에게만 적용된다. 하지만 그
피의 깨끗케 하는 잠재적인 능력은 제한이 없다.

자기의 희생으로 그분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전의 제사
장들은 일 년마다 속죄를 받아야 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와
그들의 속죄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9:13 그리스도의 제사와 율법의 의식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본 서신서 기자는 이제 붉은 암송아지로 치르는 의식으로 화제를 돌린다. 율법 아래서는 만일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시체(屍體)를 만지게 되면, 그는 7일 동안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되었다. 치료책은 암송아지의 재를 흐르는 맑은 물과 함께 섞어 제 삼일과 제 칠일에 그 부정한 사람에게 뿌리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정결케 되었다.

맨틀(Mantle)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재는 속죄제의 근본적인 특성이 농축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비교적 큰 어려움이 없이, 그리고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죄 사함을 위하여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재의 양(量)만으로도 여러 세기 동안 그 역할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양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전 역사에 걸쳐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단지 여섯 마리의 소로부터 얻는 재의 양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전해진다. 왜냐하면, 최소량(最小量)의 재를 가지고도 흐르는 맑은 물에 섞어서 죄를 정결케 하는 효력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민 19:17).”¹⁶⁾

9:14 만일 암송아지의 재가 가장 심각한 형태의 외적인 더러움 중의 하나를 깨끗케 하는 능력이 있었다면, 그리스도의 피는 아무런 큰 마음의 죄라 할지라도 훨씬 더 깨끗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그리스도의 희생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이 표

16) (9:13) J. Gregory Mantle, *Better Things*, p. 109.

현의 의미에 대해서는 약간의 분별의 차이가 있다. 어떤 사람은 이 표현이 동물제사가 타의에 의한 것이었음에 비해, 그리스도의 제사는 자원하는 심령에 의해 드려졌음을 의미하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해석한다. 다른 사람들은 이 표현을 “자기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의미로 이해한다. 우리는 오히려 이 말씀 속에 성령님께서 드러나 계시다고 믿으며,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였다. 그리스도는 흠 없고 점 없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 그분의 도덕적인 완전함은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한다. 동물제사는 육체적으로 흠이 없어야 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분이셨다.

그분의 보혈은 죽은 행실로부터 양심을 깨끗케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해준다. 그것은 단지 육체적인 씻음이나 의식적인 깨끗함이 아니라 양심을 정결케 해주는 도덕적인 새로움이다. 그것은 불신자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행하는 모든 죽은 행실로부터 우리를 깨끗케 해준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생명 없는 행위로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모든 시도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9:15 앞의 구절들은 새 언약의 피가 옛 언약의 피보다 뛰어난 것을 강조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라는 15절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한다.

웨스트(Wuest)는 다음과 같이 이것을 설명한다.

“‘중보자’(mediator)라는 단어는 두 사람 사이에 들어와서 화평과

우정을 이끌어 내거나 회복시키는, 그리고 언약을 맺게 하거나 계약을 비준하게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메시테스(*mesites*)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이다. 여기서 메시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재자 혹은 중보자로서 일하신다. 십자가 위에서의 자기의 죽음을 통해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나누이게 했던 장애물(죄)을 제거하셨다. 죄인이 메시아의 희생이 가져온 혜택을 받아들일 때, 그의 죄의 형벌과 죄의식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며, 그의 생활을 지배하던 죄의 권세는 깨어지고 그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 그리고 법적으로든 인격적으로든 그와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던 소원(疎遠)한 관계는 사라져버린다.”¹⁷⁾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약속된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신약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도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구속을 즐긴다. 이와 같이 구약의 성도들이 유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죽음, 곧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은혜이다. 그분의 죽음이 그들을 율법 아래에서 범한 불법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을 “신용을 바탕으로”(on credit) 구원해 주신 데에는 의미가 있다. 그들은 우리들과 똑같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실 수 있었을까?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일을 미리 아심을 근거로 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하실 일에 대해 거의 혹은 아무 것도 알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아셨으며, 사람들이 그분이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어떻게 계시하시든

17) (9:15) Kenneth S. Wuest, *Hebrews in the Greek New Testament*, p. 162, 163.

그 계시를 그들이 믿을 때에 그들에게 유익이 될 그리스도의 사역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계셨다.

첫 언약 아래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의 부채가 쌓여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죽음을 통해 이러한 죄의 빚으로부터 이전의 섭리 아래 있던 신자들을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미래의 사역에 근거하여 그들을 구원하신 방법은 로마서 3장 25-26절에서 그들의 죄를 간과하신 것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 점에 관해서는 그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했다.

9:16 15절에 나와 있는 “기업”이라는 본 서신서 기자의 언급은 마지막 유언 또는 유언장이 검인되기 위해서는 그 유언자가 죽었다는 증거가 반드시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보통 사망증명서가 충분한 증거로 채택된다.

9:17 유언자는 자기 유언을 여러 해 전에 기록하여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죽기 전에는 결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그가 살아있는 한, 그의 소유는 유언장에 기록된 상속인들에게 상속될 수 없다.

9:18 이제 주제는 어떤 사람의 유언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첫 언약으로 넘어간다. (“언약” 또는 “유언”이라는 영어 단어는 모두 ‘*diatheke*’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이다). 첫 언약도 역시 반드시 죽음을 필요로 했다. 그것은 피 흘림을 통해서만이 비준되었다.

고대(古代)에는 모든 언약(계약)이 동물의 희생적인 죽음에 의해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피는 언약의 조건들을 이행할 것이라는 맹세

였다.

9:19 모세는 율법을 백성들에게 읽어 준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렸다. 이와 같이 모세는 언약을 봉인하는 엄숙한 의식을 치렀다.

출애굽기 24장 1-11절에서 우리는 모세가 피를 단과 백성들에게 뿌렸다는 말씀을 읽을 수 있다. 거기에는 피를 책에 뿌렸다거나 혹은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했다는 언급은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상이점은 두 가지 설명 모두가 서로 보충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이다.

단으로 예표(豫示)되어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은 계약의 당사자들이었으며, 책은 언약이었다. 피를 뿌리는 것은 두 당사자들로 하여금 언약의 조건들을 지키도록 구속하는 역할을 했다. 백성들은 순종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하나님은 만일 그들이 순종하면 그들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다.

9:20 모세는 피를 뿌릴 때에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말했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경우 백성의 생명을 걸고 맹세한 것이었다.

9:21 이와 마찬가지로 모세는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피를 뿌렸다. 이 의식은 구약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의식이다. 출애굽기 40장의 성막의 봉헌에는 피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백하다. 죄악된 인간과 관계있는 모든 것은 더러워졌으며 정결케 될 필요가 있다.

9:22 율법 아래서는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었다. 하지만 예외는 있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 그 계수 중에 든다면, 그는 “속전”으로 피의 제사 대신 은 반 세겔을 가져올 수 있었다(출 30:11-16). 은 반 세겔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 중의 한 사람으로 계수되기 위해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한 속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또 다른 예외가 레위기 5장 11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는 더러움을 씻는 속죄의식이 고운 밀가루를 제물로 바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다.

이러한 예외들은 일반적으로 속죄(atonment)에 대해서도 피의 제물이 요구되었지만 피 흘림이 없이 죄를 속하는, 혹은 죄의 가리움을 받는 것과 관계있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죄의 면제(remission)에 관해서는 예외 없이 반드시 피가 흘러져야 했다.

9:23 9장의 나머지 부분은 두 언약을 비교 대조하고 있다.

우선 땅의 장막은 황소와 염소의 피로 정결케 되어야 했다. 이미 지적인 바와 같이 이것은 정결케 하는 의식이었다. 이것은 상징적인 성소에서 행한 정결케 됨의 상징적 표현이었다.

하늘에 있는 성소는 땅에 있는 모형적인 성소의 실재였다. 그것은 이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 곧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정결케 되어야 했다.

하늘이라는 장소가 정결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일 수도 있다. 이 속제를 풀 수 있는 한 가지 단서가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율 15:15)이라는 말씀 속에 들어 있을 수 있다. 하늘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이유는 틀림없이 사단이 하늘에서 처음 죄를 범했기 때문이며(사 14:12-14), 아직도 그가 형

제들을 참소하는 자(계 12:10)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9:24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인 사람이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들어가셨다. 거기에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

사람들이 참 것을 떠나 그림자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과, 하늘의 성소에서 섬기시는 위대하신 대제사장을 떠나 상징적인 장막에서 섬기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로 돌아가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9:25 주 예수님은 아론의 대제사장이 하던 것처럼 반복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으셨다. 아론의 대제사장은 일 년에 한 번, 즉 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는 자기 피가 아닌 희생동물들의 피를 드렸다.

9:26 만일 그리스도께서 반복되는 제사를 드리셨다면,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드리신 이후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갈보리의 고통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으며 필요하지도 않은 일이다.

새 언약 아래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확실한 결말**-그분은 단번에 나타나셨다. 그 일은 결코 반복될 필요가 없다.

(2) **시기의 적절함**-그분은 세상 끝, 곧 첫 언약이 결국 인간의 실패와 무능력을 드러낸 후에 나타나셨다.

(3) **완성된 사역**-그분은 죄를 없게 하시려고 나타나셨다. 강조점은 “죄를 없게 하시려고”라는 말속에 있다. 매년 반복되는 속죄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영원한 용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4) **개인적인 희생**-그분은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죄를 없게 하셨다. 그분은 친히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로 인해 받을 형벌을 담당하셨다.

“수치와 멸시 섞인 무례함을 짊어지심으로서
그분은 나의 정죄함 받는 자리에 서시었네.
자신이 흘린 피로 나의 용서를 보증하신 주님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우신 구세주인가!”
(필립 P. 블리스)

9:27 27절과 28절은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 또다른 대조를 보여주는 것 같다. 율법은 죄인에게 한 번 죽는 것과 그 후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정죄했다. 율법은 이미 죄인이었으며 그것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 아래 있던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9:28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무한한 희생을 소개한다. 그분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다. 그것은 그분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복된 소망을 제공한다. 그분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하지만 그분이 재림하실 때, 그것은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과는 관계가 없을 것이다. 그분은

그 일을 십자가에서 완수하셨다. 그분은 자기 사람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 오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구원의 절정이 될 것이며, 그들은 영광스런 몸으로 변화를 받아 죄와는 영원히 관계없는 자들이 될 것이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라는 표현은 모든 참된 신자들에게 대한 묘사이다. 모든 주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재림에 관계된 사건들의 정확한 순서에는 동의하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한다.

성경은 특별히 영적인 어떤 특정한 부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휴거 때에 하늘로 들림 받을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성경은 들림 받을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우리 살아남은 자들”(살전 4:16-17)이라고 묘사한다. 이것은 죽었거나 혹은 현재 살아있는 모든 참된 신자들을 의미한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은 휴거에 참여할 자들을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자들”(those who are Christ's)이라고 신분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24-28절에 걸쳐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세 가지로 나와 있는 것을 주목해 보았다. 그것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26절 : 그분은 나타나셨다. 이것은 그분이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임하신 첫 번째 강림과 관계가 있다(구원의 과거시제).

24절 : 그분은 지금 나타나신다. 이것은 그분이 우리를 죄의 능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계신 그분의 현재의 사역과 관계가 있다(구원의 현재시제).

28절 : 그분은 나타나실 것이다. 이것은 그분의 임박한 재림에 대

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때 그분은 우리를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구원의 미래시제).

10:1 율법은 단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예시해 주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참형상의 빈곤한 대용품이었다. 율법을 그리스도보다 앞세우는 것은 실체보다 그림자를 앞세우는 것과 일반이다. 그러한 행위는 그리스도의 존엄성을 모욕하는 행위이다!

율법체계의 연약성은 그것의 제사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반복적인 제사는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해마다 늘 드리는바 같은 제사”와 같은 표현들을 주목해 보라.

그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결코 온전케 할 수 없었다. 그것은 죄에 관한 한 결코 사람들에게 정결한 양심을 주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죄의식으로부터 영원히 깨끗함을 받았다는 생각을 갖지 못했다. 그들은 절대로 양심의 온전한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

10:2 만일 그 제사가 그들을 죄로부터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자유케 했다면, 그들은 성막이나 성전으로 매년 고뇌를 안고 갈 필요가 없지 않았겠는가? 매년 반복되는 제사는 그들에게 그들 자신이 무익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줄 뿐이었다. 매 시간마다 약을 먹지 않으면 목숨을 지탱할 수 없는 사람은 회복의 희망을 거의 가질 수 없다.

10:3 양심을 평안하게 해주는 대신 레위기의 율법 체계는 매년 양심을 아프게 했다. 속죄일의 아름다운 의식 뒤에는 죄가 제거된 것이 아니라 단지 가려져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매년 기억나게 해 주는 것이 숨어 있었다.

10:4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를 제거하는 능력이 없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제사들은 의식적인 잘못들(ritual errors)만을 다루었다. 그것들은 의식적인 깨끗함을 제공해 주었지만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나 인간의 악한 행위들에 대해 완전하고 만족한 해결을 주는 데에는 온전히 무능력했다.

10:5 레위기의 예물들의 연약함과 대조적으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풍성한 희생의 능력을 만나게 된다. 서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실 때에 그분이 말씀하신 독백을 듣게 된다. 시편 40편에서 인용된 말씀에서 그분은 옛 언약의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를 제정하셨지만 그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죄를 제거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양을 예시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진정 동물들의 피가 강같이 흐르는 것과 산처럼 쌓인 동물들의 시체를 보시고 만족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불만족의 또 다른 이유는 사람들이 그들의 내적인 삶은 부패하고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의식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함이나 통회함이 없이 반복적으로 무미건조한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

서는 상한 마음의 제사를 받고 싶어하시는 대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동물제사를 기뻐하신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의식 주의자가 아니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처음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인간으로서의 삶과 속성을 지니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것은 물론 영원하신 말씀이 인간들을 위해 죽으시기 위해 그들처럼 육신이 되신 성육신의 놀라운 비밀과 관계가 있다.

시편 40편 6절로부터 인용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는 표현이 두 가지 다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시편에는 그 말씀이 “주께서 나의 귀를 여셨다”(My ears You have opened; 우리말 개역성경에는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이라고 표현되어 있음—역주)라고 나와 있으며, 난외주에는 “주께서 나를 위해 귀를 뚫으셨다”(ears You have dug for me)라고 나와 있다. 물론 열린 귀는 메시아가 항상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즉시 순종할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것을 시사한다. 뚫린 귀는 히브리 종에 대한 암시일 수가 있으며(출 21:1-6), 그는 자기 자신을 주인에게 기꺼이 종으로 영원히 드리겠다는 표시로 자기 귀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상처를 내었다. 육신을 입으심으로써 구주께서는 실제로 하나님께, “저는 주인을 사랑합니다.···저는 자유롭게 되기를 포기합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10:6 시편 40편 말씀을 계속 인용하면서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반복하여 말씀하신다. 동물들은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없는 피를 흘린 타의에 의한 희생물들이

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를 결코 나타내지 못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모형이요 그림자였다.

10:7 하나님께 기쁨을 가져다 드린 것은 어떠한 값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신 메시야의 자원하는 순종이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단 위에 드림으로써 자기의 순종을 증명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을 때, 그분은 구약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리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상기하셨다.

10:8 본 서신서 기자는 9절부터 10절까지에서 메시야의 독백의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그는 그것을 옛 제사제도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고 영원한 제사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표시로 간주한다.

그는 시편 40편으로부터 응축된 형태로 인용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따라 드린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강조한다.

10:9 그 다음에 본 기자(記者)는 옛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불만족을 공표한 후 곧바로 메시야가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일을 행하시기 위해 아버지 앞으로 나아온 사실에서 중요한 의미를 발견한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다시 말해 주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옛 제사의 체계를 폐하시고 죄를 위한 자기 자신의 위대한 제사를 소개하신다. 율법의 언약

이 무대의 저편으로 사라지고 새 언약이 무대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10:10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다. 조오지 랜디스(George Landis)는 이것에 관해 다음과 같이 주해를 썼다.

“이것은 12장 14절의 예외만을 제외하고는 히브리서 전체의 다른 부분에서와 같이 신분상의 거룩을 의미하며, 소수의 ‘성장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만 사실이 아니라 모든 신자(고전 6:11)들에게 있어서 사실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해 성취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졌다.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신자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성장케 하는 역사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요 17:17-19; 살전 5:23).”¹⁸⁾

10:11 모든 아론의 제사장들의 임무는 이제 그리스도의 임무와 확실하게 대조된다. 아론의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자기들의 섬기는 일을 수행했다. 성막이나 성전에는 의자가 없었다. 그들의 일에는 결코 완전함이 없었기 때문에 휴식이 있을 수 없었다. 그들은 같은 제사를 매일 매일 반복적으로 드렸다. 그것은 죄를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더러워진 양심이 온전한 평안을 얻지 못한 채 끊임없이 반복되는 섬김이었다.

이러한 제사는 결코 죄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없었다. A. B. 브

18) (10:10) George M. Landis, *Epistle to the Hebrews: On to Maturity*, p. 116.

루스는, “아론은 레위의 체계에 있어서는 중요한 인물이었지만 진정한 가치가 없는 의식들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결국 고된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성직자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했다.¹⁹⁾

10:12 우리의 복되신 주님께서는 “죄를 위하여 한 제사를 드리셨다.” 다른 어떠한 제사도 영원히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피도 제단도 필요 없고
제사는 끝났도다!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불꽃이나 연기도
죽임을 당하는 어린양도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죄악에 물든 영혼을 정결하게 해주는
보다 귀한 능력의 피가 고귀한 혈관으로부터 흘러 나왔다네.
그리고 진홍 같은 죄를 깨끗하게 했다네.”
(호라티우스 보너).

구속사역을 마치신 후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영원히 앉으셨다”(JND). 이 구절은 구두점을 찍는 위치에 따라 정확히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라고 읽을 수도 있고, “영원히 앉으셨다”(forever sat down)라고 읽을 수도 있다.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는 후자의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죄의 엄청난 요구가 영원히 만족되어졌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히 앉아 계실 수 있다. 주님은 능력과 명예, 그리고 애정의 자리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19) (10:11) Alexander Balmain Bruce, *The Epistle to the Hebrews: The First Apology for Christianity*, p. 34.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심판의 날에 일어나실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앉아 계실 수 없다고 반박할 수도 있다. 그럴지라도 여기에는 모순이 없다.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는 면에 있어서는 그분은 영원히 앉으셨다. 심판의 면에 있어서는 그분은 영원히 앉아 계시지 않는다.

10:13 그분은 “자기의 원수들이 자기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모든 무릎이 그분에게 꿇어져서 모든 혀가 그분 자신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날까지 기다리신다(빌 2: 10-11). 이 날은 세상에 대해 그분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공적으로 입증하는 날이 될 것이다.

10:14 그리스도의 제사의 탁월한 가치는 그분이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신 데에 나타나 있다. 여기서 거룩케 된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구별된 자들, 곧 모든 참된 신자들을 의미한다. 그들은 이중적인 의미에서 온전케 되었다.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위치를 갖게 되었다. 그들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전적인 영접에 의해 아버지 앞에 서 있다. 둘째로, 그들은 죄의식에 관한 한 온전한 양심을 소유하고 있으며, 죄의 형벌에 관해서도 죄값이 완전히 치러졌으므로 하나님께서 또다시 죄값을 요구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

10:15 또한 성령님께서 새 언약 아래서 죄는 영원히 효과적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신다. 그분은 그것을 구약성경을 통하여 증거하신다.

10:16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주님은 그분 자신의 택함 받은 지상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10:17 그 다음에 똑같은 문맥에서 그분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다. 예레미야 31장 34절이 죄의 완전하고 영원한 용서의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한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는 유대교의 끊임없이 반복되는 제사의식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

10:18 새 언약 아래서의 용서에 대한 약속은 “죄를 위하여 더 이상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다”는 말씀을 통하여 본 기자(記者)는 우리가 소위 본 서신서의 교리적인 부분이라고 칭하는 것에 관해 결론을 내린다. 그는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실제적인 책임을 부여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울려지기를 바라고 있다.

3. 경고와 권면(10:19-13:17)

1) 그리스도를 경홀히 여기지 말 것에 대한 경고(10:19-39)

10:19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서 있어야 했으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가까이 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까이 나아오라”는 격려를 받고 있다.

이 권면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신자들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유대교의 질서 속에서는 일반 백성들은 성소나 지성소로 가는 길이 막혀져 있었다. 오직 제사장들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으며,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바뀌었다. 하나님은 오직 특별한 계급의 사람들만이 자기에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떠한 장소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 대신 모든 신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휘장을 지나 새롭고 산 길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은 내게 명령하시네.

떨리는 소망으로 나아가는 모험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의 부르심을 좇아서
거기 곧 시온소에서 그리스도 나의 주와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네.

그분 앞에서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가치는
보혈의 가치뿐이라네.
그분을 찬양할 때에 나는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만을 그분 앞에 보여드리네.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니
아들을 인해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네.”
(작자 미상).

10:20 우리의 나아감은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이다. 여기에서 ‘새로운’(new)이라는 말은 “새로 죽임을 당한”, 또는 “새로 만들어진”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산’(living)이라는 말은 부활하심으로써 살아 계신 구주가 되신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이 길은 휘장 곧 그분의 육체를 통하여 열렸다. 이것은 명백하게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우리 주님의 육체의 모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그 휘장이 찢어져 돌이 되어야 했던 것처럼 주님의 육체는 죽음으로 인해 찢어지셔야만 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흠 없는 삶, 그러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했던 그 주님의 죽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오직 하나님의 어린양의 죽음의 상처에 의해서만 우리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기도와 경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그러한 특권이 무한한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자.

10:21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일에 큰 담력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큰 대제사장을 모시고 있다. 우리도 역시 제사장이기는 하지만(벧전 2:9)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제사장이 필요하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며, 그분의 우리를 위한 현재의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속 환영을 받을 수 있음을 보증해 준다.

10:22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은 신자들이 주님의 피값으로 산 바 된 특권이다. 우리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 아니라 우주의 주권자를 청중으로 삼을 수 있도록 초대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아닌가! 우리가 그 초대를 평가하는 범위는 그 초대에 응하는 우리의 태도에 의해 보여진다.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영적 준비를 갖추고 들어가야 하는지에 관해 4중적인 표현이 나타나 있다.

(1) “**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은 종종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상태에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입술로만 그분을 존중했다(마 15:8). 우리는 참된 성실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야만 한다.

(2)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온전한 확신과 그분의 임재 속으로 은혜롭게 영접되어지리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3)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이것은 오직 새로운 출생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뢰할 때, 우리는 그분의 피를 힘입을 수 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그들의 문에 뿌린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리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죄악된 양심으로부터 구해 준다. 우리의 간증은 바로 이것이다.

“양심은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하니
그리스도 바로 그분 자신의 보배로운 피가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에서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이네.”(프랜시스 비반).

(4)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다. 우리 몸은 우리의 삶을 뜻하며, 맑은 물은 말씀(엡 5:25-26)과 성령님(요 7:37-39) 혹은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의 삶을 매일의 더러움으로부터 씻어주시는 성령님을 의미할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양심의 악으로부터 영원히 씻음을 받지만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에 의해 죄의 더러움으로부터 계속해서 깨끗함을 받는다(요 13:10).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네 가지 요소가 진실함(sincerity), 확신(assurance), 구원(salvation), 거룩(sanctification)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10:23 두 번째 권면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고백을 굳게 붙잡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는 것은 아무 것도 용납해서는 안된다. 현세(現世)와 눈에 보이는 유대교의 형식을 좇기 위해 장래와 보이지 않는 기독교의 축복을 포기하려는 시험을 받고 있던 자들을 위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는 권고가 나와 있다. 그분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그분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구주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오실 것이며, 그분의 백성들은 그분과 함께 거하며 그분을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10:24 우리는 또한 동료 신자들로 하여금 사랑을 표현하고 선한 일에 참여하도록 격려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신약성경적 의미에서 볼 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행위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행할 수 있고 또 행해야 하는 일이다. 사랑은 근원이며, 선행은 그 열매이다. 우리의 모범과 우리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다른 신자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종류의 삶을 살도록 격려해야 한다.

“사랑의 마음이 정원(庭園)이라면 사랑의 생각은 뿌리라네.
사랑의 언어는 꽃이 되고 선행은 그들의 열매라네.”

10:25 그 다음에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모여야 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지역교회의 교제를 등한히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모든 신자들이 자기들의 교회에 신실하게 참여할 것에 대한 일반적인 권면이라고 여겨진다. 함께 모여서 경배하고 봉사할 때

우리는 틀림없이 힘과 위로, 성장과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또한 핍박의 때를 통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특별한 격려의 표현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체포와 능욕, 그리고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을 격리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숨어있는 제자가 될 수 있는 유혹은 항상 존재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구절은 배도에 대한 경고이다. 여기서 지역모임을 버리는 것은 기독교에 대해 등을 돌리고 유대교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서신이 쓰여졌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특히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함을 인식하고 서로를 권할 필요가 있었다. 그분이 오실 때, 핍박과 배척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던 신자들은 이기는 자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기까지 견고히 서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10:26 이제 본 기자는 네 번째 엄한 경고를 소개하고 있다. 앞부분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배도에 대한 경고로서 여기서는 고의적인 죄가 배도의 한 부분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전에도 언급되었듯이 이 죄의 진정한 본질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 사이에도 상당한 이견이 존재한다. 간단히 말해서 문제는 이 경고가 다음과 같은 세 부류의 사람들 중 어느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1) 참된 그리스도인들 중 나중에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서 잃어버림을 당하는 사람들.

(2) 참된 그리스도인들 중 타락했지만 결국 구원받는 사람들.

(3) 잠시 동안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며 지역교회의 일원으로 자처했다가 나중에는 고의적으로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서는 사람

들. 그들은 결코 진정으로 거듭난 적이 없었으며 이제 그들이 다시 거듭나기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우리가 어떠한 견해를 지지하든 난점은 존재한다. 우리는 세 번째 견해가 옳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약성경이나 히브리서 전체의 교훈과 가장 일치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본 구절에서는 배도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범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유다처럼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은 경험을 가질 수는 있다. 그는 구원받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는 심지어 그것을 짐짓 받아들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그는 고의적으로 복음을 부인한다. 그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속죄하는 제사가 남아 있지 않다. 그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를 의도적이고 단호하게 거부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배플 구원의 다른 방법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

모든 죄에는 고의적인 면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본 기자는 여기서 배도를 대단히 심각한 의미에서의 고의적인 범죄로 이야기한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부분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반드시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39절 말씀에서 그는 자기 자신과 자기의 동료 신자들을 멸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과 분명히 구분한다.

10:27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남아 있는 것이 없다. 구출의 소망은 없다. 배도자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6:4). 그는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떼어놓았다. 그의 운명은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분노와 직면하는 것이

다. 이것이 문자적으로 불을 의미하는지에 관해 알기알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 단어가 매우 혹독한 형벌을 나타내기 위해 선택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배도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분류하신 것을 주목해 보라.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정도가 아니라 단호하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가리킨다.

10:28 구약시대에 율법을 어긴 사람들의 운명이 배도자들이 맞이하 할 더 중한 운명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배경으로 소개되고 있다. 우상숭배자가 됨으로써 모세의 법을 어긴 사람은 자기의 죄가 두 세 증인의 증거에 의해 입증되었을 때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다(신 17:2-6).

10:29 배도자는 자기가 경험했던 특권이 더 큰 것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중한 형벌을 받을 자로 간주될 것이다. 그의 극악한 죄는 그에 대해 언급된 세 가지 죄과(罪過) 안에 나타나 있다.

(1)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고백한 후에, 그는 이제 뻔뻔스럽게도 자기는 그분과 더 이상 상관하고 싶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의지할 어떠한 필요성도 부인하며, 그분을 주님으로서 인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한다.

일본에는 핍박의 시기에 정부에 의해 사용된 십자가 상(像)이 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상이었다. 그것은 땅 위에 놓여져 있어서 모든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야만 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얼굴

을 밟고 지나갔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거절한 대가로 순교를 당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얼굴이 그 위를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의해 상처받고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화이다.

(2) 그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 그는 새 언약을 확증한 그리스도의 피를 쓸모없고 부정하게 생각한다. 그는 이 피에 의해 외적으로는 특권을 누리는 위치로 구별된 상태에 있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로 말미암아 그는 믿지 않는 남편이 자기의 믿는 아내에 의해 거룩하게 되는 것처럼 거룩하게 되었었다(고전 7:14). 하지만 그것이 그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3) 그는 은혜의 성령님을 욕되게 했다. 하나님의 성령님은 복음에 관해 그에게 조명해 주셨고, 죄를 깨닫게 하셨으며, 영혼의 유일한 피난처로서 그리스도를 그에게 계시해 주셨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완전히 멸시함으로써 은혜로우신 성령님을 모욕했다.

10:30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는 가장 중대한 죄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자리에 앉으실 것이다. 그분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라고 말씀하셨다(신명기 32장 35절을 보라). 여기에서의 원수를 갚는다는 의미는 온전한 공의를 뜻한다. 하나님에 대해 그 단어가 사용될 때 그것은 원한을 갖고 보복하거나 복수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어떤 사람이 받아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의 성품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그분이 배도자들에게 그들이 받아 마땅한 만큼의 징벌을 내리심

으로써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런 후 주님은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정당한 보응을 하실 것이며 자기에게 진실로 속한 자들을 변호하실 것이다. 그런데 여기 30절에 나오는 이 분명한 상관구절은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다.

만약 “그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배도자들을 가리킨다고 간주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들이 창조에 의해 그분의 소유이며, 또한 고백에 의해 잠시 동안이나마 그분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분은 그들의 구원자는 아니시지만 그들의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그들은 개인적으로 그분을 절대로 안 적은 없었지만 한 때 그분의 백성이라고 고백했었다.

10:31 모든 사람을 위한 영원한 교훈은, 심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있지 말라는 것이다. 그것은 무서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 성경 말씀은 결코 그리스도께 진실로 속해 있는 자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두렵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에 대한 무서운 대가에 관해 경고를 받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엄중하고도 날카로우며 도전적인 필설로 쓰여졌다.

10:32 10장의 나머지 구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을 지키며 계속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할 세 가지 강력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1) 전날의 경험에 의해 그들은 자극을 받아야 한다.

(2) 보상의 날이 가까워 오는 것에 의해 그들은 격려를 받아야 한다.

(3) 하나님의 실망하심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그들은 돌아가려는 유혹에서 건짐을 받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전날의 경험에 의해 자극을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후에 그들은 혹독한 핍박의 표적이 되었다. 그들의 가족들은 그들과 의절했으며, 친구들도 그들을 버렸다. 그리고 그들의 원수들은 그들을 박해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이 두려움과 퇴보를 낳기보다는 그들을 믿음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 틀림없이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행 5:41).

10:33 때로는 그들의 고난이 개인적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혼자 붙잡혀 가서 비방과 환난으로써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또 어떤 때에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고난을 당했다.

10:34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들과 교제하면 똑같은 환난에 처할 위험이 언제나 존재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방문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권세자들에 의해 자기의 소유가 몰수될 때도 그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물질적인 소유를 지키기보다는 예수님께 진실하기를 선택했다. 그들은 “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벧전 1:4)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재물을 그렇게까지 하잘것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져온 기적이었다.

10:35 두 번째로 크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보상의 날이 가까워 오는 것에 의해 격려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 많은 인내를 경험했으므로 그들은 이제 와서 굴복하지 말아야 했다. 본 기자는 실제로 “너희 눈물의 수확을 놓치지 말아라”(F. B. 마이어)라고 권면하는 것이다. 그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가까이 와 있었다. 지금은 물러설 때가 아니었다.

“지금 너희 신뢰를 던져버리지 말라. 그것은 오는 세상에서 풍성한 상급을 가져온다”(JBP).

10:36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써 핍박을 피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견디며 끝까지 남아 있으려는 인내와 결심이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들은 약속하신 상급을 받을 것이다.

10:37 다가 올 상급은 주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주어진다. 그러므로 하박국 2장 3절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인용된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박국서에는 이 구절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시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이루어리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서 다르게 표현된 것에 관해 빈센트(Vincent)는 이렇게 말했다.

“히브리어에서는 문장의 주어와 갈대아인들의 박멸에 대한 이상이다. ...70인 역에 번역된 표현처럼 여호와 혹은 메시아가 주어

되어야 한다. 이 구절은 이후의 유대인 신학자들에 의해 메시야에 대한 언급으로 받아들여졌으며, 히브리서 기자에 의해서도 역시 그와 같은 의미로 취하여졌다.”²⁰⁾

A. J. 폴록(Pollock)은 다음과 같이 주석을 달았다.

“구약성경의 구절과 신약성경의 변경된 인용은 축어적(逐語的)으로 똑같이 감동하심을 받은 표현이며 동등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박국에서의 그것(IT)은 묵시를 가리키며, 다스리시기 위해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루고 있다. 그것(IT)은 히브리서에서 ‘그는’(HE)이 되며, 휴거와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그는 좀 더 일반적인 표현으로 서술을 계속한다.

“영감 받은 기자가 구약성경으로부터 말씀을 인용할 때, 그는 그 인용구절이 하나님의 목적을 결코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때로는 구약성경의 구절의 정확한 의미는 아니지만 신약성경에서 성령님에 의해 인간들에게 전달되어지도록 의도된 더 충만한 의미를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의 목적에 정확히 부합하도록 성경구절을 사용한다… 하나님 외에는 성경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성경이 하나님에 의해 그와 같이 넓게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이라는 또 다른 증거이다.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이시며, 오직 그분만이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어떠한 의미를 부가하거나 변형하는 방법으로 자기 자신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중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인용하려 한다면, 우리는 정밀한 주의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우리는 아주 미세한 부분이라도 말씀을 변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20) (10:37) Marvin Vincent, *Word Studies in the New Testament*, II:1150.

누구의 손을 사용하시든지, 그가 모세든 이사야든, 베드로이든 바울이든, 마태든 요한이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저작이다.”²¹⁾

10:38 “요동함이 없이 인내하라”는 마지막 격려는 하나님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다. 하박국서의 말씀을 계속 인용하면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오직 의인은²²⁾ 믿음으로 산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삶이며,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삶이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삶은 메시아를 부인하고 성전의 쓸모없는 제사로 되돌아가는 삶이다. 하나님은 이런 삶에 대해 “오직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신다.

10:39 히브리서 기자는 즉시 자기 자신과 다른 신자들을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지는 자들과 분리해서 생각한다. 이것은 배도자들을 참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떼어놓는다. 배도자들은 뒤로 물러가 잃어버림을 당한다. 참된 신자들은 믿음으로써 자기들의 영혼을 반역자들이 맞이할 운명으로부터 보존한다.

이러한 믿음(“믿다”와 “믿음”은 헬라어에서 똑같은 어근을 갖는다)에 대한 언급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더 확장된 토론의 기반이 놓여진다. 11장의 믿음의 본(本)은 이런 시점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21) (10:37) A. J. Pollock, *Modernism Versus the Bible*, p. 19.

22) (10:38) The NU text reads, “my just One.”

2) 구약성경의 본을 따라 믿음을 지킬 것에 대한 권면(11장)

11:1 이 장(章)은 믿음의 통찰력과 인내를 다루고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충만한 영적 통찰력을 주고 있으며,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기보다는 혹독한 핍박과 부끄러움을 감수했던 구약시대의 남녀들을 소개하고 있다.

1절은 믿음의 형식적인 정의라기보다는 어떠한 믿음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는 믿음인가에 대한 묘사이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어떤 것들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소망하게 해주며, 기독교의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들이 절대적으로 사실이며 분명하다는 흔들릴 수 없는 증거를 제공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미래를 현재 속으로 가져오며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준다.

믿음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와 그 믿음의 토대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그것은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딛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주 속에서 가장 확실한 증거를 필요로 하며, 그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한다. 그것은 가능성에 의해 제한 받지 아니하며 불가능의 영역을 포함한다. 혹자는 “믿음이란, 가능성의 끝에서 시작한다. 만약 가능성이 아직 존재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 없다”라고 말했다.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은
약속을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불가능을 비웃어라.
그리고 이렇게 외치라.
‘약속은 이루어질지로다.’
(작자 미상).

믿음의 삶에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진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를 시험하신다(벧전 1:7). 하지만 조오지 뮐러(George Muller)가 말한 것처럼 “시련은 믿음을 살찌우는 양식이다.”

11:2 선진들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이 장의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 어떻게 증거하셨는가에 대한 예이다.

11:3 믿음은 우리에게 창조에 관해 신뢰할 만한 유일한 설명을 제공한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의 창조의 현장에 유일하게 계셨던 분이시기에 그분만이 온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안다. 매큐(McCue)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선재(先在)하시며, 그분의 엄위하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개념은 이성(理性)과 증명의 범위를 넘은 것이다. 그것은 단지 믿음의 행동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안다. 세상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보리라 하지 아

니하였느냐”(요 11:40)라고 말씀하셨다. 사도 요한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요일 5:13)라고 기록했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믿음은 아는 것보다 앞선다.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질을 존재케 하셨다. 이것은 물질이 근본적으로 에너지라는 인간의 발견과 완전히 일치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음파의 형태로 에너지가 흘러나왔다. 이것이 물질로 변화되었으며 세계가 존재하게 된 것이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에너지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원자나 분자 또는 가스는 맨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화합물의 형태로 사람의 눈에 보인다.

창조의 사실은 11장 3절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나무랄 데가 없다. 그것은 결코 개선되어온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11:4 아담과 이브는 믿음의 영예로운 자리에 들지 못했다. 이브는 하나님이 진실을 말씀하시는 분인지, 사단이 진실을 말하는 자인지를 결정해야만 했을 때, 사단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것이 동물의 가죽옷에 의해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후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아벨은 틀림없이 죄인은 오직 흘린 피에 의해서만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다는 계시를 받았을 것이다. 아마 그는 이러한 계시를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부모들을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신 후에

하나님과의 교제로 회복된 자기 부모로부터 배웠을 것이다(창 3: 21). 어쨌든, 그는 희생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자기 믿음을 보여주었다. 가인의 제사는 채소나 과일로 드린 제사였으므로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였다.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얻는 구원의 진리를 예시해 준다. 가인은 선행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는 인간의 어리석은 시도를 그리고 있다.

조오지 커팅(George Cutting)은 “하나님께서 아벨을 의롭게 여기신 것은 아벨의 개인적인 어떤 우수성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와 그 제사를 통해 나타난 그의 믿음의 우수성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나 선행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사의 우수성과 그분을 영접해 들임에 의해서 의롭다 함을 받는다.

아벨은 율법이 은혜를 미워하기 때문에 가인에 의해 살해되었다.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탁해야 한다는 진리를 싫어한다.

그러나 아벨의 증거는 끊어지지 않았다. 자기의 믿음을 통해 아벨은 아직도 말한다. 믿음은 무덤 속에 묻힌지 아주 오래된 사람의 성대로 하여금 여전히 말하게 한다는 사실은 의미가 깊다.

11:5 에녹은 그의 생애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바로 하늘로 들림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을 것이다. 그 때까지 아무도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다는 기록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에녹은 그 약속을 믿었다. 에녹이 그렇게 한 것은 가장 분별 있고 이성적인 일이었다. 피조물이 자기의 창

조주를 믿는 것보다 더 합당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에녹은 삼백 년 동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했다(창 5:21-24). 그리고 그는 영원 속으로 걸어들어 갔다. 그는 율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믿음의 삶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은 신뢰받는 것을 기뻐하신다.

11: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어떠한 선한 행위로도 믿음이 없는 것을 상쇄할 수 없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는 것과 일반이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요일 5:10)이며, 자기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실 수 있겠는가?

믿음은 하나님께 그분의 합당한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며, 사람을 그가 있어야 할 합당한 자리에 갖다 놓는 것이다. C. H 매킨토시(Mackintosh)는 “믿음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분임을 신뢰하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에 관해 믿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의지 안에 있다.

11:7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경고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창 6:17). 사람들은 그들의 경험 가운

데 결코 홍수를 본 적이 없었으며, 사실 그 때까지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었다고 믿을 만한 몇 가지 이유들이 있다(창 2:5-6). 노아는 항해할 수 있는 바다를 거의 접해 본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방주를 예비했다. 틀림없이 그는 많은 사람의 조소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노아의 믿음은 보상을 받았다. 그의 집은 구원을 받았고, 세상은 그의 삶과 증거에 의해 정죄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믿음을 기초로 얻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아마 이 서신을 받은 초기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옳다면 자신들이 왜 그렇게 소수에 불과한지 때로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노아는 구약성경의 책장으로부터 자신을 내보이며 그들에게 자기의 시대에도 오직 여덟 사람만 진리를 따랐고 남은 세상 사람들은 모두 멸망을 당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11:8 아브라함은 아마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동안 우상숭배자였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다. 믿음의 순종으로 그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면서도 자기 집과 나라를 떠났다. 틀림없이 그의 친구들은 그의 그러한 행동을 비웃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이와 같았다.

“나는 알지 못하나 나아가네.

내가 만일 안다면 가지 않을 것이니

빛 가운데 홀로 걷기보다

차라리 하나님과 어둠 속을 걷기를,

보는 것으로 홀로 걷기보다
믿음으로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네.”

(H. A. 캐스터라인).

믿음의 걸음은 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경솔하고 무모하다는 인상을 주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앞으로의 길은 알지 못하지만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만족한다.

11:9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그 땅은 그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가 돈을 주고 산 그 땅의 일부분도 자기의 죽은 자를 위한 무덤이었다. 그는 안정된 거주지에 거하는 대신 순례자의 상징으로서 장막에 거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는 가나안을 일시적으로 머무는 외국으로 여겼다.

아브라함의 순례길의 동행자는 자기 아들과 손자들이었다. 그들도 가나안 땅을 소유로 삼을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의 경건한 본은 그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겨 놓았다.

11:10 아브라함은 왜 자기의 소유지를 그렇게 가볍게 여겼는가?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기 마음을 현재의 물질적인 것에 두지 않고 영원한 것에 두었다. 원문에는 성과 터라는 말 앞에 그(the) 성, 그(the) 터와 같이 정관사가 있다. 믿음으로 고려하면 진정한 가치가 있는 성(城)은 오직 하나이며, 확실한 터(foundations)를 가진 성도 오직 하나이다.

하나님은 이 하늘 도성의 설계자이자 건축자이시다. 그 도성은 빈민가도 없고, 오염된 공기도 없고, 오염된 물도 없고, 우리의 대도시를 병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없는 모범 도시이다.

11:11 믿음으로 사라는 그의 나이가 약 90세가 되었을 때에 기적적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기록은 분명하게 그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삶의 시기를 지났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이를 약속하셨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분이 그분 자신이 하신 말씀을 거두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11:12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을 때 약 99세였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수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으며, 그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었다.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셀 수 없이 많은 땅의 가족들, 곧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는 수없이 많은 영적인 가족, 즉 모든 세대의 참된 신자들의 조상이 되었다. 해변의 모래는 아마도 땅의 자손을 상징하며, 하늘의 별들은 하늘 백성들을 예시해주는 것 같다.

11:13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결코 자기의 수많은 자손들을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결코 다 차지하지 못했다. 구약의 성도들은 결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멀리 바라보는 영적 안목을 통해 그 약속을 아주 가까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벽찬 기대를 갖고 바로 그들의 눈앞에 실현되는 것처럼 그럴 수 있었다.

그들은 이 세상이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들은 안연히 거하고자 하는 유혹을 거절하고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삶에 만족했다. 그들의 소원은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자신을 오염시키지 않고 세상을 비켜 지나가는 것이었다. 그들의 마음은 순례의 여정에 고정되어 있었다(시 84:5).

11:14 그들의 삶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준다. 믿음은 그들 안에 가나안의 즐거움에 결코 만족하지 않는 본향 찾는 마음을 심어 주었다. 그들이 본향이라고 부를 수 있는 더 나은 땅에 대한 열망은 언제나 있었다.

11:15 그들이 본향을 찾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본 기자는 자신은 그들이 태어난 곳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를 원했다. 만약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갈 소원을 가졌었다면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곳은 그에게 더 이상 본향이 아니었다.

11:16 그들의 믿음에 대한 참된 설명은 그들이 하늘 본향을 찾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대부분의 약속이 이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과 관계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이것은 다소 놀

라운 일이다. 하지만 그들도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었으며, 그 소망은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외국으로 간주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순례의 정신은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다비(Darby)는 “하나님은 자기들의 마음과 기업을 하늘에 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기록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한 도성을 예비하셨으며, 그곳에서 그들은 쉼과 만족과 완전한 평화를 발견한다.

11:17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가장 큰 시험에까지 왔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독자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리라고 말씀하셨다. 주저함이 없는 순종으로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의 가장 사랑하는 보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집을 나섰다. 그는 그러한 진퇴유곡의 지경에 빠졌을 때에 갈등이 없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으며, 이삭은 그의 유일한 독자였다. 아브라함은 이제 117세, 사라는 108세였다!

11:18 수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은 이삭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다. 만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다면,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인가? 이삭은 지금 열일곱 살쯤의 나이에 결혼도 하지 않은 몸이었다.

11:19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며 그것이 야말로 중요한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요구하신다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심지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당시에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의 경우에 대한 기록도 없었다. 인간의 경험은 제공해줄 만한 자료가 없었다. 아브라함은 순전히 자기 스스로 부활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의 믿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셔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돌려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의 마음에는 이미 이삭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러한 마음의 행동을 보시고 그를 인정하셨다. 그랜트(Grant)가 잘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자를 아끼지 아니한 아브라함의 마음의 고통을 헤아려 주셨다.” 그분은 이삭의 자리를 대신하도록 수양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 독자는 자기 아버지의 마음과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 훌륭한 믿음의 본을 마치기 전에 반드시 언급해야 할 두 가지 요점이 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죽이도록 의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인간 제사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고 그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아셨다. 그런 후 그분은 자기의 명령을 취소하셨다.

둘째로, 수많은 자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일백 년 이상 시험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에 대한 약속을 처음 받을 때 그는 75세였다. 그는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25년을 기다렸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그를 데려갔을 때 이삭은 열일곱 살이었다. 이삭은 결혼할 때 40세였으며, 쌍둥이가 태어날 때까지는 20년이 걸렸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잠들었다. 그때까지 그의 자손은 한 아들(75

세)과 두 손자(15세) 뿐이었다. 그러나 그의 생애 동안 “그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롬 4:20-21).

11:20 서구인들의 사고(思考)로 다음 세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믿음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 대한 미래의 축복을 기원했기 때문에 믿음의 영예의 한 자리를 획득했다. 이 일에 관해 주목할 만한 점이 무엇인가?

자녀들이 태어나기 전에 주님은 리브가에게 그 두 아들이 두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는 것과 큰 자(에서)가 작은 자(야곱)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에서는 이삭의 총애를 받는 아들이요 장자로서 당연히 자기 아버지로부터 가장 좋은 분깃을 물려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리브가는 시력을 거의 잃은 이삭을 속여서 가장 좋은 축복을 야곱에게 주게 했다. 계약이 드러났을 때 이삭은 몹시 두려워했다. 하지만 그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며, 에서에 대한 자신의 편애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신의 본능적인 연약함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인정했다.

11:21 야곱의 생애에 관해 영광스럽지 못한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영웅으로서의 영예를 차지한다. 그의 인격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향상되었으며, 그는 지극한 영광 가운데 잠들었다. 그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을 때, 그는 손을 어긋맞게 얹어서 큰 자의 축복이 작은 자인

에브라임에게 임하게 했다. 요셉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 자기가 한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육체적인 시력이 흐려졌음에도 그의 영적인 시력은 날카로웠다. 야곱의 생애가 마감되는 장면은 그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음을 보여준다. C. H. 매킨토시(Mackintosh)는 그의 평소의 정감어린 문체로 이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야곱의 인생의 종말은 파란만장한 역사의 이전의 모든 장면과 너무도 대조적이다. 그것은 마치 폭풍우의 낮을 지나고 지극히 온화한 황혼의 저녁을 연상케 한다. 즉 태양이 낮 동안에는 구름과 안개 때문에 눈에 띄지 않다가 결국엔 위풍과 찬란한 모습을 지니고 나타나서 서쪽 하늘을 힘 있게 비추며 밝은 내일을 즐겁게 전망하는 것과 같다. 연로한 족장 야곱의 경우도 꼭 그러하다. 속이는 자, 계약을 맺던 자, 간사한 자, 경영자, 경솔한 자, 부정한 자, 불신앙적인 이기적 두려움의 소유자에게서 이 모든 육과 땅에 속한 어두운 그림자들이 이제 다 지나갔다. 그런데 그와 같은 야곱이 이제는 믿음의 고요한 위풍을 지니고 나타나서 축복을 빌며 위엄을 나눠주고 있다. 그것도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이 가능한 거룩한 숨씨로 그렇게 하고 있다.”²³⁾

11:22 임종시에 요셉의 믿음도 역시 견고하였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믿음은 그로 하여금 출애굽을 미리 그려볼 수 있게 했다. 그 약속은 그에게 너무도 확실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아들들에게 자기의 유골을 가져다가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지시했다. 윌리엄 링컨(William

23) (11:21) C. H. Mackintosh, *Genesis to Deuteronomy: Notes on the Pentateuch*, p. 133.

Lincoln)은 “그러므로 애굽의 영화와 화려함에 둘러 싸여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은 결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미래의 영광과 축복 속에 있는 자기 민족들에게 가 있었다”라고 기록했다.²⁴⁾

11:23 여기에 나타난 믿음은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지 모세 자신의 믿음이 아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낳은 아이를 보았을 때,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알았다. 물론 그것은 육체적인 아름다움 이상을 말한다. 그들은 그가 어떠한 정해진 목적에 의해 태어난 아이이며,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역을 위해 구별해 놓으신 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은 그들에게 임금님의 명령을 어기고 석 달 동안 그 아이를 숨길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11:24 모세 자신도 믿음으로 숭고한 거부를 할 수 있었다. 애굽 궁궐의 영화(榮華) 속에서 성장했고, 인간이 연기를 소망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는 “안식을 가져다주는 것은 그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임을 알았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는 애굽의 명예를 거절했다. 그는 바로의 딸의 양자(養子)였으며 그런 이유로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바로의 후계자도 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선민(選民)이라는 더 나은 피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었다. 그는 이러한 고귀함으로부터 애굽의 왕족의 자리로 내려갈 수 없었다. 성년이 되었을 때, 그는 드디어 선택을 했다. 그는 짧은 몇 년간의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해 자기의 진정한 국적을 굳이

24) (11:22) William Lincoln, *Lectures on the Epistle to the Hebrews*, p. 106.

숨기려 하지 않았다. 결과는 무엇인가?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무덤 위에 그 뜻조차 애매한 한 두 줄의 글귀로 기억되는 대신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책에서 기념된다. 박물관에서 애굽 사람의 미이라로 발견되는 대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유명해졌다.

11:25 둘째로, 그는 애굽에서의 즐거움을 버렸다. 고난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이 그에게는 잠시 동안의 만족보다 더 의미가 있었다.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 받는 특권이 그에게는 바로의 전(殿)에서의 쾌락보다 더 큰 즐거움이었다.

11:26 셋째로, 그는 애굽의 보화에서 등을 돌렸다. 믿음은 그로 하여금 애굽의 눈부신 보화로 채워진 집은 영원이라는 빛으로 볼 때는 하잘것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그래서 그는 메시아가 후에 당하게 될 것과 같은 종류의 능욕을 받는 것을 선택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그분의 백성들에게 대한 사랑을 바로의 부(富)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다. 그는 세상의 귀한 것들이 자기가 죽은 후에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11:27 그는 또한 애굽의 왕족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임금의 노(怒)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종된 땅을 떠났다. 그것은 이 세상의 권세를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명백한 단절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였으므로 바로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성경에 다음과 같이 표현된 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이다 아멘”(딤후 6:15-16).

11:28 마지막으로 그는 애굽의 종교를 거절했다.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함으로써 그는 애굽 사람들의 우상숭배로부터 분명하게 자신을 영원히 구별하였다. 그는 종교적인 제도에 대항하여 도전장을 내었다. 그는 구원이 나일강의 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어린양의 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믿었다. 결과적으로 애굽의 장자들은 멸하는 자에 의해 죽임을 당했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구원을 받았다.

11:29 처음에 홍해는 이스라엘의 피난민들에게 재난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였다. 맹렬하게 추격해 오는 대적들로 인해 그들은 진퇴유곡의 함정에 걸려든 것 같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은 앞으로 나아갔고 바다는 갈라졌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라”(출 14:21).

애굽 사람들이 뒤따라가려고 했을 때, 그들의 병거 바퀴는 벗겨졌고 바다는 다시 흘러서 바로의 군대는 수장(水葬)당했다. 이렇게 해서 홍해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길이 되었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운명의 마지막이 되었다.

11:30 성(城)으로 둘러싸인 도시 여리고는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첫 번째 적국이였다. 우리의 이성(理性)은 그러한 난공불락의 요새는 오직 더 큰 힘에 의해서만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

만 믿음의 방법은 다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전략을 사용하신다. 그분은 백성들에게 7일 동안 그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라고 말씀하셨다.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아야 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크게 울려 불어야 했고,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야 했으며 그런 다음 그 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었다.

군사 전문가들은 그와 같은 방법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우리의 무기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고후 10:4).

11:31 우리는 기생 라합이 언제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녀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녀는 가나안의 거짓 종교를 버리고 유대인과 같은 신앙을 갖게 되었다. 그녀의 믿음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그녀의 집에 왔을 때 철저히 시험을 받았다. 그녀는 자기 민족과 조국에 충성했을까? 아니면 하나님께 진실했을까? 그녀는 그것이 조국을 배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기로 결심했다. 정탐꾼들을 친절하게 맞아들임으로써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반면에 불순종하던 그녀의 이웃들은 멸망을 당했다.

11:32 여기에서 본 기자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라고 수사학적(修辭學的)인 질문을 던진다. 그는 구약시대에 믿음과 인내를 실증적으로 보여준 훌륭한 남녀들의 목록을 제시한다. 그가 요지를

전달하기 위해 얼마나 더 많은 예를 보여주어야 하는가?

그는 수많은 예를 더 들 수 있지만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 자세히 말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시련과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의 목록을 몇 가지만 드는 것으로 만족한다.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어든 군사로 싸움을 했던 기드온이 있었다. 처음에는 겁이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의 안위를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 돌려보내졌다. 가장 핵심적이고 충성된 군사들을 데리고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들을 몰아냈다.

그 다음에 바락이 있다. 그는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나안 족속과 싸움을 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오직 드보라가 자기와 함께 가는 조건으로 동의했다. 그의 성격이 소심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참된 의뢰가 있는 것을 보셨으며, 그를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포함시키셨다.

삼손은 명백한 약점을 가진 또 다른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맨손으로 젊은 사자를 죽이게 하고, 아스글론에서 삼십 명의 블레셋 사람을 멸하게 하였으며, 나귀의 턱뼈로 일천 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게 하고, 가사의 성 문 짝을 빼서 옮기게 하며,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곤의 신전을 무너뜨려서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게 한 그의 믿음을 간파하신다.

입다는 사생아였지만 자라서 자기 백성을 암몬 자손에게서 구원하는 자가 되었다. 그는 믿음이 사람으로 하여금 출생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위해 역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다윗의 믿음은 골리앗과의 싸움과 사울에 대한 고상한 행동, 시온에 올라감,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사건들 속에서 빛난다. 그의 시편에서 우리는 통회함과 찬양, 그리고 예언으로 구체화 된 그의 믿음을 발견한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였다. 그는 제사장 직분이 영적인 파탄으로 인해 얼룩져 있을 때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존귀한 자들의 무리인 선지자들이 언급되고 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기보다 죽음을 선택했으며, 악한 자들과 세상에 머물기보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들어간 사람들이었다.

11:33 본 기자(記者)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는 대신 그들의 행동에 대해 언급한다. 그들은 나라들을 이겼다. 우리의 마음은 여기에서 여호수아, 사사들(그들은 진실로 군사 지도자들이었다), 다윗, 그리고 그들과 비슷한 다른 사람들에게로 향하게 된다.

그들은 의(義)를 행했다. 솔로몬,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왕들은 비록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의를 행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약속을 받았다. 이것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솔로몬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혹은 그들이 약속의 응답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그들은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다니엘은 이 점에 있어서 가장 두

드러진 예이지만(단 6:22), 우리는 또한 삼손(삿 14:5-6)과 다윗(삼상 17:34-35)을 기억해야 한다.

11:34 그들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 맹렬한 풀무불은 오직 히브리 세 청년의 차꼬만을 태우고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었을 뿐이었다(단 3:25). 그러므로 그것은 외견상으로는 불행해 보이는 축복임이 입증되었다.

그들은 칼날을 피했다. 다윗은 사울의 악의에 찬 공격을 피했으며(삼상 19:9-10), 엘리야는 이세벨의 살인적인 미움을 피했으며(왕상 19:1-3), 엘리사는 수리아 왕으로부터 피했다(왕하 6:15-19).

그들은 연약한 가운데서 힘을 얻었다. 연약함을 뜻하는 많은 상징들은 믿음의 역사 안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어 에훤은 왼손잡이였지만(삿 3:12-22) 모압 왕을 죽였다. 야엘은 여성으로서 장막 말뚝으로 시스라를 죽였다(삿 4:21). 기드온은 향아리를 사용하여 미디안 족속을 패배시켰다(삿 7:20). 삼손은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일천 명을 죽였다(삿 15:15).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 진리를 보여주는 증거들이다(고전 1:27).

그들은 전쟁에서 용맹스러웠다. 믿음은 사람들에게 보통 이상의 능력을 주었으며, 그들로 하여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직면해서 극복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장비도 별로 갖추지 못했고 수(數)에서도 열세였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낙승을 거두며 대적들과 그 외 주위의 다른 민족들에게 놀라움과 두려움이 되었다.

11:35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했다. 사르밧 과부(왕상 17:22)와 수넴 여인의 경우(왕하 4:34)가 이것의 좋은 예이다.

믿음에는 또 다른 면이 있다. 눈부신 업적을 이룩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극심한 고통을 견딘 사람들도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후자도 전자만큼 귀중하게 여기신다.

주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잔인한 고문을 받아야 했다. 만약 그들이 여호와를 부인했다면 그들은 자유를 얻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반역자로서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하늘나라의 영광 가운데 부활하는 것이 더 가치 있게 여겨졌다. 마카비(Maccabees) 가(家)의 일화에서, 어머니와 그녀의 일곱 아들들은 차례대로 자신들의 면전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Antiochus Epiphanes)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그들은 단지 세상에서의 삶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보다 더 좋은, 즉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죽음을 면하기를 거절했다.

모리슨(Morrison)은 다음과 같이 주해를 했다.

“사람에게 구원을 제공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 구원이 제공되었을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훌륭한 용기를 주는 것도 믿음이 낳은 결과이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 믿음을 보여줄 때도 있고, 거절하는 것으로 그것을 증거할 때도 있다. 믿음이 수용하는 구원이 있고, 믿음이 거부하는 구원이 있다. 그들은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악형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그들이 신실했다는 증거요 표시이다. 믿음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보다 적은 기회를 신속하게 거부하는 것이다.”²⁵⁾

25) (11:35) G. H. Morrison, “Morrison on Luke,” *The Glasgow Pulpit Series*, I:42.

11:36 어떤 사람들은 희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옥에 갇혔다.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런 모든 형태의 형벌을 당했다(렘 20:1-6; 37:15). 요셉 역시 죄의 쾌락보다 고난 받기를 좋아했으므로 옥에 갇혔다(창 39:20).

11:37 그들은 돌에 맞았다. 예수님께서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사가랴를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이런 방법으로 살해한 것을 상기시키셨다(마 23:35).

그들은 톱으로 켜를 당했다. 느닷없게 이사야를 살해할 때 이 방법을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그들은 시험을 받았다.²⁶⁾ 이 구절은 타협과 부인, 죄악된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고 어떤 식으로든지 그들의 주님을 부인하도록 신자들에게 가해지는 극심한 압박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은 칼에 죽임을 당했다. 선지자 우리야는 여호야김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신실하게 선포한 대가로 이러한 값을 치렀다. 하지만 이 표현은 마카비 시대에 일어났던 것과 같은 대량학살에 대한 언급이다.

그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무어헤드(Moorehead)의 주석을 살펴보자.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의 거짓말을 믿었더라면 왕궁에서 비단 벨벳을 걸치고 호사스러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대신 그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였으며, 그들 자신을 양이나 염소에 지나지 않는 자, 아니 그것들 처럼 오직 살육당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²⁷⁾

26) (11:37) NU에는 “시험”(were tempted)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다.

27) (11:37) William G. Moorehead, *Outline Studies in the New Testament*.

그들은 궁핍과 환난과 핍박을 당했다.

11:38 세상은 그들을 마치 세상에 살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인 양 대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감탄적인 어조로 사실은 그 반대, 즉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신다.

그들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다. 집을 빼앗기고, 가족과 분리되고, 짐승처럼 쫓기고, 사회로부터 축출당한 채 그들은 더위와 추위, 환난과 고통을 견디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

11:39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약의 영웅들의 믿음에 대해 증거 하셨다. 하지만 그들은 약속의 성취를 받기 전에 죽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의 강림과 그분의 사역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축복을 누리기까지 살지는 못했다.

11:40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보존하셨다. 그분은 그들이 우리와 상관없이 온전하게 되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죄의 문제에 있어서 결코 완전한 양심을 즐기지 못했다. 그들은 우리 모두 주님을 뵈기 위하여 공중으로 들림을 받을 때에야 비로소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 몸으로 온전한 완전함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살전 4:13-18). 구약 성도들의 영(spirits)은 주님 앞에서 이미 온전케 되었다(히 12:23). 그러나 그들의 몸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다시 오실 때에야 비로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Philippians to Hebrews, p. 248.

이다. 그 다음에 그들은 완전한 부활의 영광을 즐기게 될 것이다.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면,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만큼 특권을 누리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영광스러운 승리와 엄청난 고난에 대해 생각해 보라! 그들의 업적과 그들의 인내를 생각해 보라! 그들은 십자가의 다른 한 쪽 편에서 살았다. 우리는 십자가의 온전한 영광 가운데 살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의 삶과 비교하여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한가?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이 던지는 강력한 도전이다.

3)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한 권면(12장)

12:1 우리는 히브리서가 핍박을 받는 중에 있던 사람들에게 쓰여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유대교를 버렸기 때문에 혹독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그들 자신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표시로 해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 그들은 낙심하여 포기할 수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위험한 것은 그들이 성전과 그 의식으로 돌아가려는 시험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난이 유일무이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했다. 11장에 묘사되어 있는 많은 증인들은 주님께 대한 충성의 결과로서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감내했다. 만약 그들이 우리보다 더 적은 특권을 위해서 이와 같이 굽히지 않고 인내를 유지했다면, 우리는 더 온전한 기독교의 축복을 주신 분에게 얼마나 더 깊은 충성을 바쳐야 하겠는가?

그 증인들은 우리를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땅

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관람하는 구경꾼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과 인내의 삶으로써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으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높은 기준을 제시해 준다는 뜻이다.

이 구절은 우리로 하여금 종종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의 삶을 보고 있을까? 그들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그들이 알고 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한 죄인이 구원받을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눅 15:7)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훈련과 인내”가 요구되는 경주이다. 우리는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 “무거운 것”은 그 자체로는 해롭지 않지만 진보를 가로막는 것일 수 있다. 그것들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 가족간의 유대관계, 인락함을 사랑하는 것, 이동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올림픽 경기에는 음식물이나 음료수를 소지하고 뛰지 말라는 규칙은 없지만 경주자는 그런데 미련을 둔다면 결코 경기에서 승리할 수 없다.

우리는 또한 “엷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 이것은 여하한 형태의 죄를 뜻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불신의 죄를 의미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여야 하며, 믿음의 삶이 반드시 승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온전히 확신해야 한다.

우리는 이 경주가 쉬운 단거리 경주라는 생각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것은 장미빛이라는 생각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는 인내로써 시련과 유혹들을 극복하고 나아갈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12:2 경주를 마칠 때까지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먼저 달려가신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한다.

A. B. 브루스(Bruce)는 이것에 관해 다음과 같이 주석을 달았다.

“다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한 분이 있다. …가장 앞서 믿음으로 삶의 이상을 완전하게 실현하신 분…그분은 굽힘없이 십자가의 혹독한 고난을 참아내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며, 너무나 생생하게 앞에 있는 즐거움과 영광을 바라보셨으므로 현재의 고통과 수치를 의식하지 않으셨다.”²⁸⁾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에 관해 유일하게 완전한 본을 보여주셨다는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의 주(主)요 선구자이시다. 그분은 또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경주를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마치셨다. 그분에게 있어서 경주의 시작과 끝은 하늘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그 다음에는 겟세마네와 갈보리까지, 그 다음에는 무덤에서 나오셔서 하늘로 돌아가실 때까지였다. 그분은 한 번도 주저하거나 뒤로 돌아간 적이 없으시다. 그분은 구속받은 모든 백성들이 그분과 함께 영원히 모이게 될 앞에 있는 영광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키셨다. 이것은 그분으로 하여금 수치를 잊게 했으며 고난과 죽음을 견디게 했다. 지금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12:3 이제 그림은 경주에서 죄에 대한 싸움으로 옮겨간다. 우리의 용감한 대장은 주 예수님이시다. 그분만큼 죄인들의 거역함을 인내한 사람은 없다. 힘을 잃고 낙심될 때마다 우리는 그분이 먼저 통과하신 그 길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할 때 시련은 상대적으로 작

28) (12:2) A. B. Bruce, *Hebrews*, pp. 415, 416.

게 보일 것이다.

12:4 우리는 지금 죄에 대한 끊임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즉 죽음에 이르기까지 대항한 경험은 없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

12:5 이제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견해가 소개되고 있다. 핍박, 시험, 시련, 질병, 고통, 슬픔, 그리고 환난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들은 하나님의 분노와 징벌의 표시일까? 아니면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일까?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이 구절은 이런 일들이 그분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훈육 과정의 일부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닐지라도 그분은 그것들을 허락하셔서 그분 자신의 영광과 우리의 선(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축복을 위하여 사용하신다.

그리스도인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란 결코 없다. 고통은 외면상 불행해 보이는 축복이며, 실망은 그분의 섭리를 이루는 또다른 도구이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불리한 환경들을 지배하셔서 우리에게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 그래서 초기 유대인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잠언 3장 11,12절을 기억하라는 권면을 받고 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분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분의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당부하신다. 만일 그들이 반항하거나 포기해 버린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실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잃어버

리고 그분의 교훈을 배우지 못하게 된다.

12:6 징계(chastening)나 채찍질(chastisement)이라는 단어를 대할 때에 우리는 일차적으로 매를 연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단어는 아이들을 훈육하거나 교육하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 이것은 지도, 훈련, 교정, 그리고 경고를 포함한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의 덕(德)을 계발하고 악을 제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 문맥에서 징계는 잘못된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꺾박을 통한 훈련을 의미한다.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가 그분의 사랑의 증거이며, 어떠한 아들도 그분의 징계로부터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언급하고 있다.

12:7 하나님의 다루심에 복종하는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훈육을 통해 그분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다루심을 경홀히 여긴다면, 그분은 더 오랜 시간에 걸쳐 더 교육적인 방법으로, 결과적으로 더 힘든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셔야만 할 것이다. 하나님의 학교에는 일정한 단계가 있으며, 우리는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마친 다음에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시험이 닥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시며 시험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에서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에게 최상의 것을 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훈련시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성

장하기를 바라신다.

12:8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사생아요 참 아들이 아니다. 정원사는 엉겅퀴를 가지치기하지 않는다. 그는 포도나무의 가지를 친다. 그것은 자연계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2:9 우리들 대부분은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로부터 징계를 경험했다. 우리는 그것을 아버지가 우리를 미워하는 표시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한다.

우리는 모든 영(靈)의 아버지의 훈련을 얼마나 더 존중해야 하겠는가! 하나님은 영(spirit) 혹은 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의 아버지(혹은 근원)이시다. 인간은 몸 안에 거하는 영을 가진 존재이다.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우리는 가장 진실된 의미에서 삶을 향유할 수 있다.

12:10 땅에 있는 부모들의 징계는 완전하지 않다. 그것은 단지 잠시 동안, 즉 유년기나 청년기 동안에만 해당된다. 만일 그 시절에 징계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효과가 없다. 그리고 그것은 대개 부모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해지는 징계이지만 때로 합당하게 행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징계는 항상 온전하다. 그분의 사랑은 한이 없고 그분의 지혜는 완전하다. 그분의 징계는 결코 변덕스러운 결과의 결과가 아니며 언제나 우리의 유익을 위해 행해진다. 그분의

목적은 우리가 그분 자신의 거룩에 참여하는 것이다. 경건은 결코 하나님의 학교 밖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조우엣(Jowett)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올바르게 세워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참여케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 속에는 분명한 의도가 들어있는데, 그 의도란 정결케 되고 아름답고 위대한 삶을 목표하는 것이다. 여기에 사용되는 불은 부주의하고 아무렇게나 타올라서 보배로운 것들을 다 소멸해 버리는 불이 아니다. 그것은 정련(精鍊)하는 사랑의 불로서 그는 그 불 옆에 앉아서 인내를 가지고 또한 온유한 마음으로 연약함으로부터 안정을, 부주의함으로부터 경건을 이끌어 내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에 기쁘게 보이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실 때에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창조적으로 일하신다. 그분은 성령님의 열매와 꽃을 피우시며, 그분의 사랑은 언제나 사랑스러운 것을 추구한다.”²⁹⁾

12:11 모든 징계는 당시에는 고통스럽게 보인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연단받은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의의 화평한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종종 레슬리 웨더헤드(Leslie Weatherhead)의 다음과 같은 간증을 듣게 되는 이유이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햇빛이 비추이는 높은 경협의 고지(高地)를 좋아한다. 거기에는 건강이 있고 행복이 있으며 성공이 있다. 하지만 나는 화창한 가운데서보다도 두려움과 실패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 인생과 나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웠

29) (12:10) J. H. Jowett, *Life in the Heights*, pp. 247, 248.

다. 어두움은 때로 보배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어두움은 지나간다. 하지만 어두움을 통과하면서 배운 교훈은 영원히 나의 소유가 된다. 웨일론(Fenelon)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련들은, 만일 당신이 그것들을 겸손하게 받아들기만 한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을 이루는 방법임이 입증될 것이다. 우리를 낙심케 만들고 우리의 자긍심을 손상시키는 일들은 우리를 고무시키고 격려하는 일들보다 더 유익이 있다.’³⁰⁾

또한 C. H 스펄전의 다음과 같은 간증에 대해 숙고해보자.

“나는 나의 안락하고 평탄한 생활과 행복한 시간들 안에서 내가 누리는 모든 은혜가 실제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든다. 그러나 나의 슬픔과 고통, 그리고 곤경으로부터 얻은 유익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었다. 망치와 머루, 제련하는 불과 거친 부분을 다듬는 줄에게 나는 얼마나 많은 큰 빛을 쬐는가! 고난은 우리 집에 있는 가장 좋은 도구이다.”³¹⁾

12:12 신자들은 삶의 불리한 환경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믿음의 패배는 다른 사람들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피곤한 손은 다시 소생함을 입어서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연약한 무릎은 인내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 강해져야 한다.

12:13 “저는 다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걸어가야 할 끝은 길로 인도를 받아야 한다. 윌리엄스(Williams) 이것에 관해 다음과 같

30) (12:11) Leslie Weatherhead, *Prescription for Anxiety*, p. 32.

31) (12:11) C. H. Spurgeon, “Choice Gleanings Calendar.”

이 기록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 믿음의 길을 평탄케 해준다. 하지만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믿음의 걸음을 거치게 하며 영적인 절름발이를 생산한다.”³²⁾

G. H 랭(Lang)은 이것에 관한 훌륭한 예를 제시한다.

“비바람을 맞으며 거친 길을 건느라 피곤에 지친 여행자가 힘을 잃은 채 겨우 몸을 가누고 멈춘다. 몸을 잔뜩 구부리고, 손은 힘없이 늘어뜨리고, 무릎은 연약해져서 그는 더 이상 걸기를 포기하고 땅에 주저앉을 것만 같다. 하나님의 순례자도 여기에 그려진 여행자처럼 지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다.

그러나 확신에 찬 어떤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부드러운 미소와 힘 있는 목소리로 ‘일어서게. 힘을 내게나. 벌써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여태까지 쏟은 수고를 헛되이 하지 말기를 바라네. 이 여행의 종착지에는 아름다운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네. 자, 저기 보이는 저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끝은 길이야. 저 길로 계속 가게나. 그리고 거기서 자네의 연약한 무릎을 고쳐주실 수 있는 위대한 의사를 찾아보세. …자네 앞서 간 순례자들도 그 본향에 가기 위해 다 이런 힘든 길을 걸어갔네. 또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이라네. 자네는 혼자가 아니야. 계속 가게나! 자네 역시 목적지에 다다른 후에 상을 얻을 걸세.’”³³⁾

말로 곤핍한 자를 어떻게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사 50:4). 권면을 받아들이는 사람 역시 행복한 사람이다

32) (12:13) George Williams, *The Student'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p. 989.

33) (12:13) G. H. Lang, *The Epistle to the Hebrews*, pp. 240, 241.

(히 13:4). 그리고 단순하고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주님 안에서
혹독한 시련을 당할 때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더욱 행복한 사람
이다.

12:14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권면은 특히 핍박을 받고 있는
중일 때, 믿음에서 떠나려는 사람이 있을 때, 신경이 예민해 있을
때 필요하다. 그런 때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좌절감이나 두려움을 표출하기가 쉽다.

우리는 또한 거룩을 추구해야 한다. 거룩이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거룩은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
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신약성경에서 거룩이 신자들과 관련하여 적
어도 세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첫째로, 신자는 구원받을 때 신분상으로 거룩함을 얻었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구별되어진다(고전 1:2, 6:11).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로서 영원히 거룩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거룩은 하늘에 있다”라고 마틴 루터(Martin Luther)가 표현한 의미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과 관련하여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이
되신다.

그 다음에는 실제적인 의미에서의 거룩이 있다(살전 4:3, 5:23).
이것은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성취해야 하는 거룩이다. 우리는 우
리 자신을 모든 종류의 악으로부터 성별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
리는 항상 주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의미에서의 거룩이 있다. 이것은 신자가 하늘
나라로 올라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때 신자는 영원히 죄로부

터 자유를 얻는다. 그를 괴롭히던 옛 본성은 제거되고, 그의 상태는 그의 신분과 완전한 조화를 이룬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거룩은 어떠한 거룩일까? 그것은 물론 현재의 삶에서 경험하는 실제적인 거룩이다. 우리는 신분적인 거룩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자동적으로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뵈게 될 때 얻게 될 완전한 거룩을 추구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거룩은 실제적이고 점진적인 거룩으로서 그것은 우리의 순종과 협력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거룩을 계발해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거룩을 좇아야 한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그 거룩에 완전히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거룩의 다양한 면들에 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2장 11절 참조).

웨스트(Wuest)는 이것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이러한 권면은 성전을 떠난 유대인들에게 성도로서의 지속적인 삶을 살 것과, 그들이 새로 발견한 믿음에 견고히 붙어 있음으로써 그들과 함께 성전을 떠났지만 외적으로만 신약성경의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미 폐지된 레위기 체제의 제사로 돌아가는 대신 대제사장으로서의 메시아를 받아들이도록 영향력 있는 삶을 살라고 권하는 내용이다. 거듭난 유대인들은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야말로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로 하여금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구실을 제공할 뿐이라는 경고를 받고 있다.”³⁴⁾

그러나 아직 난점은 존재한다. 실제적인 면에서의 거룩이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은 정말 사실인가? 그렇다. 분명히 이 말

34) (12:14) Wuest, *Hebrews*, p. 222.

속에는 진리가 들어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거룩한 삶에 의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시다.

이 구절의 참된 의미는 거듭난 삶의 증거는 실제적인 거룩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 거룩한 삶이 증진되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성령님께서 사람 안에 내주(內住)하시면 그분은 자기 자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분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신다. 이것은 원인이 있는 곳에 결과가 반드시 따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이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

12:15 연결되는 두 구절은 우리가 피해야 할 네 가지 서로 다른 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모두 배도라는 한 가지 죄에 대한 경고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르게 보이는 이 네 가지 죄들이 사실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강력한 암시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로, 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인처럼 행세하고, 그리스도인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결코 거듭난 적은 없다. 배도란 “쓴 뿌리”이다. 그는 주님께 대해 반감을 품고 있으며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저버린다. 그의 변절은 누룩과 같아서 다른 사람들이 그의 불평과 의심과 부인에 의해 더럽힘을 받는다.

12:16 배도는 “부도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형식적으로 그리

스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엄청난 부도덕에 빠질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주님을 비난하며 타락의 길을 걷는다. 배도와 성적인 범죄는 베드로전서 2장 10,14,18절, 그리고 유다서 8,16,18절을 보면 서로 연관되어 나타나 있다.

마지막으로, 배도는 에서의 행동을 통해 표현된 것과 같이 “불신앙의 한 형태”이다. 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장자로서의 권리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었다. 그는 그것을 일시적인 식욕의 만족과 거리낌 없이 맞바꾸어 버렸다.

12:17 그 후에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잃은 것을 몹시 후회했지만 부친의 축복을 돌이키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 배도자들의 특성 또한 이와 비슷하다. 그들은 영적인 가치에 대해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들은 능욕과 고난과 순교를 피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들은 혹 뉘우칠지 모르지만 진정한 회개는 없기 때문이다.

12:18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는 자들은 율법이 주어질 때 수반되었던 무서운 광경을 기억하고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만 한다. 시내산에서의 그 광경은 문자 그대로 만질만한 불붙는 산이었다. 그 산은 마치 휘장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모호하게 보였다. 또한 그 산 주위에는 사나운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12:19 자연적인 이상 현상들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들도

따랐다. 나팔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고, 우렛소리가 심히 두렵게 들렸으므로 사람들은 그 소리가 멈추어지기를 간구했다.

12:20 그들은 “산을 범하는 자는 짐승이나 사람을 무론하고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리라”³⁵⁾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듣고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그 명령이 지각이 없는 짐승들에게조차 죽음을 의미한다면,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무서운 형벌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두려워했다.

12:21 전체적인 광경이 너무나 엄중하고 두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모세 자신도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 모든 것은 율법의 본질과 역할을 웅장하게 묘사하고 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와 진노를 나타내는 것이다. 율법의 목적은 구원의 지식을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얼마나 큰 간격이 놓여졌는가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것은 정죄와 두려움과 흑암이 가져온 결과들이다.

12:22 신자들은 시내산의 두려운 광경으로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축복 가운데로 나아오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불붙는 산과 흑암의 장막,
우리의 두려움과 정죄는 사라지고
우리의 양심은

35) (12:20) 가장 오래된 사본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본에는 “or shot with an arrow”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 표현은 이후의 사본에 첨가된 것이다.

결코 변치 않는 평화를 얻었네.”

(제임스. G. 텍).

이제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두려움은 나와 관계가 없도다. 나의 구세주의 순종과 보혈이 내 모든 죄를 가렸네.”(A. M. 둘레이더).

“우리는 원칙적으로 이미 우리의 영원한 처소에 와 있다. 오늘 안에 내일을 가지고 있으며, 미래는 이미 현재이다. 우리는 이 지상(地上)에서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발췌문).

우리는 흑암과 우리와 폭풍우가 있는 두려운 산으로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업이 있는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찬양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그분께 기도한다. 우리는 일 년 중의 단 하루만 그분 앞에 나아가도록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멀리 서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오라”고 말씀하신다.

율법은 시내산을 붙들지만 믿음은 시온산을 바라본다. 이 하늘에 속한 산은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 우리의 소유가 된 은혜의 모든 축복을 상징한다.

율법은 땅에 속한 예루살렘을 갖고 있지만 믿음은 위에 속한 하늘 도성을 갖고 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은 그 기초를 하늘에 두고 있으며, 그것의 설계자이자 건축자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의 무리로 둘러싸이게 된다. 우선, 수많은 천사들의 무리가 있다. 그

들은 죄에 오염된 존재는 아니지만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크나큰 즐거움에 대해서는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노래를 부를 수는 없다.

12:23 그 다음에 우리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함께 한다. 이들은 오순절 날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지만 이제 주님의 임재를 의식적으로 즐기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신부인 교회의 지체들이다. 그들은 그들의 몸이 무덤 속에서 일어나 영광스러운 형체로 자신들의 영과 재결합할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민의 심판자”이심을 안다. 흑암과 뻣뻣한 구름은 더 이상 하나님을 가리울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찬란하다.

거기에는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도 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그들은 흠 없는 순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들은 또한 무덤이 전에 소유하고 있던 권리를 내어놓고, 그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옷 입을 때를 기다린다.

12:24 “새 언약의 증보”이신 예수님께서도 거기 계신다. 옛 언약의 증보자로서의 모세와 새 언약의 증보자로서의 예수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모세는 단순히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증보자로서의 임무를 담당했다. 그는 언약을 맺게 하는 희생을 바치는 백성들의 중재자 혹은 대표자였다.

그리스도는 훨씬 더 깊은 의미에서 새 언약의 증보자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의로운 언약을 제정하시기 전에 주 예수님께서서는 죽임

을 당하셔야만 했다. 그분은 자기의 피로 세운 이 새 언약을 보증하셔야만 했으며,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셔야만 했다(딤후 2:6).

그분은 자신의 죽음으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새 언약의 축복을 쟁취하셨다. 그분은 자신의 무궁한 생명으로 그들을 위해 이 축복들을 보증하신다.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중보자적인 사역 안에 포함되어 있다. 갈보리에서의 상처를 지니고 주 예수님께서서는 구주와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우편에 높이 올리우셨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구주를 바라보기를 좋아한다네.
하나님이 택하신 죽임 당한 어린 양.
머지않아 그분의 성도들이
그분의 모든 영광을 함께 나누리.
그들의 머리되신 주님과 함께 다스리면서.”

(제임스 G. 데크).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평가되는 뿌려진 피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을 때, 그분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흘린 모든 피의 가치를 하나님께 바치셨다. 이것은 그분이 문자 그대로 자기의 피를 하늘로 가져가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피의 효험이 지성소에 알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J. G. 데크는 이 진리를 다음과 같이 시적으로 표현했다.

“그분의 보배로운 피가 거기에 뿌려졌네. 보좌 위에와 바로 그 앞에. 그리고 그분의 상처가, 하늘에서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네.”

그분의 보배로운 피가 아벨의 피와 분명히 대조되어 있다. 우리가 아벨의 피라는 표현을 아벨이 드린 제물의 피를 의미한다고 이해하든 혹은 가인에 의해 흘려진 아벨 자신의 피를 의미한다고 이해하든 그리스도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한다는 사실에는 결코 변함이 없다. 아벨의 제물의 피는 “일시적으로 가려진 상태”를 증거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히 용서된 상태”에 대해 증거해 준다. 아벨 자신의 피는 “보복”(報復)을 부르짖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자비, 용서, 그리고 화목”을 부르짖는다.

12:25 12장을 마감하는 구절들은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계시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대조적으로 보여준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비교할 수 없는 특권과 영광은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초청의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도 주신다. 그분을 거절하는 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것과 일반이다.

율법에 나타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그에 따른 보응을 받았다. 특권이 더 많을수록 의무 또한 더 많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최대최상(最大最上)의 계시를 주셨다. 복음을 통해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그분의 음성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범한 사람들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2:26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땅을 진동했다. 하지만 장래에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분의 음성은 하늘까지 진동시킬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선지자 학개에 의해 예언되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학 2:6).

이 진동은 휴거가 일어난 다음부터 그리스도의 왕국의 마지막에 이르는 기간에 걸쳐 일어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기 위해 오시기에 앞서 땅과 하늘에서는 격렬한 자연계의 변동이 있을 것이다. 하늘의 행성(行星)들은 본 궤도에서 이탈하여 사나운 조수와 파도를 일으킬 것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의 통치가 마감되면서 지구와 별들의 하늘과 대기권의 하늘이 뜨거운 불에 의해 파괴될 것이다(벧후 3:10-12).

12:27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하늘과 땅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변동을 예견하셨다. 이 사건은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조종할 수 있는 것만이 실제적인 것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은 비실제적인 것들이라는 인간의 신화를 뒤엎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동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과정을 마치신 후에는 오직 참된 것만이 남아있게 될 것이다.

12:28 유대주의의 눈에 보이는 의식주의에 마음이 미혹된 사람들은 결국 사라지고 말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참된 신자들은 진동치 못할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가장 열정적인 경배와 찬양을 불러일으키는 동기가 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12:29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소멸하는 불이시다. 하나님의 거룩과 의(義)는 심히 위대하

시므로 가장 심오한 경의와 존경과 복종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4) 그리스도인의 다양한 은혜들에 대한 권면(13:1-17)

13:1 히브리서의 실제적인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계발해야 할 은혜에 관한 여섯 가지 권면으로 시작한다. 첫째는 “형제 사랑”이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가족적인 유대감과 사랑의 언어와 행동을 통한 이러한 친밀감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요일 3:18).

13:2 이 서신을 읽는 독자들에게 “손님을 잘 접대하라”는 권면이 주어진다. 손님이라는 표현은 일차적으로 핍박을 피해 유리하며 음식과 거처를 찾느라 고통을 겪고 있는 신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시대에 그들을 접대하는 일은 자기 자신을 위협에 노출시키는 일이었다. 또한 이 구절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성도를 영접하라는 일반적인 권면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손님을 접대하는 중에 뜻하지 않게 천사를 영접하게 될 가능성도 늘 존재한다. 이것은 물론 천사를 영접했던 아브라함의 경험에 대해 말하고 있다(창 18:1-15).³⁶⁾ 우리가 실제로 천사를 영접하는 경험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접대하는 일을 통하여 영원까지 이르게 될 경건한 영향력을 주위에 미치거나, 혹은 함께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이 되는 신령한 성도들을 맞이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36) (13:2) 세 천사들 중의 한 사람은 주님으로서, 성육신(pre-incarnate)이전의 그리스도이시다.

13:3 세 번째 권면은 “간힌 자들을 돌보는 일”과 관계가 있다. 이것은 틀림없이 그리스도를 위한 증거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일 것이다. 그들은 음식과 따뜻한 의복, 입을 책, 그리고 격려 등이 필요하다. 신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함으로써 자기들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위험을 모면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은 갇힌 자를 방문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방문하는 것과 일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다.

“동정”은 마땅히 확대받는 자들에게도 베풀어져야 한다. 이 권면 역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독자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동정을 나타낼 때 수반되는 위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숨기고자 하는 어떠한 경향도 단호하게 부인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이 구절을 모든 고통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 주어야 할 동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육체를 가진 사람이며, 똑같은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13:4 “결혼”은 모든 사람에게 의해 존중을 받아야 마땅하다. 우리는 결혼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인간을 향한 그분의 거룩한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금욕 주의자들처럼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취급하거나 혹은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농담이나 재담거리로 사용하는 것은 모두 성경이 금하고 있다.

결혼한 사람들은 그들의 혼인서약에 충실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침소를 더럽히는 일을 피해야 한다. 이 영역에 있어서 현대인들의 성(性)에 대한 관대한 개념에도 불구하고 결혼의 테두리를 벗

어난 성적인 관계가 그 어떠한 것이든지 범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음행은 질병에 해당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어떠한 형태의 부도덕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에 대해 이생에서도 신체적인 질병이나 가족간의 분리, 정신 및 신경장애, 그리고 인격의 훼손 등으로 심판하신다. 만약 그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영원한 불로써 심판하실 것이다.

종교개혁 시대의 라티머(Latimer) 감독은 부도덕한 왕 헨리 8세에게 이 진리를 확실한 방법으로 증거했다. 그는 왕에게 잘 포장된 한편의 성경을 선사했는데, 그 위에는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13:5 우리가 계발해야 할 여섯 번째 덕목은 “지족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다. 유대주의 신봉자들이 끊임없이 “우리는 성전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제사와 예물과 아름다운 성전의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너희에게는 무엇이 있는가?”라고 공격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여기서 이 서신서의 기자는 그러한 비난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조용히 권면한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유대교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훌륭한 것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만족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것으로 충분하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큰 장애가 된다. 눈앞에 놓인 작은 동전 하나가 우리의 시선을 태양으로부터 돌려놓는 것처럼 탐심

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며 영적 진보를 가로막는다.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업은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신 분을 소유하는데 있다. 헬라어에서는 두 개나 혹은 그 이상의 부정어를 사용하여 강한 부정을 표현한다(이 점은 이중부정이 확실한 긍정을 나타내는 영어의 문장구조와 반대이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소유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다섯 개의 부정어를 연결시키고 있다!

13:6 시편 118편 6절은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의 확신에 찬 고백이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보호와 완전한 안전, 완전한 평화를 가지고 있다.

13:7 독자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사, 즉 “그들의 인도자들을 기억하라”는 권면을 받고 있다. 그들의 행실의 종말은 어떠했는가? 그들은 레위기의 체제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믿음의 고백을 견고하게 유지했다. 아마 그들 중 일부는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의 고통도 감수했을 것이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훈에 착념하는 것,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은 그들이 본받아야 할 믿음이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봉사의 영역에서 주님을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지 않았지만, 우리는 동일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13:8 이 구절은 선행구절과의 관계가 분명치 않다. 이 구절을 이

해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이 구절이 앞에 언급된 인도자들의 가르침과 목표, 그리고 믿음을 요약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들의 가르침의 요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삶의 목표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었다. 그들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메시아)이시며, 그분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이었다.

13:9 다음에는 율법주의의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고가 이어진다. 유대주의자들은 거룩이 외형적인 것, 즉 유대교의 의식에 따른 제사나, 율법이 명하는 정결한 음식 등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거룩은 은혜에 의해 생기는 열매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결한 음식이나 정결하지 못한 음식에 관한 규례들은 의식적인 깨끗함을 얻기 위해 제정된 것들이다. 하지만 내적인 거룩은 다르다. 사람은 의식적으로 깨끗함을 얻었으면서도 내적으로는 증오와 위선으로 가득할 수도 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신자에게 능력과 감동함을 주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구세주에 대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딤후 2:12). 요컨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관한 수많은 규례들은 그것을 좇는 자들에게 조금도 유익을 주지 못한다.

13:10 우리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라는 표현에 담긴 승리의 선언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유대주의자들의 계속적인 비방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확신 있는 대답이다. 우리의 제단은 그

리스도이며 따라서 그것은 오직 그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포함하고 있다. 레위 체계에 속한 사람들은 기독교의 더 나은 축복에 참여할 권리가 없다. 그들은 먼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한 구주요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13:11 동물을 희생으로 드리는 제사의 체계 아래서는 동물이 제물로써 드러지고, 그 피는 죄를 위한 제물로써 대제사장에 의해 지성소로 옮겨진다. 그리고 그 동물의 몸은 성막으로부터 떨어진 어떤 장소로 옮겨져 태워진다. 영문 밖은 성막의 뜰을 두른 외벽의 바깥쪽을 의미한다.

13:12 영문 밖에서 불사름을 당한 동물들은 실체이신 주님의 모형이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곳은 그분이 자기 자신의 피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신, 유대주의로 조직화된 종교사회의 영문 밖이었다.

13:13 이 서신서의 교훈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음이 틀림없다. 즉 그들은 유대교와 분명하게 결별을 해야 했다. 그들은 성전의 제사로부터 돌아서서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이 그들을 위한 충분한 제사임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우리를 위한 적용 역시 이와 비슷하다. 오늘날의 영문은 인간의 구원이 행위나 인격, 의식, 혹은 특정한 교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가르치는 종교체제이다. 그것은 인간의 제도에 의해 제정된 제사장적인 직분과 세속적인 방법으로 드러지는 예배, 그리고 특별한 의복 등을 갖춘 현대의 교회조직을 말한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임재

하실 자리가 없어진 부패한 기독교계이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그러한 체제 속에 임재해 계실 수 없으며, 우리는 그분의 능욕을 지고 영문 밖에서 죽으신 그분께로 나아가야 한다.

13:14 예루살렘은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매우 소중한 도시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곳은 그들의 “영문”이 위치하는 지리적인 중심지였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그러한 도성이 없다. 그들의 마음은 새 예루살렘, 곧 어린양께서 모든 영광중에 거하시는 하늘 도성에 고정되어 있다.

13:15 신약성경은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라고 가르친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며 (벧전 2:5),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벧전 2:9).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에는 적어도 세 가지가 있다.

첫째로, “자기 몸을 드리는 제사”가 있다(롬 12:1).

둘째로는 여기에 언급된 “찬미의 제사”가 있다. 우리의 모든 찬미와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진다.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불완전한 제사 가운데 모든 부족한 것들을 제하시고 그분 자신의 아름다운 덕을 더하신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미에 그리스도는 자신의 달콤한 향기를 더하신다. 이 향기가 향로로부터 올라가는 향연이 되어 하나님이 흠향하실 만한 제사가 된다.”

“찬미의 제사”는 그분의 이름을 인정하는 “입술의 열매”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예배는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찬미의 제사이다.

13:16 세 번째 제사는 “우리의 소유물로 드리는 제사”이다. 우리는 우리의 물질적인 자원을 가지고 선을 행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데 사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희생적인 삶을 대단히 기뻐하신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물질을 축적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삶이다.

“하나님이 임명하신 제사장들의 임무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네.
그분의 영화로운 얼굴 앞에 서서 그들은
밤낮으로 그분을 봉사하리.
이성(理性)은 분노하고
불신은 파도같이 흉용할지라도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제사장들은
이제와 앞으로 영원까지 있을 것이네.
그분의 택하신 영혼들에게 붙어있는 세상의 찌꺼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불길 속에 녹아 소멸되고
그들의 마음만이 깊은 소원의 불길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상달된다네.
그들의 예배의 향기가
하나님의 성전의 지극히 거룩한 곳을 채우고
그들의 기쁜 은혜의 노래는 천국을 가득 채운다네.”

(게르하트 티스티젠).

13:17 독자들은 본 장의 7절과 8절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던 자들을 기억하라는 권면을 받은 바 있다. 이제 그들에게는 또다시 “현재

의 인도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권고가 주어진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지역교회의 인도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으며, 신자들은 이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 목사장 아래의 작은 목사로서 장로들은 양떼의 영혼을 돌보는 자들이다. 그들은 장래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임무에 대해 회계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임무의 영적인 진보에 따라 회계하는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거나 근심으로 하게 될 것이다. 만일 그들이 그 일을 슬픔으로 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성도들의 영적인 안녕을 돌보는 일과 관계된 영역에서는 상급을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의 단계를 존중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유익과 관계가 있다.

4. 축복의 기도로 편지를 맺음 (13:18-25)

13:18 히브리서 기자는 서신을 마감하면서 기도에 관한 개인적인 소원을 덧붙인다. 나머지 구절들은 그가 편지를 쓸 당시에 그를 비난하는 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억지로 옛 언약을 순종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본 기자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온갖 비난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양심과 소원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순수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13:19 히브리서 기자가 기도를 요청하는 또다른 이유는 그가 가능한 한 속히 그들에게 돌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아마 이것은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고대하는 표현일 것이다. 여기에 대해 우리는 더 확실하게 추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13:20 이어서 그는 민수기 6장 24-26절, 고린도후서 1장 14절, 그리고 유다서 24-25절 등과 함께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원 중의 하나를 기록하고 있다. 그것은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약의 성도들은 결코 양심의 완전한

평화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새 언약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으며, 하나님의 평화를 소유하고 있다(롬 5:1, 빌 4:7). 이 구절은 더 나아가 이러한 평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열매라고 설명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선한 목자로서 그리스도는 양들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다(요 10:11). 양의 큰 목자로서 그분은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히 13:20). 목자장으로서 그분은 자기의 종들에게 보상을 해주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벧전 5:4). 주님의 이러한 모습이 바로 시편 22편에서는 선한 목자로, 23편에서는 큰 목자로, 그리고 24편에서는 목자장으로 나타나 있다. 그분은 영원한 언약을 따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웨스트는 이 구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해했다.

“새 언약은 과도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첫 언약과는 대조적으로 ‘영원한 언약’이라고 불린다. 새 언약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메시야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영원한 언약의 영역에 속한다. 만일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죄인은 단지 자기 자신의 죄 값을 지불한 죽은 제사장이 아니라 믿는 죄인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살아있는 제사장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혜택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제사장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 언약 안에서만 제공될 수 있었다.”³⁷⁾

37) (13:20) Wuest, *Hebrews*, p. 242.

13:21 20절에서 시작된 기도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되기를 간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가 신비롭게 조화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한 것으로 우리를 구비시켜 주시며, 자기 앞에 즐거운 것을 우리 안에 이루어주신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일을 하신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분의 뜻을 행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행할 능력까지 주시며, 우리는 그 일을 행한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신다.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인정하는 고백으로 끝맺는다.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만민의 칭송의 대상이 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은 하늘 찬미의 쇠하지 않는
영원한 제물이 되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13:22 이 책의 기자는 이제 독자들에게 자기의 편지에 담긴 권면, 즉 의식적인 종교를 떠나 순수한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착념하라는 권면에 주의하라고 촉구한다. 그는 자신이 레위의 율법 체계와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해 보다 상세하고 길게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자신의 편지가 간략하게 기록한 편지라고 언급한다.

13:23 여기에 나오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였다”는 표현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했다는 견해를 지지하게 만들었다. 히브리서의 기자가 바울이라는 또 다른 가능성으로서 본 서신서의 기자가 디모데와 함께 여행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언급이 덧붙여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점에 대해 우리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문제로서 남겨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13:24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 인도자와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을 전하라는 부탁이 주어진다. 우리는 서신서들에 기록된 많은 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문안에 관한 표현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13:25 새 언약의 내용을 담은 서신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축원하는 표현으로 끝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새 언약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역을 통해 합당치 못한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호의에 대해 증거하는 은혜의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아멘.

현대인을 위한 히브리서의 교훈

히브리서는 20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한 교훈도 담고 있는가? 오늘날 유대주의가 초대교회 때처럼 주도적인 종교는 아닐지라도 율법주의적인 사고(思考)는 기독교계에 폭넓게 스며들어 있다. C. I. 스코필드는 그의 널리 알려진 저서인 “말씀의 올바른 분별”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유대교화 한 것은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고, 교회의 사명을 왜곡시키며 영적인 면으로 교회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데 다른 모든 요인을 합한 것보다도 더 큰 해악을 끼쳐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교회는 세상과 성별되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리의 길을 추구하는 대신 유대교 성경을 사용하여 본래의 목적을 떠나 세상의 문명을 좇고 세상의 부(富)를 축적하며, 거창한 의식을 거행하고 외적으로 훌륭하게 보이는 교회건물을 건축하며, 더 나아가 동등한 형제에 관한 진리를 ‘성직자’와 ‘평신도’로 구분하는 등의 자기 자신의 오류를 정당화하였다.”³⁸⁾ 본 서신서는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주와 주님으로 존중을 받지 못하며, 그분의 사역이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로 인식되지 못하는 모든 종교체제로부터 우리 자신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구약의 모형과 상징이 우리 주님 안에서 완

38) C. I. Scofield,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p. 17.

전하게 성취되었다고 가르친다.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제단이시며 제사 그 자체이시다. 그분은 하늘의 성소에서 섬기신 분이시며 그분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

히브리서는 또한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며, 그들은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소유와 찬양을 통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데이빗 바론(David Baron)은 이것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그리스도인의 교회에 구약의 의식주의가 추구하는 것과 같은 레위 체계의 제사장 직분의 모델이 도입되는 것은, 복되시고 화목케 하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둘로 찢으신 휘장을 인간이 거룩하지 못한 손으로 다시 이으려는 어리석은 시도에 지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 가까워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지 말고 거기 서 있으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³⁹⁾

히브리서는 우리가, 유대교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보다도 더 나은 언약과 더 나은 중보자, 더 나은 소망, 더 나은 약속들,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친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영원한 구속, 영원한 구원, 영원한 언약, 그리고 영원한 유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히브리서는 또한 배도의 죄에 대해 엄숙히 경고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교회와 교제 가운데 있다가 주님으로부터 돌아서서 그분의 원수들과 연합한다면, 그런 사람은 다시 회개하여 새로워질 수가 없다.

유대인들에게 보내신 이 서신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이

39) David Baron, *The New Order of Priesthood*, pp. 39,40.

는 것으로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라”고 격려한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약속된 상급을 받기 위하여 시련과 고통과 핍박 속에서 견고하게 인내하라고 우리를 격려한다.

본 서신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특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특별한 의무도 함께 지니고 있다고 가르친다.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백성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뛰어난심이다. 만일 그러한 특권들이 경홀히 여김을 받는다면, 그들은 그 결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급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율법 아래 살던 자들보다 더 많은 기대를 받고 있으며 다가오는 그 날 더 많은 것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13:13).

참고문헌

Bruce, Alexander Balmain. The Epistle to the Hebrews: The First Apology for Christianity. Edinburgh: T. & T. Clark, 1908.

Govett, Robert. Christ Superior to Angels, Moses and Aaron. London: J. Nisbet, 1884.

Henderson, G. D. Studies in the Epistle to the Hebrews. Barking-side, England: G. F. Valiance, n. d.

Hewitt, Thomas. The Epistle to the Hebrews, TBC. Grand Rapids: Eerdmans, 1960.

Ironside, H. A. Hebrews and Titus. Neptune, N.J.: Loizeaux Brothers, 1932.

Kelly, William. Introductory Lectures to the Epistle to the Hebrews and the Epistle to Philemon. Oak Park IL. Bible Truth Publishers, n. d.

Landis, G. M. Epistle to the Hebrews: On to Maturity. Oak Park: Emmaus Bible School, 1964.

Lang, G. H. The Epistle to the Hebrews. London: Paternoster Press, 1951.

Lincoln, William. Lectures on the Epistle to the Hebrews. Boston: Believers' Book-Room, n.d.

Mantle, J. Gregory. "Better Things": A Series of Bible Readin-

gs on the Epistle to the Hebrews. New York: Christian Alliance Publishing Co., 1921.

Meyer, F. B. The Way into the Holiest.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50.

Moffatt, James.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Hebrews, ICC. Edinburgh: T & T. Clark, 1924.

Moule, H. C. G. Studies in Hebrews.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1977.

Newell, W. R. Hebrews Verse by Verse. Chicago: Moody Press, 1947

Pfeiffer, Charles F. The Epistle to the Hebrews. Chicago: Moody Press, 1962.

Rainsbury, A. W. "Able to Save to the Uttermost," The Keswick Week. London: Marshall, Morgan and Scott Ltd., 1958.

Thomas, W. H. Griffith. Hebrews: A Devotional Commentary.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61.

Vine, W. E. The Epistle to the Hebrews. London: Oliphants Ltd., 1952.

Westcott B. F. The Epistle to the Hebrews. London: MacMillan, 1889.

Wuest, K. S. Hebrews in the Greek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 1947

야고보서

야고보서 서문

“야고보는 마치 선지자처럼 말하는 설교자이다. …그의 언어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는 초기 그리스도인의 어떠한 기록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데오도르 잔)

1. 정경 안에서의 독특한 위치

야고보서에 대해 “아주 보잘것없는 서신”이라고 낮게 평가한 마틴 루터(M. Luther)의 평가는 대단히 잘못이다! 개혁자들이 믿음에 의한 구원에 행위를 더하여 가르친 사람들과 맹렬한 싸움을 벌이는 와중에 선한 행위를 강조한 야고보서의 교훈에 대한 루터의 오해는 그로 하여금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게 했다. 루터가 서신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이 서신서에 대해 그릇된 판단을 내린 유일한 사람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서에는 일치되는 점이 거의 없고 단지 적절하게 쓰여진 몇 개의 단락만이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로 서 야고보서를 “진주로 엮은 줄”(a string of pearls)이라고 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서신은 도덕적인 교훈을 가르치는 서신 중에서 걸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유대교적인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회당”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회당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는 단지 모임

(congregation)을 의미하는 단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날과 같이 유대인의 모임을 뜻하는 배타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야고보서는 짧은 5장으로 구성된 서신 속에서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자연계를 서른 번이나 예로 사용한다.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서신이다. 본 서신은 환영받지 못하는 몇 가지 주제들, 가령 혀를 다스리는 문제, 부자들에게 아부하는 태도의 위험성,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실제적인 삶을 통해 보여주어야 할 필요성 등을 다루고 있다.

2. 기자

많은 성경의 이름들은 히브리어에서 헬라어, 라틴어, 그리고 불어를 통하여 영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그 명칭이 여러 번 바뀌었다. ‘야고보(James)서’라는 명칭만큼 그 원래의 명칭과 차이가 나는 것도 없는데, 이 명칭은 히브리어 야고브(Yaakov, ‘Jacob’)로부터 취한 것으로서 헬라어 “Iakovos”를 번역한 것이다. 야고보(James)라는 이름은 많은 유대인들이 선호하는 이름으로서 신약성경에는 이 이름으로 불리는 네 사람이 등장한다. 각각의 사람들에 대해서 본 서신서의 기자(記者)일 가능성이 제기되어 오고 있지만 그러한 견해들은 그 진정성과 학문적인 지지도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1) 세베대의 아들이자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마 4:21)-만약 사도 야고보가 이 서신서의 기자라면, 이 책이 그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의 이견(異見)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한 시기가 A.D 44년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아마 그 때는 본 서신서가 완

성되기 이전이었을 것이다.

(2)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마 10:3)-이 사람에 관해서는 사도들의 명부(名簿)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이 책의 기자가 자기 자신을 본 서신서의 이름과 구별하지 않은 채 “야고보”(James)라고 언급한 사실은 그가 그 당시에 널리 알려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3) 유다(가룟 유다와는 다른)의 아버지 야고보(눅 6:16)-이 사람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더욱 없으며, 따라서 본 서신서의 기자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단정을 내려도 무방할 것이다.

(4) 우리 주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마 13:55; 갈 1:19)-이 사람이 본 서신서의 기자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그는 당시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과 주님과 육신적인 관계를 전혀 언급하지 않을 만큼 겸손한 인물이었다(유다서의 서론 참조). 그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회의를 인도했으며 순교당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그는 정통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유명했으며, 특히 빈틈없는 신앙생활 태도로 인하여 더욱 알려진 사람이었다. 단적으로 말해, 그는 역사(요세푸스)에 기록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전통에 의해서도 야고보서와 같은 서신서를 기록하기에 적합한 인물이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적인 증거 :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사용한 직접적인 인용에 의해 본 서신서의 기자라는 확증을 얻기보다는 단지 주어진 암시에 의해서만 추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야고보는 가장 빈약한 외적 증거를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본 서신서는 무라토리안 정경(Muratorian Canon)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아마도 본 서

신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동방지역에 있는 유대인들과 믿음에 의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에 있어서 바울과 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추측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시릴(Cyri)과 나지안주스(Nazianzus), 아타나시우스(Athanasius), 그리고 제롬(Jerome)은 야고보서를 정경으로 인정하는 표시로 본 서신을 인용하였으며, 유세비우스(Eusebius)는 야고보서가 일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인정을 받지 못하는 책들 가운데 하나라고 평하였지만 정작 그 자신은 야고보서를 정경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내적인 증거 : 야고보서를 정경으로 인정할만한 내적인 증거는 매우 강력하다. 그 증거는 우리가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야고보의 특성과 조화를 이루며 다른 근거자료들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진 성경사본들의 제조와 배포경위에 대한 역사와도 일치한다. 야고보서와 같은 책을 허위로 작성할 이유는 전혀 없다. 본 서신은 중요한 추가적인 교리(2세기경의 이단적인 가짜 문서들과 같이)를 수록하고 있지 않다.

요세푸스(Josephus)는 야고보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율법에 대한 그의 헌신적인 자세로 인하여 좋은 평판을 얻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전하는 것이 유대인들에 의해 금지되어 있던 시기에 자기가 믿는 메시아에 대해 담대하게 증거했기 때문에 순교를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유대인 사학자(史學者)에 의하면 야고보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명령에 의해 돌로 쳐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 유세비우스는 야고보가 성전 꼭대기에서 밑으로 던져짐을 당했으며 결국에는 몽둥이로 맞아 죽었다고 전한다. 헤게시프스(Hegesippus)는

이 두 가지 모두 가능성이 있는 전설이라고 말한다.

야고보서에 담겨진 헬라어적인 문체가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이 기록했다고 믿기에는 “너무도 훌륭하다”는 논평은 이 논평가가 하나님에 의해 택함 받은 본 서신서 기자의 놀라운 지적 능력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 자인가를 드러내 준다.

3. 기록 시기

요세푸스는 야고보가 A.D 62년에 순교당했으므로 이 서신서는 그 이전에 기록되어졌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본 서신서는 야고보가 회의를 인도했던 예루살렘 공회(A.D 48년 혹은 49년)에서 내려진 율법에 대한 사도들의 결정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서신서가 쓰여진 시기는 A.D 45년과 48년일 것이라는 견해가 폭넓게 인정을 받고 있다.

4. 배경과 주제

야고보서가 신약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되었으며, 유대적인 색채를 가장 강하게 띠고 있다고 해서 그 안에 담긴 교훈의 중요성이 다른 세대에서 격하되어서는 안 된다. 그 교훈들은 오늘날 우리가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것들이다.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진리를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야고보는 주님의 산상수훈에 담긴 가르침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비교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주 제	야 고 보 서	마태복음의 상관구절
최고의 법	2:8	7:12
믿음과 행위	2:14-26	7:15-17
뿌리와 열매	3:11,12	7:16-20
참된 지혜	3:13	7:24
화평케 하는 자	3:17,18	5:9
판단	4:11,12	7:1-5
썩은 재물	5:2	6:19
맹세	5:12	5:33-37

이 책에는 “온전한 율법”(1:25), “최고의 법”(2:8) “자유의 율법”(2:12) 등과 같은 율법에 대한 표현들이 자주 등장한다. 야고보는 이 서신서의 독자들이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율법이나 혹은 생활의 규칙으로서의 율법 아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그가 말하는 율법은 은혜 아래 있는 성도들을 위한 의로운 교훈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야고보서에는 구약성경의 잠언과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다. 잠언과 같이 그의 문체는 때로 경고적이며, 명확하고, 묘사적이며, 개요를 한 눈에 파악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야고보서를 이해하는데 열쇠가 되는 또 하나의 단어는 ‘형제들’(brethren)이라는 단어이다. 이 단어는 본 서신서에 열다섯 번이나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야고보서

주 제	야 고 보 서	마태복음의 상관구절
고난	1:2,12, 5:10	5:10-12
기도	1:5, 4:3, 5:13-17	6:6-13, 7:7-12
일관된 마음	1:8, 4:8	6:22,23
부(富)	1:10,11, 2:6,7	6:19-21, 24-34
진노	1:19,20, 4:1	5:22
율법	1:25, 2:1,12,13	5:17-44
형식적인 고백	1:26,27	6:1-18

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주로 신자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

야고보서는 여러 면으로 볼 때 신약성경 가운데서 가장 권위를 지닌 서신서로 인정을 받을만하다. 다시 말해서 야고보서는 108구 절로 이루어진 짧은 지면을 통해 54번의 명령을 언급함으로써 신약 성경의 다른 어떤 기자들보다도 더 많은 교훈을 하고 있다.

5. 개요

1. 인사(1:1)
2. 고난과 시험(1:2-17)
3. 하나님의 말씀(1:18-27)
4. 편파주의에 대한 책망(2:1-13)
5. 믿음과 행위(2:14-26)
6. 혀, 그 사용과 남용(3:1-12)
7. 참된 지혜와 거짓 지혜(3:13-18)
8. 탐욕, 그 원인과 치유책(4장)
9. 부자들과 그들에게 임할 환난(5:1-6)
10. 인내에 대한 권면(5:7-12)
11. 병든 자에 대한 기도와 치유(5:13-20)

1. 인사(1:1)

1:1 이 책의 기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우리가 믿는 바대로 그가 주님과 한 혈육이라면 그는 자신의 생애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음이 분명하다. 한 때 그는 주님을 불신했었으며(요 7:5),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을 정신 나간 사람으로 생각했었을 것이다(마 3:21).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셨다. 비록 사람들이 그분의 본체를 간파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분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원칙들을 가르치셨다. 말씀의 씨앗은 마침내 야고보의 삶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으며, 결국 이 의심 많은 자는 그분의 종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밝히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님께서 올바른 자리, 즉 동등한 자리에 계신 분들이심을 시사한다. 그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똑같이 그분의 아드님을 공경하는 태도를 취한다(요 5:23). 야고보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마 6:24)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자 주 예수님의 종이라고 소개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이신 아드님은 동등

하신 분이시기에 여기에는 모순이 없다.

야고보는 이 서신서를 “흩어져 있는 열 두 지파”, 즉 문자 그대로 각처에 “분산되어 있는”(헬라어의 *Diaspora*)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유대인으로 출생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기들의 본토에서 쫓겨나 지중해 인근에 위치한 다른 나라들 속에 흩어져 있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최초의 분산(分散)은 10지파가 앗시리아 사람들에 의해 포로로 잡혀간 B.C 721년에 일어났다. 이들 중의 일부는 얼마 안 되는 잔류자들을 남기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본토로 귀환했다. 오순절 날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천하각국으로 알려진 여러 나라들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중이었다(행 2:4). “흩어져 있는 열 두 지파”라는 표현은 이들을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중에 주님을 믿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각처로 흩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우리는 초기의 그리스도인들(대부분 유대인)이 사울의 핍박으로 인해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여러 나라로 흩어진 것에 대해 읽을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해서는 우리가 신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흩어진 사건을 이야기할 때 다시 살펴볼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이러한 위기 중 어느 시기를 계기로 세계 각처로 흩어진 유대인들일 것이다.

모든 참된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순례자들이므로 비록 이 편지가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 편지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킬 수는 있다(빌 3:20, 벧전 2:11).

야고보서의 수신인에 관한 더 어려운 문제는 야고보가 비그리스

도인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대상을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기록했는지, 또는 그들 모두를 대상으로 이 편지를 기록했는지에 관한 것이다(1:18). 편지의 내용 중에는 그가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고백한 유대인들, 더 나아가 구원받지 않은 유대인들까지도 염두에 두고 본 서신서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대목들이 여럿 있다. 그리고 이것은 본 서신서가 매우 초기에 기록된 서신서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들 중의 하나이다. 거듭난 유대인들과 거듭나지 않은 유대인들 간의 반목은 그때까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문제였다.

2. 고난과 시험(1:2-17)

1:2 이 부분에서 야고보는 ‘시험’의 문제를 다룬다. 그는 이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2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 시험은 우리의 믿음의 실재를 드러내기 위한 “거룩한 시련”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려움을 의미한다. 반면에 13절부터 17절까지의 주제는 경건치 못한 유혹이다. 이것은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오는 것으로서 결국 죄에 이르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문제들로 가득하다. 그것들은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때때로 그것들은 한 가지 문제일 수도 있고 복합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문제들을 피할 수는 없다. 야고보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시련)을 만난다면”이라고 가정하지 않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이라고 말했다(조건적이 아니라 필수적이라는 의미임-역주). 우리는 결코 삶의 문제들부터 도망칠 수는 없다. 문제는 “우리가 그 문제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시험 혹은 시련에 대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태도들을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자부하면서 그것에 대항하는 태

도(히 12:5)를 취할 수 있겠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낙심하여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포자기에 빠질 수 있다(히 12:5). 이런 태도는 자기 자신을 되는데로 방치해 놓음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시련에 대해 불만과 악감을 품을 수도 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태도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또다른 반응으로서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오로지 자기 자신에만 몰두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동정심을 얻기만을 바랄 수도 있다.

긍정적인 태도로는,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인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주님께 더 유용한 사람으로 연단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내게 허락하셨어. 하나님은 이런 시련을 통해 내게 어떤 선한 일을 이루시려는 목적을 갖고 계실 거야.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하자. 난 그분의 뜻이 내 생애 속에서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원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하는 태도이다. 시련이 닥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원망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시련과 고난은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다가오는 적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여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계발시켜주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이런 과정은 고통과 좌절과 그리고 혼란을 포함한다. 성령님의 열매

는 언제나 화창한 날씨 속에서는 맺을 수 없다. 검은 구름과 폭풍우는 피할 수 없다. 시련은 결코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 시련은 매우 힘들고 어려워 보이게 마련이다. 하지만 그것을 통과한 후에 시련으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사람들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히 12:11).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큰 시련을 견딘 후에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런 과정을 포기하려고 하지는 않았지요”라고 말하는 것을 얼마나 자주 듣는가!

1:3 야고보는 이 구절에서 “믿음의 시련”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믿음을 분석가(하나님)에 의해 그 진위여부를 검증받기 위해 시험을 받는 귀한 금속에 비유한다. 그 금속은 펄박, 질병, 고통 혹은 슬픔의 불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시련이 없이 인내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는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삶의 어려운 역경이 인격을 연마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안다. 저명한 실업가인 찰스 케터링(Charles Kettering)은 “문제들은 진보를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하는 대가이다. 문제가 아니면 내게 가져오지 말라. 좋은 소식은 나를 연약하게 만들뿐이다”라고 말했다.

1:4 야고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한다. 때때로 역경이 닥칠 때, 우리는 낙담에 빠진 나머지 그 시험을 모면하고자 조급한 방법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병이 들었을 때, 그 문제 속에 들어있는 섭리에 대해 주님께 여쭙지 않고 곧장 의사에게 달려가 속히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다량의 약을 삼켜버린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버릴 수 있다. 또한 그 덕택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특별한 섭리가

실현되기까지 더 길고도 혹독한 시련을 견뎌내야만 할 때가 있다.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서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우리 편에서 단축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을 통해서만 우리는 성숙하게 되고, 성령님의 은혜에 부족함이 없는 원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결코 의기소침하여 낙담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 너무 어려운 문제란 없다. 삶의 어떤 문제들은 평생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는 그 문제들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을 증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바울은 주님께 자기 육체의 연약함을 제하여 주시기를 세 번이나 간구했다. 주님께서서는 그것을 제하여 주시지는 않았지만 그에게 고통을 감내하는 은혜를 허락하셨다(고후 12:8-10).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생애에서 결코 없어지지 않을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하셨을 때,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복해야 한다. 어려서부터 앓을 보지 못한 어떤 찬송 작가는 그가 여덟살 때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시를 썼다.

“비록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오, 나는 얼마나 행복한 영혼인지!
이 세상에서 만족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난 다짐한다네.
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보지 못하기에 흘리는 눈물이나 탄식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으리”

(화니 크로스비).

평강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 찾아온다. 생활 가운데 부딪치는 어떤 문제들은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받고 난 후에 물러간다. 연단하는 자는 용해된 금속에서 자신의 형상을 볼 때 비로소 불을 끈다. 우리들 대부분은 삶의 역경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지혜가 부족하다. 우리는 그 어려움으로 인해 겪게 되는 고통에 사로잡힌 나머지 넓은 시야를 잃어버린다. 우리는 서두르시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러한 고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하신다는 것을 간과하기 쉬운 것이다.

1:5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혜로써 삶의 문제들을 직면할 필요는 없다. 만일 시련의 때에 영적 통찰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자신의 무지와 혼란에 대해 그분께 모두 고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시련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에 훈련되어진 사람은 충분한 보상을 받는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책망하시리라는 점 역시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온순한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우리는 모두 지혜가 부족한 자들이다. 성경은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 특정한 대답을 다 담고 있지는 않다. 각양 각색의 문제들에 일일이 답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원칙들을 매일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들에 적용해야 한다.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영적인 지혜는 우리 주님의 교훈을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게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1:6-8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의심을 품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그분에게 불가능한 일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을 의심한다면, 시련의 때에 안정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잠시 동안 그분의 약속 위에 조용히 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음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심을 잊으셨다고 느낄 것이다. 우리는 높이 솟아올랐다가 아래로 깊숙이 가라앉는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낙관주의와 비관주의를 오르내리는 그런 믿음에 의해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신다. 그분은 태도가 수시로 변하는 그런 불안정한 사람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허락하실 수 없다(7=8절).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그 지혜는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그분은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1:9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전혀 새로운 주제를 소개하고 있거나 적어도 지금까지의 주제와는 다른 삽입구처럼 보인다. 그러나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하락하신 시련이라는 주제를 다른 예를 통해 계속 설명하고 있다. 가난한 상태에 처해 있든지 부유한 상태에 처해 있든지 사람은 자기에게 닥친 삶의 위기와 고난으로부터 가치 있는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낮은 위치에 처한 형제는 만족스럽지 못한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자신이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

속자라는 사실을 늘 기뻐할 수 있다. 그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이며, 자기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진리 안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다. 낮은 형제는 자신의 낮은 처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능력 밖의 일일 수가 있다. 그것이 꼭 그가 게으르거나 부주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서 그를 적은 수입을 얻는 자리에 놓아두는 것을 합당하다고 여기실 수도 있고, 또 그것이 그가 처해온 상황일 수도 있다. 그가 만일 부자였다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자기 처지를 원망해야 옳은 일일까? 비참해 하고 남을 부러워하는 상태에 빠져야 하는가? 그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소유한 영적인 축복을 즐거워해야 한다.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성별, 나이, 신장, 심지어 삶 자체에 불만을 품고 살아간다. 야구를 좋아하는 소녀들은 자신이 남자이기를 바라며, 젊은이들은 빨리 어른이 되기를 바라고, 노인들은 더 젊어지기를 소원한다. 키가 작은 사람들은 키 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키가 큰 사람들은 키가 너무 커서 눈에 띄는 것을 원치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차라리 죽고 싶어”라고 말한다. 이 모든 것은 부질없는 불평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태도는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그분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축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전 15:10)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의 부족

함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섬김에 몰두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 우리 자신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1:10-11 야고보는 다음으로 부한 자에 대해 언급한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그는 ‘부한 자는 자기의 부한 것을 자랑할지니’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다음과 같은 예레미야 9장 23-24절 말씀에 기꺼이 동의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사실 부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잃어버릴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기쁨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는 적도 있다. 사업의 실패가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기도 한다. 그가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늘에 속한 더 나은 영구한 산업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자기 소유를 잃어버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다(히 10:34). 세상의 부요는 들의 꽃과 같이 시들게 된다(사 40:6-7). 물질적인 풍부함만을 가진 사람은 그의 모든 계획이 무덤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야고보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들의 꽃을 부한 사람의 짧은 생애와 그의 소유의 무가치함에 대한 예로 사용한다. 그는 그것을 추구하다가 쇠잔케 될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의 초점은 시들게 하는 바람이나 해가 영적인 가치를 지닌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로 하여

금 지나가는 것들을 사랑치 않고 위에 있는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게 하는 시련은 실은 축복이다. 이처럼 낮은 자를 높이는 은혜가 동일하게 부한 자를 겸손케 만든다.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그것은 결국 모두 기쁨의 동기가 된다.

1:12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에 대한 언급을 마치면서 야고보는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받을 축복을 이야기한다. 시험을 통과했거나 시련을 통해 인정받은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여기서 면류관은 왕의 머리 위에 쓰는 면류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받게 될 승리자의 화관이다. 영생이 시험을 인내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암시는 없지만 고난 중에 인내한 성도들에게는 그와 같은 종류의 상급으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며, 하늘에서 더 깊은 느낌으로 영생을 즐기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는 모든 사람이 넘치는 잔을 받게 될 것이지만 사람들은 각기 다른 크기의 잔(하늘의 영광을 즐기는 서로 다른 분량)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표현에 담긴 의미일 것이다. 이 표현은 하늘의 영광을 더 충만히 즐기는 것에 대한 표현이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시련에 관한 이 부분을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 보자. 여러 형태의 시험이 우리 삶에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불운에 대해 비참한 심정에 빠져 불평을 해야 할까, 그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해야 할까? 시련 가운데 있다고 나팔을 불며 다녀야 할까, 잠잠히 견뎌야 할까?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며 앞으로의 일만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구하며 현실에 충실해야 할까? 자기 연민에 빠져서 동정을 구해야 할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에 몰두해야 할까?

1:13 이제 주제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시험으로 옮겨간다(13-17절).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이 우리의 최선(最善)을 위한 것인데 반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시험(유혹)은 우리의 최악(最惡)을 초래한다. 이 한 가지는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시험(test)하시거나 조사하시기는 하지만 결코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시지는 않는다. 하나님 자신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며, 악을 사용하여 유혹하지도 않으신다.

1:14 사람은 항상 자기 죄의 책임을 타에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릴 수 없으면, 인간은 죄가 질병의 일종이라고 말하는 현대 심리학의 접근방식을 채택한다. 이런 식으로 그는 심판을 피하려고 한다. 하지만 죄는 질병이 아니며 인간이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하는 도덕적인 실패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죄를 범하는 이유를 생명이 없는 사물들 탓으로 돌리려 한다. 하지만 “물질적인 것”(material things)은 그 안에 죄악된 것이 없다. 죄는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야고보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할 때 죄의 뿌리를 지적하고 있다. 죄는 우리 안에서 악하고 타락하여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옛 본성에서 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횡방”(마 15:19)이라고 말씀하셨다.

야고보가 14절에서 사용한 ‘욕심’(desires)¹⁾이라는 단어는 선과 악의 모든 욕구를 가리키는 것일 수 있다. 단어 자체는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다. 하지만 소수의 예외만을 제외하고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악한 욕심을 설명하는데 사용되었으며, 야고보서의 이 부분은 틀림없이 그 경우에 해당한다. 여기서 욕심은 아름다움을 뺏내며 자기 희생자들을 유혹하는 악한 여인과 같다. 이럴 때 우리 각 사람은 미혹을 당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으로 이끄는 악하고 순수치 못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도움을 구할 수 없는 희생자에 불과한 자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마음속에 들어오는 죄악된 온갖 생각들을 즉시 몰아내고 거룩하고 순수한 주제에 대하여 생각을 집중할 수 있다(빌 4:8). 또한, 유혹이 맹렬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그 순간 우리는 “여호와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고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잠 18:10)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부를 수 있다.

1:15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전한 대비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대답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라는 말씀 속에 있다. 악한 생각을 물리치는 대신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품고 계속 생각하며 즐길 수 있다. 죄악된 생각을 승인하는 이와 같은 태도는 마치 남녀간의 성적인 교류와도 같다. 탐욕이 잉태된 후에는 죄라고 하는 못된 자녀가 태어난다. 금지된 행동을 오래 동안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은 결국 그러한 행동을 하고야 말겠다는 것을 표현하는 또다른 방법이다. 탐욕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

1) (1:14) *epithumia*라는 헬라어는 “desire”라는 영어단어의 강화된 형태이다. “lust” (cf. 1611, KJV) 역시 본래 단순히 “강렬한 욕망”(strong desire)을 의미하는 단어였지만 분명한 성적인 의미를 함축하는 단어로 쓰이게 되었다.

모든 과정은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삼하 11:1-27).

야고보는 “죄는 성장한 후에 사망을 가져온다”고 말한다. 죄는 생식력을 가진 존재로서 자기의 자손을 번식시킨다. “죄가 사망을 낳는다”는 표현은 여러 각도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로, 아담의 죄는 자기 자신과 후손들에게 육체적인 죽음을 가져왔다(창 2:17). 하지만 죄는 또한 하나님과 그분의 축복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분리되는 영원한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된다(롬 6:23). 또한 성도에게 있어서는 죄는 죽음과 같다는 의미도 들어 있다. 예를 들어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우리는 “일락을 좋아하는 이(믿는 과부)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라는 말씀을 읽을 수 있다. 이 말씀은 그녀가 자기 생애를 허무한데 사용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일종의 살아있는 죽음과도 같은 것이다.

1:16-17 범죄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책망하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사실 “왜 나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었습니까?”라고 창조주를 비난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기만의 다른 형태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만을 인간에게 베푸신다. 그분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의 근원이다.

야고보는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로 묘사했다.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는 때로 창조주 혹은 근원 되신 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요 38:28).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빛들’의 창조주 혹은 근원이

시다. 물론 빛이라 함은 해, 달, 그리고 별들과 같은 천체(天體)를 포함한다(창 1:14-18; 시 136:7).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적인 빛의 근원도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이 우주 속에 존재하는 온갖 형태의 빛의 근원으로 생각해야 마땅하다.

그분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창조하신 천체(天體)들과는 같지 않으시다. 그것들은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 아마 야고보는 해와 별들의 광명이 쇠퇴하는 것과 더불어 지구가 회전함으로써 생기는 지구와 그것들간의 관계의 변화를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변화는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이 갖고 있는 속성이다. ‘회전하는 그림자’라는 표현은 회전할 때 생기는 그림자를 의미한다고 보여진다. 이것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함으로써 지구에 던져지는 그림자와 관계있는 표현이거나 혹은 일식이나 월식과 관계있는 표현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식(日蝕)은 달의 그림자가 지구를 가릴 때 생긴다. 하나님은 전혀 다르시다. 하나님 안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으며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다. 그리고 그분의 선물은 그분 자신이 그러한 것처럼 온전하다. 그러므로 그분이 사람을 죄로 유혹하실지도 모른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유혹은 인간 자신의 악한 본성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검증해 보자. 우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머물러 있게 허락하는가, 아니면 즉시 물리치는가? 죄를 지을 때 그것은 어쩔 수 없었노라고 변명하지는 않는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3. 하나님의 말씀(1:18-27)

야고보는 앞 구절에서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로 묘사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그분의 창조에 있어서 우리에게 특별한 역할을 부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19-27절).

1:18 이 말씀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새로운 출생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된 역할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리는 먼저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라는 말씀을 읽는다.

“자기의 뜻을 좇아”라는 표현은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도록 만들었는가를 말해 준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구원 받을 만한 어떤 장점을 보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자유 의지에 따라 그 일을 하셨다.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구속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도 아니며, 우리가 요구했기 때문도 아니다. 그것은 온전히 그분 편에서의 자원하는 일방적인 사랑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게 한다.

“우리를 낳으셨느니라”라는 표현은 중생(重生)의 진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 영적인 출생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거듭나며 이 새로운 관계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진리의 말씀으로” 성경은 새로운 출생의 도구이다. 참된 구원의 경우에는 언어를 통해서든 문서를 통해서든 성경이 관련되어 있다. 성경을 떠나서는 구원의 길을 알 수 없으며,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깨달을 수 없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첫 열매’라는 단어와 연관하여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로, 수확의 첫 열매는 추수한 무르익은 곡식의 첫 번째 단을 의미했다. 야고보가 이 편지의 일차적인 대상으로 삼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믿은 신자들이었다. 물론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첫 열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표현은 야고보가 대상으로 삼은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둘째로, 첫 열매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모든 것이 그분께로부터 왔으며 모든 것이 그분께 속해 있다는 의미로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자기 자신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롬 12:1-2). 셋째로, 첫 열매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에 대한 보장이었다. 야고보는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추수의 날에 거둘 첫 번째 곡식 단에 비유하고 있다. 그들은 수세기에 걸쳐 일어날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새 창조의 열매를 보여주는 성도들의 모형으로 선택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그들과 같은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거하게 하실 것이다(롬 8:19-23). 완전한 수

확은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다시 오실 때 끝날 것이다. 그 동안 그들은 천년왕국 시대에 온 세계가 보여줄 것과 같은 순종을 주님께 보여드려야만 한다. 그리고 이 구절의 말씀이 주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과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그리스도의 이름을 공경하는 우리 각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1:19a 이 장(章)의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첫 열매로서 합당한 생활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한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삶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야 할 실제적인 의(義)에 관해 설명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안다. 그렇다면²⁾ 이제 우리는 그러한 신분에서 걸맞은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우리는 듣는데 신속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경건한 충고나 권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를 만큼 겸손해야 한다. 우리는 말하는데 빨라서는 안 된다. 야고보가 우리의 언어에 관해 그토록 많은 교훈을 해야만 했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는 우리의 대화가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경고한다. 심지어 자연의 모습 그 자체도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에픽테투스(Epictetus)는 오래 전에 이것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연은 인간에게 하나의 혀와 두 개의 귀를 주었다. 이것

2) (1:19) 알렉산드리아(NU) 번역을 선호하는 가장 현대적인 번역들과 일부 사본에는 “So then”(Gk. *hoste*) 대신 “Know”(iste)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하지만 문맥과 가장 상응하는 전통적인 해석은 1-18절의 문맥을 고려하는 해석이다.

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두 배로 듣게 하기 위함이다.”

솔로몬은 야고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는 구약성경을 통해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잠 13:3)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잠 10:19)라고 말했다. 언어를 통제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범죄하게 된다.

1:19b-20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 해야 한다. 속히 성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서 바라시는 의(義)를 이루지 못한다. 자기의 성질을 제어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해 나쁜 인상을 심는다.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낮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잠 16:32)라는 말씀은 아직도 사실이다.

1:21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임을 나타내는 또 다른 방법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는 것이다. “더러운 것”이라는 표현은 영적, 정신적, 육체적 영역에 속한 모든 형태의 더러움을 포함한다. “넘치는 악”이라는 표현은 구원받기 이전부터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악을 의미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과의 접촉에서 생기는 죄들과 관계가 있을 수도 있으며, 많은 죄를 일컫는 말일 수도 있다. 어느 경우이든 야고보는 죄가 넘쳐나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기보다는 죄가 지닌 극도로 악한 성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어쨌든 야고보가 말하

는 의미는 분명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이려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 요구되는 또 다른 조건은 “온유함”이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양심에게 말씀하도록 기회를 주지 않고 단지 성경을 읽기만 하는 오류를 범하기가 너무 쉽다. 우리는 아무런 감동 없이 학문적인 태도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다. 우리의 교만과 완고함, 그리고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일에 대해 무자격자요 무책임한 자로 만들 수 있다. 오직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자만이 성경으로부터 가장 유익한 교훈을 얻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심이여,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시 25:9).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러니와”(사 66:2).

야고보는 성경을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말씀의 중심사상은 말씀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신성한 보고(寶庫)가 된다는 것이다. 개역성경(RV)의 여백에는 이 부분이 “천부적으로 심겨진 말씀”(the inborn word)이라고 쓰여 있다. 이 말씀에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데 사용하시는 도구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죄의 형벌로부터 뿐만 아니라 죄의 능력으로부터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사용하신다. 그분은 성경을 영원한 정죄로부터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³⁾ 가운데서 성도가 경험하는

3) (1:21) *psyche*라는 헬라어는 “삶”(life)과 “영혼”(soul)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둘 중 어떠한 번역이 더 나은 번역인지에 대한 구분이 항상 명확하지는 않다. 또한, “구원”(save)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단어는 치료, 구원, 구출 혹은 다른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너희 영혼을 구원할”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구원하는데 사용하신다. 야고보가 21절에서 구원의 현재와 지속적인 면에 대해 말하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1:22 마음에 심긴 도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우리는 그것을 순종해야 한다. 성경을 소유하거나 그것을 문학작품의 하나로 즐겨 읽는 것도 의미가 없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청종하려는 깊은 소원과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의지가 들어있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의 교훈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말씀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육신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없이 성경을 대해서는 안 된다. 말씀에 대한 지식의 증가가 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진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뿐인 사랑의 고백이나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의 태도를 취하는 것조차 자기기만에 지나지 않는다. 순종함이 없이 성경에 대한 학문적인 지식을 계속 추구하는 것은 축복보다는 덧이 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은 알면서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에 빠지며 무감각한 자가 되고 만다. “표현이 없는 감동은 실망에 이르게 된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의무의 무거운 짐만 지게 될 것이다. 이상적인 조화(調和)는 말씀을 읽고 절대 복종하는 것이다.

1:23-24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태도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아

영위해 나가도록 도와주는”이라는 의미일 수 있다.

침마다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잠시 들여다보고 곧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사람과도 같다. 그는 거울로부터 혹은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보는 것 자체로는 전혀 유익을 얻지 못한다. 물론 우리의 외모에는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적어도 거울 앞에 설 때 우리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거울이 우리에게 “씻어라”, 혹은 “면도하라”, “머리를 빗어라”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대로 행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울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우리는 성경을 부주의한 태도로 읽거나 또는 의무감 때문에 읽기는 하지만 성경의 내용으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하기가 쉽다. 우리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마땅한지 깨닫지만 급세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우리가 온전한 자인 것처럼 살아간다. 자기만족에 빠지는 이러한 삶이 우리의 영적인 진보를 가로막는 것이다.

1:25 이외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있다. 그의 신중한 사고와 묵상은 생활 가운데 실제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그에게 있어서 성경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며 무거운 짐이 아니다. 성경의 교훈은 그에게 그의 새로운 성품이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제시해 준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할 때 그는 인간의 전통과 육신적인 생각으로부터 해방되는 참된 자유를 발견한다. 진리가 그를 자유케 하며 그런 자유를 맛보는 사람이야말로 성경으로부터 실제적인 유익을 얻는 사람이다. 그는 자기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잊지 아니하며 매일의 생활 속에서 그 교훈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그의 어린아이 같은 순종은 그의 영혼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가져온다. 이런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1:26-27 무익하고 쓸모없는 경건과,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대조되어 있다. 여기서 경건은 종교적인 믿음과 연관된 외적인 행동양식을 의미한다. 그것은 내적인 것보다 외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 그것은 교리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 예배와 봉사를 통해 나타나는 믿음의 외적인 표현을 의미한다.

자기 자신을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혀를 통제하지 않는 사람의 경건은 백해무익하다. 그는 외적으로 경건하게 보이게 하는 종교의식은 무엇이든 행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의식(儀式)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경건이 실제적인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에 관심을 두신다.

재갈을 먹이지 않은 혀는 무가치한 경건의 한 예일 따름이다.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행동은 무익한 것이다. 어느 모로 보나 경건한 거짓말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한 식료품점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그는 자기의 가게 뒷층에 살고 있었다. 아침마다 그는 점원을 부르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존!” “예, 주인님.” “자네, 우유에 물을 좀 섞어 넣었나?” “물론이죠.” “버터는 맛있게 보이도록 색을 적당하게 칠해 놓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커피에는 치커리를 약간 섞었어?” “다 준비해 놓았어요.” “잘했네. 그럼 아침 경건의 시간을 위해서 이리 올라오게나!”

야고보는 이와 같은 경건은 무익하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며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실제적인 경건이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예

로서 야고보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자기 자신을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사람을 칭찬한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출생에 의한 실제적인 역사(役事)는 “은혜로운 행동과 악에서 분리된 삶”을 통해 나타난다. 야고보는 이러한 덕목을 실제적인 사랑과 실제적인 거룩이라고 설명한다.

우리는 다음 질문들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견책하시고, 가르치시며, 변화시키시도록 겸손한 소원을 가지고서 성경을 읽는가? 나는 내 혀를 통제하기를 진실로 갈망하는가? 나는 나의 분노를 정당화하는가, 혹은 다스리기를 원하는가? 나는 다른 사람이 덕스럽지 않은 농담을 시작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의 믿음은 내가 베푸는 선(善)에 대해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친절한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가?

4. 편파주의에 대한 책망(2:1-13)

2장의 처음 부분은 사람의 외모에 따라 존경을 표시하는 행동에 대한 책망이다. 편파적인 행동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범과 신약성경의 교훈과는 전혀 다르다. 기독교 안에는 차별주의와 속물근성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

2:1 무엇보다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관례를 금하고 있다. 먼저 이러한 권고가 신자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주목하라. 우리는 이것을 “내 형제들”(My brethren)이라는 인사말을 보고 확인할 수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표현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한 언급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진리의 체계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 모든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는 야고보가 “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실천할 때에 편파심을 보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외모에 따라 대우를 다르게 하거나 특별히 신분을 구분하는 것은 참된 기독교 정신과는 온전히 상반(相反)되는 것이다. 세상적인 신분과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아부하는 태도는 영광의 주님 앞에서는 용납될 여지가 없다. 태생, 인종, 성(姓), 혹은 가난 때문에 타인을 경멸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믿음을 부인하는 행위이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신자들이 권세자들이나 상전들에게, 그리고 장로들과 부모에게 합당한 존경을 표하라고 가르치는 신약성경의 여타 가르침과 모순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관계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롬 13:7). 이 구절에서 문제로 삼는 부분은 화려한 옷차림이나 다른 인위적인 방법으로 구별되는 점들 때문에 사람을 높이고 아부하는 태도이다.

2:2-4 이 부분의 생생한 묘사에 의해 우리는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폐단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이 킹(Guy King)은 여기에 “근시안적인 안내인”(The shortsighted Usher)이라는 적절한 제목을 달았다. 이 장면은 그리스도인의 한 지역모임⁴⁾에서 일어난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

점잖게 보이는 한 귀인이 값비싼 옷과 반지로 치장을 하고 도착한다. 그러면 교회 안내인은 얼른 다가가서 아부하는 듯한 태도로 그 고귀한 방문자를 회당의 맨 앞에 있는 상석으로 안내한다. 안내인이 문 앞으로 다시 돌아오자마자 이번에는 허름한 차림새의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다(2절에서 나오는 ‘더러운 옷’이라는 표현은 그 사람의 옷이 꼭 때가 잔뜩 낀 옷이라는 뜻은 아니다. 그는 자기의 어려운 처지 때문에 가난한 옷차림을 한 사람이다). 안내인은 다른 사람들을 난처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그 가난한 사람을 뒤에 서 있

4) (2:2-4)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는 *sunagoge*(congregation)이다. 이 단어는 후에 오직 유대인들의 모임(synagogues)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야고보서가 매우 초기에 기록된 서신임을 뜻한다. “Congregation”(Tyndale), “ch-urch”(KJV), “assembly”(JND) 등은 보통 *ekklesia*, (called out) *assembly* 라는 단어의 번역이다. 이 단어는 원래 정치적인 용어였다(cf.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게 하거나 혹은 자기 자리 바로 앞의 마룻바닥에 앉게 한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진다. 우리는 이 상황이 과장되게 묘사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 자신의 마음을 면밀히 검토해 볼 때 우리 역시 인간적인 생각으로 서로 구별하거나 악한 마음으로 서로를 판단하는 적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와 같은 예들 중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 존재하는 가장 두드러진 예는 다른 인종이나 피부색의 사람들을 향하여 표현되는 차별주의일 것이다. 신자들 중 흑인들은 많은 경우에 따돌림을 받아왔으며 적어도 자신들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언제나 따뜻하게 영접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동양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면으로 차별대우를 경험해 왔다. 인종간의 관계는 어느 곳에서나 큰 숙제거리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그의 의무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진리를 따라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2:5-6a 편파적인 행동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야고보는 이 점을 5-13절 말씀을 통해 증명한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부유한 자들에게 잘 대해주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는 것이 왜 합당치 않은 태도인지에 대해 네 가지 명확한 이유를 제시한다.

첫째 이유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높이신 사람을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시라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며,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들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옹호하던 자들이 부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거듭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주님 자신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마 11:5)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인 사람들은 부유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막 12:37). 지혜로운 자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고, 연약하고, 천하며,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자들이 부르심을 받았다(고전 1:26-29). 부자들은 대개 믿음에 있어서 가난하다. 그들은 주님보다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가난한 자들은 믿음에 부요케 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택하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을 한 번 둘러본다면, 그들 중 대부분은 가난한 자들일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은 부와 영광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언젠가 우리 구세주의 나라에서 존귀한 자리에 오를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인가.

2:6b 부자들을 높이는 것이 어리석은 둘째 이유는, 그들이 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한 사람들의 부류에 해당되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다소 이견과 혼동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2장의 초반부에 언급된 부자는 문맥적으로 성도이면서 부자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것이 6절에 나온 부자 역시 신자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6절에서 야고보는 단지 “왜 특별히 부자라는 이유로 사람을 높이려 하는가? 그러한 행동은 너희를 압제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데 앞장 선 자들을 높이는 결

과를 초래한다”라는 요지로 말하는 것이다. 칼빈(Calvin)은 이 부분의 논점을 “왜 너희 사형집행자들을 존중하는가”라는 말로 간략히 표현했다.

2:7 부자들에게 편파적으로 호의를 표시하는 것이 어리석은 셋째 이유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일컬을 때에 습관적으로 악하고 훼방하는 말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신자를 의미하는 ‘그리스도인’ 혹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고상한 단어도 당시에는 그런 의도로 일컬어지던 말이었다. 주님을 비방하는 것이 부자들만이 범하는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가난한 신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구세주를 비방하는 저속한 말들을 사용하여 신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왜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신자들이 부자들에게 특별한 호의를 표시해야 하는가? 부자들과 관계있는 특성들은 대개 주님을 높이는 일과 거리가 멀다.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표현을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침례와 연관지어 생각한다. 신자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 이 이름은 부자들이 습관적으로 훼방하는 바로 그 이름이다.

2:8 야고보가 제시하는 네 번째 논증은 부자들에게 편파적인 호의를 베푸는 것이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라는 율법에 위법이 된다는 것이다. 이 율법은 모든 법 중에 으뜸이 되는 법이며 또한 하나님께 속한 법이기 때문에 왕의 법(the royal law)이라고 불린다. 아마 부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 안내인은 자신의 행동을 단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는 율법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변명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동시에 그 율법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한 그의 행동을 변호해 주지는 못한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우리는 항상 우리가 그들로부터 대우받기를 원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대우할 것이다. 분명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멸시받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똑같은 이유로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성경의 모든 교훈 가운데 모름지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는 교훈만큼 혁신적인 가르침은 없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라!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돌보아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의 물질적인 소유를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꺼이 나누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들이 복스러우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주어야 한다. 너무도 자주 우리의 결정은 우리의 행동이 우리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의해 내려진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이다. 우리는 부자들로부터 사회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호의적으로 대한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로 부터는 기대할 만한 것이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도외시한다. 하나님의 법은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이기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나의 이웃이 누구일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눅 10:29-37)로부터 내 이웃이란 바로 나 자신이 채워줄 수 있는 어떤 필요를 가진 사람

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

2:9 편파적인 행동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으로서 죄와 불법으로 간주된다. 죄(sin)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일치가 결여된 것이며 그분의 표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불법(transgression)이란, 공표된 법을 거슬리는 것이다. 어떠한 행위들은 근본적으로 혹은 본질적으로 잘못이기 때문에 죄로 간주되지만 그러한 행위를 금하는 법이 존재할 때에는 또한 위법이 된다. 편파적인 행위는 본래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죄이다. 하지만 그것을 정죄하는 법이 존재한다는 의미로 볼 때에는 그것은 또한 위법이다.

2:10 율법의 한 부분을 범하는 것은 전부를 범하는 것과 일반이다. 율법은 열 개의 고리로 이루어진 하나의 사슬과도 같다. 고리 하나를 깨뜨리면 사슬은 전부 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율법은 지키고 다른 율법은 무시해도 좋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2:11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똑같은 하나님께서 또한 살인을 금하셨다. 어떤 사람이 간음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살인할 수도 있다. 그는 율법을 범한 사람일까? 물론 그렇다! 율법의 정신은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간음은 명백히 이러한 율법을 범한 것이며 살인 역시 그러하다.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별하며 부자를 더 선대하는 행위도 율법에 거치는 행위이다. 이러한 죄들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범한다면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준행하지 못한 것이다.

십계명

이제 우리는 다음 구절을 살펴보기 전에 야고보가 제기한 주제에 대해 기본적인 문제들을 숙고해 보아야 한다. 그 문제란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율법의 지배로부터 벗어났는가”라는 것이다. 야고보는 분명히 십계명을 그리스도인 신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 그는 특별히 살인과 간음을 금하고 있는 제6계명과 제7계명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그는 마지막 다섯 계명을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라는 말로 요약하고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삶의 규칙으로서 율법의 지배를 받도록 하는 것은 다른 신약성경의 가르침과 모순이 된다. 가령, 로마서 6장 14절은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7장 6절은 “우리가 얽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리고 7장 4절은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다(갈 2:19, 3:13,24-25; 딤후전 1:8-9; 히 7:19 참조). 그리스도인이 십계명 아래 있지 않는다는 사실은 고린도후서 3장 7-11절에 명백하게 언급되어 있다.

그렇다면 왜 야고보는 은혜시대의 신자들에게 율법의 문제를 강조하는 것일까?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규칙으로서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신자의 모범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다. 율법이 있는 곳에는 형벌이 따르게 마련이다.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한 형벌은 죽음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한 형벌을 치르기 위해 대신 죽임을 당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과 그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율법이 교훈하는 바는 영속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우상숭배, 간음, 살인, 그리고 도적질은 시대를 초월하여 언제나 죄이다. 그러한 죄들은 불신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 있어서도 죄이다. 더 나아가 십계명 중에 아홉 계명은 서신서에서 또다시 반복된다. 반복되지 않는 유일한 계명은 안식일에 관한 계명뿐이다. 신약성경의 어느 부분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일이나 한 주의 일곱째 날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말씀은 없다. 그 계명은 도덕적인 계명이라기보다 의식(儀式)과 관련된 계명이기 때문이다. 유대인이 일곱째 날에 일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 날을 따로 구별하여 안식하셨기 때문에 이 날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다.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서신서에서 반복되는 아홉 계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의 율법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의로운 교훈으로서 주어졌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네가 만일 도적질한다면 사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라든가 “네가 만일 비도덕적인 행동을 한다면 너는 너의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분은 “나는 너를 은혜로 구원했다. 이제 나는 네가 나에게 대한 사랑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네가 만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싶다면, 신약성경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는 아홉 가지 계명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너는 거기서 율법이 너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행동을 요구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 이와 같은 의미로 볼 때, 야고보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율법과 그 형벌 아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의 요점은 “네가 만일 사람을 구별하여 존중한다면, 너는 율법을 범한 것이며 따라서 사망의 형벌을 받은 것과 같다”라는 것이다. ♠

2:12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신자로서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자유(옳다고 여기는 것을 행할 수 있는)의 율법 아래 있다. 모세의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지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은 주지 못하며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를 정죄한다. 은혜 아래서 우리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받았으며 행한 대로 보상을 받는다. 너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때 정죄에 대한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에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된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이러한 표준에 따라 상급을 받거나 상급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상급의 문제이다”라는 것이다.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라는 표현은 언어생활과 표현되는 행동과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과 그의 생활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신자들은 그 말과 행동에 있어서 편파심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 자유의 율법을 범하는 식의 행동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판단을 받을 것이다.

2:13 이 구절은 반드시 문맥의 조명을 받아 해석해야 한다. 야고보는 여기에서 신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영원한 심판의 문제는 이 구절과 관계가 없다. 그 형벌의 대가는 이미 갈보리에서 영원히 지불되었다. 이 구절의 논점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공흠을 베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지 않고 있으며, 영적 퇴보 상태가 가져오는 불행한 결과를 겪을 수밖에 없다.

“공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보다는 우리에게 자비를 나타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미 7:18). 심판은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생소한 일”(strange work; 하나님께서는 본래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임-역주)이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공흠을 베풀었다면 심판에 직면해서도 기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당한 이유로 어떤 사람을 정죄할 수 있다고 해서 그에게 공흠을 나타내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 공흠을 입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 또한 이 표현은 공흠이 언제나 심판보다 훌륭하다는 의미에서 공흠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 함축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고(思考)는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공흠을 베풀면, 우리에게 임할지도 모를 어떠한 심판 대신 하나님의 공흠을 입게 되리라는 것이다.

편파적인 태도에 관한 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이제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자. 우리는 우리와 같은 인종의 사람들에게 다른 인종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친절보다 더 큰 친절을 보여주는가? 노인들보다 젊은이들에게 더 친근히 대하는가? 우리는 매력적인 외모의 사람들에게 평범한 보통 사람들에게 대한 태도보다 더 호의적인가? 우리는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보다 유명한 사람들과 더 친분관계를 맺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신체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가급적 멀리하고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가?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부자들을 더 좋아하는가? 우리는 낯선 억양으로 우리말을 하는 “타국인”들에게 차가운 태도로 손을 내미는가?

이와 같은 질문에 대답할 때,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성도에게 대하는 나의 태도가 곧 구주를 대하는 나의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자(마 25:40).

5. 믿음과 행위(2:14-26)

이 부분은 야고보서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일 것이다. 교회사(教會史) 가운데 루터와 같은 훌륭한 인물도 행위에 의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야고보의 가르침과, 믿음에 의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바울의 주장 사이에 일치시킬 수 없는 모순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이 구절들은 소위 “신인(神人)협력설”(synergism)이라고 불리는 행위가 더해진 믿음에 의해 구원받는다고 가르친 이단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흔히 오용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주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신뢰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그분이 이루신 구속사역에 우리 자신의 선한 행위와 공적을 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의 제목은 “행위에 의한 구원”이라고 붙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본문의 내용만을 고려한다면 그 안에는 행위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사실 의롭다함을 받는 진리를 충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칭의의 여섯 가지 일면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롬 5:1). 이것을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자들이 아니며, 반대로 정죄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라는 의미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

는다(롬 5:1).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인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롬 5:9). 이 피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이다. 죄값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불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근거로 경건치 않은 죄인을 의롭다 하실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함을 받는다(롬 8:33). 이 진리는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능력에 의해 의롭다함을 받는다(롬 4:25).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과 관계가 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가 만족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야 2:24). 행함은 우리 믿음의 실재에 대한 외적인 증거이다. 보이지 않는 믿음을 행함이 밖으로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은혜로, 믿음으로, 보혈로,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으로, 그리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전혀 모순이 없다. 이것은 단지 동일한 진리의 다른 면들을 말하는 것뿐이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롭게 하시는데 있어서 근본 원칙이며, 믿음은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단이며, 보혈은 구주께서 지불해야 했던 대가이며, 하나님은 칭의를 베푸시는데 있어서 능동적인 주체이시며,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증거이며, 행함은 그 결과이다.

2:14 야고보는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구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유익한 두 가지 열쇠가 있다. 무엇보다도 야고보는 “사람이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though a man has faith)…무슨 이익이 있으리요”라고 말하지 않고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if someone says he has faith)…무슨 이익이 있으리요”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이 질문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단지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한 사람에 대한 묘사이다. 그는 자신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믿음에 대한 증거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유익한 도움을 주는 두 번째 열쇠는 대표준역성경(NASB)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대표준역성경에서 이 구절은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겠느냐”,⁵⁾ 즉 “그런 종류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겠느냐”라는 표현으로 끝난다. 야고보의 질문이 어떠한 종류의 믿음을 가리키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그 대답은 이 구절의 앞부분에 이미 제시되어 있다. 그는 선한 행실로 증명되지 않는 “입으로만 시인하는 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믿음은 무익하다. 그것은 단지 말 이상 아무 것도 아니다.

2:15-16 여기에서는 행함이 결여된 말뿐인 믿음의 무익함이 묘사되어 있다. 먼저 두 사람이 소개된다. 한 사람은 일용할 음식과 의복조차 가지고 있지 못하다. 다른 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을 나누어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는 대단한 친절

5) (2:14) 하지만 그리스어 본문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영어의 “that”이 아니라 단지 정관사 “the”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만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 관사는 때로 지시적인 의미를 담고있지만 본문에서는 단순히 추상명사와 함께 사용된 일반적인 관사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인정을 받는 해석이므로 발행 본에서 “그 믿음”(that faith)이라고 번역했던 NKJV도 개정판부터는 KJV의 번역을 다시 따르고 있다.

을 베푸는 양 가난한 그의 형제에게 “평안히 가서 옷을 좀 걸치게 나. 좋은 식사도 하고 말이야”라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의 필요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런 말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더 유익하다. 말뿐인 그와 같은 친절은 따뜻한 음식과 온기가 필요한 가난한 형제의 몸에 아무 것도 공급해 주지 못한다.

2:17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코 진실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단지 말이다. 야고보는 우리가 행함이 더해진 믿음에 의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견해를 취하는 태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십자가 사역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행함이 더해진 믿음에 의해 구원받는다면, 결국 두 명의 구주(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가 존재하는 셈이다. 하지만 신약성경은 그리스도만이 유일무이한 구주이심을 명백히 증거해준다.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에 의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의 열매가 나타나는 믿음에 의해 구원받는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위는 구원의 뿌리가 아니라 열매라는 것이다. 그것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칼빈(Calvin)은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지만 그 믿음은 행함이 없이 홀로 존재하는 그런 믿음은 아니다”라고 표현했다.

2:18 참된 믿음과 선한 행실은 분리할 수 없다. 야고보는 이 사실을 두 사람 사이의 대화의 일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다. 첫 번째 사람은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진다. 두

번째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지만 선한 행실을 통해 그 믿음을 증명하지 못한다.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입술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던지는 도전적인 질문을 다음과 같이 의역할 수 있을 것이다. “좋아, 자네가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는 말은 인정하네. 하지만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행함이 없지 않은가. 난 믿음은 반드시 생활을 통해 증명된다고 믿네. 행함이 없는 자네의 믿음을 내게 한 번 증명해 보게나. 그렇게 할 수 없지? 자네의 믿음을 볼 수 없다네. 자네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삶이라네. 난 행함을 통해 나의 믿음을 자네에게 보여주겠네.” 이 구절의 핵심은 “보여주다”라는 말에 들어있다. 행함이 없이 믿음을 보여주기란 불가능하다.

2:19-20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의 믿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에 대한 표면적인 시인에 지나지 않는 믿음일 수가 있다. 지적인 동의에 불과한 이런 믿음에서는 변화된 삶이나 주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이 결코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앞서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심지어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들이 결국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받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한다. 귀신들은 사실을 믿지만 하나님께 복종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구원의 믿음과 관계가 없다. 어떤 사람이 진실로 주님을 믿을 때, 그것은 영과 혼과 육의 전적인 헌신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헌신이야말로 변화된 삶을 낳는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지식에 머물러있는 믿음이요 따라서 죽은 믿음이다.⁶⁾

2:21 행함이 함께 하는 믿음의 실례로서 구약성경으로부터 두 가지 예가 주어진다. 그것은 유대인이었던 아브라함과 이방인이었던 라합의 예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독자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림으로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이 얼마나 깊은 통찰력을 지니고 있는 진리인지를 깨달으려면 창세기 15장 6절을 보라.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과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었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그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다시 말해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것이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통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야 비로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만일 그가 그러한 행동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그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이 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일곱 장(章)을 더 읽어 내려간 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장면을 읽을 수 있다. 아브라함은 기꺼이 이삭을 드림으로써 자신의 믿음이 진실임을 증명했다. 그의 순종은 자신의 믿음이 단지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는 데까지 나아가는 믿음임을 보여주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그 자리에는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따라서 아브라함은 아무에게도 자기 믿음의 진실성을 증명해 보일 수 없었다는 견해가 때로 제기된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두 사람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이삭 본인도 그 자리에 있었

6) (2:20) NU 에는 “죽은”(dead)이라는 표현 대신 “소용이 없는”(useless)이라고 번역되어 있다.

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기의 아들을 기꺼이 죽이려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믿음의 실재를 모든 세대에 증명해 보이는 기록으로서 성경에 남아있다.

2:22-23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행함을 낳았으며,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참된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다. 믿음이 행함을 가져오고, 행함은 그 믿음을 증거한다. 이삭을 바치는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제적인 증거를 얻는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증거하는 성경의 실질적인 성취이다. 그의 선한 행실은 그가 하나님의 벗임을 말해 주는 증거이다.

2:24 지금까지의 고찰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믿음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하건대 이것은 사람이 행함이 더해진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여는 믿음으로, 그리고 인간을 대하여는 믿음의 증거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믿는 그 순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 사람들은 “너의 믿음이 진실한 것인지를 내게 보여주라”라고 도전한다. 그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유일한 길은 행함을 통해 실증하는 길밖에 없다.

2:25 구약성경으로부터 취해진 두 번째 예는 기생 라합에 관한 예이다. 그녀는 분명히 훌륭한 인격에 의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녀는 창기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그

들을 다른 길로 도망가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라합은 여리고 도성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이었다. 그녀는 승리를 거둬주는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를 향해 나아오고 있다는 것과 어떠한 저항도 이 군대를 저지하는데 성공한 적이 없다는 보고를 들었다. 그녀는 마침내 유대 민족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어떠한 값을 지불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그 하나님께 의탁하기로 결심했다. 정탐꾼이 그 도시에 들어오자 그녀는 그들을 친절히 영접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살아 계신 참되신 하나님께 대한 자기 믿음의 진실성을 증명했다. 그녀가 정탐꾼을 숨겨주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행동은 그녀가 진실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보여준 것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구원이 부분적으로는 행함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가르치기 위해 오용한다. 하지만 그들이 의미하는 선한 행실은 자비를 베풀거나 빛을 갠거나 진실을 말하거나 혹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행동들이 아브라함과 라합이 보여준 것과 같은 선한 행실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자기 아들을 죽이려는 행동이 자원함에서 나오는 행동이었다! 라합의 경우에는 그것은 반역이었다! 만일 우리가 그들의 행동에서 믿음을 제외시킨다면, 그러한 행동들은 선하다기보다 악한 행동들이다. “그들의 행동에서 믿음을 제하여 보라. 그러면 그것은 잔인하고 비도덕적인 행동일 뿐만 아니라 죄악된 행동이다.” 매킨토시(Mackintosh)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표현했다. “이것은 율법이 낳은 행위가 아니라 생명이 낳은 행위라 할 수 있다. 만일 아브라함과 라합의 행위에서 믿음을 제외하여 버린다면 그것은 나쁜 행위이

다. 그것을 믿음의 열매로 바라볼 때 그것은 생명에 속한 행동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선한 행실에 의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데 사용할 수 없는 말씀이다. 만일 행위에 의한 구원을 가르칠 목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마치 살인과 반역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과도 같다.

2:26 야고보는 이 부분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라는 말씀으로 요약한다. 그는 믿음을 인간의 몸에, 행함을 영혼에 비유한다. 영혼 없는 몸은 생명을 잃은 것이며 무익하고 가치가 없다.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며 효력을 상실한 것이며 아무 쓸데가 없다. 그러한 믿음은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거짓 믿음임이 분명하다. 이 부분을 마치면서 다음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을 통해 야고보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자 한다. 나는 아브라함처럼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칠 마음이 있는가? 나는 라합처럼 그리스도께 충성하기 위해 이 세상을 기꺼이 포기할 마음이 있는가?

6. 혀, 그 사용과 남용(3:1-12)

3장의 처음 12절까지의 말씀은 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1:19, 26, 2:12, 4:11, 5:12 참조). 경험 많은 의사가 병을 진단하기 위해 환자의 혀를 조사하듯 야고보는 우리의 언어생활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건강상태를 진단한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스스로 진단해 보는 방법은 먼저 개인적인 언어생활을 살펴보는 것이다. 어떤 재담가는 “당신의 혀를 살펴보라. 그것은 물기가 많은 미끄러운 곳에 위치해 있어서 실수하기가 참으로 쉽다!”라는 말로써 정곡을 찔렀다.

3:1 언어생활의 주제는 조금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싶어 하는 욕구에 대한 경고로 시작한다. 특별히 혀가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구절의 내면에는 성경을 가르치는데 혀를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 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내 형제들아…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표현은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되려고 분량 이외의 욕심을 품지 말라”라고 의역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자기의 은사를 활용하기 위해 혀를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교훈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러한 사역이 경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의 단순한 경고이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르치는 바를 실천하지 않을 때 더 무거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막중한 책임을 수반하는 일이다. 교사는 성경에서 자기가 배운 바를 순종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그는 결코 자기 자신이 실천하고 있는 한계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기를 소망할 수 없다. 다른 사람에 대한 그의 영향력의 범위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교사는 배우는 사람에게 그 자신의 모습을 심는다. 만일 그가 성경의 의미를 흐리게 하거나 잘못 설명한다면, 그는 배우는 자들의 영적 성장을 저해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만일 그가 어떠한 죄라도 용납한다면, 그는 죄악된 삶을 배양하는 것이다. 세상의 다른 어떤 책도 성경이 요구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요구를 독자들에게 하는 책은 없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전적인 헌신을 요구한다. 그것은 신자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이 주님이 되셔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놀라운 책을 가르치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3:2 야고보는 가르침의 특별한 사역으로부터 일반적인 언어생활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우리 모두는 여러 영역에서 실수를 범하기 쉬운 존재이지만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혀를 다스릴 줄 안다면, 그래서 언어생활의 여러 가지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그는 실로 온전한 자이다. 언어를 적절하게 통제하는 법을 익힌 사람은 삶의 제반 영역에서도 자기 절제를 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 영역에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유일하게 온전한 분이시다. 하지만 이 말씀은 언어생활에 있어서 철저하게

훈련되고 성숙한 자라는 의미에서 우리도 온전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3:3 야고보는 언어와 혀에 대한 다섯 가지 비유 혹은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혀는 재갈에 비유된다. 재갈은 말의 머리를 어거하거나 말의 입에 고삐를 채우는 기구이다. 재갈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고삐이다. 재갈 자체는 아주 작은 쇠 조각이지만 이것만 잘 조절하면 말의 모든 행동을 억제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혀는 선악간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

3:4 두 번째 그림은 배의 키에 대한 그림이다. 배의 크기와 비교해 볼 때 키는 아주 작다. 그것은 배의 무게의 극히 미미한 부분을 차지할 뿐이다. 예를 들어 엘리자베스(Queen Elizabeth)호라는 이름의 한 배의 무게는 총 83,673톤이지만 키의 무게는 겨우 140톤으로 배 전체 무게의 1퍼센트의 10분의 2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키를 돌리면 그것은 배의 방향을 결정한다. 인간이 그렇게 큰 배를 상대적으로 그런 작은 기구를 가지고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혀의 크기로 그것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혀는 몸의 지체 중에서 매우 작은 지체에 불과하지만 선악간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3:5-6 혀의 세 번째 그림은 불이다. 작은 성냥불 하나가 부주의하게 버려지면 숲 전체를 태우는 대형화재의 시초가 될 수 있다. 작은 성냥불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과 황폐케 하는 힘을 가지

고 있는가! 역사상 가장 큰 재해 중의 하나는 1871년에 일어난 시카고 대화재이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 화재는 리어리(Leary)부인의 압소가 그녀의 등불을 걷어차므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 불은 3일 동안 계속 타서 그 도시의 많은 부분을 태운 후에야 진화되었다. 화재로 인해 250명의 인명이 목숨을 잃었고, 100,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175,000,000달러어치의 귀중한 재산 피해가 일어났다. 혀는 마치 불붙은 작은 성냥불과 땅에 떨어진 등잔불과 같다. 그것의 잠재적인 악의 영향력은 거의 무한하다. 야고보는 혀가 우리 지체 가운데 있는 불의의 세계라고 말한다. 여기서 ‘세계’라는 단어는 방대한 범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우리는 때로 이 단어를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을 의미할 때 사용한다. 이 세상은 실로 엄청난 고통으로 가득하다. 혀는 아주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불의를 야기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지니고 있다.

화염처럼 번지는 해로운 언어생활은 브루클린(Brooklyn)에 살던 두 여인 사이에 오고간 대화에 잘 묘사되어 있다. 한 여인이 이렇게 말했다. “어제 에이미가 내게 고백했어. 내가 너한테 그녀에게는 절대로 알리지 말라고 한 비밀을 네가 그녀에게 털어놓았다고 말이야. 넌 어쩔 수 없잖아?” 그러자 이 말을 듣고 다른 한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다. “알고 보니 그이는 참 못됐군. 내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 말을 했다는 사실을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도 그걸 또 너한테 고자질하다니 말이야.” “그러니? 난 그 친구가 내게 말한 것을 너한테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고 또 약속했어. 그러니까 너도 내가 이 이야기를 했다고 그에게 절대로 말하지 마, 알았지?”

혀는 온 지체를 더럽힐 수 있다. 사람은 비방하는 말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하나님을 훼방하는 말을 하거나, 지킬 수도 없는 일에 대해 맹세함으로서 자기의 인격을 스스로 파괴시킬 수 있다. 채플(Chappel)은 이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다른 사람의 흠을 잡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이다. …비난을 퍼붓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일을 즐길지 모르지만, 진흙을 가지고 놀려면 자기 손에 진흙을 묻히지 않을 수 없듯이 자기 자신의 마음은 전혀 손상을 입지 않고 그런 일을 할 수는 없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이 더럽혀지는 이와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겪는가! 그러한 감정은 우리가 예상했던 바가 전혀 아니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다른 사람을 비방함으로서 비방당하는 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 더 깨끗하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리라고 은근히 기대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방함으로서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다고 믿을 정도로 어리석다. 우리는 옆집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 놓음으로써 우리 집의 기초를 든든히 세울 수 있다고 믿을 정도로 소경이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잘못된 생각이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려는 시도가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더 깊은 상처를 입힌다.”⁷⁾

혀는 생의 진로(혹은 바퀴)를 불사른다.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움직이고 있는 “바퀴”이다. 그것은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의 인간의 모든 활동을 가리킨다. 악한 혀는 한 인간의 삶을 망칠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활동들도 오염시킨다. 그것은 “그 사람의 평생 동안 그 사람이 범하는 모든 악에 영향을 끼친다.”

7) (3:5,6) Clovis G. Chappel, *Sermons from the Psalms*, p. 132.

악한 혀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모든 악한 말은 뿌리를 그곳에 두고 있다. 여기서 지옥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 단어는 게헨나(Gehenna)로써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약성경에서 오직 주 예수님에 의해서만 사용되었다.

3:7 넷째로, 혀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 피조물에 비유되어 있다. 온갖 종류의 짐승이나 새, 뱀, 그리고 해물은 길들여질 수 있다. 우리 주위에서 순하게 길들여진 코끼리나 사자, 호랑이, 새, 뱀, 돌고래, 그리고 심지어 물고기들을 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플리니(Pliny)는 자기 시대에 인간에 의해 길들여진 피조물의 종류로서 짐승 가운데는 코끼리, 사자와 호랑이, 새들 가운데는 독수리 그리고 다른 종류로서 유인원류들과 뱀, 물속에 사는 악어와 다양한 물고기들을 예로 들었다. 피조물이 실제로 모두 길들여진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는 것은 핵심을 벗어나는 일이다. 충분한 시간과 지속적인 노력만 있다면 우리는 거의 모든 피조물이 인간에 의해 길들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로버트 리(Robert G. Lee)는 이것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득력 있게 표현했다.

“인간은 거대한 코끼리에게 어떻게 했는가? 그는 코끼리의 집이나 다름없는 밀림에 침입하여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을 길들여서(그것도 수십 마리씩이나) 큰 나무들을 운반하게 하거나 짐을 가득 실은 마차를 끌게 하는 등 온갖 노동에 사용해 왔다. 인간은 푸른 눈을 가진 벵갈 호랑이에게 어떻게 했는가? 그는 호랑이를 포획하여 길들인 후에 자기의 장난감으로 만들었다. 인간은 사납고 맹렬하고 강한 아프리카 사자에게 어떻게 했는가? 그는 수많은 사자를 잡아 그들을 훈련시켜서 조련사의 말과 채찍 소리에 맞추어 불붙은 고리

속을 뛰어 통과하게 하고, 말의 등에 타게 하고, 높은 주춧돌 위에 앉아 있게 하고, 닿을 듯 말 듯 한 거리에 먹이를 놓아두고 (특히 굶주려 있을 때) 그 먹이를 쫓게 하고, 명령에 따라 눕게 하거나 일어서게 하거나 달리게 했다. 심지어 몇 년 전 한 서커스에서 나는 사자가 먹이를 막 삼키려는 모습으로 동굴을 연상케 할 만한 큰 입을 썩 벌리고 그 열려진 사자의 입 깊숙이 조련사가 자기 머리를 들이민 자세로 꼬박 1분 동안이나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인간은 거대한 보어의 왕뱀을 어떻게 했는가? 또 비단뱀은 어떤가? 서커스에 가서 꽃잎처럼 작고 연약한 여자들이 이 무시무시한 괴물을 몸에 칭칭 감고 있는 모습을 보라. 동물 쇼에 가서 인간이 점박이 표범과 피에 굶주려 있는 듯한 아메리카 표범을 아무 해도 입지 않고 어떻게 자기 앞에서 압전하게 순종하도록 만드는지 보라. 쇼에 가서 잘 훈련된 순한 양처럼 누워 있는 굶주린 자칼을 보라. 그리고 비둘기와 독수리가 어떻게 같은 새장에 있으며, 늑대와 토끼가 어떻게 사이좋은 친구처럼 한데 어울려 노는가를 보라.”⁸⁾

3:8 인간은 야생동물을 길들이는데 성공했지만 정작 자기의 혀는 다스리지 못한다.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인간의 타락을 경험한 이후로 우리는 우리 몸의 이 작은 지체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 인간의 본성은 이 작은 지체를 다스릴만한 능력과 지혜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야고보는 이어서 혀가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고 말한다. 이 표현을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는 표현과 연관 지어 생각할 때

8) (3:7) Robert G. Lee, *Lord I Believe*, pp. 166-168.

우리는 야고보가 마음속에 강력한 독을 지닌 무서운 뱀을 연상하고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한 뱀의 독은 한 두 방울이라 할지라도 치명적인 해를 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혀는 인간의 마음에 독을 주입시킬 수 있으며 인격을 파괴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을 이야깃거리로 삼는 대화 속으로 빠져들기가 얼마나 쉬운지 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확실한 근거도 없이 다른 사람을 폄하하는가? 또한 얼마나 자주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격하시키고, 비난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말을 하는가? 이런 일들로 인해 발생하는 해악과 고통의 눈물과 상처 입은 심령과 파손된 인격을 누가 다 헤아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러한 잘못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의 삶 속에 가져오는 비참함을 누가 다 측량할 수 있을까? 마음속으로 경험하는 쓰라린 아픔, 잘못을 고백해야 하는 부끄러움,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떠할까? 아무 거리낌이 없이 자녀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다른 성도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자기들과 똑같이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라며, 그리스도인의 교제로부터 멀어져 방황하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훈련되지 아니한 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실로 엄청나다.

치료책은 무엇일까? 주님께서 우리를 잡담이나 비판적인 말, 그리고 불친절한 언어생활로부터 지켜주시도록 매일 기도하라.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도 덕스럽지 않은 말을 하지 말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벧전 4:8). 만일 다른 사람에게 대해 혐의가 있거든 그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것에 대해 사랑의 마음으로 더불어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라(마 18:15, 눅 17:3). 작은 실수에 눈을 크게 뜨지 말고 형제 안에 계신 주님을 보도록 힘쓰라. 만일 피차 불친절한 말이나

덕을 끼치지 않는 말을 시작했다면 말하는 도중에라도 멈추고 그런 말을 계속하는 것은 덕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라. 어떤 말은 대화 도중일지라도 멈추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있다.

3:9-10 선한 목적과 나쁜 목적을 둘 다 충족시키기 위해 혀를 사용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것은 전혀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는다. 자연에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때는 자기 혀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들을 저주한다. 하나의 근원이 이와 같이 상반된 결과를 낳는 것은 얼마나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인가!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혀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대신 도와주는데 사용되어야 마땅하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다음과 같은 삼중적인 질문에 의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사실인가? 이것은 친절한 말인가? 이것은 꼭 해야 할 말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며(시 141:3),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우리의 능력 이시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열납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시 19:4).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언급된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우리의 혀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3:11 한 구멍에서 동시에 쓴 물과 단 물이 나오는 샘은 없다. 혀도 그와 같아야 한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항상 선한 말이어야 한다.

3:12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다시금 원기를 되찾게 해주는 것

을 의미하듯 무화과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는 성장케 하는 자양물을 의미한다. 무화과나무는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포도나무 역시 무화과를 맺을 수 없다. 본질적으로, 한 나무는 한 열매만을 맺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 입에서 선과 악의 두 열매가 나올 수 있겠는가?

이 구절은 마태복음 7장 16-20절에 나오는 구절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대하게 된다. 악인은 오직 악한 행동이라는 열매만을 맺는다.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 혀가 별개의 두 열매를 맺는데 사용되는 것에 대한 경고이다.

이 세상에 짠물과 단물을 동시에 내는 샘물은 없다. 짠물을 내든지 단물을 내든지 한다. 자연계로부터의 이와 같은 교훈은 우리에게 우리의 언어가 항상 선을 좇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의도로 주어진 것이다. 야고보는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우리 자신의 언어생활을 돌아볼 것을 요구한다. 이 부분을 마치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자문해보자.

나는 나 자신이 순종하지 않는 교훈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등 뒤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는 않는가? 나의 말은 언제나 정결하고, 덕을 세우며, 친절한가? 나는 경건한 집회를 마친 후 가벼운 태도로 농구나 축구 같은 경기에서 두 팀이 얼마나 득점을 올렸는지에 관한 대화에 빠져들지는 않는가? 나는 성경을 주제로 농담을 즐기지는 않는가? 전해들은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더 깊은 인상을 심어주려고 과장해서 말하지는 않는가? 혹은 체면이 깎이는 일이나 친구를 잃거나 재정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항상 진실을 말하는가?

7.

참된 지혜와 거짓된 지혜(3:13-18)

야고보는 이제 참된 지혜와 거짓 지혜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한다. 지혜에 대해 언급할 때, 그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관해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관해 말하려는 것이다. 지혜란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보다는 그것을 얼마나 가치 있게 실생활에 적용하고 있는지와 더 깊은 관계가 있다. 우리는 여기서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그림을 발견한다. 우선, 지혜로운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지혜이시다(마 11:19, 고전 1:30). 하지만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본을 따라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며, 성령님의 열매가 그 생활 가운데서 드러나는 사람이다(갈 5:22-23).

우리는 여기서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그림도 발견한다. 그는 이 세상의 규범에 따라 행동한다. 그는 인간들이 칭송하는 모든 요건을 구비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의 행동에는 신령한 삶의 증거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3:13 만일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지혜로부터 우려나오는 겸손한 심령과 더불어 선한 행실로써 그것을 실증할 것이

다. 참된 지혜의 모본이신 주 예수님께서서는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셨다(마 11:29). 그러므로 참된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은 참된 겸손이라는 특성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다.

3:14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마음속의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나타난다. 그의 단 한 가지 열망은 삶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확장하는 것이다. 그는 자기의 경쟁자들을 시기하며 편협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한다. 그는 자신이 이룬 성공에 대해 자기 지혜를 뽐낸다. 하지만 야고보는 이것이 전혀 지혜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한 자랑은 허탄한 것이며 참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진실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진리를 실제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3:15 그리스도인의 봉사에 있어서도 다른 일꾼에 대해 독한 시기심을 품을 수 있으며,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명예로운 자리를 차지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 교회 안에서 지도적인 자리를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자들이 차지할 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 세상적인 원리들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 야고보는 이러한 거짓 지혜를 “세상적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이라고 단정한다. 세상적이라는 말은 이러한 지혜가 위 곧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욕적이라는 말은 그것이 성령님의 열매가 아니라 인간의 저속한 본성의 열매라는 것을 의미한다. 마귀적이라는 말은 그것이 인간의 행동이라기보다 마귀의 행동을 닮은 행위라는 것을 의미한다.

3:16 시기와 사육을 좇는 곳에는 언제나 혼란과 부조화, 그리고 모든 악한 일이 존재한다. 이것은 얼마나 명백한 사실인가! 오늘날 세상에 만연한 불안과 혼란에 대해 생각해 보라.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참된 지혜를 버리고 자기 자신의 사특한 지혜를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다.

3:17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것은 정결하다. 몸과 영혼에 있어서, 교훈과 실제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믿음과 도덕에 있어서 그것은 더럽지 않다.

또한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하다. 이것은 단순히 지혜로운 사람은 화평을 사랑하며, 정결함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깊은 강물 위로 난 좁은 외나무다리 위에서 마주친 두 염소에 대한 루터의 이야기에 잘 묘사되어 있다. 그들은 돌아갈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었다. “잠시 의논을 한 후에 그들 중 한 마리가 누워서 다른 염소보고 자기를 밟고 지나가게 했다. 그 결과 그들은 피차 아무 상처도 입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곤 했다. “도덕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화평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짓밟힌다고 해도 만족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의 양심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온유하다. 그것은 거만하지 않고 친절하며, 무례하지 않고 공손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할 줄 아는 신사이다. A. B. 심슨은 “무례하거나 빈정거리는 태도, 쏘아붙이는 듯이 대꾸하는 것, 불친절하게 말을 도중에 끊어버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일상생활에서 아무리 평범하게 받아들여지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온유한 가르침과는 관계없는 것들이다”라고 말했다.

참된 지혜의 또 다른 특징은 기꺼이 순복하는 태도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올바른 견해에 귀를 기울일 줄 알며,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고, 긍정적인 태도로 진리의 요구에 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완고하고 자기주장만 고집하는 것과는 상반된 태도를 가리킨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이것은 잘못을 범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어 하는 태도이다. 이것은 동정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다. 이런 태도 속에는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해를 입힌 만큼 되갚고자 하는 복수심이 없다.

또한 참된 지혜에는 편벽됨, 즉 편파적인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공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참된 지혜에는 외식(外飾)이 없다. 그것은 신실하고 참되며,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감추고 달리 보이게 하려는 꾸밈이 없다.

이제 이 모든 사항을 종합해서 두 사람, 즉 참된 지혜를 소유한 사람과 거짓 지혜를 소유한 사람의 모습을 그려보기로 하자. 참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참으로 겸손하다. 그는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긴다. 그는 한껏 뽐내지도 아니하고 자기를 대하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한 느낌을 갖게 만든다. 그의 행동은 다른 세상 사람들의 행동과 같지 않다. 그는 육체를 위해 살지 않고 영을

위해 산다. 말과 행실에 있어서 그는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상
기시켜 준다.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는 깨끗한 삶을 산다. 또한
그는 늘 화평을 좇는다. 그는 모욕이나 거짓된 송사를 참고 싸우지
않으며 심지어 자기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굳이 밝히려 하지 않는
다. 그는 부드럽고 온화한 태도를 나타내며 따뜻한 마음을 소유한
자이다. 그리고 그는 더불어 의논하기가 쉬우며 다른 사람의 견해
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는 자기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할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으며 그것에 대해 똑같이 보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언제나 친절을 베푸는
데, 특히 그러한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도 그러하
다. 모든 사람에게 그는 한결같다. 그는 아무도 편애하지 않는다. 마
지막으로, 그는 위선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는 일구어언하지 않는
다. 그는 진실을 말하며 결코 가면을 쓰지 않는다.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와 다르다. 그의 마음은 시기와
다툼으로 가득 차있다. 자기 자신을 부요케 하려는 욕심으로 자기
와 경쟁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그는 관용하는 마음이 없다. 그의 행
동에는 고상한 것이 하나도 없으며, 동물과 같이 자연적인 욕구만
을 채우기 위해 살아간다. 그리고 그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
는 방법은 잔인하고, 무자비하며, 저속하다. 잘 포장된 그의 인격의
내면에는 부도덕이 숨겨져 있다. 그의 정신세계는 더럽혀져 있으며,
그의 도덕기준은 타락되어 있고, 그의 언어생활은 정결하지 못하다.
그는 자기와 다른 견해를 가진 모든 사람과 다투기를 좋아하며 어
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를 넘어뜨리고 전진한다. 가정에서, 직
장에서,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그는 끊임없이 다툼을 일으킨다. 그
는 거칠고 강압적이며, 무례하고 방자한 태도를 지닌다. 사람들은

그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한다. 그는 사람들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싶어 한다. 그와 조용히 어떤 문제를 의논하는 것은 이 세상 어떤 일보다도 불가능하다. 그의 마음은 이미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놓고 그것을 결코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는 용서하지 않으며 보복하려고 한다. 어떤 사람이 잘못이나 실수를 범하면 그는 그것을 용납하는 대신 그것에 대하여 비열하고, 불친절하며, 무례한 언사를 구사한다. 그는 사람들을 자기에게 가져오는 이익에 따라 가치를 매긴다. 그들이 자기에게 더 이상 “사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 다시 말해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유익을 얻을 소망이 더 이상 없다고 판단될 때, 그는 그들을 즉시 냉담하게 대한다. 그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으며 신실치 못하다. 요컨대 말과 행실에 있어서 그들을 신뢰할 만한 구석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다.

3:18 야고보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라는 말로 본(本) 장을 마무리한다. 이 구절은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해 온 사항과 앞으로 살펴볼 주제들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방금 참된 지혜는 화평을 사랑한다고 배웠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싸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 우리는 사람의 일생이 농부가 농사를 짓는 과정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농부(화평케 하는 자로서 지혜로운 자), 기후(화평), 그리고 열매(의)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농부는 의(義)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한다. 싸움과 다툼이 있는 환경에서 이것이 가능할까? 씨를 뿌리는 작업은 반드시 화평의 조건 아래서 일어나야 하며, 또한 화평을 좋아하는 성품을 지닌 자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의의 열매는 화평을 추구하는 자들과 또

그들에 의해 섬김을 받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열리게 될 것이다.

야고보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종류의 지혜를 드러내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다시 한 번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도록 촉구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겸손한 성도보다 세상의 교만한 자를 더 존경하고 있는가?” “나는 사람들의 칭찬을 얻고자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좋은 결과를 얻고자 때로 의심스러운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는가?” “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말재주를 사용하지는 않는가?” “나는 마음속에 시기심과 원한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비꼬는 말투나 불친절한 말을 사용하지는 않는가?” “나는 생각이나 말, 그리고 행실에 있어서 순결한가?”

8. 탐욕, 그 원인과 치유책(4장)

야고보는 지혜로운 사람은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종종 일어나는 비극적인 싸움에 대해 언급한다. 그 싸움의 원인은 무엇일까? 분열로 인해 상처를 입은 불행한 가정과 교회가 세상에 그렇게 많은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본국에서 그리스도인 일꾼들 사이에 존재하는 심각한 부조화와 해외의 선교사들 사이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다툼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사역에 있어서 더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그리고 우리 자신의 기쁨을 위해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무엇보다 더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4:1-2a 슬픈 사실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싸움과 다툼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부분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이 단락으로부터 우리가 취해야 할 교훈을 빼앗는 것과 일반이다. 이러한 다툼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그것은 끊임없이 만족을 얻기를 갈구하는 우리 속에 있는 강력한 욕망으로부터 시작된다. 거기에는 물질적인 소유를 축적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수 있고, 명성을 추구하는 욕망이 있을 수도 있으며, 육체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쾌락에 대한 갈망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 안에는 이러한 강력한 힘이 역사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 결코 만족에 이르지 못하므로 항상 더 갈구한다. 원하는 바를 얻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좌절을 경험한다. 그러한 충족되지 않는 욕망은 너무나 강렬한 것이어서 우리는 이 욕망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앞길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짓밟는다. 야고보는 “살인하며”라고 말한다. 그는 이 단어를 주로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우리는 문자적인 의미에서 살인을 범하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시기심, 그리고 잔인한 성품은 그것의 초기 단계이다.

4:2b-3 우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그리고 더 나은 것을 얻기 원한다. 그리고 그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툼과 싸움이 벌어진다.

존과 제인은 갓 결혼한 신혼부부이다. 존은 적당한 봉급을 받으며 꽤 괜찮은 직장에 다닌다. 제인은 교회의 다른 젊은 부부들처럼 훌륭한 집을 갖고 싶어 한다. 반면에 존은 구식 모델의 자가용을 원한다. 제인은 좋은 가구와 기구들을 갖추고 싶어 한다. 이런 것들 중에 어떤 물건은 할부로 구입해야 하는데 그것을 감당하려면 존의 수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얼마 후에는 아기가 태어날 예정이고 이것은 더 많은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인의 요구를 들어주자면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불균형을 감수해야 한다. 제인의 요구가 극에 다다르자 존의 인내도 한계에 도달해서 화를 내며 짜증을 부린다. 제인도 역시 바가지를 긁는 것과 눈물로써 응수한다. 계속되는 요구로 드디어 집안의 화평은 깨어지고, 물질우선주의가 가정을 파괴해 버리고 만다.

또 다른 예로서, 제인이 시기심에 사로잡힌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녀는 수잔과 밥이 교회 안에서 자기 부부보다 더 주목받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수잔에게 은근히 꼬집는 듯한 말을 하기 시작한다. 그 두 사람 사이의 싸움은 점점 격렬해지고 마침내 남편들까지 그 싸움에 끼어들게 된다.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도 두 편으로 나뉘게 되고, 결국 주목받고 싶어 하는 한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모임도 나뉘게 된다.

신자들 사이의 싸움과 다툼의 또 다른 원인이 있다. 그것은 더 소유하고 싶은 욕망과, 다른 사람의 소유물에 대한 시기심이다. 흔히 “이웃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허세를 부리는 것”(Keeping up with the Joneses)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것을 점잖게 일컫는 말이다. 있는 그대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탐심 혹은 탐욕이다. 이 욕망에 강렬히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들은 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어떤 희생이라도 기꺼이 치른다. 그들은 참된 만족이 그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을수록 족한 줄로 아는데서 오는 것임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딤후 6:8).

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접근 방법이다. 야고보는 “다투거나 싸우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이런 것들을 기도로써 주님께 가져가기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애쓴다. 만약 우리에게 없는 무엇을 원할 때에는 그것에 대해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 주님께 기도를 드렸는데도 응답이 없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동기가 순수치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구하는 대신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기쁨을 위해 구한 것이

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으시다.

4장의 처음 세 구절 안에서 우리는 심리학적인 면에 있어서 얼마나 심오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만족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번민케 하는 어려움이나 불안감도 극복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그리고 소유하기보다는 베푸는데 더 마음을 쓴다면, 그 결과 우리는 얼마나 큰 평안을 맛보겠는가! 만일 우리가 물질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좇으라는 명령을 따른다면, 그 어떠한 다툼도 그치게 될 것이다!

4:4 야고보는 물질적인 것에 대한 과도한 사랑을 영적인 간음으로 정죄한다.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최고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결국은 지나가버릴 이 세상의 형적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분에게 대해 진실치 못한 것이다.

탐심은 이상숭배의 한 형태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소유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에 대해 강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세워놓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탐심은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긴다. 그러므로 탐심은 이상숭배이며, 이상숭배는 주님께 대한 영적인 간음과 일반이다.

9) (4:4) 대부분의 사본들에는 “간음하는 남녀”(Adulterers and adulteresses)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임(congregations) 안에 존재하는 실제적인 부도덕을 암시하는 표현일 것이다. 알렉산드리아 사본과 NU에는 “간음하는 여자”(adulteresses)라는 여성형만 언급되어 있으며, 이것은 거의 비문자적인(non-literal)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KJV와 NKJV은 육체적인 간음과 영적인 간음 두 가지의 의미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세상과 짝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길이다. 이 세상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나 혹은 우리 주변의 자연계를 일컫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량을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건축한 체계(體系)를 의미한다. 이 체계 안에는 하나님이나 그분의 아드님을 위한 자리가 없다. 그것은 예술, 문화, 교육, 과학, 더 나아가 종교세계를 의미할 수 있다. 그곳은 물론 형식적인 의미에서 받아들여지는 것만을 제외하고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환영을 받지 못하며 심지어 거부되는 영역이다. 단적으로 말해 그곳은 참된 교회 바깥의 인간세계이다. 이러한 체계와 벗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생명과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이 세상이다. 사실, 그분을 죽음에 내어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종교세계이다. 신자가 자기가 따르는 주님을 죽인 이 세상과 벗이 되기를 원하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품는다는 것은 얼마나 모순된 일인가!

4:5 이 구절은 야고보서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 중의 하나이다. 이 구절을 다시 한 번 읽어보자.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첫 번째 어려운 점은, 야고보가 이 말씀을 구약성경에서 인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말씀을 구약성경의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으며, 심지어 외경(Apocryphal books)에서조차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에 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이와 똑같은 말씀이 구약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야고보가 이 말씀을 성

경의 일반적인 교훈으로서 언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이 문제의 두 번째 해결방법이 개역성경(RV)에 의해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개역성경에는 이 구절이 다음과 같이 두 질문으로 나뉘어져 있다. “너희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지 아니하시느냐?” 두 질문으로 나뉘어진 이 말씀의 요지는, 다투고 경쟁하며 세상과 벗하고자 하는 마음을 정죄하는 성경말씀은 결코 헛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다.

5절 말씀의 두 번째 중요한 의문점은 이 구절의 하반부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the spirit)”이라는 표현에서 성령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정말 성령님(“the Holy Spirit”—NKJV의 번역대로)을¹⁰⁾ 의미하는가, 아니면 인간의 강렬한 시기심을 의미하는가이다. 만일 전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께서서는 다툼을 일으키는 욕심과 시기심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기를 너무나 강렬하게 소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후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즉 욕심과 시기심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모든 불충실의 원인이라는 뜻이다.

4:6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 처음 다섯 구절을 통해 우리는 신자의 옛 본성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배웠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육신의 정욕을 다스리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대해 배운다. 감사하

10) (45) 대부분의 사본들은 대문자와 소문자의 사용에 대해 아직 정형화된 형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게도,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주신다(히 4:16). 그분은 “...네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라고 약속해 주셨다(신 33:25).

“짐이 점점 무거울 때
주님은 더 은혜를 베푸신다.
수고가 많아질 때
주님은 더 능력을 공급하신다.
환난이 더해지면 그분의 자비도 많아지고
시험이 더해지면 그분의 평안도 더해진다.”
(애니 존슨 플린트).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야고보는 잠언 3장 34절을 인용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교만한 자가 아닌 겸손한 자에게 이러한 은혜가 약속되어 있다는 의미가 강조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지만 상한 심령은 떨시치 않으신다.

4:7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위해 밟아야 할 여섯 단계를 발견할 수 있다. 야고보는 여기에서 성도들의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의 통렬한 지적은 마치 정죄하는 화살처럼 우리의 심령을 찌른다. 우리의 마음은 야고보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께 굴복해야 하며, 그분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그분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교만하고 목이 곧은 자세를 버리고 온순하고 낮우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 마귀의 유혹과 제안에 마음과 귀를 닫음으로써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를 대항하는 성령의 검으로 사용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우리로부터 도망간다.

4:8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그분께 가지고 나아와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나아오신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정욕 때문에 우리로부터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네 번째 단계는 “죄인들이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마음을 정결케 하라”라는 말씀 속에 있다. 손은 우리의 행동을 이야기하고, 마음은 우리의 동기와 소원을 뜻한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과 외면에 관계된 죄를 자백하고 버림으로써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한다. 죄인으로서 우리는 악한 행동들을 고백할 필요가 있으며, 두 마음을 품은 자들로서 우리의 순수치 못한 동기를 고백할 필요가 있다.

4:9 고백에는 죄에 대한 깊은 애통함이 수반되어야 한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실 때, 그 때는 가볍게 행동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그분 앞에 낮추고 우리의 죄악된 것과 무능력함, 무정함 그리고 별거벗음에 대해 애통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검비케 하고, 우리의 물질주의와 형식주의, 그리고 세속주의에 대해 울어야 한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우리는 경건한 회개의 열매를 나타내야 한다.

4:10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그분의 발 앞에 먼지와도 같은 우리의 올바른 위치를 지킨다면,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때에 높이실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주실 때 우리가 반응해야 할 태도이다. 하지만 너무나 자주 우리는 이와 상반된 자세를 취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종종 어떠한 집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명백히 도전하시는 것을 경험한다. 우리의 마음은 크게 감동함을 입어서 그 순간 훌륭한 결심으로 넘쳐난다. 하지만 집회가 끝나면 사람들은 흥미롭고 가벼운 대화에 빠져든다. 점차 예배의 충만한 분위기는 흐트러지고, 능력은 사라지며, 하나님의 성령님은 소멸케 된다.

4:11-12 다음으로 야고보가 다루는 죄는 다른 형제에 대한 비판 혹은 악평이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에 앞서

반드시 대답해야 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이 당신의 형제에게 무슨 유익을 가져다주는가? 이 말이 당신 자신에게 무슨 유익을 끼치는가? 이 말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요소가 있는가?”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형제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것이나, 형제의 동기를 판단하는 것은 이 율법을 거슬러 말하거나 그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정죄하는 것과 일반이다. 율법을 무례하고 경멸하는 태도로 취급하는 것은 그것을 고의적으로 범하는 것이다. 그러한 태도는 율법이 선하지 않으며 순종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율법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형제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결국 판단을 받는 자리에 있게 하기보다는 판단자와 같은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앉게 한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보다 더 우위에 앉으신 자의 위치에 갖다 놓는다. 하지만 율법 위에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분은 율법을 수여하신 분이시며 그 율법으로써 세상을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 누가 이런 하나님의 자리를 탈취하는 오만함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권한을 가질 수 있겠는가?¹¹⁾

4:13 야고보가 정죄하는 다음 죄는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를 신뢰하며 자기 자신이 세운 계획을 자랑하는 것이다(13-16 절). 그는 장래에 대비해서 완벽한 계획을 짜놓고 있는 한 사업가를

11) (4:11,12) NU text reads a neighbor

예로 들고 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자. 그 사업가는 때(오늘이나 내일), 주체(우리가), 장소(아무 도시에 가서), 기간(거기서 일 년을 유하며), 행동(장사하여),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견되는 결과(이를 보리라)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여기에서 빠진 것은 무엇일까? 그는 자기 사업 가운데 하나님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필요하지만 자기 소견에만 옳은 대로 계획을 하는 것은 죄악이다. “우리가…하리라” 혹은 “내가…하리라”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인 죄이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 14장 13-14절에 나타난 루시퍼의 말을 들어 보라.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4:14 마치 내일이 확실한 것처럼 계획하는 것은 잘못이다. “내일…하지 말며”(잠 3:28).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 우리의 생명은 “한 모금의 연기”처럼 순간에 불과하며 앞일을 내다볼 수 없다.

4:15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계획에서 상담자가 되셔야 하며,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의 계획이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그분의 주권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행하고 말해야 한다. 우리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라고 말해야만 한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행 18:21)라고 말하는 것과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라고 기록한 것을 읽을 수 있다. 때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감을 표시하기 위해 “D.V.”라는 문자를 사용하는데 이 문자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Deo Volente”라는 라틴어의 머리글자이다.

4:16 야고보는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라고 말한다.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세운 미래에 대한 교만한 계획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 것도 자신들의 시간표를 방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자기 자신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인인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랑은 악한 것이다.

4:17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문맥적으로 볼 때, 이 말씀에서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매순간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말한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죄를 범하는 것이다. 물론 이 원리는 보다 넓은 의미로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로 하여금 이 원리를 따를 의무를 갖게 한다. 만일 우리가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빛을 따라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을 거부하는 삶은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과,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다.

4장에서 야고보는 탐심과 다툼의 문제에 있어서, 언어생활의 문

제에 있어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함이 없이 임의대로 계획하는 삶의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 보아야 한다. 나는 끊임없이 더 많이 소유하기를 원하는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가? 나는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가? 어떤 물건을 사기 전에 기도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께 복종하는가, 아니면 거절하는가? 어떤 형제에 대해서 비판하지는 않는가? 주님께 여쭙지 않고 계획하지는 않는가?

9.

부자들과 그들에게 임할 환난(5:1-6)

야고보서 가운데 가장 날카롭게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단락 중의 하나인 이 부분에서 야고보는 부자들의 죄에 대해 탄핵(彈劾)을 시작한다. 그의 어조는 방망이 같으며 엄위하고 강력하다. 사실, 그의 도전은 너무 강력한 것이어서 이 구절들은 거의 설교의 주제로 사용되지 않는다.

야고보는 여기에서 마치 사회의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처럼 그려져 있다. 그는 부자들이 재물을 인간의 필요를 덜어주기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는 죄에 대해 외친다. 그는 일꾼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부(富)를 축적하는 사람들을 정죄한다. 그는 사치스러운 생활과 방탕한 생활을 위해 자신들의 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엄히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부자들을 의로운 사람들을 억압하는 교만한 압제자로 묘사하고 있다.

5:1 먼저, 그는 부자들에게 그들이 경험하게 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고 말한다. 그들은 오래지 않아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이다. 그 때에 그들의 마음은 수치와 후회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불의한 청지기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며, 자신들이 놓쳐버린 기회를 생각하며 통곡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

의 탐심과 이기심에 대해 애통하게 될 것이며, 자신들이 저지른 불평등한 고용행위에 대해 심문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주님 안에서서가 아니라 물질적인 부요함 속에서 안전을 추구했던 죄를 직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그러한 부요함에 탐닉된 생활을 한 것에 대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게 될 것이다. 야고보는 부자들의 네 가지 육적인 죄에 대해 언급한다. 첫째는, 부를 축적하는 죄이다.

5:2 야고보는 “너희의 값진 재물은 파멸되었고, 너희의 쌓아놓은 옷은 좀이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가 악하게 재물을 쌓은 것에 대한 증거가 되며 너희는 그 녹과 같이 쇠하여지리라”고 예언한다.

성경은 결코 부하게 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다면 그는 부자가 되기 위해 어떠한 죄도 범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성경은 부를 축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분명히 가르친다. 주 예수님은 부를 축적하는 것을 명백히 금하셨다. 주님께서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마 6:19-21)라고 말씀하셨다.

야고보는 부(富)를 네 가지 형태, 즉 재물, 옷, 금, 그리고 은으로 표현한다. 성경시대에 부는 일반적으로 곡식이나 기름, 그리고 옷, 금, 은과 같은 물품의 형식으로 인식되었다. 야고보가 “너희 재물은 썩었으며”라고 말했다를 때, 그는 곡식이 벌레 먹은 것과 기름이 부패

하여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것을 상상했을 것이다. 이 말씀의 요지는 이것들이 부패해서 썩은 냄새가 날 때까지 쌓여진 채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들은 한 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쓸모없게 되었다. 야고보는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라고 말한다. 이것은 이 옷들이 일상복으로 사용되는 옷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옷장은 많은 옷들로 가득차 있었기 때문에 그 옷들은 아주 가끔씩 사용되었고 결국 좀이 슬게 되었다. 야고보의 생각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절실히 필요로 할 때에 그와 같이 옷을 쌓아놓기만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이었다.

5:3 야고보는 계속해서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라고 말한다. 금과 은은 녹이 슬지 않지만 흙이 나거나 최초의 색깔을 잃어버릴 수 있으며, 보관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점차 화학적으로 파괴되어 갈 수도 있다.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헐벗은 자들을 입히며, 병든 자들에게 의약품을 공급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돈을 사용하는 대신 부자들은 자신들의 돈을 “어려운 때”에 대비하여 쌓아놓는다. 그것은 아무도 이롭게 못하고 결국 썩고 만다.

사용하지 않고 썩게 내버려두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녹”(corrosion)을 언급한 것은 부자들에 대해 정죄하는 말 가운데서 증거와 같은 역할을 하는 표현이다. 야고보의 시대에 부자들에 대한 이러한 묘사가 사실이라면, 우리 시대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는 더욱 더 사실이 아니겠는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들어야 할 책망은 어떤 것이겠는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

질을 쌓아놓고만 있다면, 얼마나 합당치 않은 행위인가? “이 놈이…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라는 표현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부를 사용하지 않은 행동이 그들로 하여금 통렬한 고통과 후회를 맛보게 할 것이라는 뜻이다. 그들의 눈이 마침내 열려서 자신들의 이기심과 탐욕(값비싼 보석, 우아한 의복, 화려한 집과 고급 승용차)의 실상을 보게 될 때, 그것은 불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타는 듯한 아픈 경험이 될 것이다.

5:4 야고보가 지적하는 두 번째 죄는 마땅히 지불해야 할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주인 자신이 부를 축적하는 죄이다. 밭에서 추수한 일꾼들은 자신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대가를 받지 못했다. 그들은 대항하여 자신들의 몫을 되찾아야 하지만 힘이 없는 존재이다. 그들은 세상에서 자신들의 억울한 송사를 들어줄 만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만군의 주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하늘의 천군들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세상의 유린된 사람들을 신원하여 주실 만큼 강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며 신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부를 축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정직한 수단으로 부를 얻는 것도 정죄한다.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죄와 더불어 야고보는, 소득세의 서류를 조작하는 것이나 무게와 치수를 속여서 이익을 보는 것, 공무원이나 이익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는 것, 거짓 광고행위, 그리고 현금 출납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 있었을 것이다.

5:5 다음으로 야고보는 부자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책망한다.

값비싼 보물들과 우아한 의복들, 맛있는 음식 그리고 호화로운 주택 등,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절실한 필요 가운데 빠져있을 때 그들은 이 모든 재물들을 어떻게 자신만을 위해 헛되이 낭비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고사하고 우리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 우리는 매일 수천 명의 영혼이 기아로 죽어 가는 세상에 살고 있다. 세계의 인구 중에서 절반 이상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스포츠용 자가용이나 고급 승용차, 쾌속 보트를 자랑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돈을 고급 호텔이나 식당, 그리고 자신의 쾌락만을 위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가? 성경의 명백한 교훈, 세상의 절실한 필요, 구주의 모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단순한 본능 중의 하나인 동정심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영혼이 한 사람이라도 세상에 있는 한 편안하고 안락하며 사치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사치하고 쾌락을 즐기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자기 자신이 곧 도살을 당하게 되는 줄도 모르고 먹고 마시는 동물들이나 혹은 주위의 사람들이 죽어 가는 데도 불구하고 시간가는 줄 모르고 약탈에만 신경을 쓰는 군인들처럼—도살의 날에 자기 마음을 살찌우는 사람들에 비유되어 있다.

5:6 부자들에게 대한 마지막 고발은 대항하지 않는 옳은 자를 그들이 정죄하고 죽였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언급된 옳은 자가 주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분의 죽음은 부자들에게 의해 저질러진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

다. 아마 이 의인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죄 없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 분별일 것이다. 야고보는 부자들이 자기들보다 낮은 신분의 사람들에게 대해 행한 고압적이고 거친 태도에 관해 생각하고 있다. 부자들은 그들을 거짓 송사와 거친 언어와 그리고 위협으로 그들을 정죄했다. 또한 부자들은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과중한 업무나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혹사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런 대항도 할 수 없었다. 대항은 한층 더 야수적인 보복과 해고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10. 인내에 대한 권면(5:7-12)

5:7 야고보는 이제 압박을 받고 있던 신자들에게 인내하라고 격려한다. 인내의 동기는 주님의 강림이다. 이것은 휴거에 대한 언급일 수도 있고, 다스리기 위해 오시는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언급일 수도 있다. 신약성경에는 두 가지 모두 인내를 격려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농부는 인내의 필요를 잘 설명해 준다. 그는 파종하자마자 바로 열매를 수확하지 않는다. 기다림의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먼저 싹을 틔우기 위해 이른 비가 와야 한다. 그 다음에는 계절의 마지막에 풍성한 열매가 열리고 성공적으로 수확하기 위해서는 늦은 비를 필요로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표현이 교회시대 초기에 있었던 오순절의 축복이 주님의 강림 이전에 다시 한 번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이라고 해석하지만 신약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은 그러한 기대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분별된다. 그러나 마지막 때를 사는 신실한 신자들이 하나님을 위해 불타는 심령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기를 기대하는 열망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데 있어서 이것보다 더 좋은 길이 어디 있겠는가?

5:8 세상의 모든 어그러진 현상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올바르게 정돈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백성들은 농부와 같이 인내해야만 한다. 그들의 심령은 주님의 강림에 대한 확신으로 굳세게 되어야 한다.

5:9 환난과 핍박의 시기에는 그 희생자들이 서로를 향하여 원망하기가 쉽다. 압박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분노를 표시하는 것은 뒤틀린 인간 본성의 이상한 단면이다. 이런 이유로 다음과 같은 경고가 주어진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¹²⁾ 우리는 원망하는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한다. 심판자가 이미 문밖에 서 계시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 우리는 곧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우리 자신의 일을 직고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 때에 심판을 면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5:10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언급되고 있다. 오래 참음 앞에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롬 5:3). 앞부분에서 설명한대로 신약성경에서의 인내는 ‘견고함’ 또는 ‘고통 중에도 불평하지 않는 용기’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면에 있어서 그들의 신실함 때문에 선지자들은 무자비한 핍박을 감내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히 11:27,32-40) 참았다.

12) (5:9) NU와 M본문에는 “judged”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문맥적으로는 부정적인 의미의 심판을 암시하고 있으므로 “condemned”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5:11 우리는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을 큰 존경심을 가지고 기억한다. 그들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삶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존경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들을 복된 사람들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그들이 올바른 삶을 살았고, 세상이 그들을 잘못 평가했다는 사실에 기꺼이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이겨냈으며, 그들이 그러한 고통을 인내로써 견뎌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만일 우리도 그와 같이 복된 사람의 반열에 서기를 원한다면, 그들과 같이 인내해야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적절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욥은 인내와 오래 참음의 좋은 본이다. 세상의 역사 가운데 욥과 같이 그토록 짧은 순간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겪은 사람은 별로 없다. 하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고 그분으로부터 돌아서지도 않았다. 결국 그의 인내는 보상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러하셨듯이 자기 자신을 자비하고 긍휼이 풍성한 분으로 나타내셨다.

만일 우리가 야고보의 표현처럼 “주께서 주신 결말”(주님께서 계획하시는 마지막 결과 또는 결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악인을 부러워하는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 아삽은 악인이 번성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을 보고 부러워했다(시 73:3-17). 그들의 번영에 대해 생각이 사로잡힐수록 그는 점점 더 미궁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 일을 다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보았을 때에야 비로소 그는 그들의 결말에 대해 알게 되었고 모든 회의는 물러갔다. 다윗은 이와 똑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시편 17편 15절에서 그는 삶 가운데서 신자의 분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영적인 눈으로 이 사실을 이해할 때 신자는 견고하게 설 수 있다. 욥의 경우에 하

나눔께서 그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결말은 이전에 그가 소유했던 것보다 갑절이나 많은 재물을 그에게 주시는 것이었다(욘 42:10-15).

5:12 시련의 때에 참을성이 없는 마음은 맹세로 표현되기도 한다. 여기서 맹세는 신성모독이나 혹은 저주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에 하는 맹세의 문제도 아니다. 성경에서 금하는 맹세는 자기 자신이나 어떤 사람의 말의 진실성을 보증하기 위해 주님의 이름이나 혹은 다른 이름을 의미 없이 사용하는 경우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이나 땅에 있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의 이름으로도 맹세해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예” 혹은 “아니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들에게 말 그대로 “예” “아니오”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구절은 또한 “하늘에 맹세코”,¹³⁾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거니와”, “신께 맹세코”와 같은 불필요한 맹세의 표현들과 하나님과 예수님을 의미하는 경건치 못한 은어(隱語)들의 사용을 금하는 데에도 적용할 수 있다.

13) (5:12) 이 구절에 대해 대부분의 번역본들은 가장 흥미로운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KJV와 NU의 “into(문자적으로는 ‘under’)judgement”라는 번역은 *hupokrisin*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본에는 *eis(‘into’) hupokrisin(‘hypocrisy)’*라고 표현되어 있다. 만약 사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수로 “*eis*”라는 작은 전치사가 생략된 것이라면 KJV와 NU의 경우 *hupokrisin*라는 단어의 접두어 *hupo*를 별개의 전치사로 취급하여 “under judgement”라는 의미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두 가지 표현 모두 인접한 문맥과 조화를 이루며, 본 서신을 통해 야고보가 전달하고자 하는 요지는 종교적인 위선에 빠지는 위험에 대해 경고라고 할 수 있다.

11. 병든 자에 대한 기도와 치유(5:13-20)

본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의 주제는 기도이다. 기도라는 단어는 명사 혹은 동사 형태로 일곱 번이나 언급된다.

5:13 삶의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기도로써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시련 중에 있을 때, 우리는 간절한 탄원으로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기쁨 중에 있을 때에는 주님께 마음으로부터 찬송을 드려야 한다. 그분은 우리의 생활이 아무리 변화무쌍할지라도 그 모든 환경 가운데로 들어오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의 제1원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뉘르쯔포드(Lutherford)가 말한 “제2의 원인들로 이루어진 바퀴의 무질서한 운행”(confused rolling of the wheels of second causes)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 자신을 환경의 희생자로 만드는 것이나, 환경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패배와 같다. 우리는 그분의 섭리 이외에는 어떤 것에도 주목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본 서신서와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 신자의 삶 가운데서 치유의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대해야 하는지를 숙고하게 만

든다.

이 구절들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성경이 질병의 문제와 치유의 문제에 관해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지를 상고해보는 것이 대단히 유익하다.

하나님의 치유

(1)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질병이 세상에 있는 죄의 결과라는 것에 동의한다. 만일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질병도 세상에 없을 것이다.

(2) 때로 질병은 어떤 사람의 삶 가운데 있는 죄의 직접적인 결과일 수 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자신들의 삶 가운데 있는 죄를 판단하지 않고, 다시 말해 죄를 자백하고 버리지 않은 채 주의 성찬에 참여했기 때문에 병든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읽을 수 있다.

(3) 모든 질병이 어떤 사람의 삶 가운데 있는 죄의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다. 욥은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들었으며(욥 1:8),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것은 아니다(요 9:2-3). 에바브로디도는 주님의 일에 쉬지 않고 열심이었는데도 병들었으며(빌 2:30), 가이오는 영적으로는 틀림없이 강건했지만 육신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다(요삼 2절).

(4) 질병은 종종 사단이 역사한 결과일 수가 있다. 욥의 온 육체가 악창으로 덮이게 한 것은 바로 사단이었다(욥 2:7). 누가복음 13장 10-17절에 나오는 여인으로 하여금 귀신들려 앓으며 몸을 펴지 못하게 한 것도 사단이었다. “십팔 년 동안(이 기간을 생각해보라) 사단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눅 13:16). 바울은 사단으로

말미암은 육체의 연약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그것에 관해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고후 12:7)라고 말했다.

(5)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또 치료하신다. 엄밀히 말해서 모든 치유는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이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들 중의 하나는 여호와 로페(Jehovah-Rophe: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출 15:26)이다. 우리는 치료의 모든 경우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실 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성경을 볼 때 명백하다. 그분은 때로 자연적인 신체의 회복과정을 통하여 치유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 안에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심어놓으셨다. 의사들은 대부분의 질병이 아침이 되면 상태가 호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나님은 종종 약을 통하여 치료하신다. 예를 들어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딤후 5:23)고 권면했다. 하나님은 때로 “근원적인 두려움, 복수심, 자기 자신으로만 가득 찬 마음, 죄, 그리고 질병을 유발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구해주심으로써”고쳐주신다. 또한, 하나님은 내과나 외과 의사를 통해 치료하신다. 예수님께서서는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내놓고 가르치셨다(마 9:12). 바울은 누가에 대해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골 4:14)라고 언급했으며, 이것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의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표현이다.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사역에서 의사를 사용하신다. 프랑스의 유명한 외과전문의인 듀보이스(Dubois)의 말처럼 “의사는 상처를 감싸고, 하나님은 그것을 치료하신다.”

(6) 하나님께서는 또한 기적적인 방법으로도 질병을 치료하신다.

복음서들은 이에 관한 풍부한 사례를 담고 있다. 하나님께서 대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치료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결코 기적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것도 잘못이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치료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의심케 할 만한 기록은 아무 데도 없다.

(7)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바울은 병든 드로비모를 밀레도에 남겨 두었으며, 주님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던 바울을 치료해 주지 않으셨다(딤후 4:20; 고후 12:7-10). 만일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람들 중에는 전혀 늙거나 죽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8) 하나님은 모든 경우에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치료는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에는, 질병의 치료가 우리가 요구해서 받기를 기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로 언급되어 있다.

(9) 일반적인 의미로 볼 때 치료가 “대속”(Attonement) 안에 들어있는 축복인 것은 사실이지만 대속 안에 있는 모든 축복들이 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몸의 구속(救贖)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 축복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성도들을 위해 다시 오실 때에야 비로소 임할 것이다(롬 8:23). 또한 그 때 우리는 완전케 될 것이며 모든 질병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10) 질병으로부터 치유 받지 못하는 사실이 곧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사람이 한없이 오래 살 수 있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바울, 드로비모, 그리고 가이오는 치료받지 못했지만 그들의 믿음은 역동적이며 살아있는 것이었다. ♠

5:15 야고보서 5장의 서두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치유에 관한 성경의 나머지 교훈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과 얼마나 합당한 조화를 이루는지를 알 수 있다. 다음 말씀을 주목해 보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만약 이 구절들이 성경에 나오는 치유에 관한 유일한 구절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에 언급된 조건들을 만족시킬 때 삶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다른 성경 구절들로부터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고보가 모든 종류의 질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떤 특별한 형태의 질병에 관해, 즉 어떤 특별한 환경의 결과로 생긴 질병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열쇠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라는 말씀 안에 있다. 이 부분에서의 치료는 죄사함과 관계가 있다.

지역교회의 간증과 관련된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곧 병에 걸리게 되었으며, 자기의 병이 죄의 직접적인 결과로 온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하나님께

서 그를 교회의 교제 가운데로 회복시키기 위해 다루셨던 것이다. 그는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그 죄에 대해 하나님께 자백한다. 하지만 그의 죄는 교회의 공적인 간증과 관계가 있으므로 그는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에게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백한다. 그런 다음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드러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며, 주님은 그를 다시 일으키신다. 이것은 질병이 죄의 직접적인 결과로 주어졌으며, 그 죄가 상술(上訴)된 방법대로 자백되어지고 처리되었을 때 그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다.

어떤 사람은 “당신은 그 사람이 죄를 범한 것과 회개와 자백을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질문할지 모른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15절 하반부의 말씀이 그의 ‘죄’와 ‘용서받은’ 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자백의 결과로서만이 죄가 용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요일 1:9).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은 그가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않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라고만 말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체의 문맥은 죄의 고백, 그리고 죄를 범한 사람의 회복과 관계가 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라고 이어지는 문맥을 주목해 보라. 17-18절에서 언급된 가뭄은 죄로 인해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이켜서 그분을 참된 하나님으로 인정했을 때 거두어졌다(왕상 18:39). 19절과 20절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타락한 자의 회복의 문제를 분명히 다루고 있다.

야고보서 5장 13-20절 전체의 문맥은 하나님에 의해 약속된 치

유는 죄의 결과로 인해 병을 앓고 있으며 그 죄를 장로들에게 고백한 사람에게 대한 것임을 시사한다. 장로들의 책임은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 언급된 기름을 야고보가 서신서를 기록할 당시 기름이 의약품의 일종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구절에서도 의학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눅 10:34). 또 다른 견해는 기름이 하나의 의식(儀式)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주의 이름으로”라는 말씀에 의해 뒷받침된다. 다시 말해서 기름을 바르는 행동은 주님의 권위에 의해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름은 때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행할 때 사도들에 의해 사용되었다(막 6:13). 병을 치유하는 능력은 기름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기름은 하나님의 치유의 사역에 있어서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이었다(고전 12:9).

어떤 사람은 기름의 의식적인 사용이 은혜시대, 특히 의식이나 예식에 대해 중요성을 덜 부여하는 은혜시대의 일반적인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의 상징으로서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며, 침례식 때에는 물을 사용한다. 또한 여자들은 교회에서 남자들에게 대한 순종의 표시로서 너울을 사용하여 그 머리를 가린다. 그렇다면 기름의 의식적인 사용을 왜 반대해야 하는가?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를 치료하실 것이다. 믿음의 기도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기초를 둔 기도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장로들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병든 자가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문제

와는 별개이다. 장로들은 앞에서 언급된 조건들이 완전히 충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온전한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죄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병에 걸렸을 때 방금 말한 14-15절 말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 죄를 범한 사람이 자기의 죄로 인해 병이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에게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해야 한다. 그런 다음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 사람이 병 낫기를 기도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를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5:16a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대하면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숨은 모든 죄에 관해 말해야 한다는 인상을 받기 쉽다. 하지만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곧 우리가 잘못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죄에 대해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 대한 혐의를 품고 있거나 악감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말고 우리는 고백과 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제의 관계를 늘 유지해야 한다.

육체적인 치유는 영적인 회복과 연관되어 있다. 야고보가 고백과 기도를 치유와 어떻게 연관시키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라.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로 연결된 친밀함이 분명히

존재한다. 인간은 영과 혼, 그리고 몸, 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존재이다(살전 5:23). 이 세 부분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구약시대에 제사장은 의사이기도 했다. 예를 들면 문둥병을 진단하는 사람도 제사장이었으며, 문둥병이 치유되었다고 선언하는 사람도 제사장이었다. 제사장으로서의 임무와 의사로서의 임무를 이와 같이 한 사람 안에 두심으로써 주님께서는 영과 육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가르쳐주셨다.

정신신체의학(Psychosomatic medicine)의 분야는 이러한 관계를 인정하고 육체적인 질병을 가져온 환자의 개인적인 문제점을 찾는 데 역점을 둔다. 죄와 수치, 죄의 권세와 형벌로부터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또한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그 죄를 고백함으로써만이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질병이 탐욕, 염려, 분노, 용서치 않는 마음, 무절제한 생활, 시기, 이기심, 그리고 교만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한다. 삶 가운데 있는 범죄는 질병뿐만 아니라 때로는 죽음도 가져온다(고전 11:30). 우리는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즉시 그 죄를 자백하고 버려야만 한다. 모든 죄는 남김없이 하나님께 고백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도 당사자를 찾아가서 고백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5:16b-18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엄청난 능력을 가져온다. 당신은 엘리야를 기억하는가? 그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사실 삼 년 반 동안이나 한 방울의 비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다음에 그는 다시 기도를 드렸으며,

하늘은 비를 내려 평상시와 같이 땅에서는 채소들이 자랐다(JBP).

이 사건은 열왕기상 17장 1절-19장 10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그 당시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자기 아내 이세벨을 본받아 그는 바알 숭배자가 되었고 백성들을 자기와 똑같은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했다. “저는 그 전의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노를 격발하였더라”(왕상 16:33). 삼 년 반 동안이나 가뭄이 이스라엘에 임한 것은 죄의 직접적인 결과였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바알의 제사장들과 갈멜산에서 유명한 싸움을 싸웠다. 여호와와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번제물과 단과 물을 삼켰을 때, 백성들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자신들의 죄에게 돌이켰다.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을 때 가뭄은 물러갔다. 엘리야에 관한 실례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떨어진 자들을 위한 기도에 대해 격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며.” 어떤 사람은 이 표현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의 기도는 기이한 일을 이룬다.” 우리는 엘리야를 우리와는 다른 더 차원 높은 피조물에 속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엘리야가 연약한 육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존재라고 말한다. 그도 단지 인간이었으며,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연약에 휩싸여 있는 존재였다.

5:19 앞 구절에서 우리는 죄를 범한 성도를 회복시키는데 있어서 교회의 장로들이 하나님에 의해 쓰임을 받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는 타락한 국가를 회복(부분적이고 일시적으로)시키는 일에 있어서 엘리야가 쓰임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

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영향을 미치는 주님의 사역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라는 권면을 받고 있다.

19절은 교리적인 면이나 행실의 면에 있어서 진리에서 떠난 그리스도인 형제를 묘사하고 있다. 어떤 형제가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 주님을 떠난 형제를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 속으로 다시 돌아오게 했다. 이러한 사역은 참으로 얼마나 중요한가! 무엇보다도 그는 잘못된 형제를 하나님의 징벌의 손길에서 정한 때가 되기도 전에 죽음을 맛볼지도 모르는 위험으로부터 구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허다한 죄를 덮는 은혜를 얻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은 죄들을 용서하시며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 다른 신자들의 용서를 구할 수 있으며, 세상의 비판적인 시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오늘날 이러한 사역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잃어진 영혼들을 찾으려는 열심에 가려져서 우리에서 떠나 방황하는 그리스도의 양들은 우리의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할 수가 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우리의 양심에 도전한다. 그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당신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가? 당신이 당신의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은 정직한 것인가? 당신의 생활은 사치스럽지 아니한가? 당신은 잃어진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희생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했을 때 당신은 기꺼이 그에게 찾아가서 사과하는가? 당신은 병이 들었을 때 누구를 먼저 찾는가? 의사인가, 아니면 주님인가? 당신은 형제가 죄에 빠진 것을 보았을 때 그를 비난하는가, 아니면 그를 회복시키고자 노력하는가?

우리는 실제적이고 간략한 본 서신서의 끝부분에 와 있다. 본 서신서를 통해 우리는 시련 중에 있는 믿음과 삶의 문제들, 경건치 못한 유혹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의해 시험을 당하는 믿음에 대해 살펴보았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편파적이고 차별적인 행동을 버림으로써 자기 믿음을 나타내고, 선한 행실의 삶을 통해 그 믿음을 입증해 보이려는 도전을 받았다. 실제적인 믿음은 언어생활을 통해 드러나며, 신자는 자기의 혀를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굴복시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 참된 믿음은 참된 지혜와 함께 하는 삶이다. 그러므로 시기와 다툼의 삶은 실제적인 경건의 삶으로 변해야 한다.

믿음은 반목과 싸움, 그리고 탐심과 세상적인 야망으로부터 오는 시기심을 거부한다. 그것은 무절제하고 비판적인 마음을 품지 않는다. 그것은 인생의 계획에서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피한다. 믿음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재산을 사용하는 것과, 불굴의 인내로써 그 믿음을 증거한다. 믿음에서 나오는 말은 항상 정직하고 그 말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 맹세할 필요가 없다. 믿음은 삶의 모든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질병을 경험할 때 믿음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러한 질병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겸손히 생각해 본다. 그리고 하나님과 및 자기가 잘못을 행한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함으로써 그 원인을 제거한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자들에게 사랑과 동정의 마음으로 다가간다.

당신의 믿음과 나의 믿음은 매일 시험을 받는 가운데 있다.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판단하실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일까?

참고 문헌

Adamson, James. The Epistle of James (NIC).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6.

Brown, Charles. The General Epistle of James: A Devotional Commentary. Philadelphia: The Union Press, 1907.

Gaebelein, Frank. The Practical Epistle of James. Great Neck, N. Y.: Doniger & Raughley, Inc., 1955.

Johnstone, Robert. Lectures Exegetical and Practical on the Epistle of James. Minneapolis: Klock & Klock Christian Publishers(Reprint of 1871 ed.).

Kelly, William. The Epistle of James. London: F. E. Race, 1913.

King, Guy H. A Belief that Behaves. London: Marshall, Morgan & Scott, Ltd., 1954.

Zochiates, Spires. The Behavior of Belief.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59.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서론

“우리가 설령 본 서신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그는 바위처럼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의 영혼은 반석 위에서 쉼을 누리고 있으며, 그의 능력 있는 간증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보호하여 그들 앞에 놓인 거센 고난의 압박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그들을 진정한 반석의 토대 위에 서게 해준다.’”(위진저)

1. 정경 안에서의 독특한 위치

모슬렘이나 공산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억압과 반대, 그리고 노골적인 핍박에 너무나 익숙해 있음으로 고난을 당연시하며 살아가고 있다. 본 서신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인내와 같은 바람직한 특성들을 갖추게 해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주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서방국가의 그리스도인, 특히 위대한 성경적인 유산을 물려받은 영어문화권의 신자들은 아직까지 믿음에 대한 공개적인 적대행위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이르기까지 서방국가들은 적어도 가족을 사회의 기초로 인식하고, 가족들이 “자유 의사에 따라 선택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오히려 장려해 왔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 정부, 특히 지방정부들은 사법권과 교육기관 및 언

론매체들을 이용하여 은연중에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대중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거나 비판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불명예스러운 일인 것인양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그리고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들은 부도덕, 음주, 사기,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을 부추기고 있다. 기독교는 이제 “반문화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시대이므로, 이러한 말세에 살고 있는 신자들은 사도 베드로가 본 서신에서 가르치는 교훈을 숙지함으로써 21세기의 해들을 좀더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자

외적인 증거 : 베드로가 본 서신서를 기록했다는 외적인 증거는 초기부터 거의 우주적이라 할만큼 풍부하다. 유세비우스(Eusebius)는 베드로전서를 모든 신자들에 의해 인정을 받은 정경 가운데 하나로 간주한다. 알렉산드리아의 폴리갑(Polycarp)과 클레멘트(Clement)는 이 책을 정경으로 인정한다. 마르시온(Mrcion)의 “정경”(canon)에 베드로전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그가 오직 바울의 서신만을 인정한 것을 고려할 때 그리 놀라움을 불러 일으킬만한 사항이 아니다. 무라토리안(Muratorian)정경은 베드로전서를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그 문서의 단편적인 성질 때문일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은 베드로전서가 베드로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이다.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기록했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베드로후서에 대한 서론 참조)조차 베드로후서 3장 1절이 의미하는 바가 그에 앞서 보내진 편지임

이 확실하다면, 베드로후서는 본 서신이 베드로에 의해 기록되었음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자료가 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내적인 증거 : 본 서신서의 기자가 베드로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내적인 근거는, 이 편지의 기자가 틀림없이 헬라어에 매우 정통한 사람일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갈릴리 바닷가의 일개 어부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헬라어를 그렇게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품는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의문이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대에도 어휘의 사용과 공적인 연설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대학교육이나 그와 유사한 훈련기관에서 배운 사람들보다도 더 탁월한 언어구사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많다. 서신서를 기록함에 있어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것은 차치하고라도 베드로는 30년 동안 설교를 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 없는 범인(凡人)으로 언급된 것은 단지 그들이 정식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상세하게 기술된 다음 문단의 내용이 시사하듯이 베드로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자료는 베드로전서에 풍부하게 제시되어 있다. 본 서신서 기자는 1장 8절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이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았다고 증거하고 있다. 그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라고 말한다. 본 서신서를 연구해 가면서 우리는 이 편지의 기자가 주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분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2장의 처음 10여 구절은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묘사하

고 있으며, 우리를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있었던 한 사건으로 인도한다(마 16:13-20).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주 예수님께서서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고백, 즉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진리 위에 자신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그분은 교회의 머릿돌이시며 기초석이시다.

2장 5절의 ‘산 돌’이라는 표현은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주님께서 시몬에게 ‘돌’을 의미하는 게바(아람어) 혹은 베드로(헬라어)라는 새 이름을 주신 일을 상기시켜 준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통해 산 돌이 되었다. 그러므로 2장에서 베드로가 돌에 관해 여러 번 언급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본 서신서 기자는 2장 7절에서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구절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관원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앞에서 심문을 당할 때 인용한 구절과 동일한 구절이다(행 4:11).

사도 베드로가 신자들에게 “나라의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때(2:13-17), 우리는 베드로 자신이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대제사장의 하속의 귀를 칼로 쳐서 땅에 떨어뜨렸던 사건을 돌아보게 된다. 그러므로 그의 이러한 권면의 이면에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말고도 베드로 자신의 실제적인 경험이 배어 있다.

2장 21-24절은 본 서신서 기자가 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직접 목격한 증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베드로는 구주께서 온유한 심령으로 인내하시며 고요히 고통을 맞이하시는 모습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2장 24절은 구주께서 죽임을 당하신 방법이 십자가에 못

박하시는 형벌이었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묘사한 이 구절은 사도행전 5장 30절과 10장 39절에 기록된 베드로의 말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인상을 준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고 이야기할 때(2:25), 그는 자신이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한 후에 다시 회복된 뼈아픈 경험(요 21:15-19)을 떠올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4:8)라는 표현은 베드로 자신이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라는 질문을 주님께 드린 일에 대한 언급일 수가 있다. 그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마 18:21-22)라고 대답하십시오 써 무한한 용서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셨다.

4장 16절에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이 나온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채찍에 맞은 후 공회를 떠나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던” 사도행전 5장 40-42절의 말씀과 이 구절을 비교해 보라.

본 서신서 기자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언급한다(5:1). 따라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표현은 변화산에서의 주님의 변화되심을 목격한 경험에 대한 언급일 것이다. 베드로는 물론 그리스도의 고난과 변화되심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었다.

“너희 중에 있는 양 무리를 치되”(5:2)라는 권면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온유하고 목자적인 권면을 상기시켜 준다. 주님은 죽

음에서 부활하신 후 그를 찾아오셔서 “내 어린양을 먹이라…내 어린양을 치라…내 어린양을 먹이라”(요 21:15-17)라고 분부하셨다.

“다 서로 겹손으로 허리를 동이라”(5:5)라는 표현은 주님께서 그 당시 종이 주인들에게 하듯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요한복음 13장의 사건을 너무도 선명하게 기억나게 해 준다. 교만과 겹손에 대해 언급하는 구절들(5:5-6)은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백(마 14:29-31)했다가 결국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마 14:67-72) 베드로의 자만에 가득 찬 주장을 생각할 때 더욱 의미가 깊어진다.

베드로의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마지막 말씀은 5장 8절에 언급되어 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밑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눅 22:31)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3. 기록 시기

세상의 정부체계는 옳은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유익한 제도(벰전 2:13-17)라는 베드로의 교훈은 너무 유화적이므로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전서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네로의 가혹한 핍박(A.D 64)이 시작된 이후에 기록되었으리라고 추측한다. 어쨌든 본 서신서는 핍박의 시기에서 그리 멀지 않은 64년이나 65년쯤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4. 배경과 주제

이미 지적인 바대로 베드로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신자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위하여 비방과 수욕을 당하는 고난을 감내하고 있었다(4:14-15). 많은 사람들의 앞날에는 투옥이나 재산몰수 및 핍박으로 인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고난이 베드로전서의 유일한 주제는 아니다.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얻는 축복들, 신자들과 세상, 정부, 가족 및 교회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장로들과 훈육에 관한 모든 교훈들이 본 서신서 안에 포함되어 있다.

베드로 사도는 “바벨론”(문자적인 의미로는 유대인 사회가 있는 유프라테 강 유역의 도시이며, 영적인 의미로는 티베르[로마]강 유역의 바벨론)에서 지금의 터키(Turkey)를 뜻하는 동방지역으로 보내기 위해 이 서신서를 기록했다.

5. 개요

1. 신자의 특권과 의무들(1:1-2:10)

- (1) 인사(1:1-2)
- (2) 신자로서의 위치(1:3-12)
- (3) 신자의 신분에 합당한 행동(1:13-2:3)
- (4) 새 집과 새 제사장 직분 안에서 누리는 신자의 특권(2:4-10)

2. 신자의 관계(2:11-4:6)

- (1) 순례자로서의 세상과의 관계(2:11,12)

- (2) 시민으로서의 정부와의 관계(2:13-17)
- (3) 종으로서의 상전과의 관계(2:18-25)
- (4) 아내로서의 남편과의 관계(3:1-6)
- (5) 남편으로서의 아내와의 관계(3:7)
- (6) 형제로서 다른 성도와의 관계(3:8)
- (7) 핍박받는 자로서의 핍박자와의 관계(3:9-4:6)

3. 신자의 봉사과 고난(4:7-5:14)

- (1) 마지막 때를 위한 긴급한 명령(4:7-4:11)
- (2) 고난에 관한 권면과 설명(4:12-19)
- (3) 권면과 안부(5:1-14)

1.

신자의 특권과 의무들(1:1-2:10)

1) 인사(1:1-2)

1:1 사랑받는 어부였던 본 서신서 기자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는 주 예수님에 의해 최초의 열 두 제자 중의 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아 영광스럽고 복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구자의 임무를 부여받았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임무를 기꺼이 어깨 위에 짊어짐으로써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대의(大義)를 이 땅에서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국내에서나 국외에서나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 생애의 중심목표이며 그 이외의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이다.

이 편지는 “본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및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순례자요 외국인”인 신자들에게 보내졌다. 흩어진 자들이라는 표현은 과연 누구를 의미하고 있을까?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이 유대인 신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에 속한 신자들에 관해 언급할 때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약 1:1). 또한 요한복음 7장 35절에서 사용된 단어도 이방인들 가운데 흠어져 있는 유대인을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베드로가 핍박으로 인해 주변 나라들 속에 흠어진 이방인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편지 속에서 이전에는 하나님의 지상 백성들을 의미하는 이름으로 사용하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를 지칭하는 많은 이름들을 사용한다. 그는 신자들을 택하심을 입은 자들(1:2),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부른다(2:9). 이 외에도 그는 자기가 이방인 신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세 가지 다른 암시를 주고 있다. 그는 조상들로부터 그들에게 유전된 공허한 삶의 방식에 대해 언급(1:14, 18)하고 있고, 그들을 과거에는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로 묘사하고 있으며(2:10), 마지막으로 4장 3절에서는 그들이 주님을 알기 전에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베드로가 쓰고 있는 편지의 수신인인 “흠어진 자들”이 주로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이었던 사람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인의 교회라는 강력한 증거이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는 베드로가 주로 유대인을 위해 활동한 사도였다는 점에 비추어 부정될 소지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감당한 적이 전혀 없다고 단정을 내리기는 어렵다. 이방인의 사도라 칭함을 받고 있는 바울도 유대인을 위한 사역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소요했기 때문이다.

1:2 삼위일체의 세 위(位)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4중적인 과정은 이 편지의 수신인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았다. 이것은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분 자신에게 속한 자로 삼으시기 위해 미리 정(定)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예정(豫定)에 관한 교리가 사람들에게 의해 항상 환영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의 주권을 소유하고 계신 분으로 드러내준다. 예정에 관한 교리를 인간의 기호(嗜好)에 맞추려는 시도는 단지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라는 문제는 오직 인간의 마음 안에서만 어려움이 될 뿐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라는 두 가지 측면을 다 언급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두 요소를 모두 믿어야 한다. 이 진리는 두 요소 사이의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쪽 끝에 존재한다.

하나님의 예정은 “그분의 미리 아심을 따라”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선택하시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사람들만이 구주를 믿게 될 것이라고 이해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죄인 자신에게만 맡겨 놓는다면 죄인들이 아무도 구주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의 예지(豫智)의 능력 안에서 그분 자신의 은혜를 얻을 자들을 이미 정하여 구별해 놓으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 안에 공의롭지 못한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구원에 있어서의 두 번째 단계는 “성령님의 거룩케 하심”이다. 거룩케 하심의 이러한 측면은 구원받기 이전에 일어난다.¹⁾ 이것은

사람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속하게 만드는 성령님의 사역을 가리킨다(살후 2:13 참조). 논리적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선택하심에 따른 결과이다. 영원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성령님은 택하심을 받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그러한 선택이 실체가 되도록 역사하신다.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 세 번째 단계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죄인의 반응”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으로 설명되어 있다. 이것은 죄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복음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순종해야 할 어떤 것으로 묘사하는 복음에 대한 개념은 신약성경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는 일반적인 개념이다(롬 2:8; 살후 1:8).

마지막 단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그는 실제로 자기 몸에 예수님의 피로 피 뿌림을 받는다고 주장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비유적인 언어이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사람이 복음에 순종하는 동시에 그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흘려진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져다주는 모든 혜택을 받는다는 뜻이다. 구주의 보혈은 약 1900여 년 전에 모든 사람을 위해 단 한 번 흘려졌다. 그 피는 결코 또다시 흘러지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믿을 때에 그분의 보혈로부터 흘러나오는 용서와 구속과 헤아릴 수 없는

1) (1:2) 이후에 일어나는 다른 형태의 거룩(sanctification)이 있다. 거듭나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신분상으로 거룩하게 된다(히 10:10,14).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해 가는 동안에는 실제적인 거룩, 즉 성화(聖化)의 과정을 경험해야 한다(벧전 1:15). 하늘에서는 완전한 거룩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는 어떤 죄도 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골 1:22). 히브리서 2장 11절 이후의 거룩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라.

수많은 축복들을 받는다.

신자들의 영적인 출생에 포함된 네 단계를 상고해 봄으로써 베드로는 은혜와 평강이 그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기원했다. 그들은 이미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평강을 그분과 더불어 경험했다. 하지만 그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며,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평강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그들을 위해 사도가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이유이다. 제임스 데니(James Deney)는 “은혜(Grace)는 복음의 처음과 마지막이며, 평강은 온전한 영적 평안함으로서 은혜의 완성된 사역이다”라고 말했다.

2) 신자로서의 위치(1:3-12)

1:3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구원의 독특한 영광에 대해 설명한다. 그는 구원의 주(Author)-“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돌리면서 시작한다. 이러한 명칭은 주 예수님과 그의 관계에 있어서 이중적인 면으로 하나님을 소개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구주의 인성(人性)을, 그리고 “아버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神性)을 강조한다. 아들의 온전한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주(Lord)-마음의 중심과 삶에 있어서 온전한 지배권을 가지고 계신 분.

예수-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그리스도-하늘의 지극히 높은 곳에 올리우신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산 소망”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원의 근원이다. 그분의 풍성한 자비는 구원의 원인이며, 새로운 출생은 구원의 본질이고, 산 소망은 구원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산 소망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의 의로운 토대가 된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죽음 이후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 단지 의로운 심판과 맹렬한 진노 외에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처음 창조에 속한 자로서 우리는 사형선고 아래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으로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않은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상태에 있는 의로운 기초를 마련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의 형벌을 모두 담당해 주셨다.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는 온전히 만족되었으며, 하나님의 긍휼이 복음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흘러넘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의 희생적인 사역에 온전히 만족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신다. 부활은 우리 주님의 “다 이루었다”라는 외침에 대한 아버지의 “아멘”이다. 또한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드는 모든 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킴을 받으리라는 약속이다.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하늘의 본향으로 들림을 받아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고 그분과 같게 되리라는 기대)이다. F. B. 마이어는 산 소망을 설명할 때 “우리의 현재와 미래 사이의 연결고리”라고 불렀다.

1:4 4절과 5절은 구원의 미래의 측면을 다룬다. 거듭남을 통해 우

리는 하늘에 간직된 우리의 기업(基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기업은 신자가 하늘에서 영원토록 누릴 모든 것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소유가 될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이다(시 16:5). 이 기업은 “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다.

(1) 썩지 않는다는 것은 하늘의 기업이 결코 변하거나 금이 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더럽지 않다는 것은 하늘의 기업이 온전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흠이나 점도 그것의 순수함을 저하시킬 수 없다.

(3) 쇠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의 가치, 영광 혹은 아름다움에 있어서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땅의 기업은 아무리 좋은 상태에 있어도 이 모든 점에 있어서 불확실하다. 때로는 불경기로 인하여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진다. 때로는 유언이 다른 사람에 의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사람들은 법적인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기업을 빼앗길 수도 있다. 하지만 하늘의 기업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으며, 그것에 대한 신자의 권리를 빼앗길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실제로 주어질 때까지 하늘의 안전한 금고 안에 보존되고 있다.

1:5 하늘의 기업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자들이 그것으로 인해 보호를 받기도 한다. 이 세상에서는 상속인이 유업을 받기 전에 죽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하늘의 기업을 보존하고 있는 은혜가 동일하게 하늘의 기업을 이을 자인 우리를 보호한다.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택하심은 결코 변개(變改)

될 수 없다. 영원한 과거 이전에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현재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구원을 받으며 영원한 날을 위해 보호를 받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영원히 안전하다.

영원한 안전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노력해야 할 측면도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하나님의 측면)으로 보호를 받지만 그것은 또한 믿음(인간적인 측면)을 통해서이다. 이것은 사람이 믿음을 행사할 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는 곳에는 계속성이 있다. 구원하는 믿음은 항상 인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다. 여기에서는 구원이 미래시제로 언급되어 있다.

구원에는 다음과 같이 세 시제가 있다고 종종 이야기한다. (1) 그리스도인은 구주를 믿는 순간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다’(엡 2:8). (2) 그리스도인은 그를 통해 구주의 생명이 드러나도록 허락해 드리는 삶을 살 때 죄의 능력으로부터 매일 ‘구원을 받는다’(롬 5:10). (3) 그리스도인은 휴거를 당할 때에 죄의 실재(實在)로부터 온전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히 9:28). 그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를 받아 영원히 죄와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이다. 구원의 미래시제에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에 내려올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 포함되어 있다(요일 3:2).

1:6 몸의 구속과 영광스러운 기업에 대한 이 소망 때문에 신자들은 시련 중에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들의 삶으로 인해 핍박을 경험

하고 있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독교의 역설 중의 하나(고난 중에 즐거워하는)를 상기시켜준다. 신자는 한편으로는 성도들을 위해 보존된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은 영원하지만(고후 4:17)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시련은 잠시 동안일 뿐이라는 것을 아는 지식 안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시련으로 인하여 슬픔을 경험할 때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데 관해 J. H 조우엣 “저는 황무지처럼 버려진 대지에서 샘물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1:7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그러한 고난이 목적이거나 의미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성도들은 더 깊은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고통은 지옥에서 그들이 영원토록 겪어야 할 고통을 미리 조금 맛보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환난의 은혜로운 목적들 중의 한 가지는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함이다.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을 금과 비교한다. 인간에게 알려진 모든 물질 중에서 금은 가장 변치 않는 속성을 가진 물질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뜨거운 불로 연단되어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금도 오랫동안 사용하거나 압력이나 열에 의해 사라질 수 있다.

참된 믿음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신자는 혹독한 시련과 시험을 통과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더 성장케 하는 자양분을 얻는다. 욥은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욥 13:15; 흠정역에는 이 말씀이 “그가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내가 저를 의지하리라”로 되어 있음-역주)라고 고백할 정도로 극진한 시련을 당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풀 무불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는 문자 그대로 불의 시험을 받았다. 그 불은 그들의 믿음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또한 그 불은 오히려 그들의 몸을 결박하고 있던 줄을 태워서 그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몸이 되게 했다(단 3:12-30). 그리고 그들은 불 속에 던져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모양을 하고 계신 분과 함께 있었다. 참된 믿음은 오직 불(시련)에 의해서만 증명된다. 평안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기가 쉽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삶이 핍박이나 고통을 가져올 때에는 형식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슬며시 물러가서 불신자의 대열 속으로 숨어버린다.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으려 하는 종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대가를 지불하기를 거절하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다. 입으로만 시인하는 이와 같은 믿음이 바로 야고보가 정죄하는 믿음인 것이다.

참된 믿음은 믿는 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할 것이다. 이것은 시험을 견딘 모든 믿음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서 실제로 보상하신다는 뜻이다. 그분은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긴 사람들을 칭찬하실 것이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자신들에게 닥친 환난과 고통을 인내함으로써 연단된 신자들에게 영광과 존귀를 허락하실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세상이 버린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밝히 드러날 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상급

에 관한 성경말씀을 서로 비교해 보면 우리는 상급이 휴거 후에,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주님에 의해 보상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급이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두 번째 강림 때이다.

1:8 이제 베드로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 안에서 누리는 현재의 즐거움, 즉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영접한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한다. 우리는 그분을 육신의 눈으로 뵈지 못하지만 그분을 사랑하며,²⁾ 지금도 뵈지 못하지만 그분을 신뢰한다. 우리가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요 20:29)라는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이다. 이것에 대해 윌리엄 링컨(William Lincoln)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사람들은 사랑에 관해 많이 이야기한다. 하지만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사랑의 시험은 시련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켜 드리므로 그분의 은총과 미소를 잃어버리기보다 차라리 시련 속에서 인내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은총과 미소가 빠진 세상의 인기와 좋은 자리에 연연하기 보다는 하나님의 미소와 세상이 볼 때에는 적은 축복에 오히려 만족할 것이다. 모든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은 반드시 이러한 시험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마련이다. 시험은 밀에서 겨를 벗겨낸다. 금은 제련하는 불 속에서 찌기가 제하여지고 빛나는 정금으로 나온다.”³⁾

2) (1:8) 대부분의 그리스어 사본에는 “seen”(ιδοντες)이 아니라 “known”(ειδότες)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그들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셨던 주님을 대면하지 못했다는 뜻으로서 의미는 동일하다.

3) (1:8) William Lincoln, *Lectures on the First and Second Epistles of Peter*, p.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된다는 것은 모든 참된 기쁨의 근원이신 분과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세상의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 달려 있다. 그리스도를 그 계신 곳에서 일어나시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서 그가 소유한 기쁨을 빼앗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도는 언제나 함께 하기 때문이다.

1:9 다음으로 베드로는 믿음의 현재의 결과, 곧 영혼의 구원 문제를 다룬다. 지금의 시점에서 볼 때 몸의 구원은 아직 미래의 일로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의 성도들을 위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순간 즉시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 영혼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비물질적인 부분, 즉 몸과 따로 구별되는 그 사람 자신, 곧 속사람을 말한다.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 그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바로 영혼이다. 이 구절에서 영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인 영(spirit)을 포함하고 있다. 이 영혼은 거듭나는 순간에 구원을 받는다.

1:10 구원은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에게 중요한 연구주제였다. 그들은 우리가 받게 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예언했지만 그들이 기록하는 모든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단 12:8).

1:11 그들은 (1) 메시아로 임하실 분이 어떤 분인지에 관해, (2) 그분이 임하실 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해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을 입어서 메시아가 당하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에 대해 미리 예언을 했지만 이 두 사건 사이에 적어도 2000여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이해하지 못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그들은 두 산(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갈보리산과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감람산)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산들 사이에 난 깊은 골짜기,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현재 존재하는 은혜시대(the present Age of Grace)는 보지 못했다. 은혜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 두 사건 중에서 하나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며, 다른 하나는 장차 이루어질 사건이라는 것을 그들보다 더 명확한 전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

1:12 하나님의 성령님께서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섬김이 자기 자신들을 위함이 아니요 이후에 태어날 세대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다.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전파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 자신의 세대를 위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었지만 그것의 온전한 의미는 그들의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들로서는 완전하게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게 한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을까? 그들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 우리만큼 깨닫지 못한 사항은 무엇일까? 그들이 자신들의 세대를 섬긴 것이 아니라 우리세대를 섬겼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 윌리엄 링컨(William Lincoln)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기까지는 나타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구원하셔서 하늘로 데려가신 것과 같은 방법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 연합 속에 내포된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때까지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얼마나 높이기를 원하시는지!”⁴⁾

선지자들에게 감추어져 있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성령님께서 오순절 날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후 사도들을 그분의 능력으로 옷 입히셔서 나사렛 예수님이 구약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며,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며, 장사지낸 바 되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그들은 구원이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통해 조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두루 다니며 전파했다. 또한 그들은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온 나라들로부터 그분 자신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백성을 불러내는 것이며, 어느 날 주 예수님께서 전 세계를 의(義)로써 통치하실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다시 임하실 것이라는 진리를 선포했다.

이 세대의 신자들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선지자들에게 감추어져 있던 이러한 진리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천사들조차 이러한 구원의 진리를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사실에 잘 나타나 있다. 천사들은 구약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에서도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존재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시험, 겹세마네 동산에서의 간절한 기도와 부활과 연관되어 언제나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그

4) (1:12) William Lincoln, *Lectures on the First and Second Epistles of Peter*, p.

러한 천사들에게도 따로 예비된 구원은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해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다(히 2:16). 교회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가르쳐주는 실물교훈이다(엡 3:10). 그렇지만 이것이 그들, 곧 천사들이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뜻은 아니다.

3) 신자의 신분에 합당한 행동(1:13-2:3)

1:13 이 구절부터는 강조점에 변화가 주어진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우리의 구원의 영광에 대해 다루었지만 지금부터는 그가 이야기해 온 사항을 토대로 신자들에게 주는 권면을 시작한다. 조우엣(Jowett)은 이것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러한 권면은 서론 부분의 복음에 관한 설명에 근거를 두고 있다. …영적인 열망은 놀라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주는 능력에 의해 형성된다. 지치지 않는 활력을 가지고 의무를 이행하는 힘은 바로 복음의 중심에 있다.”⁵⁾

먼저,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권고한다. 이 표현은 매우 재미있는 표현이다. 옛날 동양에서는 보통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는 것이 관습이었다. 그들은 빨리 걸을 때나 옷이 끌림으로 방해 받을 때에 끌리는 부분을 허리춤으로 올린 다음 끈으로 동여맸다(출 12:1). 베드로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 신자들은 그들을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중도에서 목표를 잃어버리는 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했다. 핍박을 받을 때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행

5) (113) J. H. Jowett, *The Redeemed Family of God*, p. 34

동은 강하고 담대하며, 냉철하게 즉시 행동할 준비를 갖춘 마음의 상태이다. 이런 마음은 사람이나 핍박을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정신적으로 안정된 이와 같은 마음의 상태는 근신하라는 말씀을 통해 더욱 격려를 받는다. 근신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런 마음은 안정을 지키며 결코 요동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신자들에게는 낙관적이고 앞을 내다보는 마음을 가지라는 권면이 주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바랄지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확신은 삶의 폭풍과 고난을 지나는 동안 인내할 수 있는 온전한 동기로서의 역할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일반적으로 주님이 영광 가운데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그분이 자신의 성도들을 위해 다시 오실 때를 가리키는 휴거에 대한 언급일 수도 있다.

1:14 14절과 16절까지의 주제는 순종하는 마음이다. 순종하는 자녀들은 이전에 그들의 삶을 지배했던 죄에 다시 빠져서는 안 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되었으므로 주님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 만일 그들이 경건치 않은 세상의 본을 따라 산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부인하는 것이다. 알지 못하던 때에 행하던 일들은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마땅히 버려야 한다.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좇던 사욕이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무지할 때 빠져들었던 죄를 의미한다.

1:15 경건치 않은 세상의 본을 따르는 대신 우리의 삶은 우리를

부르신 분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있어서 거룩하시다. 만일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에 있어서 거룩해야 한다.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결코 그분만큼 거룩해질 수는 없겠지만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기에 때문에 우리 역시 거룩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1:16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그분 자신을 닮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구약성경으로 돌아가 입증한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거룩하게 하고”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인들은 내주(內住)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이러한 도움과 축복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들보다 더 많은 특권이 주어졌으므로 더 큰 책임을 지고 있다. 베드로가 레위기에서 인용한 말씀은 신약성경에서 더 깊고 새로운 의미를 지닌다.

1:17 우리는 거룩함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해 권면을 듣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관해 깊은 인식을 가지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특히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을 그들의 행위에 따라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며 그분의 판단은 정확하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경외하는 심령으로 그분을 슬프시게 하는 행동들을 범하지 않도록 힘쓰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에서 자기 자녀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판단하시는 분이시며,

죄인들에 대한 심판은 주 예수님께 위임하셨다(요 5:22).

링컨(Lincoln)은 이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모든 행동 속에 신실한 목적이 들어있는지,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는지, 그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말했다.⁶⁾

우리는 세상에 머물고 있는 시간을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는 참된 안식을 결코 얻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며 타국에 살고 있는 것과 같이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이곳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인 것처럼 안주할 생각을 품지 말고, 세상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을 본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행동해야 한다.

1:18 신자들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왔다. 신자들의 말과 행실은 주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공허하고 무가치한 것이었다. 그들의 구원받기 이전의 삶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라고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무가치한 삶으로부터 주님의 놀라운 사역을 통해 구속함을 받았다. 그들은 세상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종된 상태에서 무한한 대속의 값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대속의 값이 없어질 금이나 은과 같은(출 30:15) 것이었는가?

6) (1:17) Lincoln, *Lectures*, p. 30

1:19 그것은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였다. 그리스도는 점도 흠도 없는 양, 즉 내적인 면에서나 외적인 면에서 절대적으로 완전한 분이시다. 만일 신자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거나 세상의 관습과 방법을 모방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러한 삶으로부터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함으로 우리를 위해 놓아준 구원의 다리를 다시 건너가는 것과 같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것이 주님께 대한 적극적인 불충성의 표시라는 것이다.

“주님께서 치르신 고귀한 희생과 죄악이 얼마나 중했는가를 비교하여 생각해보라. 그런 후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생명을 버림으로써 이루신 일의 가치로 변하지 않을 굳건한 삶의 태도를 정하라.”

1:20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갑자기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 구원자의 죽음은 창세 전에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는 말세에, 즉 율법시대의 경륜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구원받기 이전의 무익한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링콘은 이것에 관해 “마지막 때에 세상적인 도덕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마감되었다. 그것의 실체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러났으며 그 종말에 도달했다”라고 말했다.⁷⁾

베드로가 이러한 교훈을 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세상체계와의 명백한 단절의 중요

7) (1:20) Lincoln, *Lectures*, p. 33

성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키는 대신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고 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그들의 죄악된 삶에 동참하거나 죄를 관용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가 세상을 본받음과 동시에 우리의 간증은 망가진다. 만일 그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들보다 더 나은 차이점을 볼 수 없다면, 그들이 구원받는데 있어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1:21 주 예수님께 충성을 바칠 필요성은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에 의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분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시다. W. T. P 울스턴은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창조에 의한 것도, 섭리에 의한 것도, 율법에 의한 것도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이다”라고 말했다.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 앉히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에 대해 온전한 만족을 표시하셨다. 이 모든 것의 결과로써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된 것이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의 체계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고 행동하며 우리의 존재가치를 발견한다.

1:22 이 구절에서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고

8) (1:21) W. T. P. Wolston, *Simon Peter: His Lift and Letters*, p. 270

권면한다(1:22-2:3). 첫째로, 그는 거듭난 생명에 대해 설명하며 그 생명이 가져오는 변화들 중의 하나가 형제에 대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지적한다(22절 상). 다음으로, 그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할 의무에 대해 권면(22절 하)하면서 거듭난 생명, 특히 이러한 새 생명을 낳은 씨,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야기한다(23-25절). 그런 후 그는 또다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의무를 강조한다(2:1-3).

1장 22절 초반에서 베드로는 거듭남에 대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라고 묘사한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언어 표현상으로 정결케 됨을 경험한 우리들이 구원받을 때 영혼의 깨끗함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말씀에 언급된 정결함은 진리를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베드로가 구원하는 믿음을 순종의 행동(1:2 참조)이라고 묘사한 두 번째 예에 해당된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믿음의 순종”이라는 표현을 두 번 사용했다. 우리는 평소에 믿음과 순종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진실한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다. 이것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⁹⁾

거듭남의 목적 중의 하나는 진실한 형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함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기 위해 구원을 받았다.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요 3:14)을 알 수 있으며, 세상 역시 우리가 주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안다(요 13:35). 따라서

9) (1:22) The critical (NU) text omits “through the Spirit.”

자연스럽게 이 말씀에 이어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라는 권면이 주어진다. 이것은 어떤 명령의 기초가 되는 선언적인 표현이 제시되는 신약성경의 많은 예들 가운데 하나이다. 이 말씀에 언급된 선언은 바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라는 것이며, 이 선언을 기초로 한 명령은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라는 것이다. 신분은 행동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힘과 간절함과 지속성, 그리고 순수함에서 나오는 따뜻하고 온전한 것이어야 한다.

“피차 사랑하라”는 권면은 특히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적절한 권고이다. 왜냐하면 흔히 고난의 환경에서는 사소한 불일치가 크나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1:23 베드로는 독자들을 다시금 그들의 거듭남, 특히 그것을 가능케 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숙고(熟考)해보도록 인도한다. 2장 1-3절까지의 권면은 이러한 교훈을 기초로 주어진 것이다.

거듭남은 썩어질 씨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거듭남은 육체적인 출생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생명은 육체적인 죽음과 멸망의 법칙에 순응하게 마련인 씨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된다. 출생을 통해 이 세상에 나온 육체의 생명은 그것을 있게 한 씨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 생명 역시 유한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생명이다. 성경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 인식하게 되며,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한 유일하고도 완전한 구세주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

아오게 된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찌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무엘 리도우트(Samuel Ridout)는 숫자성경(The Numerical)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우리는 1장에서 세 가지 ‘찌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들은 찌지 않는 기업(4절), 없어지지 않는 구원(18-19절),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한 찌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23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더럽혀질 수 없고, 그 가치를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구속에 근거하여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본성을 부여받았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안전에 관한 증거는 얼마나 확실하며,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찌지 아니할 것’(3:4)으로 단장하라는 권면은 성도들에게 얼마나 합당한 것인가!”¹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비록 천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¹¹⁾ 그리고 그 말씀이 낳은 생명 역시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중생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말씀이 지닌 영원한 속성에 함께 참여한다.

육체적인 출생에 있어서 어린 생명을 낳는 씨는 그 작은 조직체 속에 그 어린 생명이 가진 모든 특성을 포함한다. 육체적으로 출생한 아이가 결국 어떠한 아이가 되느냐 하는 것은 그 씨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은 현재 우리의 모습을 있게 한 씨가 지닌 것이었기에 그것으로부터 기인한 인간의 생명 또한 찌어질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

10) (1:23) Footnote in F. W. Grant, “1 Peter” *The Numerical Bible*, Hebrews to Revelation, p. 149.

11) (1:23) The NU text omits “forever.”

1:24 인간의 본질적인 운명이 유한하다는 것은 인용된 이사야 40장 6,7절 말씀에 의해 강조되어 있다. 인간의 생명은 풀과 같이 일시적이며, 육체적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이 유한하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1:25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사 40:8). 그러므로 신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 생명 역시 영원히 쇠하지 않는다. 이 영원한 말씀은 베드로의 편지를 읽는 자들에게 이미 들려진 복음의 말씀으로서 그들을 거듭나게 한 말씀이자 그들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말씀이다.

2:1 신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은 덕스럽지 못한 행동들을 버려야 한다.

악독-다른 사람에 대해 악감을 품는 것. 악독은 적대감을 키우고 반목하며 마음속에 은밀히 어떤 비극적인 일이나 손해나 보응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기를 바란다. 조지 워싱턴 카버(George Washington Carver)는 흑인이었기 때문에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거절되었다. 몇 년이 흐른 뒤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그의 입학을 거절한 대학교의 이름을 물었을 때, 그는 “잊어버렸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라고 대답했다. 그는 어떤 악한 마음도 품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궤활-모든 형태의 부정직과 속임수(이것은 얼마나 다양하게 그 모습을 위장하고 있는지). 궤활은 소득세의 서류를 가짜로 꾸미고,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나이를 속이고, 공무원을 매수하고, 사업에서의 정직하지 못한 거래를 하는 것 등을 말한다.

외식-위선적이고 겉치레적인 태도와 과대포장하는 것. 외식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본래의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는 일종의 연기자와 같다. 그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의 가정은 전쟁터이다. 그는 주일날에는 영적인 사람처럼 행세하지만 평일에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육신적이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동기는 이기적이다.

시기-확연하게 드러나는 질투심. 바인(Vine)은 이것을 다른 ‘사람이 번영과 유익을 얻는 것에 대해 듣거나 볼 때 느끼는 거북한 감정’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빌라도에게 내어준 것은 바로 이 시기심 때문이었다(마 27:18). 시기는 여전히 살인의 속성을 잃지 않았다. 여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좋은 집과 정원을 가지고 있거나, 더 좋은 옷을 입고 있거나, 혹은 더 요리를 잘하는 것을 볼 때 이와 비슷한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곤 한다. 남자들은 다른 친구의 새로 산 차와 스피드보트를 보고 찬사를 보내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두고 봐, 난 더 멋진 것을 사고 말겠어”라고 말한다.

비방하는 말-비방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깎아 내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을 더 높은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는 시도이다. 이것은 매우 교묘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맞아, 그 자매는 참 칭찬할 만해.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면이 숨어 있었어”라고 말한다. 이런 말들은 당사자의 인격에 갈로 깊은 상처를 입히는 것과도 같은 상처를 준다. 또한 이것은 아주 경건하게 들리는 다음과 같은 언어를 통해 표현되기도 한다. “사실 이것은 너에게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 하는 말이야. 너 그 형제가 ○○○라는 사

실을 알고 있지?”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 역시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 당사자의 인격에 심각한 상처를 입힌다. 이 모든 죄는 우리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근본적인 계명을 어기는 행위들이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죄를 멀리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2:2 우리의 거듭난 생명이 착념해야 할 두 번째 사항은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끊임없이 갈급한 심령을 가지는 것이다. 앞 구절에 언급된 죄들은 영적 성장을 저해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영적 성장에 자양분을 공급한다.

“갓난아이들 같이”라는 표현은 베드로의 편지를 읽는 독자들이 모두 새 신자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지 오래된 신자일 수도 있다. 하지만 믿음의 연륜의 정도에 관계없이 그들은 어린 아이들이 젖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우리는 배고픈 아이가 얼마나 간절히 어머니의 젖을 찾는지를 생각할 때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령한 젖을 얼마나 사모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

신자들은 말씀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섭취함으로써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¹²⁾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의 영적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가는 데 있다.

2:3 주님의 인자하심을 진실로 맛본 성도라면 마땅히 이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맛보았으면”이라는 말은 의구심을 나타내는 표현

12) (2:2) The Alexandrian Text(NU in NKJV footnotes)에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grow up to salvation)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 표현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 의심을 품게 만들 수 있다.

이 아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시 34:8). 우리를 위한 그분의 희생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그분의 인자와 선하심으로 말미암은 결과였다(딤후 3:4). 그러기에 그분의 선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더욱 갈급한 마음으로 구하도록 촉구하는 자극제가 되기에 충분하다. 그분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맛보는 달콤함은 그분을 떠나 방황하는 생활을 상상하기조차 두렵게 한다.

4) 새 집과 새 제사장 직분 안에서 누리는 신자의 특권(2:4-10)

2:4 이제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주는 권면을 마치고 새 집(교회)과 새 제사장 직분 안에서 누리는 신자의 특권에 대해 속고해 보도록 인도한다. 새 질서 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기에 우리는 그분 앞으로 나아온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건물과 그 건물을 형성하는 재료를 통해 영적인 교훈을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돌로 묘사되어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산 돌, 즉 인간의 손으로 다듬은 흔적이 있는 죽은 돌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 안에서 영존하시는(히 7:16) 돌로 제시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눈에 너무나 기이한 분으로 비추어졌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영생에 대해 무지하고 극히 초보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있던 인간들에게는 그들의 창조주요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볼 만한 안목이 없었다. 베들레헴의 여관에 그분을 모셔 들일만한 빈방이 없었던 것처럼 인간의 어리석은 삶의 계획안에는 그분을 모실만한 겸손한 자리가 없다!

물론 그분에 대한 인간의 평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인간이 어

떻게 생각하든지 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 돌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안에서 결코 제외될 수 없는 고귀한 돌로 택함을 입으셨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가치는 어떠한 값으로도 계산될 수 없을 만큼 귀중하다. 그분은 인간의 가치측정을 초월하는 보배로우신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의 재료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와야 한다. 우리가 그 집의 건축재료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그분과 동일시 하느냐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 생애 가운데로 모셔 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기여하는 자로서의 자격을 얻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자가 된다.

2:5 신령한 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을 통해 세워지며 하나님의 교회도 그러하다. 교회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처소였던 구약시대의 성전과 마찬가지로 재료를 필요로 한다(왕상 6: 11; 엡 2:22). 그러나 교회는 생명이 없고 쇠하여져 가는 물질로 지어진 눈에 보이는 성전과는 전혀 다르다. 교회는 산 돌로 지어진 눈에 보이지 않는 건물이다.

이제 주제는 신령한 집에서 그 집과 연관된 거룩한 제사장 직분으로 바뀐다. 신자들은 신령한 집의 산 돌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모세의 율법 아래서는 제사장 직분이 레위 족속과 아론의 집 가문의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었다. 그리고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臨在)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일 년 중에 단 하루(속죄

일)에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정해놓으신 절차를 따라 그분의 존전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경륜 안에서 언제든지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다. 신자들의 임무는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동물이나 새 또는 다른 제물들을 드렸던 것과는 달리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신약시대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신령한 제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몸의 제사**—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그분께 드리는 것으로서 이 제사는 신령한 제사의 한 형태이다(롬 12:1).

(2) **찬미의 제사**—“...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히 13:15).

(3) **선한 행실의 제사**—“오직 선을 행함과...를 잊지 말라”(히 13:16). 이러한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사이다.

(4) **물질의 제사**—“...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히 13:16). 이러한 제사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사이다.

(5) **봉사의 제사**—바울은 이방인들에 대한 자기의 사역을 복음의 제사장 직무라고 표현했다(롬 15:16). 이러한 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며, 우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으로 변화시키시는 분도 바로 그분이다. 우리의 모든 행위(우리의 예배와 봉사)는 죄로 인해 불순물이 섞인 온전치 못한 면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불완전한 부분이 아버지께 도달되기

전에 그것은 먼저 주 예수님을 통해 올라간다. 주 예수님은 신자들의 제사에서 모든 죄의 요소를 제거하실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달할 때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만한 것으로 변화해 있을 것이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이 머리 위에 쓰는 관(冠) 위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긴 금으로 만든 패가 붙어 있었다(출 28:38). 그러므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관을 쓰고 계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속에는 불완전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약시대의 모든 신자들이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기쁨으로 행해야 할 진리이다. 동시에 이 진리는 남용되어서도 안 된다.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라는 진리는 사실이지만 모든 제사장들이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모든 신자들이 유념해야 할 다음과 같은 지침들이 있다.

(1) 여자들은 남자를 가르치거나 주관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교회에서 조용해야 한다(딤후 2:12).

(2) 말씀을 전하는 남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해야 한다(벧전 4:11). 이것은 그들이 입을 열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떤 특정한 경우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허락하신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는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인간의 몸의 각 지체가 각각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신자들은 각각 고유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롬

12:6, 고전 12:7). 하지만 모든 은사가 공적으로 말하는 은사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엡 4:11).

(4) 젊은 남자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 일듯 하게 해야 한다(딤후 1:6). 만일 그 은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가르침 혹은 다른 형태의 공적인 은사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그에게는 교회 안에서 그 은사를 발휘해야 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5) 신자의 제사장 직분은 고린도전서 14:26에 제시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4장에는 교회 안에서의 질서와 덕을 세우기 위해 공적인 은사의 활용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지침들이 나와 있다. 그리스도인의 우주적인 제사장 직분은 지역교회 안에서 그 직분의 남용을 정당화하는 면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2:6 건물에 대해 생각하면서 베드로는 다시금 산 돌이신 그리스도, 특히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로 돌아간다.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는 기초 돌로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이 성경에 미리 예언되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러한 독특한 직분을 감당하도록 정하셨으며,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보배롭고 귀한 돌이시며 그분은 온전히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분임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사람은 아무도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구절에서 ‘기초 돌’(cornerstone)¹³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적어도

세 가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 각각의 해석은 동등한 정당성을 지니고 주 예수님께 적용할 수 있다.

(1) 현대의 건축물에 있어서 기초 돌은 모퉁이의 머릿돌로 놓이게 되는데, 그 돌은 거기에서 두 벽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동시에 그것을 토대로 세워지는 전체 건물 공정의 기초를 상징한다. 그리스도는 그러한 기초 돌로서 참된 기초를 형성하는 유일무이한 분이시며(고전 3:10-11), 건물의 두 벽과 같은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을 한 새 사람으로 연합시켜 주시는 분이시다(엡 2:13-14).

(2) 어떤 학자들은 이 돌을 아치의 이맛돌(*keystone*)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아치(*arch*)를 완성시키고 건물의 나머지 부분을 하나로 연합시켜주는 돌이다.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묘사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분이시다. 그분은 아치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돌이시며, 그분이 없이는 건물에 어떠한 힘이나 응집력도 없다.

(3) 세 번째 견해는 이 돌이 건축물의 가장 높은 곳을 차지하는 피라미드(*pyramid*)의 관석(*冠石*)이라는 것이다. 그 돌의 모양은 피라미드 전체의 모양을 결정하며, 가장 마지막에 놓여지는 돌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반석으로써 참으로 독특한 기능을 하는 분이시다.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그 특성을 부여받는다.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교회는 완성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산 돌이시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선택하셔서 가장 존귀한 자리를 차지하게 하셨다는 점에서 택함을 받은 분이며, 그분만큼 존귀한 분이 세상에 없다는 점에서 보배로운 분이시다.

그분을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다. 이 구절이

13) (2:6) Biblical Greek *lithon* (stone) *akro-*(top or tip) *gonianion* (of corner), hence *cornerstone* or *capstone*.

인용된 이사야서 본문에서는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번역되어 있다. 이 두 부분을 종합해서 교훈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기초 돌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절망적인 수치를 당하는 것과 광란적인 성급함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놀라운 약속을 얻을 수 있다.

2:7 앞 구절에서 주 예수님은 산 돌, 버림받은 돌, 보배로운 돌 그리고 모퉁이 돌로 제시되어 있다. 이제 베드로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주님을 시금석(touchstone)으로 묘사하고 있다. 시금석은 어떠한 광물을 그것에 문질러 보았을 때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내준다. 예를 들어 그것은 천연상태의 귀금속 덩어리가 순금인지 아닌지를 보여준다.

사람들이 구주와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참된 믿음을 얻었는지에 관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증 받게 된다. 구주께 대한 그들의 태도는 그들이 어떤 자인지를 드러내 준다. 참된 신자들에게 주님은 보배로운 분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반해 불신자들은 그분을 거절한다. 신자들은 주님이 없는 삶이 어떠했을 지를 상상해 봄으로써 주님이 얼마나 보배로운 분인지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은 잠시 동안도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과 비교될 수 없다. 주님은 “만 사람 중에 뛰어나시며” “전체가 사랑스러운 분”이시다(아 5:10,16).

하지만 불순종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떠한가?¹⁴⁾ 시편 118편의 기자는 이 보배로운 돌이 건축자들에 의해 버림을 받을 것

14) (2:7) NU에는 “불순종하는”(are disobedient)이라는 표현 대신 “믿지 않는”(disbelieve)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하지만 복음을 믿는 것은 곧 복음을 순종하는 것이므로 의미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이지만 후에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솔로몬의 성전건축과 관련하여 전해지는 이야기 중의 하나는 이러한 예언을 잘 묘사해주고 있다. 그 이야기에 의하면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용 되는 돌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장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광산에서 미리 채석되어 그 돌들이 필요할 때에 공사현장으로 옮겨졌다. 어느 날 광산에서 채굴작업을 하던 일꾼들은 독특한 모양의 돌을 골라서 현장으로 보냈다. 하지만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돌이 사용될 곳을 찾지 못한 석공들은 그 돌을 아무렇게나 놓아두어서 결국 그 돌은 이끼로 뒤덮이고 잡초만 무성한 풀밭에 버려지게 되었다. 성전이 다 완성되어 갈 무렵 석공들은 어떤 자리에 꼭 맞는 돌을 구해야 했다. 석공들이 광산의 일꾼들에게 그들의 필요에 맞는 돌을 구했을 때 그들은 “우리는 오래 전에 그 돌을 보냈다”고 대답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주위를 살펴본 석공들은 그들이 전에 버린 돌이 그 돌이 필요로 하는 곳에 꼭 들어맞는 돌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주 예수님은 그분의 첫 번째 강림 때에 그분 자신을 이스라엘에 나타내셨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계획 속에 예수님을 모실만한 자리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들은 그분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인간에 의해 버림을 당하신 주님께서 두 번째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서는 만인의 눈앞에 머릿돌로서 나타나실 것이다.

2:8 이제 건축자들의 버린 돌에 관한 비유는 모퉁이의 머릿돌과 시금석으로서의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으로부터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으로 옮겨간다. 이사야는 그리스도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사 8:14-15).

이 예언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들의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분의 출생과 그분의 단순한 삶의 방식을 보고 울무에 걸렸다. 그들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지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분을 약속된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사실은 아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돌이요 거치는 반석이 되신다. 사람들은 회개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 굴복하지 혹은 그분에게 발이 걸쳐 넘어져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두 길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설 자리는 아무 데도 없다. 그리스도는 구주가 되심과 동시에 심판주도 되신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부딪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지혜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주로 오신 분을 믿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셨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넘어지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의적인 불순종이다. 문제는 인간의 의지이다.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요 5:40).

8절의 후반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정해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내용의 말씀처럼 보인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진정 그런 내용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이 구절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은 거치는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걸려 넘어지게 되어있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님께 복종하기를 거절하는 모든 사람은 넘어지도록 정해 놓으셨다. 만일 어떤 사람이 불신 가운데 머물러있기를 고집한다면, 그는 결국 넘어지게 되어있다. “넘어짐은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이미 정해진 운명이나 다름없다.”

2:9 베드로는 이제 다시 신자의 특권에 대해 설명한다. 그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이러한 특권을 주시겠다고 그들에게 약속하셨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출 19:5-6).

이스라엘은 불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리를 빼앗겼다. 오늘날 교회는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인해 잃어버린 그 축복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신자들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도록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족속이다(엡 1:4). 하지만 그들은 육신적인 혈통과 다른 나라

와는 구별된 육에 속한 특징들을 부여받은 땅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영적인 특성들을 지닌 하늘의 백성들이다.

신자들은 또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것은 2장에 언급되어 있는 두 번째 제사장 직분에 해당된다. 5절에서 신자들은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로 묘사되어 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묘사되어 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믿음으로 하늘의 성소로 들어간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에 관해 증거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간다. 제사장 직분의 이러한 차이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육에 갇힌 사건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그 두 사람은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다. 반면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들은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다(행 16:25,31).

신자들은 거룩한 나라이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삶을 통해 구별된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방 나라들의 죄악된 행동을 본받아 죄를 범하므로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기간 동안 버림을 받게 되었으며, 지금은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들은 독특한 방법으로 그분께 속해 있으며, 그들은 그분에게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9절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새로운 족속이요 제사장이요 나라요 백성이 된 자들의 임무를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한다. 전에 우리는 죄와 수치의 암흑 속에서 방황하던 자들이었다. 엄청난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다. 그 나라의 빛은 그 빛을 막고 있던 어두움보다 훨씬 찬란하고 분명하다.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을 우리는 얼마나 높이 찬양해야 하겠는가!

2:10 베드로는 호세아의 책을 언급하면서 이 부분을 마친다. 선지자 자신의 불행한 가정생활을 실물교훈으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징죄하셨다.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불성실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은 더 이상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호 1:6,9). 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이러한 징벌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어느 날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호 2:23).

베드로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 중에는 한 때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자들도 있었다. 이제 그들은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반면에 불신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버림받은 상태로 남아있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당시에 구원받은 유대인들의 상태 속에서 호세아 2장 23절의 약속이 부분적으로 성취된 모습을 보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공혹을 입은 자가 되었다. 이 소수의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에 약속된 축복을 국가적으로 경험하기 훨씬 오래 전에 먼저 경험한 자들이었다.

그 누구도 베드로서의 이 부분으로부터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선택된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났다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거나 혹은 이스라엘에 주어진 약속이 이제는 교회에게 적용된다고 주장해서도 안 된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별개이며 서로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인식하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 중의 하나이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이후부터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지상 백성이다. 이스라엘의 반역과 패역함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도록 내어줄 때에 그 정점에 도달했다. 극에 다다른 이러한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정한 때까지 버려두고 계시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전의 지상 백성이며 오늘날 그분의 택함 받은 백성은 아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새로운 백성으로서 교회를 거느리고 계신다. 교회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과정 동안에 생긴 시간적인 간격을 형성하고 있다. 그 시간적인 간격이 끝나면, 즉 교회가 하늘로 데려감을 당한 후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일을 다시 시작하실 것이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의 믿음의 뭍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호세아의 예언의 최종적인 완성은 아직 남아있다. 그 예언의 성

취는 주님의 지상 재림과 관련하여 일어날 것이다. 자기들의 메시야를 거절한 이스라엘은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할 것이다”(슥 12:10). 그러한 돌이킴 후에 이스라엘은 긍휼을 입을 것이며 다시 한 번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10절에서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상태에 있는 것과는 달리 오늘날 믿는 유대인들은 호세아의 예언의 성취를 미리 맛보고 있다는 것이다. 완전하고 최종적인 예언의 성취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실 때”에 일어날 것이다.

2. 신자의 관계(2:11-4:6)

1) 순례자로서의 세상과의 관계(2:11-12)

2:11 베드로전서의 나머지 대부분의 구절은 그리스도인이 삶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해 주는 행동과 관계가 있다.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그들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순례자이며, 이러한 사실이 그들의 모든 행동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외국에서 살고 있다는 점에서 나그네이다. 그들은 또한 자신들의 영원한 집이 아닌 곳에서 잠시 동안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순례자이다.

오래 전에 쓰여진 찬송가의 한 가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순례 여행을 적절히 묘사해 주고 있다.

“저 뵈는 본향 집 날마다 가까워
내 갈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룻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내 생명 끝 날에 십자가 벗고서

그 보좌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룻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P. 케리).

하지만 이러한 감정은 대개 찬송가에만 담겨 있는 경우가 많다. 교회가 세상에 안주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찬송을 부르는 것은 다소 위선적이라는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씀을 읽을 때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성적인 범 죄를 떠올린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 이상의 의미로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모든 종류의 강력한 욕구를 의미한다. 그것은 먹고 마시는 것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과 지나친 수면으로 몸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 그리고 물질적인 소유를 축적하고자 하는 결심, 혹은 세속적인 쾌락을 동경하는 것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적인 안녕을 끊임없이 거슬리며 싸우는 것들이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며, 영적인 성장을 저해한다.

2:12 우리는 육신적으로 탐닉에 빠지기 쉬운 영역에서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야 할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 즉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행동을 덕스럽게 유지하여야 한다.¹⁵⁾ 우리 시대에 우리는 세상의 풍속을 좇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무엇인가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

우리는 불가피하게 세상의 비판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 빠질 수가

15) (2:12) A literal rendering is *noble* or *lovely* (Ck. *kalos*, cf. English *calligraphy*, beautiful writing)

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하던 당시의 상황에 대해 에드먼(Erdma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종교적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또한 당시의 사람들이 누구나 범하던 죄악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보, 얼간이, 혹은 금욕주의자라고 비난을 받았으며, 하늘의 왕께 충성하도록 요구한다는 이유로 그들의 정부에 반역한다는 비난을 받아야 했다.”¹⁶⁾

그러한 비난은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신자들은 어떠한 환경에서든 그러한 비난에 대해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 모든 비방자들은 선한 행실의 부인할 수 없는 기록을 보고 자신들의 비난이 근거 없는 것이라는 도전을 그 양심에 받아야 한다. 그럴 때에 그들은 권고(眷顧)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권고하시는 날”이란 주님께서 은혜로, 혹은 진노로 인간에게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는 모든 경우를 일컫는 말이다. 이 표현은 누가복음 19장 41-44절에서 사용되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이 권고의 날, 즉 메시아가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임하신 날이 오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 이 구절에서 권고의 날이라는 표현은; (1) 하나님의 은혜가 비방하던 자들에게 나타나서 주님을 비방하던 그들이 구원받는 날, 혹은 (2)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할 심판의 날을 의미할 수 있다.

다소의 사울이 그 첫 번째 해석에 대한 적절한 예를 보여준다. 그는 스테반의 송사에 참여한 자였지만 스테반의 선한 행실은 모든

16) (2:12) Charles R. Erdman, *The General Epistles*, p. 66

반대자들 앞에서 승리를 거뒀다. 하나님께서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자비로 사울에게 다가갔을 때, 이 회개한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스테반과 같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의 광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았다. 조우엣(Jowett)은 이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아름다운 삶은 인간의 마음을 경외심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리보도록 인도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삶 속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목도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역시 하늘의 교제를 추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들은 우리의 훌륭한 언변에 의해서가 아닌 우리 행동의 광채에 의해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고상한 삶의 부인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를 잠잠케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처음 단계가 될 것이다.”¹⁷⁾

두 번째 해석에서의 주된 개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심판의 날에 어찌할 수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친척들과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의 삶 속에서 그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의 흠 없는 삶을 통하여 그분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하실 것이다.

2) 시민으로서의 정부와의 관계(2:13-17)

2:13 다음 다섯 구절들은 정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다

17) (2:12) Jowett, *Redeemed Family*, pp. 88,89.

루고 있다. 여기에서 핵심단어는 “순복”이다. 사실, “순복하라”는 명령은 이 서신서에서 네 번 주어져 있다.

시민들은 정부에 순복해야 한다(2:13).

종들은 자기 주인에게 순복해야 한다(2:18).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해야 한다(3:1).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순복해야 한다(5:5).

이것에 대해 리얼(Lyall)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핍박이나 조롱, 그리고 비방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훌륭한 처신은 흠 없는 삶과 비난을 초월하는 행동, 단정한 시민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순복은 그리스도를 닮은 최고의 덕목이다.”¹⁸⁾

인간의 정부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세워졌다(롬 13:1). 그러므로 이 정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다(롬 13:4). 비록 그들이 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은 임무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대리인들이다. 또한 그들이 독재자요 전제군주라 할지라도 그들의 법은 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보다는 낫다. 무법적인 상황은 무정부적인 상태이며 그런 상태에서는 어떠한 사회도 지속될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떠한 정부도 무정부적인 상태보다는 낫다. 질서는 혼란보다 낫다. 신자들은 주님을 위하여 모든 인간의 제도를 순복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며 그분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교훈은 황제나 혹은 최고의 권력을 지닌 어떠한 지도자들에게도 적용된다. 로마의 황제 중에는 네로(Nero)와 같은 사람도 있었으며 이러한 일반적인 권면은 그러한 사람에게 순복하는 것도 포함한다.

18) (2:13) Leslie T. Lyall, *Red Sky at Night*, p. 81.

2:14 “순복하라”는 명령은 방백들과 같은 예하의 지도자들에게도 적용된다. 그들은 악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거나 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상을 주도록 하나님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다. 사실 정부의 관리들이 후자에 해당하는 자들에게 쏟는 관심이나 정성은 매우 미미하다. 하지만 그것이 순복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저버리는 이유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Arnold Toynbee)는 “원죄(原罪)가 인간의 본성 속에 죄의 요소를 남겨두고 있는 한 시이저(Caesar)는 언제나 할 일이 많다”라고 말했다.

물론 예외는 있다. 순종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만일 정부가 신자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대치되는 행동을 하라고 요구할 때에는 신자들은 정부에 순종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신자는 더 높은 차원의 책임이 있다. 그는 사람에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행 5:29). 비록 불순종에 대해 형벌이 가해진다 할지라도 그는 용감하게 그것을 인내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신자는 반항하거나 정부를 전복(顛覆)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군대에 입대하라는 명령을 그리스도인에게 내렸다고 가정해 보자. 그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무기를 들어야 할 의무를 이행해야 할까? 만일 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적인 불순종이라고 느낀다면, 그는 먼저 자기의 양심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에게 열려져 있는 어떤 다른 선택사항이 있는 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그러한 시도가 무위로 끝났을 때에는 그는 모병(募兵)을 거절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군복무를 하는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그것은 각자 마음에서 확정해야 할 문제이며, 다른 사

람이 그것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역시 인정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투표를 해야 하는지, 혹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관한 질문은 또 다른 문제이다. 정부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이것은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다. 각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행동의 원칙에 비추어 행동해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우리는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시각으로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2:15 하나님의 뜻은 자기 백성들이 단정하고 흠 없는 삶을 살으로써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을 비난할 정당한 이유를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범적인 삶을 살으로써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의해 기독교를 향해 피부어지는 갖가지 송사가 다 악하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고 또한 드러내야만 한다.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의 믿음은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에 의해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다. 그것은 대학교의 강의실에서, 과학의 연구실에서 심지어 설교하는 자리에서도 행해질 수 있다. 베드로는 그러한 공격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다.

2:16 자유를 얻은 자처럼 행동하라. 우리는 국가 권위의 노예나 종이 아니다. 우리는 두려움이나 굴종의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주님 안에서 자유자이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자유는 방종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유는 무법적인 상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우리의 자유를 범죄의 구실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죄악된 불순종은 결코 위선적인 경건의 모양에 의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대의(大義)는 종교의 옷을 입은 위선에 의해서는 결코 발전하지 못한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와 권위자(정부)와의 관계는 올바른 관계에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臨在)의 빛 앞에서 행동해야 하며,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께 순종하고, 모든 것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 가장 훌륭한 시민은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정부들은, 성경을 믿고 성경말씀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많은 빛을 지고 있는 줄을 알지 못한다.

2:17 어떠한 삶의 관계도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관계는 없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여기서 네 가지 명령으로 이것을 분명하게 서술하고 있다.

“못 사람을 공경하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언제나 존경할 수는 없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의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은 기억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가장 무가치하게 보이는 영혼을 위해서도 보혈을 흘려주시고 죽임을 당해 주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형제를 사랑하며.”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의 영적 가족의 일원들을 사랑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을 의미한다. 이

것은 전혀 합당치 않은 자에 대한 사랑이요,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요,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사랑이요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그분을 지극히 높으신 주님으로 인식할 때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게 된다. 그럴 때에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은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된다. 우리는 그분을 근심시켜 드리는 모든 행동과,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오히려 드러내지 못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다.

“왕을 공경하라.”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문제를 다시 언급한다. 우리는 질서 있는 사회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임명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자들로서의 우리의 지도자들을 존중해야 한다. 이것은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 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형태의 정부 밑에서도 생활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순종하지 말아야 할 유일한 경우는 주 예수님께 대한 충성과 순종을 타협하도록 명령을 받을 때이다.

3) 종으로서의 상전과의 관계(2:18-25)

2:18 신약성경이 왕들에게보다 종들에게 더 많은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초대교회의 많은 신자들은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며, 성경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중간계층이나 낮은 계층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마

11:5; 막 12:37; 고전 1:26-29).

이 구절은 가정에 속한 종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그 원리는 모든 형태의 피고용인들에게 적용된다. 이 말씀이 기본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점은,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전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사회 어느 조직에서나 한편에는 권위를 지닌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그 권위에 순복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자기 상전에게 복종하는 것은 종 자신의 유익과 관련이 있다. 만일 복종하기를 거절한다면 그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순종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단지 그가 일한 것에 대해 보수를 받는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순종은 상전의 성격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나 친절하고 선한 상전에게는 순종할 수 있다. 신자들은 그러한 한계를 넘어 까다롭고 인내하기 어려운 상전에게도 순종하며 존중을 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특징이다.

2:19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인식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변호하거나 싸우지 아니하고 부당한 고통을 감내하는 것을 보실 때 기쁨을 얻으신다. 우리가 온유한 태도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초월적인 삶은 결국 “잘하였도다”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

2:20 우리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 속에는 아름다운 덕이 없다. 그 안에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한 고통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를 갖게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지 못한다. 하지만 선한 일을 하고 고통을 감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계산되어질 만한 일이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고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태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줄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인식하게 하며 구원받기를 갈망하게 만들 수 있다.

2:21 의를 위하여 신자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장 위대한 모범이 되시는 주 예수님에 대해 살펴볼 수 없다. 고난을 받으시되 주 예수님만큼 애매히 고난을 받은 사람은 없으며 또한 그러한 고난을 끝까지 견딘 사람은 없다.

우리는 주님과 같이 우리 자신의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고난을 받으며 행동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씀에 사용된 본(本)이라는 단어는 원본과 똑같은 오류가 없는 필적으로 재생된 복사본이라는 개념을 지니고 있다. 학생들은 가능한 한 똑같이 원본을 재생하도록 노력한다. 그가 원본을 조심스럽게 재현하려고 노력할 때, 그의 필적은 그것과 거의 다르지 않다. 하지만 원본에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복사본은 원본과 다르게 된다. 우리의 안전은 주님을 더 온전하게 닮는데 달려있다.

2:22 우리 주님은 아무 죄도 범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분 자신의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셨다”(고후 5:21). 그분은 죄를 범치 않으셨으며(22절), 또한 “그분 안에는 죄가 없었다”(요일 3:5).

그분의 언어에는 궤사로 인해 오염된 것이 아무 데도 없었다. 그분은 결코 거짓말을 하시거나 혹은 진리를 가리우지도 않으셨다. 이 사실을 한 번 생각해 보라! 온전히 흠이 없으시고 거짓과 궤홀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우셨던 분이 이 세상에 계신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2:23 주님은 분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잠잠하셨다. 그분은 욕을 당하실 때에도 욕하지 않으셨으며, 비난과 조소에도 반응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고소할 때에도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자기 자신의 정당함을 밝히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놀라운 자유를 가지고 계신 분이였다. 어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우리 자신이 아무 이유 없이 정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잠잠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심오하고 진실한 겸손의 표시이다. 모욕과 불의의 상황 아래서 침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을 닮은 매우 고귀한 행동이다.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기억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전혀 그러한 고난을 받을 만한 잘못을 행한 일이 없음에도 참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변명하거나 변호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에 우리의 마음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상황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주님께서서는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셨다. “어떠한 분노의

말이나 위협하는 말도 주님의 침묵하는 혀로부터 새어나오지 않았다.” 아마 그분을 비난하는 자들은 그분의 침묵을 연약함으로 오해했을 것이다. 그들이 만일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를 알았다더라면 그들은 그것이 연약함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받으면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우리가 알 수 없는 주님의 능력의 근원은 무엇일까? 그분은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취를 따라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롬 12:19-21).

2:24 구주의 고난은 본(本)을 끼치기 위험일 뿐만 아니라 속죄(贖罪)를 위험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주님의 고난을 본받을 수는 없다. 베드로는 이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주님의 고난을 본받으라고 교훈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구주의 고난은 그분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주님은 아무 죄도 범치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죄를 인함이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영원한 속죄의 고난을 당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죄를 위해 고난 받는 자리에 나아갈 필요가 없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은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 죽었음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단순히 소극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라고 간주해야 할뿐만 아니라 의에 대하여 산자로 여겨야 한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채찍’(Stripes)이라는 단어는 원어에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님의 몸 전체가 하나의 채찍자국이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같다. 우리의 나음이 구주께 이처럼 혹독한 값을 지불하도록 했다면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는가? 테오도르(Theodore)는 이것에 대해 “새롭고도 기이한 치료의 방법이였다. 의사가 고통의 값을 지불하고 환자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기록했다.

2:25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양과 같이 길을 잃고 상하고 찢긴 채로 피를 흘리며 방황하던 자들이었다. 길 잃은 양에 대한 베드로의 언급은 이사야 53장의 묘사와 일치하는 여섯 가지 일면 중 마지막 부분에 해당된다.

21절-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사 53:4-5).

22절-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궤사도 없으시며(사 53:9).

23절-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사 53:7).

24절-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사 53:4,11).

24절-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사 53:5).

25절-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사 53:6).

우리는 구원받을 때 참된 목자에게로 돌아오게 된다. 그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선한 목자(요 10:11)이시며, 자기 피로써 구원한 양들을 부드럽고 지치지 않는 손길로 돌보아주는 큰 목자이시며, 자기 양들을 위에 있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곧 다시 오실 목자장이시다. 그분의 품안에 있는 양들은 다시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구원받는 것은 우리 영혼의 감독¹⁹⁾되신 이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손으로 지음 받은 그분의 소유였지만 죄로 인해 잃어진 자가 되었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돌보시는 손길 안으로 돌아왔으며 영원히 안전하다.

4) 아내로서의 남편과의 관계(3:1-6)

3:1 베드로는 정부와 세상의 상전들에게 순복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대해 강조해왔다. 이제 그는 남편들에 대한 아내들의 순복의 문제를 다룬다.

모든 아내들은 자기 남편이 신자이든지 불신자이든지 상관없이 남편에게 순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머리로서의 역할을 부여하셨으며, 여자들이 그러한 남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여자들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복해야 하는 것처럼 자기 남편에게 순복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한물 간 시대의 유물 정도로 간주된다. 여자들은 남자들을 좌지우지하는 권위의 자리로 진출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는 점차적으로 여가장적(女家長的)으로 변모해가고 있다. 많

19) (2:25) The Greek word is *episkopos*, "overseer" or "bishop".

은 교회들 안에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활동적이고 재능을 갖춘 경우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히 서 있다. 남자의 머리됨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다. 아무리 합당한 이유를 내세운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여자들이 남자들의 권위를 탈취할 때 야기되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혼란과 무질서뿐이다.

한 아내의 남편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녀는 여전히 머리로서 그 남편을 존중해야 한다. 이것은 그녀의 남편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선한 간증이 될 것이다. 순종적이고 사랑스러우며 헌신적인 아내로서의 아름다운 행동은 남편을 구주께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아내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남편의 영혼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아내가 그녀의 남편에게 항상 말로써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내가 남편으로 하여금 복음에 대해 수궁하게 하려고 억지로 강요하는 행동은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여기에서의 강조점은 남편 앞에서 매일 매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아내의 삶이 남편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편이 아내의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럴 때에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만일 남편이 아내에게 성경의 명백한 명령을 불순종하도록 요구한다면, 그녀는 남편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며 주님께 충성해야 한다. 그러나 남편의 요구가 분명한 의무 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내가 누리는 어떤 특권에 관련된 것이라면, 그녀는 남편에게 순복하여 자기의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아내가 이교도인 남편을 가지는 것에 관해 말할 때, 그는 신자로서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결혼을 한 후에 아내가 먼저 구원을 받은 경우를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녀의 의무는,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순복하는 것이다.

3:2 구원받지 않은 남편은 자기 아내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서는 이것을 사용하셔서 그녀의 남편으로 하여금 자기 죄를 깨닫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수 있다.

조지 뮐러(George Muller)는 경건한 신자인 아내를 둔 부유한 독일 사람에게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는 술을 무척 즐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온 밤을 술집에서 보내는 적이 많았다. 그의 아내는 하인들을 잠자리에 들게 한 다음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자지 않고 기다리다가 그를 친절히 맞이하며 한 마디의 잔소리나 불평도 하지 않았다. 남편이 만취해서 돌아올 적마다 그녀는 정신없는 남편의 옷을 벗겨주고 침대에 누어주었다.

어느 날 밤 선술집에서 그녀의 남편은 친구들에게 “내 장담하건대 이 늦은 시간에도 집에 가면 내 아내는 자지 않고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걸세. 아마 그 사람은 문 앞까지 나와서 우리를 왕 같이 맞이해줄 거야.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저녁상도 차려줄 걸세.”

그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한 번 가서 확인해 보기로 결정했다. 과연 친구의 말대로 그녀는 문 앞에 나와서 정중하게 그들을 집안으로 영접해 들인 다음 한 점 분노의 빛도 없이 그들을 위해 기꺼이 저녁상까지 차려주었다. 남편과 그의 친구들을 잘 접대한

후에 그녀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물러갔다. 그녀가 방에서 나가자마자 남편의 친구 중의 한 명이 그녀의 남편을 나무라기 시작했다. “저런 착한 아내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다니, 자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 친구는 내뱉듯이 이런 말을 남기고는 식사도 마치지 않고 일어나 집을 나가버렸다. 그러자 또 다른 친구도 일어섰고 급기야는 한 사람도 식사를 하지 않은 채 집을 나가버렸다.

반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남편은 자기의 악함, 특히 아내에게 몹시 잘못된 것에 대해 깊이 뉘우치게 되었다. 그는 아내의 방으로 건너가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죄를 회개하며 그리스도께 굴복했다. 그 이후에 그는 아주 헌신적인 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와 같이 말로 하지 아니하고도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다! 조지 물러는 다음과 같은 권면을 주었다.

“당신이 구원받지 않은 친척들로부터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곧 당신에게 마음의 소원을 불러일으키시며 그들을 위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 동안에 당신에 대한 그들의 행동을 책망하지 말고 주 예수님의 온유와 친절, 그리고 자비로움을 그들에게 나타냄으로써 진리를 선전하라.”²⁰⁾

3:3 여기서의 주제는 여자들의 단장(丹裝)에 관한 것이다. 베드로는 아내들이 자기 남편을 섬기고 기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에 관해 우선적으로 다룬다. 아내의 외모로 단장하는 모습은 그녀의 기록하고 순종하는 내적인 삶만큼 남편에게 깊은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아내들이 피해야 할 다양한 형태의 외모로 단장하는 모습은 다음과 같다.

20) (3:2) George Muller, in a Periodical called *The Word*, edited by Richard Burson, date unknown, pp. 33-35

(1) ‘머리를 꾸미고’-어떤 사람들은 이 표현이 단정하게 머리를 깎는 것까지도 금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대 로마에서는 여인들이 머리를 깎아서 계단처럼 여러 겹으로 쌓아올린 스타일이 유행했는데 베드로는 이처럼 지나치게 머리를 호화롭게 꾸미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 같다.

(2) ‘금을 차고’-어떤 사람들은 이 표현을 금으로 된 장식품은 무엇이든지 절대 금하는 명령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표현을 화려하고 지나친 치장을 금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3) ‘아름다운 옷’-이 표현이 어떤 특정한 옷을 입지 말라는 명령은 아닐지라도 화려하고 값비싼 옷을 입지 말라는 권면임에는 틀림없다. 이사야 3장 16-25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형태의 지나친 치장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보라.

그리스도인의 복장

그리스도인의 복장과 장식품들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즉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이 있다. 첫 번째 원칙은 비용이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돈을 의복에 소비하고 있는가? 그것들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인가? 의복에 소비한 돈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가?

디모데전서 2장 9절은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라고 말함으로써 값비싼 옷을 입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옷을 살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값비싼 옷들을 구입하는데 재물을 소비하는 것은 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동정심 역시 그것을 금한다.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절망적인

어려움, 영적인 면과 육체적인 면에 있어서의 그들의 엄청난 필요들이 긴급하지 않은 값비싼 옷들을 사는데 재물을 소비하는 우리의 무관심을 지적한다.

이것은 우리가 구입하는 의복의 질과 양 모두에 적용된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옷장은 마치 작은 옷가게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들은 휴가 여행을 떠날 때마다 승용차의 뒷좌석에 걸어놓은 옷걸이에, 견본품의 옷을 가지고 차를 타고 다니며 판매하는 세일즈맨과 경쟁이라도 하듯 양복이며 셔츠며 여러 가지 옷들을 죽 걸어놓고 다닌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상한 기호와 훌륭한 외양이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을 즐기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 원칙은 검소함이다. 바울은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말한다. 여기에 사용된 “적당함”(propriety)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중의 하나는 “알맞은”(decent)이다. 의복이 지니고 있는 기능 중의 한 가지는 사람의 별거벗은 몸을 가리는 것이다. 적어도 처음에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했다. 하지만 오늘날 의복은 인체의 많은 부분을 더 많이 노출하는 방향으로 고안되는 것 같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자기의 수치를 오히려 영화롭게 꾸미려 한다.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모방하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검소함이 아름다움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깔끔하게 단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추하고 단정치 못한 것이 덕이 될 수는 없다. 오스워드 챔버스(Oswald Chambers)는 단

정치 못한 것은 성령님께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신자들의 복장은 깨끗하고 단정해야 하며, 검소하면서도 잘 어울리는 것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에게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옷차림은 피해야 한다. 옷차림으로써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는 세상에서 장식품으로서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모을 수 있다. 유행에서 벗어나는 옷차림이라 할지라도 단정하고 깨끗하게 입고 다니는 것도 그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상식에서 벗어날 정도의 괴상한 옷차림이나 누추한 옷차림은 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은 특히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옷차림은 피해야 한다. 우리는 점점 “노출지향적”인 추세로 나아가고 있는 의복문화에 대해 이미 언급했다. 하지만 설사 신체를 많이 드러내지 않는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치 못한 욕심을 불러일으키도록 옷을 입을 수 있다. 오늘날 유행하는 옷들은 영적인 면을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옷들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 시대의 성적인 강박관념을 반영하고 있다.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건전치 못한 욕심을 품게 하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방해가 되는 옷들을 입어서는 안 된다.

세상의 조류를 거슬러 올라갈 때 엄청난 사회적인 압박이 성도들에게 가해지는 것이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어느 시대, 어느 성도들에게도 있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극단적인 유행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견해의 조류에 역행하며, 복음에 합당한 옷차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만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아름다운 덕을 세우게 될 것이다. ♠

3:4 신자를 진실로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옷은 속사람의 아름다움이다. 세련되게 매만진 머리, 값진 진주, 그리고 값비싼 옷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영원한 아름다움과 일시적인 아름다움의 생생한 대조를 통하여 베드로는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격려한다. F. B. 마이어는 이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외모를 아름답게 장식하면서도 속사람은 누더기를 걸친 사람들이 많다. 반면에 겉으로는 비록 가난하게 보일지라도 내면적으로는 영광으로 빛나는 사람들이 있다.”²¹⁾

사람들은 보화를 값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의 썩지 않을 것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것이야말로 진실로 값진 보화라고 말씀하신다.

3:5 구약성경의 경건한 여자들은 내면생활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아름다움을 배양함으로써 자신들을 단장했다. 이러한 아름다움의 일면은 남편에 대한 순복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으며,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삶을 살았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기에 그들은 가정에서 그분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했으며, 자기 남편들에게 순복했다.

21) (3:4) Mayer, *Tried*, p. 117.

3:6 사라는 이러한 면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여인이었다. 그녀는 자기 남편을 주라고 부르면서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다. 이것에 관해서는 창세기 18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라가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한 것을 읽을 수 있다. 그녀는 돌아다니면서 공개적으로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면서 자기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사실을 선전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내면적인 삶 가운데 그를 자기의 머리로 인정했으며, 이러한 인식은 그녀의 행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사라의 본을 따르는 여인들은 그녀의 자녀들이다. 이스라엘 여인들은 자연적인 출생에 의한 사라의 후손들이다. 하지만 가장 올바른 의미에서 그녀의 딸이 되기 위해서는 그녀의 개인적인 인격을 본받아야 한다. 자녀들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닮은 점을 가지고 있게 마련이다.

그들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아내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대로 순종하고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불신 남편의 합당치 못한 행동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생명의 위협이나 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남편으로서의 아내와의 관계(3:7)

3:7 이제 베드로 사도는 남편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그들이 남편으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를 설명한다. 그들은 아내들에게 사랑과 예의, 그리고 이해심을 나타냄으로써 아내와 더불어 사려 깊게 생활해야 한다. 그들은 더 연약한 그릇에게 베풀어야 할 따뜻한 배려

를 자기의 아내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오늘날의 여성해방운동에 비추어 볼 때, 여자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구시대적인 책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육체적인 면에 있어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연약하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단순한 사실이다. 또한, 여자들은 보통 자기감정을 다스리는 일에 더 연약하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에 의해서보다는 감정적인 반응에 의해 더 자주 이끌림을 받는다. 깊이 있는 이론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일은 여자들의 특징을 이루는 장점이 아니다. 그리고 대개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더 의존적이다.

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여자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사실이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성경은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어떤 영역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유능한 경우도 있다. 사실,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께 더 헌신적이다. 뿐만 아니라 여자들은 대개 지속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더 오래 견디는 힘을 가지고 있다.

자기 아내에 대한 남편의 태도는 그녀가 생명의 은혜를 자기와 함께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가 둘 다 구원받은 신자인 결혼생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여러 면에서 남자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기는 하지만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동등한 지위를 누리며,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똑같이 공유한다. 또한 그녀는 새로운 육체의 생명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점에서 그녀의 남편의 역할보다 더 많은 부분을 감당한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불화가 있을 때에는 기도의 장애가 생긴다. 이것에 대해 비그(Bigg)는 “상처를 입은 아내의 한숨이 남편의 기도

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사이에 장벽을 낳는다”라고 말했다.²²⁾ 또한 무엇인가 부부 사이의 화목한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있을 때,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가정의 화목과 안녕을 위해 남편과 아내가 몇 가지 기본적인 지침들을 준수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1) 상호 신뢰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절대적인 정직을 유지할 것.

(2) 의사소통의 문을 늘 열어 놓을 것. 언제나 솔직한 대화를 나눌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난방을 하기 위해 보일러를 작동시키면 보일러 안에서 불꽃이 폭발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어떤 일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은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며 기꺼이 서로를 무한히 용서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사소한 잘못이나 개인적인 특질들은 눈감아 줄 것.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 준다. 당신 자신도 완전하지 않을진대 상대방에게 완전한 것을 요구하지 말라.

(4) 재정문제에 있어서 통일성을 갖도록 힘쓸 것. 과소비와 할부로 물품을 구입하는 것, 그리고 다른 집과 비교하여 지지 않으려고 허세를 부리는 것 등을 피하라.

(5) 사랑은 억제하기 어려운 감정이 아니라 계명이라는 것을 기억할 것,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열거되어 있는 모든 특질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사랑은 친절한 것이기에 당신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배우자를 비난하거나 충돌을 일으키는 일을 막아 준다. 사랑은 당신의 자녀들 앞에서 그들의 안정감을 허무는 부부간의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해준다. 이런 사항들과 더불어 다른

22) (3:7) Charles Bigg,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Epistles of St. Peter and St. Jude* (ICC), p. 155.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랑은 가정 안에서 행복한 분위기를 가꾸어 주며 싸움과 분리를 제거한다.

6) 형제로서의 다른 성도와의 관계(3:8)

3:8 이 구절이 주로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교제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점은 여기에 제시된 권면이 마음을 같이 하고 형제사랑을 나누라는 것임을 볼 때 명백한 것 같다. 이 이외에 다른 세 가지 권면은 보다 넓은 의미로 적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라는 단어는 베드로가 이 편지를 마치려고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는 종들과 아내들 그리고 남편들과 같은 다양한 개체의 사람들에 대해 일일이 설명했다. 이제 그는 마지막으로 “너희가 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같은 시각으로 보기는 어렵다. 모든 것을 같은 시각으로 본다면, 그것은 통일성이라기보다 획일성에 가깝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점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신앙형식은 널리 알려진 다음과 같은 표현 속에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 모든 것 안의 사랑.

우리는 서로를 대하여 ‘동정심’을 가져야 한다. 문자적인 의미에서 ‘체휼’이라는 말은 “고통을 함께 나누다”라는 뜻으로서 이러한 권면은 핍박을 경험하고 있던 당시의 성도들에게 특히 적절한 권면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모든 시대를 위한 권면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시대는 없기 때문이다.

“형제를 사랑하며.” 이것에 관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어떤 그리스도인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형제를 선택 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며, 단지 우리는 우리의 형제가 누구이든 우리 자신의 편애(偏愛)적인 기질이나 기호에 관계없이 서로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 당신은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해!’라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모름지기 감정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의지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것은 느낌이 아니라 행함 속에, 생각이 아니라 행동 속에, 부드럽게 속삭이는 말이 아니라 고상하고 비이기적인 행위 속에 있다.”

“불쌍히 여기며.” 이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나 감정에 민감한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마음은 차갑고 냉랭하며, 무관심하고 냉소적인 것을 거부한다.

“겸손하며.”²³⁾ 겸손이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들 중의 하나로 가르쳐지는 것은 매우 합당하다. 본질적인 의미에서 겸손이란 다른 사람에 대해 겸허하게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앞세우고, 덕스러운 일을 말하고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겸손은 자기 자신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며, 다른 사람을 도와줄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며,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친절에 대해 즉시 감사를 표현한다. 겸손은 결코 저속하고 야비하거나 거칠고 불손하지 않다.

23) (3:8) NU에는 “courteous”(philophrones) 대신 “humble”(tapeinophrones)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두 표현 모두 문맥과 어울리는 선한 덕목으로서 NT textual criticism에 근거를 둔 원문(原文)으로서 채택이 된다. 여기서는 KJV의 번역을 따랐다.

7) 핍박받는 자로서 핍박자와의 관계(3:9-4:6)

3:9 이 편지는 핍박과 고난을 배경으로 쓰여졌다. 3장 9절부터 4장 6절까지의 주제는 그리스도인과 핍박자들에 대한 그들의 관계이다. 우리가 다시 한 번 기억해야 할 사항은, 신자들은 원수를 갚지 말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견디라는 권면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대신 우리는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모욕을 친절로 갚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사람이 아닌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또한 저주하는 사람이 아닌 축복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의 이와 같은 모든 착한 행동에 대해 후에 복으로 갚아 주신다.

3:10 베드로는 10-12절까지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악한 행동과 악한 말을 금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 시편 34편 12-1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

처음 구절의 강조점은 이것이다. 즉 생명을 완전하게 즐기기를 원하며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악한 말이나 꾀함을 말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모욕과 수치를 되갚거나 친절로 위장한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정죄를 받았지만 그 문맥에서는 이것이 자기를 위한 삶을 살며 삶의 참된 목적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문맥에서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

3:11 악한 말뿐만 아니라 악한 행동도 금해야 한다. 보복하는 행동은 싸움을 더 격화시킬 뿐이다.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에 굴복하는 것이다. 신자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퍽박을 견뎌으로써 화평을 도모해야 한다. 불은 불로써 꺼지지 않는다.

악에게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악이 그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그러면 악은 그것이 기대하는 아무 저항도 발견할 수 없다. 저항은 단지 더 큰 악을 낳을 뿐이며, 화염에 연료를 끼얹는 것과 같다. 하지만 악이 어떠한 저항이나 반대 대신 참을성 있는 인내와 만날 때, 그것의 찌르는 것이 꺾이게 되고 마침내 자기보다 더 무서운 상대와 만나게 된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마지막 저항의 감정까지 포기되어지고,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완전히 버릴 때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악은 표적을 잃어버리게 되고, 더 큰 악을 품을 수도 없으며 결국 아무 열매도 거둘 수 없게 된다.

3:12 주님은 의롭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주목하시며,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물론 주님은 그분의 모든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지만 그분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의 간구에 특별한 의미에서 주의를 기울이신다.

주님의 낮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신다. 이것은 특히 그분의 백성들을 퍽박하는 자들에 대한 언급이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육체적인 폭력과 무절제한 언어로 원수들과 대항하는 신자들을 포함하는 말일 수 있다. 악은 어디까지나 악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이 어디에서 발견되든지, 즉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서 발견되는 악

이든, 구원받지 않은 자의 삶 속에서 발견되는 악이든 상관없이 그 악을 대적하신다.

시편 34편 16절을 인용하면서 베드로는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데도다”라는 말씀을 생략했다. 이것은 그가 부주의해서 생략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 살고 있으며, 이 시대는 모든 사람이 그분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해이다.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해는 아직까지 도래하지 않았다. 주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행악자들을 심판하시며 그들의 자취를 이 땅에서 끊으실 것이다.

3:13 베드로는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라는 질문으로 그의 논증을 다시 시작한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무도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순교자들의 역사는 복음의 대적자들이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을 대적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역설(逆說)에 대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가능한 설명이 존재한다.

(1) 일반적으로, 의(義)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해(害)를 당하지 않는다. 무저항의 정책은 반대세력을 무력화시킨다. 예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의를 구하는 사람은 대개 그 사람 자신이 행한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해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2)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악한 행동도 그에게 영원한 해를 입히지는 못한다. 원수들은 그의 몸을 해칠 수는 있지만 그의 영혼에 상처를 입힐 수는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12명의 소년들 중에서 한 그리스도인 소년이 당시 유럽에서 일고 있던 어떤 운동에 참여하기를 거절했다. 다

른 소년들이 그에게 “넌 우리가 너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모르는 모양이지?”라고 위협하며 말했다. 그러자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너희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구나!”라고 대답했다. 그 소년은 아무도 자기를 해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3:14 이와 같이 아무도 그리스도인을 해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이 구주께 대한 충성심으로 인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다고 가정해 보자. 우리는 이 두 가지 사항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 우리는 세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 고난을 다스리신다.

(2)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 고난을 사용하신다.

(3)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고난당하는 자를 축복하신다.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라.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핍박의 시대를 얼마나 잘 견디어냈는가! 폴리갑(Polycarp)은 그가 만일 그리스도를 모독한다면 풀려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을 때,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겼지만 그분은 결코 나에게 잘못을 행치 않으셨다. 그런데 어찌 내가 나의 왕이시요 구주이신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는가?”라고 대답했다. 총독이 그를 사나운 맹수들에게 던져 넣겠다고 위협하자 그는 “이 비참한 삶에서 어서 해방되는 것은 나에게서 참 행복한 일이다”라고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총독이 그를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그는 “나는 잠시 동안만 타오르는 불은 두렵지 않다. 당신

들은 영원 세세토록 타오르는 불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3:15 14절의 마지막 부분과 이 구절에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이사야 8장 12-13절 말씀을 인용한다.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어떤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할 분으로 제시한다. 베드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라고 말한다.²⁴⁾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우리 생애의 주관자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모든 언어와 행동은 그분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리스도의 주재권(主宰權)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우리의 소유, 직업, 자유, 결혼, 여가 시간 등)을 다스려야 한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는 말씀은 일차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인해 핍박을 받고 있을 때에 적용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신자들로 하여금 거룩한 담대함을 갖게 하며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선한 증거를 보여주도록 해야 한다.

이 표현은 또한 매일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사람들은 종종 우

24) (3:15) NU에는 “the Lord God” 대신 “Christ as Lord”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이것은 신약성경의 그리스도가 구약성경의 여호와 사바오스(*Jehovah Sabaoth*) 이시라는 것을 시사하는 표현일 것이다.

리가 그들에게 주님에 대해 아주 자연스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진다.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놀라운 일에 대해 그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증거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가운데 행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주님과 구주에 대해 이야기할 때 경솔하거나 빈정거림 또는 온당치 못한 태도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3:16 신자들은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만일 그가 어떠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도 결백하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는 사자와 같은 담대함으로 핍박을 견뎌낼 수 있다. 만일 그가 선치 못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죄의식으로 인해 괴로움을 당할 것이며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 담대하게 맞서지 못할 것이다. 신자들의 삶이 흠이 없을지라도 복음의 대적자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비난할 거리를 찾을 것이며 그들에게 대해 거짓된 송사를 일삼으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송사가 시험을 거쳐 공허한 것으로 드러나게 될 때에 대적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3:17 만약 그리스도인이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그 것이 때로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있는데, 그 때에 그것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어야만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범죄로 인해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 안에는 덕스러울 일이 전혀 없다.

3:18 3장의 남은 부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은 사람의 전형적인 예로 제시하며, 그분을 위해 받는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길

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

그분이 당하신 고난의 여섯 가지 특징을 주목해보라.

(1) 그분의 고난은 속죄의 고난이었다. 다시 말해 그분의 고난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죄인을 그들의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시켰다.

(2) 그분의 고난은 영원히 효력을 지닌 것이었다. 그분은 한번 죄를 위해 죽으사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셨다. 구속의 사역은 완성되었다.

(3) 그분의 고난은 대속(代贖)의 고난이었다.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 53:6).

(4) 그분의 고난은 화목케 하는 고난이었다.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되었다.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한 그 죄는 영원히 제거되었다.

(5) 그분의 고난은 폭력에 의한 것이었다. 그분의 죽으심은 사형에 의해 이루어졌다.

(6) 마지막으로, 그분의 고난은 부활에 의해 정점에 도달했다. 그분은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라는 표현은 그분의 부활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의미한다.

3:19 19절과 20절은 신약성경 가운데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구절들 중의 하나이다. 이 구절은 한편으로는 연옥(Purgatory, 煉獄), 또 한편으로는 만민구원론(Universal salvation)과 같은 비성경적인 교리를 주장하는 구실이 되어 왔다. 심지어 복음적인 교회들 가운데서도 일

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한다.

첫 번째 해석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 영으로서 음부(Hades)에 가셔서 십자가에서 이룬 놀라운 사역의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것이다. 이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표현이 신자들을 의미하는지 혹은 불신자들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두 부류의 사람 모두를 의미하는지에 관해 이견(異見)이 존재한다. 하지만 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다는 견해에는 일반적으로 모두 동의한다. 이러한 견해는 자연히 성경 어디에서도 가르치고 있지 않은 구원의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교리를 포함한다.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 구절을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는 에베소서 4장 9절과 연관시킨다. 그들은 이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음부에 들어가셔서 갈보리에서의 승리를 전하셨다는 사실을 더 한층 확증시켜주는 증거로 인용한다. 그들은 또한 사도신경에 나오는 “지옥에 내려가셨다”(descended into hell; 우리말로 번역된 사도신경에는 보통 이 표현이 생략되어 있음-역주)는 표현을 인용한다.

두 번째 해석은 베드로가 노아 시대에 일어난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수 이전에 불신 세대들에게 노아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신 분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영이셨다. 그들은 그 당시에는 육체로부터 분리된 영이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이었지만 노아의 경고를 듣고도 거절하여 홍수에 의해 멸망을 당한 지금은 그들은 옥에 있는 영들이다.

이 두 번째 견해가 문맥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주며 문맥과 연관시켜 볼 때에 해석의 문제점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문맥과

관련된 부분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자.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라는 말씀에서 ‘영으로’라는 표현은 18절 마지막 부분의 ‘영으로는’이라는 표현의 “영”(Spirit)을 가리키고 있음이 분명하다. 우리는 이 표현이 성령님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본 서신서의 1장 11절에서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다. 또한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죄에 대해 더 이상 관용하실 수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나의 신, 즉 성령님을 언급하셨다.

‘전파하시니라’라는 표현은 이미 상고해 본 바와 같이 전파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직접 전파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를 통하여 전파하셨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노아는 “의(義)의 전파자”로서 묘사되고 있다. 이 단어는 “저가…전파하시니라”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

“옥에 (지금)있는 영들에게”라는 표현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노아로부터 임박한 홍수심판에 대한 경고와 구원의 방주에 대한 약속에 대해 들었던 당시의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들은 노아의 말을 무시했으며, 홍수로 인해 멸망을 당했다. 그들은 현재 최종적인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육체로부터 분리된 옥에 있는 영들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저(그리스도)가 또한 영(성령님)으로 지금 옥(음부)에 있는 영들에게 (노아를 통하여) 전파하시니라”라고 확대하여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옥에 있는 영들”이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 대답은 다음 구절에 나와 있다.

3:20 이 구절에는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확실한 대답이 제시되어 있다.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전에 순종치 아니 하던 자들”이다. 그들이 불순종한 시점은 언제인가? 방주가 예비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이다. 결과는 어떠했는가? 물로 심판하실 때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겨우 여덟 명에 불과했다.

여기서 잠시 펴막이라는 일반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쓰여진 이 편지와, 당시의 성도들이 느끼던 감정에 대해 생각해 보자. 베드로의 편지의 수신인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믿음과 증거로 인해 큰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 아마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옳은 것이라면, 왜 자신들이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가 참된 믿음을 내포하고 있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그렇게 적은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을지 모른다.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제시한다. 그분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되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하늘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셨다(22절을 보라). 영광에 이르는 길은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한다. 다음으로 베드로는 노아에 대해 언급한다. 120년 동안이나 이 신실한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 경고했다. 그에게 돌아오는 응답은 조롱과 거부가 전부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가족들을 홍수로부터 구원하심으로써 그가 진실했음을 입증해 주셨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만일 우리가 옳다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적은 까닭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세상에서 단지 여덟 명만이 옳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틀렸던 적이 있었다!” 참으로 세상의 역사를 살펴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옳은 길을 걸어오지 않았다. 참된 신자들은 대개 소수로 남아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는 자가 소수라는 이유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노아의 시대에는 신자가 겨우 여덟 명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오늘날에는 수백만 명의 신자들이 존재한다.

20절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라는 말씀을 읽을 수 있다. 그들은 물에 의해(by water)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물로 말미암아(through)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과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방주와 홍수의 모형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방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림이며,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준다. 방주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홍수가 임했을 때, 오직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으며,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멸망을 당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온전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다. 반면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다.

물은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물속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멸망을 받았기 때문이다. 방주만이 유일한 피난처였다. 그것은 심판의 물을 통과했으며, 폭풍우 속을 거침없이 헤쳐 나갔다. 한 방울의 물도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 위에 쏟으시는 하나님

의 맹렬한 심판을 견뎌내셨다. 그분이 그렇게 우리의 자리를 대신 해 주셨으므로 그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요 5:24).

방주는 위와 아래, 그리고 전후좌우(前後左右) 어느 방향으로든지 온통 물에 둘러싸여 있었다. 하지만 방주는 그 흉용(洶湧)한 물을 다 통과하여 안에 탄 자들을 새로워진 세상의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주었다. 그러므로 구주를 신뢰하는 사람들 역시 죽음과 절망의 상태에서 부활과 새 생명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다.

3:21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浸禮)라”라는 말씀을 읽게 된다. 이 구절은 침례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과, 침례란 어떠한 구원의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간에 벌어지는 논쟁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침례

먼저 침례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바와 의미하지 않는 바를 정확하게 고찰해보자. 사실, 우리를 구원하는 침례가 있는데 그 침례는 우리가 물속에서 받는 침례가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갈보리 동산에서 있었던 침례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침례였다. 그분은 심판의 물속에서 침례를 받으셨다. 이것이 주님께서 “나의 받을 세(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눅 12:50)라고 말씀하실 때 의미하신 내용이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침례를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시 42:7)라고 표현했다.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파도와 물결 속에서 침례를 받으셨으며, 이러한 침례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 침례이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죽음을 우리 자신을 위한 죽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하신 구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자신을 그분께 의탁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 안에서 우리 자신을 그분과 동일시하게 된다. 그 때야말로 우리는 참된 의미에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며(갈 2:20), 그분과 함께 장사지낸바 되며(롬 6:4), 그분과 함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바 되는 것이다(롬 6:4).

이 모든 사실이 신자가 받는 침례 속에 아름답게 그려지게 된다. 이 예식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실,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더불어 침례를 받았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외적인 표시이다. 물속에 잠김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장사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물속으로부터 다시 나오으로써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부활했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표로서의 침례는 십자가 위에서 죽음에 잠기신 그리스도의 침례와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 자신을 그분과 동일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물 침례는 이와 같은 진리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21절은 결코 우리가 침례라는 예식에 의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음 몇 가지 이유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1) 만일 침례가 우리를 구원한다면, 그것은 주 예수님 대신 물을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요 14:6)라고 말씀하셨다.

(2) 만일 침례가 우리를 구원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음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물 침례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주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셔야만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3) 침례 자체는 결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은 후에도 그들의 변화되지 않은 삶을 통해 그들 자신이 결코 거듭난 적이 없음을 드러내준다.

또한 이 구절은 믿음에 침례라는 행위를 더하여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1) 믿음과 침례가 구원받기 위한 절대적인 요소라면,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의 구주의 사역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을 때, 구원은 실제로는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침례가 주님의 구원의 사역에 더해져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2) 만일 침례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아무에게도 친히 침례를 베풀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실로 이상한 일일 수밖에 없다. 요한복음 4장 1,2절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몸소 침례를 베풀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증거해준다.

(3)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침례를 베풀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다(고전 1:14-16). 침례가 구원에 필수적인 요소라면, 이것은 전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이상한 감사인가! 바울이 침례를 주었다는 사실은 그가 신자의 침례에 관해 가르쳤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가 오직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침례를 주었다는 사실은 그가 침례를 구원받기 위한 절대적인 요소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4) 십자가 위에서 회개한 강도는 침례를 받지 못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눅 23:43).

(5) 가이사라에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믿을 때에(행 10:44) 그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성령을 받았다(롬 8:9 하반기). 성령님을 받은 후, 다시 말해 구원을 받은 후에 그들은 침례를 받았다(47-48). 그러므로 침례는 그들의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아니었다. 그들은 먼저 구원을 받았고 그 후에 침례를 받았다.

(6) 신약성경에서 침례는 영적인 출생이 아니라 항상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

(7) 신약성경에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고 가르치는 약 150여개의 구절들이 있다. 이 구절들은 침례가 구원을 받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는 두 세 개의 구절들에 의해 부정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는 21절 말씀은, 우리가 실제로 받는 물 침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잠기신 그리스도의 침례와 그 안에서 그분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베드로의 편지를 읽던 당시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했던 구약성경의 의식(儀式)들은 일종의 외적인 정결함을 제공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에게 죄에 대하여 깨끗한 양심을 제공하지는 못했다.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침례는 더러움으로부터의 육체적

혹은 의식적인 정결함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물은 몸으로부터 더러운 것을 제하는 효력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선한 양심을 주지는 못한다.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을 통해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만이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우리 각자는 필연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 대답은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침례의 의미 속에 주어져 있는데, 그것은 곧 갈보리에서 죽음에 잠기신 그리스도의 침례와 그러한 주님의 사역을 개인적인 믿음에 의해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죄 문제는 단번에 영원히 해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만족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깨끗한 양심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불가분(不可分)의 관계에 있다. 그 두 요소는 늘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아드님의 구속사역에 대해 온전히 만족하셨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은 다른 이들의 죽음과 다를 바가 없게 될 것이다. 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가 온전히 충족되었다는 절대적인 확신을 우리에게 준다.

찬송가 작가 제임스 텍(James G. Deck)은 이것에 대해 “우리의 양심

은 결코 변할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있다. 저 높은 영광의 보좌 위에 어린 양이 앉아 계시기에!”라고 표현했다.

선한 양심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근거는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에 있다. 우리가 확신을 얻게 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에서 우리를 위해 죽음에 잠기는 침례를 받으셨다.

(2) 우리가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의뢰할 때,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및 부활 안에서 그분과 영적으로 연합된다.

(3)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깨끗한 양심을 얻기를 원하는 우리의 요구가 충족된다.

(4) 물속에서 침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이 경험한 영적인 구원을 보이는 예식을 통해 증거한다. ♠

3:22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본래 계시던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 그분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영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살과 뼈가 있는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산 자로서 지금 그곳에 계신다. 그 몸 안에 그분은 갈보리에서 그분이 받으신 상처 곧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영원한 사랑의 증거를 영원토록 지니고 계신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며 그 자리는 다음과 같은 속성을 나타내는 자리이다.

능력: 일반적으로 오른손은 왼손보다 강하며 그것은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마 26:64).

영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올리우셨다”(행 2:33, 5:31)

안식: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그분은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히 1:3, 8:1, 10:12). 이 안식은 만족감과 충족감을 의미하는 안식이며 단순히 피곤함을 극복한 후에 누리는 심이 아니다.

중보: 바울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仲保)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롬 8:34).

뛰어남: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 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 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엡 1:20-21).

통치권: 히브리서 1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드님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라고 말씀하셨다. 통치권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22절)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아드님께 있다고 강조되어 있다.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라는 표현은 틀림없이 하늘에 있는 모든 지위의 존재들을 망라하는 표현이다. 그들은 모두 부활하시고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의 종들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종의 신분으로서 선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경험을 하셨다. 사람들은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기 전에 노아를 통해 간접적으로 하신 증거와 인자(人子)로서 세상에 직접 오셔서 하신 증거들을 거절했다. 그분은 갈보리에서 죽음의 어두운 물결 속에서 침례를 받으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하늘의 보좌 우편 자리에 앉게 하심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생각할 때, 고난은 반드시 영광보다 먼저 와야 했다.

이것은 베드로의 편지를 처음 읽던 성도들이나 오늘날의 우리들

이 배워야 할 교훈이다.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과 반대에 직면할 때 우리는 당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받으셨던 대우보다 우리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할 때 그분과 더불어 영광을 누릴 것이라는 약속을 의지하여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롬 8:17). 뿐만 아니라 현재의 고난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과는 족히 비교될 수가 없다(롬 8:18). 고난은 가볍고 잠시 받는 것이지만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하다(고후 4:17).

4:1 이 부분과 앞의 문맥(3:18)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신 모범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주님께서는 의를 위해 악인의 손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그분을 따르는 자들 역시 같은 마음으로 자신들을 무장해야 한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 받기를 각오해야 하며, 핍박을 인내해야 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육체, 즉 몸의 고난을 경험한 자는 죄를 그친 상태에 있다. 신자는 죄와 고난의 두 가지 가능성에 늘 직면한다. 한편으로는 주위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죄악의 낙을 누리며 따라서 핍박을 모면하고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능욕을 지고 악한 자의 손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순결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순교자 제임스 거쓰리(James Guthrie)는 교수형을 당하기 직전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죄에 빠지기 전에, 나처럼 이 고난의 잔을 마시기로 맹세하십시오. 죄와 고난이 언제나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으며 난 고난을 당하는 편을 선택했다오”라고 외쳤다.

신자가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을 당하기를 선택하고 죄악을 삶을 살아가기를 포기할 때, 그는 죄를 그친 것이다. 이것은 신자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죄의 권세가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죄를 범하기를 거절함으로써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뜻에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

4:2 신자는 세상에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 의 뜻에 의한 것만을 제외하고는 사람의 정욕에 의해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는 불신자들처럼 죄를 범하기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 받기를 더 좋아한다. 또한 주님을 부인하기보다 차라리 죽음을 선택한다. 육체의 남은 때란 이 세상에서의 남은 삶을 의미한다. 신자는 그 기간을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택한다.

4:3 베드로는 구원받기 전에 이방 세상의 온갖 부도덕한 삶을 즐기며 생활했던 사람들에게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한 종류의 삶은 그때만으로 족하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은 새 피조물이 되었으며, 과거의 죄는 마땅히 버려야 한다.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분께 바쳐져야 한다.

음란, 술 취함 및 우상 숭배 등은 여전히 이방 세상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죄의 목록들이다.

음란-무절제한 탐닉, 특히 성적인 부도덕을 의미한다.

정욕-불법적인 모든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의미하지만 특히 성적인 죄를 언급하고 있다.

술 취함-유혹을 물리치는 의지력을 약화시키는 중독성 음료에

자신을 방치하는 것이다. 술 취함, 부도덕한 행위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방탕-자유분방하고 무절제하고 먹고 마시며 흥청거림.

연락-퇴폐적이고 한바탕의 소동으로 이어지는 술잔치.

무법한 우상 숭배-우상들을 섬기는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는 모든 부도덕과 관련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대상을 닮아간다. 참된 하나님을 버린 후로 모든 인간의 도덕적 기준은 자연히 하락되었으며, 이러한 도덕적 하락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온갖 죄악의 쾌락에 탐닉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들이 죄와 타락을 가져오는 이유이다.

4:4 이 구절은 타락한 삶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일반적인 경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들의 옛 동료들은 그들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종교적인 광신자라고 비난한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세속적인 파티나 난잡한 행동에 참여하지 않을 때 그들은 그것을 정신이상의 한 형태라고 간주한다. 신자들의 정결하고 도덕적인 삶 자체가 죄인들을 정죄하기에 그들이 그러한 변화를 비난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4:5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비난하지만 그들은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 직고(直告)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분명히 불신자들에게 대해 말하고 있다. 불신자들 가운데 산 자들에 대한 심판은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질 것이며,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 기간의 마지막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들의 심판은 하나님
의 자녀들의 의(義)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다.

4:6 “이를 위하여(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를 입증하기 위하여) 죽은 자들에
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우리는 또다시 난해한 구절을 만나게
된다. 이 구절이 사후(死後)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음을 의미
하는 것일까?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리고 여기에서 의미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우리는 이 구절이 살아있는 동안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은 사람
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고 이해한다. 진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태도로 말미암아 그들은 악인의 손에서 고난을 겪었으며, 어떤 경
우에는 순교를 당하기도 했다. 이러한 신자들은 비록 육체 가운데
있을 때 심판을 받고 정죄를 당했지만 하나님에 의해 옳다 인정함
을 받았다. 그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 영생을 즐기고 있다.

그들은 살아 있는 동안 복음을 들었지만 지금은 육체로는 죽은
상태에 있다. 사람들은 그들을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으며, 그들의 영은 지금 하늘에 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신자들에게 사람들의 비난과 하나님의 인
정이라는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온다. 반즈(Barnes)는 이것에 대해 다
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려는 목적으로 인해 성도들이 불신자
들에 의해 적절치 못한 방법으로 정죄를 받기도 하고 죽음에 처해
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더 높고 고귀한 본성인 영(the spirit)이 하나님
과 함께 거하기 위함이다.”²⁵⁾

25) (4:6) Albert Barnes, *Notes on the New Testament: James, Peter, John and
Jude*, p. 191.

3. 신자의 봉사과 고난(4:7-5:14)

1) 마지막 때를 위한 긴급한 명령(4:7-11)

4:7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언급을 서두로 일련의 권고(勸告)가 소개되고 있다. 이것은, (1) 예루살렘의 멸망, (2) 휴거, (3) 통치를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 혹은 (4) 천년왕국의 마지막에 있을 땅과 하늘의 사라짐 등을 의미하는 표현일 수가 있다. 우리는 이 표현이 이것들 중에서 맨 마지막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권고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핍박의 시기에 주어진 권고이며, 신자의 기도생활이 두려움으로 인한 마음의 방황과 긴장감에 의해 야기되는 감정적인 불안정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주변의 요동하는 환경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4:8 신자는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에 마음을 써야 하며(8,9절) 믿음의 가족의 온 지체들에 대해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랑은 다른 신자들의 실수나 단점을 감싸주며 공개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반목과 불화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반면에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잠 10:12)라는 말씀은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교리적(敎理的)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범죄와 그 범죄에 대한 형벌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만 제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죄를 너그럽게 봐주기 위해서나 혹은 교회가 범죄자를 징계할 책임을 회피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은 진실한 사랑이란 다른 신자의 삶 속에 있는 사소한 실패나 단점들에 주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4:9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접대를 베푸는 것이다. 이러한 권면은 특히 음식에 핍절하고, 그리스도인을 숨겨주는 사람들이 체포되거나 구금되는 핍박의 시기에 필요한 권면이다.

접대란 크나큰 특권이다. 접대를 하면서 어떤 성도들은 부지중에 천사들을 맞이한 경우도 있다(히 13:2).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여준 모든 친절은 주님 자신에게 한 것으로 간주된다(마 25:40). 아무리 보잘것없게 보이는 친절이라 할지라도, 다시 말해 주님의 이름으로 건네 준 냉수 한 그릇조차도 놀라운 보상으로 그러한 친절을 베푼 사람에게 돌아올 것이다(마 10:40). 선지자를 선지자로서 영접한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인데(마 10:41) 이것은 유대인의 관점으로 생각할 때 최고의 상급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종들에게 베푼 접대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정과 자녀에게 임한 축복에 대해 증거한다.

예수님께서서는 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접대하라고 가르치셨

다(눅 14:12). 이것은 우리가 친척들이나 동료들, 혹은 대접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우리를 다시 초대할지도 모르는 이웃들도 무지 접대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단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친절을 베푸는 것이 되어야 한다. 아직도 세상의 많은 지역이 복음화 되지 않은 채 남아있음에도 신자들이 자기들만의 울타리를 만들고 계속해서 연회나 파티 주위를 맴도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4:10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어떤 특별한 기능을 담당하도록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소유하고 있다(고전 12:4-11, 29-31). 이 은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청지기직분으로서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우리는 그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한다.

여기에 언급된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이 합당치 않은 인간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총을 의미하며, ‘각양’(Manifold)이란 단어는 문자 그대로 ‘다양한’(multi-colored) 또는 ‘다채로운’(variegated)의 뜻이다. 필립스(Philips)는 이것을 “놀라운 다양성의”(magnificently varied)라는 의미로 번역했다.

4:11 만일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면, 그는 반드시 자기의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특정한 상황에서 자기로 하여금 말하도록 허락하신 것을 전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같이 하고’라는 표현의 의미이다. 단순히 성경의 내용을 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는 또한 자신이 말씀을 전하는 그 상황에 청중들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의도된 특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어떤 봉사를 하는 사람이든지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식하며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 그럴 때에 영광은 마땅히 그 영광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께 돌려지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봉사의 영역에서 아무리 탁월한 은사를 소유한 자라 할지라도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 그 은사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 얻은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그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그가 받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모든 봉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

베드로가 지적한 대로, 이 영광은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드러지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큰 일을 이루셨기 때문이다. 권능과 영광은 복되신 구주께 영원무궁토록 속해 있다. 아멘!

2) 고난에 관한 권면과 설명(4:12-19)

4:12 4장의 나머지 부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에 관한 권면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고난”이라는 단어와 그 파생어는 이 편지에서 21번이나 사용되고 있다.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태도는 핍박을 이상한 일이

나 비정상적인 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것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경험으로 간주하라고 말한다. 우리는 우리의 구주께서 세상으로부터 받은 대우보다 더 나은 대우를 기대할 권리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딤후 3:12). 특히 그리스도를 위해 흔들림이 없는 태도를 견지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더욱 사실이다. 사단은 유명무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의 힘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는 음부의 세력을 향해 용감하게 대항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 자기의 힘을 집중한다.

4:13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특권은 우리로 하여금 큰 즐거움을 맛보게 한다. 물론 우리는 죄를 사하는 그분의 고난을 함께 나눌 수는 없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인간으로서 당하신 고난에는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우리는 그분이 경험하신 배척과 능욕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며, 불신자들이 그분을 핍박했던 것과 같이 여전히 우리를 핍박하는 상처와 그 흔적을 우리 몸에 받을 수 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그가 경험할 기쁨과 영예가 얼마나 크겠는가! 구주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세상에 다시 임하실 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실 것이다. 지금 그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때에는 그분과 더불어 존귀케 될 것이다.

4:14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자로 여김 받은 것에 대해 기뻐했다(행 5:41). 그리스도를 위하여 욕을 받는 특권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고난은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시다는 증거이다. 구약시대의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의 구름이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오늘날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 위에 계신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모든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분은 또한 그리스도의 대의(大義)를 위해 전적으로 자신을 드린 사람들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머물러 계신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이 자신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안다. 주 예수님께서는 핍박자들에 의해 훼방을 받으시지만 또한 고난 받는 성도들에 의해 영광을 얻으신다.²⁶⁾

4:15 그리스도인은 불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된다. 그는 살인, 도적질, 악행, 혹은 타인의 일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있어서 훼방이 될 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

4:16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에는 부끄러움이 없다. F. B 마이어는 “이 고난이 직업이나 명예, 가정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든, 혹은 부모나 자녀, 친구들에게 버림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든, 또

26) (4:14) NU에는 14절의 마지막 문장이 생략되어 있다. “rests upon you”과 “glorified”라는 표현이 모두 헬라어의 같은 문자(*etai*)로 끝나기 때문에 실수에 의해 이것이 생략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기술적인 면에서 “homoeoteleuton”(similar ending)에 의한 생략이라고 일컬어진다.

는 미움과 질시의 대상이 되어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
든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²⁷⁾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받게 되는 이 모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다. G. 캠벨 몰간(Campbell
Morgan)은 이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 이름의 영광 이상이다. 그것은 하
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대로 살아가
는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
는 이름을 가진다는 것은 책임을 수반하는 것이며, 이 책임은 크고
영광스러운 것이면서도 대단히 막중한 것이다.”²⁸⁾

4:17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난과
악인들이 영원히 경험하게 될 고통을 대조하고 있다. “하나님의 집
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표현 속에 언급된 “때”(the time)
란 오순절 날 탄생하여 휴거 때까지 지상에서 존재하게 될 교회의
경륜시대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의미한다. 현재 교회
는 불신 세상으로부터 받는 시험을 통과하고 있다. 신자들은 주님
께서 세상에 계실 때 경험하셨던 것처럼 고난을 경험하는 중에 있
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면서도 고
난을 당하고 있다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경건치 않은 모든 행
동에 대해 영원 속에서 어떠한 고난을 당할 것인가?

27) (4:16) F. B. Meyer, *Tried by Fire*, p. 27.

28) (4:16) G. Campbell Morgan, *Searchlights from the Word*, p. 366.

4:18 이 말씀 속에는 위와 동일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잠언 11장 31절은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라고 말씀하고 있다.

의인은 간신히, 그리고 어렵게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의인의 구원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값을 지불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다. 반면에,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눅 13:24)는 말씀을 읽을 수 있다. 신자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라는 가르침을 받고 있다. 그리스도인을 에워싸는 수많은 위험들과 유혹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를 보존해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회개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지 아니한 채 자신들의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진리를 생생하게 설명해 주는 한 가지 일화가 F. B. 마이어(Mayer)가 쓴 다음과 같은 글 가운데 잘 나타나 있다.

“거룩한 삶을 살던 한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은 자신의 임종시에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여 구원받지 않은 자기 아들들로 하여금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기쁨과 능력을 주는 복음의 분명한 능력에 의해 확신과 도전을 받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달리 깊은 후회에 사로잡힌 그의 영혼에는 침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심령이 눌렸으며, 원수는 그를 극도로 괴롭힐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하지만 거룩한 삶을 살았던 아버지가 그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아들들에게 가장 지울 수 없는 인상을 심어준 요소가 되었다. 아들들

중 장남은 ‘우리 모두는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었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영혼이 깊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지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 영혼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라고 말했다.”²⁹⁾

4:19 베드로는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함으로써 고난을 자처한다. 때로 순교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진 사람들은 불명예스러운 결과에 도달하는 어리석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시험한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항상 의를 행하여야 하며, 자기 영혼을 신실하신 주님께 의탁해야 한다.

베드로가 여기서 주님을 구주나 대제사장 혹은 목자로 소개하지 않고 창조주로 소개하는 것은 다소 의외의 느낌을 준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중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즉 첫 번째 창조와 아드님을 통한 새 창조를 통해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엡 4:24; 골 3:10).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보호의 대상이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에게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합당한 자세이다.

3) 권면과 안부(5:1-14)

5:1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장은 권면과 인사를 포함하고 있다. 서두(序頭)는 장로들을 위한 말씀으로 시작한다. 그가 장로들에게 이와

²⁹⁾ (4:18) Meyer, *Tried*, pp. 180,181.

같은 권면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로서 그는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함께 장로된 자요”(fellow elder). 이것은 교회의 최고 수장(首將)임을 자처하여 부르는 이름인 ‘교황’(敎皇; supreme pontiff)이라는 명칭과 얼마나 대조가 되는 표현인가! 베드로는 “증인”(a witness)으로서 목자가 양들을 위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으며, 선한 목자에 대한 그러한 사랑의 기억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낮추고 신실한 작은 목자로서 양들을 돌보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그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a partaker)로서 오래지 않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분과 함께 영광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고전 3:4). 그때까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요 21:15-17)는 주님의 위임(委任)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5:2 장로들은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님에 의해 자격을 부여받은 자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소유한 자여야 한다. 신약성경은 한 명의 장로가 하나의 교회나 혹은 여러 교회들을 돌보는 형태가 아니라 한 교회 안에 두 명 혹은 그 이상의 장로들이 존재하는 복수(複數)장로 형태를 전제로 하고 있다(빌 1:1). 장로들의 자격에 관해서는 디모데전서 3장 1-7절과 디도서 1장 6-9절을 참조하라. 신약성경이 문서형식으로 완성되기 이전의 초대교회에서는 장로들이 사도들과 그들의 대표자들에 의해 임명되었지만 충분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는 교회 안에서 누가 장로의 자격을 가진 사람인지가 자연히 드러나게 되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별해 보고 장로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란 표현 속에서 양 무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의미하며, 장로들은 작은 목자들로서 양 무리를 섬길 임무를 부여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는 일은 부득이함으로 해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해야 한다.³⁰⁾ 양 무리를 감독하는 일은 투표나 임명에 의해 억지로 감당해야 하는 일이 아니다. 성령님께서서는 그분 자신이 선택한 사람에게 그 일에 대한 마음의 부담과 능력을 공급하시며, 장로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반응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라는 말씀을 읽을 수 있다.

“더러운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재정적인 보상이 장로가 되려는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장로가 지역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디모데전서 5장 17-18절 말씀은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전임 장로들”(full-time elders)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돈을 목적으로 일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역(使役)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5:3 베드로의 권면의 세 번째 부분은 “말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는 것이다. 장로들은 본(本)이 되어야지 독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양들을 뒤에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들 앞에 서서 걸어가야 하며, 또한 양들이 자기의 소유인양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권위

30) (5:2) NU에는 “willingly” 대신 “according to God”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KJV와 NKJV(found in TR and majority)의 전통적인 번역은 억지로(by compulsion)라는 의미와 대조되는 면에서 볼 때 이 문맥에 훨씬 더 적합하다.

주의의 핵심을 깨뜨리는 교훈이다.

기독교계의 많은 폐해들은 2,3절에 나타난 세 가지 교훈을 단순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교훈은 부득이함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막아줄 것이며, 두 번째 교훈은 상업성을 배제시켜 줄 것이며, 세 번째 교훈은 교회 안에 있는 관료주의적인 요소를 그치게 해줄 것이다.

5:4 장로의 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육체적, 정서적인 힘을 소비해야 하는 일이다. 그는 동정하며, 권면하고, 꾸짖고, 경책하며, 가르치고, 훈련하며, 경고해야 한다. 때때로 그것은 감사(感謝)치 못하는 일일 수가 있다. 하지만 신실한 장로에게는 특별한 보상이 약속되어 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그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는 성경에 약속된 여러 가지 면류관, 즉 기쁨의 면류관(살전 2:19), 의의 면류관(딤후 4:8), 생명의 면류관(약 1:2)에 대해 너무나 많이 모르고 있다. 우리는 이 면류관들이 우리가 구세주의 발 앞에 던질 수 있는 문자적인 면류관들인지, 혹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때 지니게 될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일면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그 면류관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한 눈물과 시련, 그리고 고난에 대한 광범위한 보상이라는 점만은 분명히 알 수 있다.

5:5-6 연령의 면에 있어서나 믿음의 면에 있어서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순복해야 한다. 왜냐하면 장로들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고 경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분의 양떼들을 돌보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자들이다.

모든 신자들은 겸손으로 옷 입어야 한다. 겸손은 모든 신자들이 갖추어야 할 위대한 덕목으로서 모팻(Moffatt)은 이것에 대해 “겸손의 앞치마를 두르라”고 표현했다. 앞치마를 두른다는 것은 종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인도의 한 선교사는 “내가 만일 영적인 성장에 꼭 필요한 두 가지 단어를 고른다면,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라는 말과 ‘미안합니다’라는 말일 것이다. 이 두 표현은 모두 깊은 겸손의 증거들이다”라고 말했다. 모든 지체들이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한 번 생각해 보라. 그들은 피차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며, 비천한 일들을 하는데 있어서 각기 더 열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교회를 상상 속에서 그럴 필요는 없다. 이러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겸손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베드로는 잠언 3장 34절의 헬라어 번역을 인용하고 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는 한없이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에 대해서는 대적하시며 그의 교만을 깨뜨리기로 작정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라!

5:7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리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분께 모든 염려를 맡겨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다시 한 번 베드로는 구약성경의 헬라어 번역(시 56:22)으로부터 인용하고 있다.

J. 시들로우 박스터(Sidlow Baxter)는 여기에는 염려(care)의 두 가지 종류가 나타나 있다고 지적했다.

“너희 염려(care)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는 표현 속에는 ‘불안과 걱정이 담긴 염려’(anxious care)가 나타나 있으며,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care)하심이니라’라는 표현 속에는 ‘애정이 담긴 염려’(affectionate care)가 나타나 있다. 불안과 걱정이 담긴 우리의 모든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신실하신 구세주의 우리에게 대한 애정이 담긴 염려 때문이다.”³¹⁾

염려는 불필요한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그리고 넉넉히 대신 짐을 져주시고자 하실 때 우리 스스로 그 짐을 떠안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염려는 무익한 것이다. 그것은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 염려는 범죄이다. 오래 전에 어떤 설교자는 “염려는 죄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부인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무지하다고 말하는 것과 일반이다. 염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일이 무슨 일이든지 그 문제로부터 나를 구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말하는 것과 일반이다”라고 말했다.

5:8 우리는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대신 근신하며 깨어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능력 있는 대적자, 곧 마귀가 있기 때문

31) (5:7) J. Sidlow Baxter, *Awake, My Heart*, p. 294. KJV의 아름다운 어휘는 그리스어 원문에는 나와 있지 않다. 원문에는 “cares”라는 두 단어가 서로 관련이 없다. 이 단어들은 저명한 성경번역가이자 종교재판소의 순교자인 윌리엄 틴데일(William Tyndale, 1484-1536)의 번역으로서 1526년에 발행된 영어신약성경(*English NT*)에 처음 등장했다. 그의 성경에는 “cast all youre care to hym: for he careth for you”라고 번역되어 있다.

이다. 근신한다는 것은 삶에 대해 진실한 태도를 가지고 방심하지 아니하며, 사단의 계략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을 의미한다.

펜티코스트(Pentecost)는 이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절히 표현했다.

“세상의 본질과 성격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의 대적 마귀의 목적과 공격에 대해 무지만 사람은 삶에 대해 진지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신 것처럼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근신과 절제의 삶으로 특징지어지는 전혀 다른 태도와 전혀 다른 전망이 있다.”³²⁾

악한 자의 모든 공격에 올바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경계와 준비가 또한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그 대적이 누군가를 삼키고자 두루 다니는 사자로 묘사되어 있다. 마귀는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다. 때때로 그는 사람들을 유혹하여 도덕적인 부패에 빠지게 하는 뱀처럼 다가온다. 또 한 때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시도한다. 여기에서 그는 울부짖는 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함으로써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다.

5:9 우리는 그의 계략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에게 대항해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를 대적할 수는 없지만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를 대항할 수 있다.

사단의 계략 중의 하나는 우리의 고난이 우리만이 경험하는 것이

32) (5:8) J. Dwight Pentecost, *Your Adversary the Devil*, p. 94.

라는 생각을 넣어줌으로써 우리를 낙심에 빠뜨리는 것이다. 우리는 불같은 시련을 통과할 때, 우리를 제외한 어떤 사람도 우리와 같은 혹독한 시련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절망 감에 사로잡히기 쉽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이와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5:10 핍박 중에 있을 때 진정한 승리는 모든 일 가운데 그분 자신의 놀라운 목적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시련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그분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명칭은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다루심이 우리의 행위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의 마음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아무리 혹독한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만큼의 고통을 겪지는 않는다는 사실에 늘 감사할 수 있다.

마음을 견고케 해주는 두 번째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고난의 삶 저 너머에 구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날과 그분과 동일한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날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우리가 진토(塵土)로부터 진짐을 받아 그분의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라!

세 번째 위로는, 고난은 잠시 뿐이라는 사실이다.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때 삶의 고난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마지막 격려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

며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형성시켜 나가신다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될 날을 위해 우리를 훈련하신다. 10절에는 이러한 훈련과정의 네 가지 측면이 서술되어 있다.

온전케 하심-시련은 신자들을 적합한 자로 만들어 준다. 시련은 그의 인격에 필요한 요소를 공급해 주어 그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해준다.

굳게 하심-시련은 그리스도인을 더욱 안정되게, 선한 간증을 유지하게, 그리고 압박감을 견디게 해준다. 여기에 사용된 ‘굳게 하심’이라는 단어는 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눅 22:32)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단어와 똑같은 단어이다.

강하게 하심-핍박은 신자들을 낙심케 만들고 연약하게 만들기 위해 사단에 의해 의도된 것이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것은 신자들을 강하게 만들어 핍박을 견디게 해준다.

터를 견고케 하심-이 동사(動詞)는 원칙적으로 “기초”(foundation)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들이 그분 자신의 아드님과 말씀 안에 있는 안전한 장소에 굳게 심기어지기를 원하신다. 레이시(Lacey)는 이것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필연적으로 경험하는 고난은 신자의 인격 속에 언제나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것은 믿음을 정련(精練)하고 인격을 순화시켜 주며, 하나님의 사람을 굳게 하고 강하게 하며 온전케 해준다.”³³⁾

5:11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우리의 선(善)을 위하여 핍박과

33) (5:10) Harry Lacey, *God and the Nations*, p. 92.

고난을 다스리시는 기이한 방법을 생각할 때 베드로가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오직 것처럼 놀라우신 분에게만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합당하며, 모든 능력과 주권이 그분 안에 있다.

5:12 실루아노(축약된 이름의 형태로서 ‘실라’로 불리는 사람과 동일 인물일 것이다)는 베드로가 이 편지를 대필(代筆)하게 한 신실한 형제였으며, 아마도 이 편지를 전해준 사자(使者)였을 것이다. 이 편지를 쓴 베드로의 목적은 흩어져 있는 신자들에게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며 그가 일컬은 바대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확신시켜주기 위함이었다. 극심한 핍박 중에 있을 때 아마 그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가 옳은 것인지 의심하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했으며 그 안에 견고히 서 있어야만 했다.

5:13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누구이며 또 무엇을 의미하기 위해 쓰여졌는지 확실히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것에 관한 몇 가지 주요 해석은 다음과 같다.

(1) “형제”(brother-hood, 2:17, 5:9). 헬라어에서 이 추상명사는 대개 여성을 의미한다. (2) 베드로의 아내. (3) 어떤 지역에서 명망을 얻었던 여인.

또한 “바벨론”이 어느 곳을 의미하는지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 추측컨대, 바벨론은, (1) 유브라테 강 유역에 있던 유명한 도시(거기에는 많은 유대인이 살고 있었다). (2) 나일 강 유역에 있었으며, 바벨론과 동일한 이름으로 불리던 군대 주둔지. (3) 로마(계시록에서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일반적으로 로마를 일컫는 말로 이해된다; 계 17:1-9, 18:10,21).

세 번째 의문은 “내 아들 마가”라는 이름에 대한 것이다. 이 표현이 베드로 자신의 육신적인 아들을 일컫는 말일까? 아니면 복음서 기자(記者)인 마가 요한을 일컫는 말일까? 추측대로라면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 만일 이러한 추측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베드로가 마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가 베드로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었는지, 아니면 아들이라는 표현이 단지 장모와 젊은 그리스도인 형제간의 영적인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베드로가 여기서 사용한 아들³⁴⁾이라는 단어는 바울이 자기 자신과 디모테 및 디도와 영적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아니며, 마가의 복음서의 매우 생생한 묘사들이 목격자인 베드로의 설명에 근거한 것이라는 고대의 전승(傳承)과 일치한다.

5:14 베드로는 문안에 대한 마지막 부탁과 축도로 편지를 마무리한다. 마지막 부탁은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는 것이다. 문화와 시대에 따라 표현의 방식은 다를지라도 형제의 사랑을 나타내야 할 의무는 교회가 실천해야 할 변함없는 명령이다.

축도(祝禱)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 지어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다. 이것은 폭풍우에 시달리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시련을 견디는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인사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동하는 세상의 한 가운데서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 고통을 참아내는 자신의 피로

34) (5:13) The ordinary Greek word huios; Paul uses teknon, literally “born one” (Scots bairn) or child.

산 양떼들에게 조용한 목소리로 평강을 속삭이신다.

“평화, 완전한 평화,

사망이 우리와 우리의 모든 것을

어찌 삼킬 수 있으랴!

예수님은 사망과 그 모든 능력을 정복하셨도다.”

참고 문헌

Barbieri, Louis A. First and Second Peter. Chicago: Moody Press, 1975.

Bigg, Charles.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Epistles of St. Peter and St. Jude (ICC). Edinburgh: T. & T. Clark, 1901.

Grant, F. W. "I and II Peter," The Numerical Bible, vol. 7. New York: Loizeaux Bros., 1903.

Ironside, H. A. Notes on James and Peter. New York: Loizeaux Brothers, 1947.

Jowett, J. H. The Redeemed Family of God. London: Hodder & Stoughton, n.d.

Lenski, R. C. H. The Interpretation of the Epistles of St. Peter, St. John G. St. Jude. Columbus: Wartburg Press, 1945.

Lincoln, William. Lectures on the First and Second Epistles of Peter. Kilmarnock: John Ritchie Publ., n.d.

Meyer, E. B. Tried by Fire. Fort Washington PA: Christian Literature Crusade, 1983.

Stibbs, Alan M. The First Epistle General of Peter.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59.

Thomas, W. H. Griffith. The Apostle Peter: His Life and Wri-

tings.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1984.

Westwood, Tom. The Epistles of Peter. Glendale, California:
The Bible Treasury Hour, Inc., 1953.

Wolston, W. T. P. Simon Peter His Life and Letters. London:
James Nisbet & Co., 1913.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서문

“베드로후서는 그리스도로 호흡하게 하며 그분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날을 기다린다”-E. G. 함리호오슨.

1. 정경 안에서의 독특한 위치

위에 인용된 글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글이 오늘날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베드로가 본 서신서의 기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인격과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 본 서신서의 기자가 베드로임을 시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흔적뿐이다”¹⁾라고 말했다. 흥미 있는 사실은 이 두 가지 언급이 베드로후서의 특징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어두운 배도(背道)의 그림자가 점점 짙게 드리워지는 가운데 본 서신서의 기자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다. 이 짧은 편지는 베드로의 개인적인 삶과 인격을 반영함과 아울러 본문의 내용을 주의 깊게 읽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어 준다.

1) (서문) E. G. Homrighausen, “The Second Epistle of Peter,” *Exposition, IB*, XII, 1957, p. 166.

2. 기자

보수주의의 선두에 서 있는 미국의 한 신약교수는 최근에, “베드로후서는 구약성경의 다니엘서와 이사야서처럼 성경적인 비평에 있어서 오류가 없는 정설(正設)에 관해 영적인 어린아이와 어른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말했다. 현대의 주석가들은 흔히 베드로후서의 기자가 베드로라는 사실을 반증해 보려는 시도조차 않는다. 그들은 베드로가 이 편지의 기자가 아니라는 이론이 재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증명된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베드로후서를 그 진정성(眞正性)을 인정하는 면에서 신약성경의 다른 어떤 책들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를 갖춘 책이라고 인정하는 데는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 있지만 그 문제들이 진정성을 의심할 만큼 강력한 것은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외적인 증거 : 폴리카프(Polycarp), 이그나티우스(Ignatius), 그리고 이레니우스(Irenaeus)가 베드로후서를 인용한 증거들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가르친 대로 유다서가 베드로후서보다 나중에 쓰여진 책이라면, 우리는 유다서(유다서의 서문 참조)에서 베드로후서에 대한 1세기의 증거를 얻은 셈이다. 독일의 학자 자한(Zahan)은 이러한 증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 다음으로 베드로후서를 인용한 첫 번째 사람은 오리겐(Origen)이며, 이어서 이오클레시안 황제의 치하(治下)에서 순교당한 올림푸스의 메서디우스(Methodius)와 가이사랴의 휴밀리언(Fumilian)이 있다. 유세비우스(Eusebius)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후서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받아들였지만 정작 그는 베드로후서에 대해 의

심을 가지고 있었다.

무라토리안 정경(Muratorian Canon)에는 베드로후서가 들어있지 않다. 하지만 그 정경 안에는 베드로전서 역시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정경이 단편적인 문서들의 모음이라는 점이다. 제롬(Jerome)은 베드로후서의 진정성에 관한 의문들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아타나시우스(Athanasius)와 어거스틴(Augustine)과 같은 초대교회의 교부(敎父)들과 더불어 베드로후서를 성경 가운데 일부분으로 인정했다. 모든 교회들은 종교개혁 때까지는 이런 점에 있어서 일치했다.

베드로후서가 성경의 다른 책들보다 외적인 증거의 측면에서 훨씬 더 많은 의심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이 편지가 길이에 있어서 짧으며, 많은 사본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독특한 많은 자료를 내포(內包)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후서가 독특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그 진정성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부분이다. 이단(異端)들에 의해 기록된 책들은 항상 모순되는 교리를 추가하고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교묘하게 사도들이 전하는 교리를 보충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점이 역사의 초기에 베드로후서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당시에는 “베드로의 묵시록”(The Apocalypse of Peter)과 같은 “위서”(僞書)들이 존재했는데, 이러한 거짓 문서들은 베드로의 이름이 지닌 권위를 이용하여 그노시스(Gnostic)이단 교리를 전파하려는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후서가 어떤 사람들에게 의해 진정성에 있어서 의심을 받는 몇몇 책들 가운데 하나이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교회도 이 책을 거짓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내적인 증거 : 베드로가 이 편지의 기자임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사이의 문체의 차이점을 강조한다. 제롬은 이러한 차이를 베드로가 서로 다른 필기자(筆記者)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이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신약성경의 다른 책들과 비교할 때 발견할 수 있는 차이점만큼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다. 베드로전서와 후서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와 그의 생애에 일어난 여러 사건들과 대단히 일치하는 다채롭고 폭넓은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베드로의 과거의 경험에 대한 언급은 이 편지의 기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를 지지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다. 베드로가 기자임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 편지에 베드로에 대한 암시가 적게 실려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베드로가 기자임을 믿는 사람들은 위조범이 이 편지를 기록했다고 보기에는 베드로에 대한 언급이 너무 구체적이고 많이 나와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이 편지가 위조된 문서임이 사실이라면, 이와 같은 편지를 위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베드로후서의 진정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에 대해 많은 그럴듯한 이론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러한 이론들 중에 만족할 만한 대답을 주는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연구해 보면, 베드로가 이 편지의 참된 기자임을 증거하는 내적인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다.

1장 3절에서 기자는 신자를 주님의 영광과 덕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표현한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누가복음 5장 8절을 기

억할 수 있으며, 거기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부르짖었다.

이 편지의 기자는 특별히 독자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기 위해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당부를 하고 있다(1:5-10). 이것을 통해 우리는 베드로의 실족과 그것으로 인해 그가 경험한 마음의 고통을 즉시 떠올릴 수 있다.

1장 14절은 특히 주목할 만한 구절로서 이 책의 기자는 주님께로부터 자기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이것은 요한복음 21장 18-19절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며, 거기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가 인생의 말년에 어떻게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 미리 예언하셨다.

1장 13-15절에서 “장막”과 “벗어날 것”이라는 단어는 모두 누가가 주님의 변화되심을 묘사할 때 사용한 낱말이다(눅 9:31-33).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의 하나는 1장 16-18절에서 주님의 변화되심에 대해 기록한 말씀이다. 이 편지의 기자는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었다. 이것은 그가 베드로, 야고보 및 요한(마 17:1) 중의 한 명이었던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 편지의 기자가 야고보나 요한이 아닌 베드로 자신이라는 자체적인 증거이다(1:1).

2장 14,18절에서 사용된 “유혹하여”(enticing, allure)라는 단어는 유혹하여 사로잡는 것을 의미하는 텔리아고(*deleago*)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이다. 그런데 이 단어는 어부들이 사용하던 말로서 특히 어부라는 직업을 가진 베드로가 사용했다고 보기에 가장 적절한 단어이다.

3장 1절에서 기자는 첫 번째 편지에 대해 언급하는데, 이것은 아

마 베드로전서를 의미하는 표현일 것이다. 그는 또한 3장 15절에서 아주 개인적인 용어로 바울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함께 사도된 자가 사용할 수 있는 말일 것이다.

베드로의 경험과 관련된 마지막 언급은 3장 17절에서 발견할 수 있다. “굳센데”라는 단어는 “강하게 하다”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으며, 주 예수께서는 이 단어를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사용하셨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또한 이 단어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과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목회서신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배도자들에 대한 베드로의 통렬한 책망이 사도의 삶과 기록의 참된 산물인 베드로후서에 대해 오늘날 많은 반대를 가져온 이유라고 생각한다.

이 편지를 연구해 가노라면, 우리는 이 편지와 사도 베드로를 연상시켜 주는 다른 내적인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편지를 순수한 마음으로 묵상함으로써 주님께서 이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발견하고 순종하는 일이다.

3. 기록 시기

베드로후서가 기록된 시기는 이 편지의 진정성의 여부에 달려 있다. 베드로후서가 위조된 문서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만들어진 시기가 2세기쯤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교회에서 베드로후서를 정경(政經)으로 인정하는 것이 참으로 옳은 결정이었다고 믿기에, 역사적인 면으로나 영적인 면으로 볼 때 베드로후서가 기록된 시기를 베드로의 순교(AD 67년 혹은 68년) 직전, 즉 66년이나 67년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4. 배경 및 주제

사도의 편지의 구성(構成)을 살펴볼 때, 예언의 말씀(1:19-21)과 자유주의(2장)라는 서로 대립적인 관계에 놓여있다는 두 가지 요소가 명확하게 나타난다. 저 먼 지평선 너머로 베드로는 이미 느슨하고 방종한 생활방식을 가져올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 거짓 교사들의 출현을 예상하고 있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조롱한다(3:1-7).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이 유다의 편지에는 이미 교회 안에 침입해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4절). 기독교계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더 이상 고대하지 않고 세상에 뿌리를 박고 살고 있을 때(콘스탄틴과 그 이후의 로마 황제 때에), 교회의 도덕적 상태는 빠른 속도로 타락의 길을 치닫고 있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다. 20세기를 목전에 두고 예언의 진리에 관심이 점점 식어지고, 교회 안에 영적으로 나태한 삶이 만연해 가는 현상들은 베드로가 모든 교회시대에 너무나 합당한 진리를 기록하도록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증거해준다.

5. 개요

1. 인사(1:1-2)
2. 그리스도인의 강건한 성품의 계발에 대한 권고(1:3-21)
3. 거짓 교사들의 출현에 대한 예언(2장)
4. 기롱하는 자들의 출현에 대한 예언(3장)

1.

인사(1:1-2)

1:1 시몬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의 단순성과 겸손함은 우리를 놀라게 한다. 그는 스스로 종의 길을 선택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도로 임명하셨다. 그는 거창한 명칭과 우월한 신분을 드러내는 상징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감사한 마음으로 부활하신 구주를 섬기는 자신의 특권에 대해 말하고 있다.

우리가 이 편지의 수신인들에 대해 아는 전부는, 그들이 그의 동료들과 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베드로후서가 이방인 신자들에게 보내진 편지라는 것을 암시하며, 그들은 믿는 유대인들이 받은 믿음과 비교할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종이든 자유자이든 그분 앞에서 동등한 영접을 받는다.

믿음이란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얻은 모든 것을 의미한다. 이 편지의 기사는 이 믿음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믿음을 주신 것은 의로운 일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그

리고 부활은 하나님께서 믿음에 의해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의로운 기초를 제공한다. 죄의 빛은 온전히 지불되었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믿는 경건치 않은 죄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신약성경에서 주 예수님의 절대적인 신성을 의미하기 위해 사용된 여러 표현들 중의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러한 표현은 의미가 없다.

1:2 독자들을 위한 사도의 고상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는 기도이다. 그는 독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러한 지식을 소유하기를 원한다. 그는 그들의 마음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보호를 받기를 바란다. 사도는 이러한 축복이 그들에게 넘치도록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경험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더욱 알아감으로써 가능하다. 하나님에 관해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을 만나기 위해 은밀한 장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보다 지성소에 오래 머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비밀을 더 많이 발견한다.

2. 그리스도인의 강건한 성품의 계발에 대한 권고(1:3-21)

1:3 이 구절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실족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확신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말씀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완전한 준비를 해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 이것은 그분의 능력에 대한 증거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그 후에 또한 그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순서를 주목해 보라. 첫째는 생명이고, 그 다음이 경건이다. 복음은 죄의 형벌과 그 권세로부터, 정죄와 더러움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는 사역, 성령님의 사역,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종으로서 우리를 위해 행한 천사들의 활동, 구원받는 순간 우리가 얻은 새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포함한다.

거룩한 삶의 능력은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온

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은 거룩의 원천이며, 그분에 대한 지식은 통로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며(요 17:3), 그분을 알아 가는 과정이 곧 거룩의 과정이다. 그분을 더욱 알아갈수록 우리는 점점 그분을 닮아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부르심은 베드로가 가장 소중하게 다루기를 원하는 주제들 중 하나이다. 그는 우리가 (1) 어두운데서 부르심을 받아 그분의 기이한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고(벧전 2:9), (2) 고난의 길을 걸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며(2:21), (3) 욕을 받을 때 오히려 축복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며(벧전 1:3), (4)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5) 그분의 영광과 덕에 의해 부르심을 받았다는(벧후 1:3)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부르셨다”는 마지막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의 놀라운 본체를 계시해 주시므로써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소의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며 그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에 의해 부르심을 받았다.

1:4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증진시키기 위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안에는 말씀 속에 담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성경 안에는 적어도 30,000여 가지의 약속들이 들어있다. 존 번연은 “삶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많고 많은 그 약속들을 피해서는 단 한 걸음도 옮겨놓을 수가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베드로가 편지 속에서 언급한 일곱 가지 보배로운 것들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언급되어 있다. 우리의 믿음은 금보

다 더 귀하며(벧전 1:7), 그리스도의 피는 보배로운 피이다(벧전 1:19).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는 보배로운 산 돌(벧전 2:4)이며,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다(벧전 2:6). 모든 믿는 자에게 그분은 보배로운 분이시다(벧전 2:7). 또한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값진 것이다(벧전 3:4).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은 보배로운 약속이다(벧후 1:4).

거룩한 생활과 관련된 약속들에 대해 생각해 보라. (1)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롬 6:14). (2) 풍성한 은혜(고후 12:9). (3)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빌 4:13). (4) 마귀에 대한 승리(약 4:7). (5)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심(고전 10:13). (6) 죄를 자백할 때 용서해 주심(요일 1:9), 또한 기억치 아니하심(렘 31:34). (7)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심(시 50:15).

베드로가 하나님의 약속을 “보배롭고 지극히 크다”고 말한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 약속들은 신자들로 하여금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의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도록 힘을 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약속하셨다. 세상적인 정욕이 유혹할 때, 우리는 그 약속들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썩어질 것들, 즉 성적인 범죄, 술 취함, 부도덕, 고통, 배반, 그리고 다툼들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약속의 적극적인 면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는 근본적으로 중생(重生)과 더불어 시작되며, 다음으로 우리가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뻐하는 생활을 해나감에 따라 점점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된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에 대해 더 많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분 자신을 더욱 닮아가게 된다고

약속하셨다(고후 3:18).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 안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더욱 더 주목하며 그분을 따라감으로써 이 약속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서는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1:5 3절과 4절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보여준다.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성실하게 그것을 계발하도록 힘써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는 우리의 노력이 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으신다. 그분은 경건한 삶에 대한 우리의 소원과 결심, 그리고 훈련과 더불어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계발하는 면에 있어서, 베드로는 먼저 믿음에 대해 언급한다. 그는 이 편지를 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이미 구원의 믿음을 행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쓰고 있다. 이런 이유로 그는 그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그들이 이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믿음을 이미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일은 믿음 위에 거룩한 일곱 가지 요소가 더해져서 생활 가운데 그 모든 은혜를 항상 드러내는 것이다.

툼 올슨(Tom Olson)의 아버지는 베드로가 말한 거룩의 일곱 가지 요소에 관한 구절을 아들들에게 다음과 읽어주었다.

“너희의 믿음 위에 다윗의 덕과 용기를, 다윗의 용기 위에 솔로몬의 지혜를, 솔로몬의 지혜에 욥의 인내를, 욥의 인내에 다니엘의 경건을, 다니엘의 경건에 요나단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요나단의 형제 우애에 요한의 사랑을 더하라.”²⁾

렌스키(Lenski)는 이 구절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곱 가지 목록은 거짓 선지자(2:1)들과 거짓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그들의 생활방식과 관련하여 기록되었다. 그들은 칭찬 대신 불명예를, 지식 대신 영적인 무지를, 절제 대신 방종을, 선한 일에 대한 인내 대신 악한 일에 인내를, 경건함 대신 불신앙을, 형제의 친밀함 대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반감을, 진실한 사랑 대신 무관심을 가져다준다.”³⁾

첫 번째 특성은 “덕”(virtue)이다. 이것은 경건, 선한 삶, 혹은 도덕적인 아름다움을 의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의미들은 후에 “경건”(godliness)이라는 한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 덕은 또한 여기에서 적대적인 세상에 대한 영적인 용기, 의로운 일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는 능력을 의미할 수도 있다.

우리는 순교자들의 용기를 생각할 수 있다. 대감독 크랜머(Archbishop Cranmer)는 신앙을 포기한다는 문서에 서명을 하라는 요구와 함께 만일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화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경고를 들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엄청난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여 그는 결국 오른손으로 그 문서에 서명을 하고 말았다. 하지만 곧이어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그는 사형을 집행하는 간수에게 나무에 불을 붙여달라고 말했다. 그의 요구에 따라 화형틀에 불이 붙고 손에서 밧줄이 끊어졌을 때 그는 화염 속에서 오른 손을 높이 들고 “바로 이 손이 몸쓸 짓을 한 손이로다. 이 손이 먼저 형벌을 받아 마땅하리! 저주를 받아 마땅한 오른손이여, 이 손으로 범죄를 하였도다”라고 말했다.⁴⁾

2) (1:5) From the spoken ministry of Tom Olson, a personal friend of the author.

3) (1:5) R. C. H. Lenski, *The Interpretation of the Epistles of St. Peter, St. John and St. Jude*, p. 266.

용기는 “지식”, 특히 영적인 진리에 대한 지식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그분의 신성한 가르침을 순종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감으로
주님과 감미로운 사귀음을 갖는 이 즐거움
구절마다 아로새겨진 그분의 교훈에 기울이고
매일 매일 그 신실한 말씀을 나의 보배로 만드나니...”

성경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을 통해 우리는 에드먼(Erdman)이 “기독교의 깊은 것을 다룰 줄 아는 실제적인 기술”이라고 말한 바를 계발해 나갈 수 있다.

1:6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절제”의 삶 가운데로 불러 주셨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님의 통제 아래서 의지를 다스리는 힘”이라고 정의했다. 우리는 기도의 영역에서, 성경연구의 영역에서, 시간사용의 영역에서,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는 영역에서, 그리고 희생적인 삶의 영역에서 훈련되어야만 한다.

바울은 이와 같은 절제(self-control)를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므로 내가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다” (고전 9:26-27).

유명한 자연주의자인 오더번(Auderbon)은 새들의 세계를 더 많이

4) (1:5) This famous story is widely recounted. See, for example, S. M. Houghton, *Sketches from Church History*, pp. 114-116

연구하기 위해 오랜 동안의 고행과도 같은 힘든 과정을 자처했다. 로버트 G. 리는 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육체적인 안락함을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는 것과 비교할 때 아무 것도 아니라고 여겼다. 그는 노력한 만큼 응분의 보상을 받을 것을 생각하여 어두움과 안개 속에서 몇 시간이고 꼼짝도 하지 않고 몸을 웅크린 채 앉아있기도 했다. 그러한 몇 주간 동안의 지루한 기다림 끝에 그는 새에 관한 새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곤 했다. 어느 때는 더러운 물속에서, 무서운 독을 가진 모카신(moccasin) 독사들이 얼굴을 스치며 지나가는 가운데, 그리고 커다란 악어들이 가만히 서서 새들을 관찰하는 그의 몸 주위를 왔다갔다 하는 가운데 거의 목까지 몸을 담근 채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서 있어야만 할 때도 있었다. ‘물론 즐거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난 내가 원하는 새의 사진을 찍을 수 있었거든요’라고 그는 흥분으로 빛나는 얼굴을 하며 말하곤 했다. 그는 새 한 마리의 사진을 얻기 위해 그런 일을 기꺼이 감내했다.”⁵⁾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본을 끼치기 위해, 멸망해 가는 세상의 긴급한 필요를 위해, 우리 자신의 간증을 바로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만 한다.

절제는 “인내”(perseverance), 즉 핍박과 역경을 참는 정신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인내를 향한 하나의 도전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영광의 빛으로 시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기독교가 항상 정상의 경험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

5) (1:6) Robert G. Lee, *Seven Swords and Other Messages*, p. 46.

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는 판에 박힌 듯한 일상, 보잘것없어 보이는 업무, 실망스러운 환경, 혹독한 슬픔, 계획의 좌절 같은 일들이 존재한다. 인내는 우리의 길에 장애물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을 참고 극복해 나아가게 하는 예술이다.

다음 요소는 “경건”(godliness)이다. 우리의 삶은 실제적인 경건에 있어서 완전한 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 우리의 행동에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인식할 만한 특별한 점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한 가족이라는 특성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한다. 바울은 우리에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딤후 4:8)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1:7 “형제 우애”(brotherly kindness)는 우리를 세상에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드러내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요 13:35).

형제 사랑은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진다. 이 사랑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다. 이것은 감상적인 즐거움으로 느끼는 경험이 아니라 순종해야 할 명령이다. 신약성경의 의미로 볼 때, 사랑은 초자연적인 것이다. 불신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사랑은 할 수 없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나,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사랑은 주는 것을 통해 나타난다. 그렇기에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 3:16), 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엡 5:25)라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을 위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보물, 그리고 우리의 목숨을 내어줌으로써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

T. E. 맥컬리(McCully)는 에콰도르(Ecuador)에서 인디언들에 의해 살해당한 젊은 다섯 명의 선교사들 중의 한 명인 에드 맥컬리의 아버지였다. 어느 날, 우리가 함께 모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는 “주님, 제가 우리의 젊은이들을 죽인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구원받을 때 저는 그들을 안고 ‘당신들이 나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도 당신들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를 드렸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범죄자를 위해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다.

이 일곱 가지 은혜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온전한 인격을 형성하는 요소들이다.

1:8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삶에는 진보나 퇴보 둘 중의 하나만이 존재한다. 정지된 상태는 있을 수 없다. 진보하는 삶에는 능력이 있지만 퇴보하는 삶에는 위험과 실패가 따른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계발하는 일에 있어서 인내하지 못하면 결국 무익함과 열매를 맺지 못함, 소경, 원시치 못함,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무익함**”(barrenness)-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이 진정으로 효율적인 삶이다. 그분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활동을 그치게 하시며, 가장 효율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허공을 치는 자와 같고 실도 없이 바느질을 하려는 자와 같

다.

“열매를 맺지 못함”(unfruitfulness)-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지식을 실천하지 않을 때 생활 가운데서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물이 흘러 들어오기만 하고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해(死海)는 죽은 바다가 되었으며, 이것은 영적인 영역에서도 산출(產出)을 막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

1:9 “원시치 못함”(shortsightedness)-소경이라고 일컬어지는 현상 중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 여기서 원시치 못하다는 것은 그 중의 한 종류로서 미래보다는 현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 그는 물질적인 것들에 너무 마음이 빼앗긴 나머지 영적인 것들을 무시하며 살아간다.

“소경”(blindness)-5절로 7절에 언급되어 있는 일곱 가지 특성이 결여된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나 소경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무엇이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영적인 가치에 대해 올바른 분별력이 없으며, 그림자에 불과한 어두운 세상을 사는 사람이다.

“잊어버림”(forgetfulness)-마지막으로, 일곱 가지 특성이 결여된 삶을 사는 사람은 자신의 옛 죄로부터 자신이 깨끗케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이다. 그는 자신이 구속받은 진리를 잊어버렸다. 그는 자신이 이전에 구원을 받았던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아드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죄를 즐기는 사람이다.

1:10 베드로는 독자들에게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

라”고 권면하고 있다. 부르심과 택하심은 하나님의 구원계획의 두 가지 측면을 말한다. ‘택하심’은 각 사람을 불러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적인 선택을 의미하며, ‘부르심’은 정확한 시간에 그분의 택하심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의미한다. 우리를 택하심은 창세 전에 이루어진 일이며,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루어진다. 순서적으로 볼 때 택하심이 먼저이고, 부르심이 나중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을 먼저 경험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생활을 함으로써 그것을 굳게 할 수는 있다. 성령님의 열매를 나타냄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분에게 속해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다. 거룩한 삶은 구원받은 사실을 입증해 주는 증거이다.

거룩한 삶은 우리를 실족으로부터 지켜준다. 실족(失足)은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문제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실족이라는 것은 죄, 불명예, 혹은 소용없게 됨을 의미하는 말이다.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진보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난파(難破)하는 배와 같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성령님 안에서 행한다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자격을 상실하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위해 진보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신다. 위험은 언제나 영적인 나태와 무지 가운데 있다.

1:11 영적으로 끊임없이 진보하는 삶은 안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는다. 베드로는 여기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실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방식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근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넉넉히 들어감을 얻는다. 보상에 차이가 있을 것이며, 여기서는 그 보상이 우리가 구주의 형상을 얼마나 본받는 삶을 살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1:12 베드로는 이 주제의 현재와 영원의 관련성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계발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신자들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들이 이러한 중요성을 이미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이것을 늘 되새길 필요가 있었으며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현재 진리에 굳게 세움을 입었다 할지라도, 다른 일에 마음이 선점(先占)되거나 진리를 잊어버릴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 그러므로 진리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한다.

1:13 성도들을 끊임없이 일깨우는 일은 베드로의 개인적인 소망 일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동안 반드시 해야 할 그의 의무이기도 했다. 자기의 생애가 점점 마감되어 가는 것을 느끼면서 그는 성도들을 영적인 나태로부터 지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다.

1:14 주님께서는 이미 베드로에게 그가 죽게 될 것과 어떠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셨다(요 21:18,19). 그

이후로 오랜 시간이 흘렀다. 이제 이 나이 많은 사도는 순리에 따라 자기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알았다. 그리고 이것은 그로 하여금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안녕을 돌보아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땅의 처소를 벗어버리는 것”, 또는 “몸 혹은 장막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한다. 장막이 여행자들에게 있어서 잠시 거하는 처소인 것처럼 육체는 세상에서 순례길을 다 마칠 때까지 우리가 거하는 장소이다. 죽음으로 이 장막은 거두어진다. 휴거될 때에 우리의 육체는 다시 살리심을 받아 변화될 것이며, 그 영원한 변화를 받은 영광스러운 육체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다(고후 5:1).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예상했다는 사실은, 혹 어떤 사람들에게 의해 논쟁이 되는 것처럼, 성도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의 진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어느 때라도 오실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지내왔다. 베드로는 단지 특별한 계시에 의해 자신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다.

1:15 베드로는 개인적으로 성도들에게 영적인 진보의 중요성에 대해 상기시켜 주기를 원했으며, 또한 성도들이 언제라도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두고자 했다. 그의 기록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느 때나 진리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 결과 베드로의 편지는 19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신자들의 삶에 진리의 빛을 던져주고 있으며, 구주께서 다시 임하시는 날까지 계속 그러할 것이다. 또한, 신뢰할 만한 고대의 전승(傳乘)에 의

하면 마가의 복음서는 본래 자기의 영적인 지도자인 사도 베드로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회고록이라고 한다.

문서 사역의 중요성이 여기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문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속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문서를 통하여, 어떤 사람의 사역은 그가 무덤 속에 누워있는 동안에도 계속된다.

베드로가 “나의 떠난 후에라도”(after my decease)라고 말할 때 사용한 죽음이라는 의미의 “decease”라는 단어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어느 장소를 떠난다는 의미의 “exodus”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다. 이 단어는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이다. 죽음이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정지(停止)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떠나가는 것(the departure)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절들은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에 우리에게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 8,9,12절 그리고 15절은 이와 동일한 교훈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들이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관한 근본적이고 중요한 진리들은 영원한 나라의 경계선에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주는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1:16 1장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구절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관한 확신을 다루고 있다. 베드로는 먼저 사도들의 증거의 확실성에 대해 다루고, 그 다음에 예언의 말씀의 확실성에 대해 다룬다.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 독자들에게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엮은 이 연합된 증거를 확실히 의지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는 사도들의 증거가 신화가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것임을 강조

하고 있다. 그들이 독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해 증거한 것은 공교히 만든 이야기나 신화를 좃은 것이 아니었다.”

베드로가 언급한 특별한 사건은 변화산상에서 주님께서 변화되신 일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세 명의 사도, 즉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함께 증거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⁶⁾이라는 표현은 문학적인 표현 방법의 하나로서 “능력으로 강림하심”(the coming in power) 또는 “능력의 강림”(powerful coming)을 의미한다. 주님의 변화되심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 그분이 능력으로 강림하실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을 목격하고 증거한 마태의 기록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17:1-8)은 주님의 변화되심을 묘사하고 있다. 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주님께서 천년 동안 세상을 다스리실 때 입으실 그 영광과 같은 영광을 입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다. 그들 세 사람은 죽기 전에 그 나라의 영광 안에 계신 인자를 본 것이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 16장 28절의 주님의 말씀은 17장 1-8절에서 성취되었다.

이제 베드로는 주님의 변화되심에 대한 사도들의 기록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fables; 헬라어로는 ‘신화’)를 좃은”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6) (1:16) 두 단어를 사용하여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려고 할 때, 가령 “good and mad”라는 표현으로 “very mad”라는 의미를 나타내려고 할 때 이것을 보통 중언법(hendiadys)이라고 한다(‘one through two’라는 뜻의 헬라어). 성경은 여기에 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법을 자주 사용함으로써 성경에 대한 이해를 도와준다.

있다. 이것은 현대의 일부 신학자들이 성경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이다. 그들은 성경이 신화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으며 성경을 받아들일 때는 그러한 요소들을 제외시키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볼트만(Bultmann)은 신약성경에 신화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고 말했으며, 존 A. T 로빈슨(Robinson)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많은 부분에 신화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경에는 ‘신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은 또한 종교적인 진실의 중요한 형태라는 점을 인식하는 가운데, 아픔을 무릅쓰면서도 단호한 걸음을 지난 세기동안 내딛어졌다. 창조와 타락에 관한 창세기의 기록들이 인간과 우주에 관한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긴 하지만 실제의 역사가 아닌 신화의 형태로 표현되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는 인식이 (극단적인 근본주의자들을 제외하고는) 점차 확산되었다. 사실 기독교의 진리를 옹호하는 데에 있어서는, 창세기의 이러한 기록들이 실제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인류학이나 우주학의 대안적인 설명과 적대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확인하는 자세가 오히려 필수적이다. 이러한 차이점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토마스 헉슬리(Thomas Huxley)나 그의 옹호자들과 한통속이 되어 놀아난 꼴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⁷⁾

베드로는 주님께서 변화되신 사건이 신화라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세 가지 증거, 곧 친히 목격한 증거, 귀로 들은 증거, 그리고 함께 있었던 증거를 제시한다.

목격한 것에 대하여, 사도들은 자신들이 주님의 위엄을 친히 보

7) (1:16) John A. T. Robinson, *Honest to God*, p. 32,33.

있다고 증거하고 있다. 요한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요 1:14)라고 증거했다.

1:17 사도들은 또한 귀로 직접 들은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주 예수님에 대해 들려진 이러한 음성은 지극한 영광중에서, 즉 쉼기나(Shekinah)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밝고 빛난 영광의 구름 속에서 들려진 음성이었다.

1:18 야고보, 요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언급하면서, 베드로는 그들이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는 세 명의 증인들에 의한 증거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증거는 마태복음 18장 16절에 따르면 가장 신뢰할만하고 효력을 갖춘 증거이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있었던 한 가지 증거를 더 제시한다.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이것은 실제적인 삶을 보여주는 상황으로서 여기에는 어떠한 의심도 자리 잡을 여지가 없다.

우리는 주님의 변화되심이 어느 산에서 있었던 일인지는 알 수 없다. 만일 그 산이 어느 산인지 정확히 알려졌다면, 아마 오늘날 그 산은 주님의 변화되심을 기념하는 성당이나 사당으로 뒤덮여져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이 산을 거룩한 산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8) (1:18) 로마 카톨릭의 전통에 따르면 주님께서 변화되신 산은 다불산(Mt. Tabor)이며,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그곳에는 사당이 세워져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복음서에는 “아주 높은”(exceedingly high)산이

이 산이 본질적으로 신성한 장소였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신성한 사건이 일어난 특별한 장소였기 때문이다.

1:19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위대한 영광으로 임하실 것을 예언했으며, 변화산상에서의 주님의 변화되신 모습은 이러한 예언을 무효화시키거나 혹은 더 확실하게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예언을 더 깊이 있게 확인한 것이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미래의 왕국의 영광을 어렵듯이나마 미리 보는 특권을 누렸다.

F. W. 그랜트(Grant)의 19절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다음과 같은 번역은 매우 유익하다. “...〈어두운데 비취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랜트가 삼입구를 사용하는 것에 주목해 보라. 그의 번역에 따르면, 우리는 “주의하다”라는 단어와 “너희 마음에”라는 구절을 연결시켜 생각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새흙정역(NKJV)이나 다른 번역 성경들에서 번역된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는 구절은 번역상에 있어서 실제적인 어려움이 되고 있다.

어두운 곳은 세상이며, 예언의 말씀은 그러한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다. 날이 새어간다는 것은 현재의 교회시대의 마감을 상징한다(롬 13:22). 또한 새벽이 떠오른다는 것은 성도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구절의 의미는, 우리가 예언의 말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다불산은 높은 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주님 당시에 다불산에는 로마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밀한 계시의 장소로서는 적절치 않다. 갈릴리 북쪽의 눈으로 덮인 높은 헬몬산(Mt. Hermon)이 바로 그 장소일 가능성이 크다.

씀을 항상 우리 앞에 두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함을 뜻한다. 왜냐하면 이 예언의 말씀은 이 세대가 마감되고 자기를 기다리는 백성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구름을 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어두운데 비취는 등불의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1:20 본 장의 마지막 두 구절은 성경 안의 모든 예언들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며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해석할 것이 아니니”(NKJV 난외주에는 ‘해석’이 ‘기원’으로 나와 있음)⁹⁾라는 표현은 해석자에 따라 매우 다양한 의미로 받아들여져 왔다. 어떤 사람들은 이 표현이 성경을 해석하는 권리가 교회에게만 속해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연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터무니없이 해석한다.

다른 견해들 가운데는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와 다르기는 하지만 올바른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이 있다. 예를 들어 성경의 모든 구절은 문맥 또는 성경의 나머지 부분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해석해야 하며, 해당되는 구절만 가지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베드로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 예언의 기원(origin)이다. 이 부분의 요점은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어떠한 사건에 대해 사사로운 개인의 의사를 가미했거나 혹은 그들 자신의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해석’(interpretation; 헬라의 *epilulus*라는 단어는 ‘해석’[*interpretation*]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기원’[*origin*]이라는 단어로 해석될 수 있다)

9) (1:20) The Greek word *epilulus* can be translated “origin”(NKJV margin) as well as “interpretation.”

은 문자화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성경의 어휘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방법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성경의 어휘들이 최초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라는 근본적인 기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것에 대해 D. T. 영(Young)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성경은 자체적으로 그 근원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함을 증거한다. 그것은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우리는 종종 성경의 어떤 말씀들이 다윗의 견해나, 바울의 견해, 혹은 베드로의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는 말을 듣는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안에 인간의 견해는 들어있지 않다. 성경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성경 속의 어떤 예언의 말씀도 인간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간 말씀은 없다. 인간은 단지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그대로 받아서 기록했을 뿐이다.”¹⁰⁾

이와 같은 근거로 생각할 때 새흙정역(NKJV)의 난외주에 있는 “origin”은 정확한 해석이며, 우리는 문맥적으로도 이러한 해석이 옳다고 믿는다.

1:21 이 구절은 20절에 대한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는 구절이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은 그들 자신의 생각으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며, 인간의 상상이나 통찰력, 혹은 사색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¹¹⁾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10) (1:20) Dinsdale T. Young, *The Unveiled Evangel*, pp. 13,14.

11) (1:21) The critical text (NU) reads “but men spoke from God.”

기자(記者)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문체(style)를 파괴하지 않으시면서도 그들로 하여금 그분 자신이 인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도록 역사하셨다. 이 구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대해 말해 주는 핵심 구절들 중의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는 시대에 성경이 축자적(逐字的)이고 절대적인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이루어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축자영감(豕字靈感; verbal inspiration, 우리말 성경에는 ‘감동’으로 번역되어 있음-역주)이라 함은 성경이 최초에 40명 혹은 그 이상의 기자들에 의해 기록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보라). 하나님께서는 기자들에게 일반적인 개요나 혹은 기본적인 사상을 허락하신 다음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바탕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 그들이 기록한 모든 말들은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었다.

절대영감(絕對靈感; plenary inspiration)이라 함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음을 의미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라). 오류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교리나 교훈의 면에서만뿐만 아니라 역사, 과학, 연대학(年代學), 그리고 다른 모든 영역에서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거짓 교사들의 출현에 대한 예언(2장)

2:1 1장을 마감하면서 베드로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그들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입어 말한 사람들이라고 언급한다. 이제 그는 구약시대의 참된 선지자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그리스도인의 시대에는 어느 시대이든 참된 교사들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도 존재한다.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을 복음의 사역자로 가장하는데, 이것은 교회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한다. 그들이 만약 자신들을 무신론자와 불가지론자라고 드러내면서 교회로 들어온다면, 사람들은 모두 그들을 경계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위장술의 대가(大家)이다. 그들은 성경을 손에 들고, 기독교 교리의 정통적인 표현들을 사용하지만 그것을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한다. 자유주의 신학교의 한 학장은 다음과 같이 그들의 전략을 폭로했다.

“교회는 종종 이전에 그들 자신을 바쳐왔던 믿음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부인하지 않으면서 그들 자신의 신념을 바꾼다. 그리고 신학자들은 대개 과거의 것에 대한 재해석을 통하여 그것을 계속 유지할 방법을 모색한다.”

W. A. 크리스웰(Criswell)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그는 친절하고, 부드럽고, 품위 있고, 학식이 있으며, 자신을 그리스도의 친구로 자처한다. 그는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며, 학문적인 책을 저술하고, 종교 잡지에 논문을 발표한다. 그러나 그는 안으로부터 기독교를 공격한다. 그는 교회와 학교를 모든 부정하고 해로운 새들이 깃드는 장소로 만든다. 그는 사두개인들의 교훈으로 온 식탁에 누룩이 퍼지게 한다.”¹²⁾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는 장소는 어디일까? 아마 가장 분명한 장소는 다음과 같은 단체들일 것이다.

신 자유 정통 프로테스탄트교회(Liberal and Neo-Orthodox Protestantism)

자유 로마 카톨릭교회(Liberal Roman Catholicism)

유니테리언주의와 보편구제주의(Unitarianism and Universalism).

여호와의 증인(Jehovah's Witnesses)

크리스찬 사이언스(Christian Science)

기독교 통일학교(Unity School of Christianity)

하나님의 라디오 교회(The Radio Church of God-암스트롱주의)

거짓 교사들은 의(義)의 사도로 자처하면서 참된 성경의 교훈에 영혼을 파괴하는 이단을 은밀히 들여온다. 그것은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교묘하게 혼합시켜 놓은 것으로써 그들이 하는 첫 번째 일은 진리를 부인하는 체계를 퍼뜨리는 일이다. 그들이 부인하는 진리들은 위에 열거한 단체의 주장에 잘 나타나 있다.

그들은 성경의 축자영감과 절대영감,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신성,

12) (2:1) Wallie Amos Criswell, further documentation unavailable.

그분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죄인들을 위한 그분의 대속의 죽음을 부인한다. 그들은 특히 예수님의 보혈이 지니는 가치를 열성적으로 부인한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육체적인 부활, 영원한 심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에 의한 구원,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의 실재를 부인한다. 오늘날 많이 알려진 그릇된 가르침들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케노시스 이론(The Kenosis theory)-그리스도께서 신성(神性)을 버리고 육신을 입으셨다는 이단적인 교리로서 이것은 그분이 죄나 혹은 다른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죽으셨다”는 공상적인 이론, 진화론, 보편구제설, 영혼의 정화(淨化) 혹은 연옥설,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거짓 교사들의 궁극적인 죄는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찬사를 늘어놓으며, 그분의 “신성”(divinity)과 훌륭한 교훈, 그리고 뛰어난 모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그분을 하나님과 유일하신 구세주로 고백하지는 않는다.

넬스 페리(Nels Ferre)는 “예수는 결코 하나님이 아니었으며 하나님이 되신 적이 없다.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상을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라고 기록했다.¹³⁾

감리교의 감독인 제럴드 케네디(Gerald Kennedy) 역시 이와 동일한 견해를 표명했다.

“나는 솔직히 이러한 표현(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을 좋아하지 않으며, 올바른 견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나는 차라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믿는다. 왜냐하

13) (2:1) Nels Ferre, *The Sun and the Umbrella*, pp. 35,112.

면 신약성경의 증거들이 예수의 신성에 대해 주목할 만한 증거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들은 대체로 예수의 신성에 대한 교리와 반대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¹⁴⁾

거짓 교사들은 이것들 외에도 다른 많은 방법을 통해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한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이 주님에 의해 사신 바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이 결코 구속(救贖)받은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신약성경은 ‘사다’(purchase)는 말과 ‘구속’(救贖, redemption)이라는 단어를 구별하여 사용한다. 모든 사람이 사신 바 되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오직 주님의 보혈의 가치를 의지함으로써 그분을 주님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벧전 1:18-19).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주 예수님께서서는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받을 산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다. 같은 장 38절에서 받을 명확히 세상으로 밝혀져 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세상과 그리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사신 것이다. 하지만 주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지는 않으셨다. 그분의 사역은 온 인류를 구속하기에 충분하지만 그것은 오직 회개와 더불어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만 효력이 있다.

거짓 교사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들의 운명을 보고도 알 수 있다. 그들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들의 운명은 불뿔에서의 영원한 형벌이다.

2:2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을 미리 내다

14) (2:1) Gerald Kennedy, *God's Good News*, p. 125.

보았다. 그들은 성경의 도덕 기준을 약화시키고 육적인 행위에 몰두하게 함으로써 이 목적을 성취한다. 성공회의 존 A. T. 로빈슨 주교는 이렇게 기록했다.

“...근본적으로 항상 ‘나쁘다’(wrong)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한 가지 예로써 ‘혼전 성관계’ 혹은 ‘이혼’이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며 죄악된 것이라는 견해는 잘못이다. 이것들 중 대부분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일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유일하게 본질적인 죄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결핍이기 때문이다.”¹⁵⁾

국제교회평의회(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에서 발간한 “책임 있는 자유를 위하여”(called to Responsible Freedom)라는 책은 청소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다.

“사적이고 개인적인 의미로 볼 때 성(性)을 정당하고 성스러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법 앞에서 사람들의 외적인 결혼관계보다는 당사자간에 서로를 향해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는 것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법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한다면, 친근한 성적 표현이 얼마든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손을 잡는 것조차 매우 잘못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¹⁶⁾

거짓 교사들에 의해 가르쳐지고 용납되어지는 이러한 형태의 생활태도로 인해 진리의 도(道)가 휘방을 받는다. 이 때문에 불신자들은 기독교에 대해 깊은 경멸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2:3 거짓 교사들은 정욕적이고 물질적인 두 가지 영역에서 모두 탐심을 드러낸다. 그들은 주님을 위한 사역을 수지맞는 하나의 사

15) (2:2) Robinson, *Honest*, p. 118.

16) (2:2) NCC, *Called to Responsible Freedom*, p. 11.

업으로서 선택한다. 그들의 최대의 야심은 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아 자신들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들은 지은 말로써 사람들을 미혹한다. 다비(Darby)는 “마귀가 손에 성경을 들고 있을 때보다 더 마귀적일 때는 결코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이들은 손에 성경을 들고 의의 사도들처럼 행세하며, 유명한 복음 찬송가를 발표하며, 성경적인 표현들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단적인 가르침과 부패한 도덕적 행동을 숨기기 위한 기만일 뿐이다.

이러한 꾀방꾼들은 곧 무서운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심판은 지체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멸망은 자지 않고 표범처럼 그들을 덮칠 준비를 하고 있다.

2:4 4-10절에서 우리는 배도자들에게 쏟아 부어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구약성경의 세 가지(천사들, 노아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 실례를 볼 수 있다.

우리는 “범죄한 천사들”이 유다서 6절에 언급된 천사들과 같다고 생각한다. 거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배울 수 있다. (1) 그들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 (2) 그들은 자기 처소를 떠났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창 6:2)라는 말씀에 언급된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은 자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천사들은 욥기 1장 6절이나 2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운다. 창세기 6장의 기록에 의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천사의 지위를 떠나, 하늘의 처소를 땅에서의 처소와 바꾸고, 인간의 아내들과

혼인했다.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은 “타락한 자들”(fallen ones)을 의미하는 네피림이 되었다(창 6:4). 창세기 6장 3절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비정상적인 성적인 결합에 대해 매우 진노하셨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견해와는 반대로 천사들은 성별(性別)이 없으며 따라서 결혼할 수 없다는 점이 대개 논란이 된다. 하지만 성경은 다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성경은 단지 하늘에서는 서로 결혼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막 12:25). 구약성경에서 천사들은 종종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적이 있다. 예를 들어 롯이 소돔에서 영접한 두 천사(창 19:1)는 5,10,12절에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들은 발(2절)과 손(10절)을 가지고 있었으며,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3절). 그들은 또한 육체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10,16절). 소돔 성 사람들이 비뿔어진 욕심을 통해서 볼 때 천사들이 성적인 남용이 가능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다(5절).

하나님께서서는 그분 자신이 정하신 질서에서 벗어난 천사들의 배도에 대해 진노하셨다. 그들의 운명은 지옥에 던져져서 어두운 구덩이에서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다.

2:5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에 대한 두 번째 실례는 “홍수로 멸망당한 사람들”에 대한 것이다. 그들의 죄악은 하늘에 사무쳤으며,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창 6:5).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세상은 부패하여 폭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창 6:11-13). 주님께서서는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창 6:6). 그분은 너무나 낙심하신 나머지 그들을 세상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다(창 6:7). 그분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홍수를 세

상에 임하게 하셔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멸하셨다.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주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 그들은 방주 안에서 피난처를 발견했으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물결이 지나가기까지 그곳에서 보호함을 받았다.

노아는 “의의 전파자”로 묘사되어 있다. 그가 방주를 만들 때 울려 퍼졌던 망치소리는 비웃으며 조롱하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한 회개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하나의 메시지로 울려 퍼졌을 것이다.

2:6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세 번째 실례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다. 지금의 사해(死海) 남쪽 지역의 어느 곳에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 두 성읍은 성적인 타락의 대명사였다. 그곳 사람들은 동성애(homosexuality)를 정상적인 생활방식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 죄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 26-27절에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이와 같은 무절제한 성도착(性倒錯)을 병이 아니라 죄로 간주하신다. 이후의 세대에게 동성애에 대한 그분의 무서운 진노를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과 유향을 쏟아 부으셔서 그들을 재로 만드셨다(창 19:24). 그들의 존재가 자취가 없어질 정도였으므로 오늘날에는 그 두 도성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이

러한 죄를 법적으로 용인하려는 사람들에게나 혹은 그것을 하나의 질병 정도로 치부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오늘날 자유방임적인 성직자들이 성적인 왜곡에 대해 옹호하는 발언들을 서슴지 않게 하고 있는 현상은 매우 우려할만하다. 그리스도 연합교회(the United Church of Christ)의 한 임원은 “사회적인 행동”(Social Action)이라는 책에서, “교회는 신학교의 입학에 있어서나 성직수임(聖職授任)에 있어서, 그리고 교회의 직원을 채용하는 일에 있어서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일을 멈추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에 90여 명의 성공회 신부들은 동성애가 성인들 간에 서로 동의 하에 이루어진다면 도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운동의 선두에 서있다.

본 서신서가 배도에 대해 다루면서 부도덕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전혀 우연이 아니다. 배도와 부도덕한 행위는 종종 함께 일어난다. 배도는 흔히 도덕적인 실패에 그 원인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심각한 성적인 범죄에 빠진 다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는 대신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포기하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그는 무신론자처럼 살아간다. A. J. 폴록(Pollock)은, 한 때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얼마 후에는 의심과 부정으로 가득찬 마음을 한 청년을 만났던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폴록은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자네 혹시 최근에 어떤 범죄에 빠진 적이 없는가?”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그 청년은 고개를 떨어 뜨리며 갑자기 대화를 멈추고 부끄러운 얼굴로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¹⁷⁾

17) (2:6) A. J. Pollock, *Why I Believe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p. 23.

2:7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의인을 구원하신다. 베드로는 이것을 롯의 경험을 통해 설명한다. 만일 우리가 롯에 대한 구약성경의 설명만을 읽는다면, 우리는 그를 참된 신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구약성경은 그를 세상에서 자신의 지위와 이름을 위해 출세를 지향하는 기회주의자로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베드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그를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해 심령의 고통을 받고 있는 의로운 사람”으로 묘사한다. 하나님께서는 롯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며, 의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

2:8 롯이 비록 불신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인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베드로는 롯의 영혼이 소돔 성에서 보고 듣는 것들로 인해 매일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점을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다. 소돔 성 사람들의 죄악된 행실은 그로 하여금 마음 속 깊이 고통을 경험하게 했다.

2:9 결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과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알고 계신다. 그분은 자기 백성들을 시험에서 건지실 수 있으며, 동시에 경건치 않은 자들은 형벌 아래 두어 심판의 날까지 보존하신다.

악인들은 지옥을 위해 보존되며(9절), 지옥은 악인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17절). 이와 대조적으로 하늘에는 유업이 신자들을 위해 간직되어 있으며, 신자들은 유업을 위해 보호함을 입는다(벧전 1:4-5).

2:10 악인들을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형벌 아래 두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 장에서 묘사되고 있는 자들, 즉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의 권위에 대항하고, 높은 권세자들을 함부로 모욕하는 자들에게 특히 사실이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위장하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종종 저속한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비밀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들은 불법적인 성범죄에 탐닉할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성적인 자유 사상을 옹호한다. 메릴랜드(Maryland)의 볼티모어에 있는 성공회 재단의 한 여학교 지도 신부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성적인 행위, 생각, 그리고 욕구에 관해 유연한 사고(思考)를 지녀야 하며 죄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다. 이것은 성(性)에 대해 자신이 갖는 느낌이 이성애(異性愛)이든 동성애(同性愛)이든, 혹은 자위행위이든 상관없다고 나는 생각한다.…성(性)은 재미있는 것이며…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무슨 행위를 하든, 하지 않든 거기에는 아무 규칙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이것은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게임과 같다.”¹⁸⁾

자유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 흔히 정부(政府)를 폭력적으로 전복시키는 것을 옹호하는 운동의 선두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늘날의 성직자들 중에는 파괴적인 정치적 사상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다. 필라델피아의 장로회에 속한 교회의 인도자이며 지역사회의 임원인 어떤 사람은 “나는 모든 비폭력적인 수단이 효과가 없다고 판명되었을 때 우리가 앞으로 이것(교회에 의한 폭탄과 최류탄의 사용)을 굳이 배제할 필요가

18) (2:10) *Pageant Magazine*, October, 1965.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담하고 외고집적인 사람들이다. 정부의 모든 권위에 대한 그들의 편견과 무시는 끝이 보이질 않는다. 그들은 국가의 권세를 비방하는데 어떤 극단적인 말들도 서슴지 않는다. 정부(政府)가 하나님에 의해 제정되었으며(롬 13:1), 그것을 비방하는 것이 합당치 않은(행 23:5) 일이라는 사실에 그들은 조금도 구애를 받지 않는다. 그들은 오히려 권세 있는 자들을 거리낌 없이 비방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것을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 “영광 있는 자”라는 표현은 천사이든 인간이든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모든 대상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용어이며, 여기에서는 인간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분별된다.

2:11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무례함은 천사들의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천사들은 그 힘과 능력에 있어서 사람보다 뛰어나지만 주님 앞에서 영광 있는 자들에 대해 훼방하는 송사를 하지 않는다. 여기서 언급된 영광 있는 자들이란 권위 있는 자리에 있는 천사들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

천사들에 대한 이와 같은 모호한 언급은 유다서 9절의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훼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이라는 표현과 비슷하다. 우리는 모세의 시체에 대해 왜 다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한다. 다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점은, 미가엘 천사는 사단이 마귀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또한 사단이 자신을 판단하는 권세는 없었지만 그 자신은 사단을 훼방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거룩한 천사들조차 주저하는 일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인간의 교만과 오만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보라! 그리고 그러한 도전에 대해 그것에 상응하는 심판이 내려질 일에 대해 생각해 보라!

2:12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이성 없는 동물들과 같다. 동물들과 구별되는 이성의 능력을 사용하는 대신 그들은 자신들의 육체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존재의 이유인 것처럼 살아간다. 많은 동물들에게 있어서 죽임을 당하고 도살되는 운명이 최후의 운명인 것처럼 거짓 교사들 역시 진정한 삶의 가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은 생각지도 않고 무모하게 멸망 속으로 빠져들어 간다.

그들의 어리석음은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것을 휘방하며, 성경을 비난하는 행위 속에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과 길, 그리고 그분의 역사(役事)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다(고전 2:1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은 영적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지식보다 주님 안의 겸손한 신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훨씬 많다.

그들은 이성이 없는 동물들이 맞이하는 멸망과 같은 멸망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들 자신이 동물처럼 살아가는 편을 택했으므로 동물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죽음은 멸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명예스럽게 소망이 없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2:13 그들은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필립스 (Philips)는 이 구절을 “그들의 죄는 그들에게 사악한 결말을 가져왔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 충분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의역했다.

이 사람들은 수치심이 없고 방탕한 자들이므로 심지어 낮에도 죄악된 행위를 일삼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두움을 기다렸다가 쾌락을 즐기기 때문에(요 3:19) 쾌락을 누리는 장소는 밤에 더 봄비가 마련이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그들 속에 죄를 감추려는 최소한의 절제력마저 저버린 자들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애찬을 먹을 때 그들은 점과 흠과 같은 존재로서 가만히 들어온 불순한 침입자와 같은 자들이며 연락(宴樂)에 탐닉하는 자들이다. 유다는 자신의 편지에서 이와 같은 자들을 “저희는 기탄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12절)라고 묘사하고 있다. 초대 교회시대에 주님의 만찬과 연관하여 성도들이 함께 한 애찬에 참여할 때에 거짓 교사들은 그것의 영적인 의미는 전혀 무시하고 무절제하게 연락을 즐기는 일에만 몰두했다. 그들은 사랑이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과는 달리 오직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의 욕심만을 추구했다.

2:14 더욱 부끄러운 사실은 그들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종교적인 설교를 하고, 예식을 인도하며, 회중들을 가르치면서도 속으로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음란한 행위를 함께 나눌 여인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찾는 사람들에게 대해 묘사하고 있다. 성직자의 “옷”을 입고 자신의 탐욕을 가리고 있는 그들의 호색은 한계가 없다.

그들은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 아마 그들은 죄를 적당히 가리기 위해 성경을 오용(誤用)하거나, 의와 불의의 문제는 성경의 기준보다는 우리의 문화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고 설명하는지 모른다. 그들은 또한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행해진 일에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입에 발린 말로 어리석은 자들을 위로해 줄 것이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문제없이 받아들여지는 일이라면, 그것은 모든 회중들에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그들은 기만과 속임수에 있어서 초보자가 아니라 숙련된 자들이다. 탐욕(covetous)이라는 단어는 모든 것에 대한 욕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문맥적으로 볼 때 여기서는 특히 성적인 욕심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베드로는 진리를 위장하여 기독교 내에 숨어있는 이 거대한 기만과 배도자들에 의해 행해지는 범죄가 그리스도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주의 자식이라!”라고 탄식을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베드로의 저주가 아니라 단지 그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 아래 놓이게 되리라는 사실을 예언한 것이다.

2:15 거짓 교사들은 여러 면에서 브올의 아들 발람과 흡사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언자인 것처럼 자신들을 가장하며(민 22:38), 다른 사람들을 범죄의 길로 미혹한다(계 2:14). 하지만 그들이 발람과 가장 닮은 점은 물질적인 부를 축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역을 모방한다는 것이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모압 왕에 의

해 고용된 미디안 선지자로서 그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바로 돈이었다.

2:16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가는 도중에 그와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모습 중의 하나)와 만났다. 여호와의 사자를 본 나귀는 한사코 앞으로 나아가기를 거절했다. 발람이 드디어 채찍을 휘두르자 나귀는 사람의 언어로 그를 책망했다(민 22:15-34). 이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한다는 것)이었다(더구나 나귀는 문제의 본질을 더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적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자신의 미친 행동을 깨닫지 못했다. 이것에 대해 렌스키(Lensky)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발람은 ‘선지자’로서 어떠한 행동을 제지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으며, 심지어 그분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잘못된 행동을 금하셨습니다. 이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의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이익에 끝까지 착념하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한 인간에 대한 두려운 예이다.”¹⁹⁾

하나님께서서는 오늘날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 거짓 교사들을 책망하시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다른 방법으로 종종 그들의 어리석음과 미친 행동을 책망하시며 올바른 진리의 길, 즉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도록 격려하신다는 것은 충분히 확신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연약한 신자의 단순한 간증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뛰어난 학식과 교회 안의 위치를 자랑하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러한 일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성도가 성경의 한 구절을

19) (2:16) Lenski, *Interpretation*, pp. 326,327.

인용하거나 혹은 단순하지만 예리한 질문을 던질 때 일어날 수 있으며, 성령으로 충만한 평범한 신자는 오늘날의 발람을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으로 고통을 경험하게 할 수도 있다.

2:17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을 “물 없는 샘”에 비유한다. 지친 영혼들은 영적인 갈증 가운데 원기와 도움을 얻고자 그들을 찾아가지만 실망에 빠진다. 그들은 또한 “광풍에 밀려가는 구름”이다. 구름은 오랫동안 가뭄으로 인해 메마른 대지에 단비의 소망을 가져다준다. 하지만 광풍이 불어오자 그 구름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 소망은 산산이 깨어지고 물을 애타게 기다리던 혀는 만족을 얻지 못한다.

어두움의 맨 밑바닥은 이러한 종교적인 위선자들의 뒤편이다. 이들은 복음의 사역자로 자신을 가장하지만 영혼들에게 전해줄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람들은 생명의 떡을 얻고자 그들에게 가지만 돌을 얻는다. 이러한 기만에 대한 형벌은 영원한²⁰⁾ 시간을 흑암 속에서 보내는 것이다.

2:18 거짓 교사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하는 자들”이다. 녹스(Knox)는 그들이 “의미 없는 아름다운 말”(fine phrases that have no meaning)을 사용한다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많은 자유주의적인 종교 지도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말을 정확하게 묘사해 주고 있다. 그들의 현학적(衡學的)인 어휘사용은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 그들은 자신들의 빈약한 설교내용을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전달방법으로 보완한다. 하지만 그들이 설교를 마쳤을 때 기억해야

20) (2:17) The word “forever” is omitted by NU here but not in the close parallel in Jude, 13.

할 만큼 가치 있는 내용은 아무 것도 없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전략은 온갖 종류의 욕정과 욕심에 마음껏 탐닉해도 좋다는 미끼를 던짐으로써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다. 그들은 육체의 욕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므로 우리가 그것을 임의로 억제해서는 안 되며, 만일 우리가 그것을 억제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간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말한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결혼 전 성관계를 옹호하며 결혼 이후의 도덕적 타락을 조장한다.

그들의 희생자는 “미혹한데 행하는 자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²¹⁾이다.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한 때 죄악의 쾌락에 마음껏 탐닉했었지만 이제는 마음의 변화를 결심한 자들이다.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으며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첫 번째 시도로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들이 선택한 교회가 불행하게도 성경을 믿는 교회가 아니라 이러한 거짓 목자들 중의 한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일 경우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 대신 오히려 죄를 용납하고 조장하는 가르침을 듣게 된다. 처음에 그들은 그러한 메시지에 놀란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는 나쁜 것이며, 교회는 죄를 정죄하는 곳이라고 항상 믿어왔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은 죄가 종교적으로도 용인될 수 있다는 어리석은 믿음에 빠지게 된다.

2:19 거짓 교사들은 자유에 관해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의미하는 자유는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벗어나 죄악을 즐기는 자유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죄악의 노예상태이다. 거짓 교사

21) (2:18) The NU text here reads “are barely escaping.”

들 자신이 악한 정욕과 습관의 사슬에 매어있는 더러움의 노예이므로 그들은 그들 자신과 그들의 가르침을 듣는 자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자유롭게 해줄 수가 없다.

2:20 20-22절은 거짓 교사들이 아니라 그들의 희생자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들은 개심(改心)을 경험했지만 결코 중생(重生)한 자들은 아니다. 그들은 단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부분적인 지식을 통해 죄악의 삶에서 돌이켜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기로 결심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청결한 삶의 규범들을 조롱하며 도덕적 제한으로부터의 방임을 추구하는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들은 그들 자신이 잠시나마 구원받았다고 느꼈던 바로 그 죄의 울무에 다시 얽매이게 될 것이다. 사실, 그들은 이전보다 더 깊은 죄의 나락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왜냐하면 이제는 종교적인 속박이 없어졌고 더 이상 그들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못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2:21 많은 특권을 누릴수록 거기에는 많은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규범들을 알고도 그것을 저버리고 세상의 더러움으로 돌아가는 것은 처음부터 알지 못한 것보다 더 못한 일이다.

2:22 이 사람들은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잠 26:11) 돼지가 그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속담에 어울

리는 사람들이다. 베드로가 개와 돼지를 예로 든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모세의 율법 아래서 이 두 동물은 부정한 동물로 분류되어 있다. 잠언에는 이들이 본질적인 면에서 변화를 경험한 어떠한 암 시도 나와 있지 않다. 이들은 더러운 구덩이와 토한 것에서 나오기 이전에도 부정한 동물이었으며, 그곳으로 돌아갈 때에도 여전히 부정한 동물이었다.

베드로가 묘사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도덕적인 행동 면에서 일시적인 변화를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결코 새로운 본성을 소유한 사람은 아니다. 마태복음 12장 43-45절 말씀과 같이 그들의 집은 비었고, 소제되고, 수리되었지만 그들은 결코 구주를 영접해 들이지는 않았다. 집에서 나갔던 귀신은 자기보다 더 악한 일곱 귀신을 데리고 비어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집의 나중 형편은 전보다 더 심해졌다.

이 말씀은 참된 신자들이 은혜에서 끊어져 다시 잃어질 수 있다는 그릇된 교훈을 가르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이 사람들은 본래 참된 신자들이 아니며, 새로운 본성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의 나중 형편이 더 심해졌다는 것은 그들의 본성이 여전히 부정하고 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참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일시적인 도덕적 변화나 개심(改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오히려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에게 구원에 관한 잘못된 확신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본성은 중생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으며, 중생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4. 기롱하는 자들의 출현에 대한 예언(3장)

3:1 2장에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주제를 다룬 다음 베드로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기롱하는 자들에 대한 새로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첫 번째 편지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편지에서도 그는 먼저 신자들에게 말씀에 착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3:2 신자들은 구약성경을 통해서 기록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신약성경을 통해서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전해진 주님의 교훈을 기억해야만 한다. 성경은 영적인 타락의 시대에 신자들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참된 보호막이다.

3:3 선지자와 사도들은 마지막 때에 자기의 정욕을 좇아 행하는 기롱하는 자들이 출현할 것에 대해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예언을 주목해야 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오만하고 모독적인 태도로 진리를 부인한다고 해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 오히려 신자들은 그들의 그러한 태도 속에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분명한 징조를 확인해야 한다.

기롱하는 자들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을 부인하며, 자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데 있어서 전혀 주저하지 않는다. 그들은 임박

한 진노의 심판에 대해 아무런 두려움도 느끼지 아니한다.

3:4 그들이 조롱하는 주된 주제는 그리스도의 강림(降臨)과 관계가 있다. 그들은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힐문한다. 이것은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성취된 증거가 어디 있는냐”라는 의미이다. 그들은 주님의 강림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을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강림은, 그분이 성도들을 데려가시기 위해 임하시는 휴거(살전 4:13-18)라고 이해하고 있을까? 하지만 기롱하는 자들이 주님의 재림에 포함된 이러한 첫 번째 국면에 관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그분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것(살전 3:13)을 의미한다고 이해하고 있을까? 그들이 주님의 강림에 대해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의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혹은 세상 끝에 대해 생각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즉 그들은 천년왕국의 마지막에 하늘과 땅이 불로써 멸망할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의미는 이것이다.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장차 무서운 심판이 세상에 임하게 된다고 위협해 왔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고 세상을 멸망시킬 거라고 말해 왔다. 하지만 그 말은 순전히 지어낸 말에 불과하다. 우리는 아무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적이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는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들의 결론은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는 어리석은 가설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들은, 자연은 불변의 법칙대로 움직이고 있으며, 초자연적인 개입이란 있을 수 없고, 모든 것에는 합리적인 설명만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균일설의 법칙(the law of uniformitarianism)을 신뢰한다. 이 법칙은 자연 안에 존재하는 과정들이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현재와 같이 동일한 강도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과정은 지금까지의 모든 변화를 충분히 설명해 준다는 이론이다.

균일설의 법칙과 진화론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생명 유기체의 점진적인 발달에 관한 이론은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에 의존해 있다. 만일 지구가 지각변동이나 대이변에 의해 큰 변화를 겪는다면, 다윈의 진화론의 일부 가정들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3:5 조롱하는 자들은 고의적으로 한 가지 사실, 즉 노아 시대의 대홍수를 부인한다. 하나님께서는 대홍수를 통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셨으며, 그분이 그렇게 하신 분명한 이유는 악을 심판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와 같이 개입하셨다면, 이러한 일은 얼마든지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자랑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객관적인 자세로 사고(思考)하며, 과학적인 연구의 원칙에 입각한 결론을 지지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대홍수)을 일부러 부인하려고 하고 있다. 그들은 지질학에 관한 강의를 다시 들어야 한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멸망하였으되.”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셨을 때, 이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다(히 11:3). 여기서 베드로는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심오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의 표면이 처음에는 물로 덮여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셔서 땅에 있는 물과 안개나 구름의 형태로 땅 위에 있는 물을 나누셨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땅이 아무 생물로 살 수 없는 짙은 물안개로 덮여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궁창은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깨끗한 대기를 제공해 주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는, 대륙이 바다로부터 분리되었으며, “땅이 물에서 나와”라는 표현은 바로 이것과 관계있는 표현일 것이다(시 24:2 참조).

베드로의 언급이 과학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지구가 주로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름으로 덮여 있는 세계라는 사실을 안다. 지구 표면의 4분의 3은 바다이며, 그 많은 부분은 안개로 싸여 있다. 우리가 아는 한, 지구는 많은 물을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행성이며, 따라서 인간의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다.

3:6 땅은 처음부터 멸망의 수단을 가지고 간수하신바 되었다. 땅은 지하 깊은 곳에 있는 물과 바다의 물, 그리고 구름 위에 물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땅 아래 있는 물과 땅 위의 물을 터뜨리셔서(창 7:11) 온 땅을 물에 잠기게 하셨으며, 방주 밖의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셨다.

비난자들은 의도적으로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부인한다. 최근에 대홍수에 대한 기록은 석판이나 고대와 현대인들의 전승(傳承)에 남겨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기록은 바로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 안에 있다.

3:7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셨을 때, 그분은 그것을 멸망시키실 때를 위해 지구에 충분한 물을 예비하셨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멸망시킬 때를 위해 충분한 불을 예비해 두고 계신다.

오늘날과 같은 원자력의 시대에는, 물질이 저장된 에너지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다. 원자핵의 분리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무시무시한 폭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이것이 주님의 능력으로 제어되고 있지만(골 1:17,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쥔느니라”), 정해진 날 그분의 제어의 손길이 거두어질 때에 모든 원소(元素, elements)는 순식간에 풀어질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늘과 땅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에 의해 보존되고 있다.

3:8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분은 우리처럼 시간의 범주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신다. 시간이란 지구에 대한 태양의 관계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관계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와 같다. 그분은 하루를

천년으로 늘이거나 또는 천년을 하루로 단축하실 수 있다. 주님은 그분 자신의 역사(役事)를 연기하실 수도 있고 어느 한 시점에 집중하실 수도 있다.

3:9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않은 자들의 역사를 심판으로 마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만일 이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에 신실치 못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어느 누구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분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은혜의 때를 연장하신다.

이사야 61장 2절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에 대해 읽을 수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며, 심판은 그분의 비상(非常)한 역사라는 사실을 암시해 준다(사 28:21). 이 말씀은 또한 그분이 인내의 시간을 천 년 동안 연장하시고, 심판은 하루로 단축하실 수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보내시기 전에 120년 동안을 인내하셨다. 지금 그분은 세상을 불로 멸망시키실 때까지 수천 년을 기다리고 계신다.

3:10 그러나 “주의 날”은 반드시 임할 것이다. 주의 날(The day of the Lord)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기간과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표현은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분의 원수들에게서 승리하시는 때를 묘사하는데 사용되었다(사 2:12, 13:6; 겔 13:5, 30:3; 욥 1:15, 2:1,11,31, 3:14; 암 5:18, 욥 1:15; 슥 1:7;

속 14:1; 말 4:5). 신약성경에서 이 표현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단계의 기간을 의미한다.

(1) 주의 날은 하나님께서 불신의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7년 대환난 기간과 관계가 있다(살전 5:2, 살후 2:2).

(2) 주의 날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주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사건을 포함한다(살후 1:7-10).

(3) 주의 날은 그리스도께서 철장으로 땅을 다스리실 천년왕국 기간을 묘사하는데 사용된다(행 2:20).

(4) 주의 날은 최종적으로 하늘과 땅이 불로써 멸망을 당하는 것과 관계가 있으며, 3장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주의 날은 도적같이, 즉 예상치 못할 시간에 파괴적으로 임할 것이다. 그 날에는 하늘이 간 곳이 없어질 것이다. 이것은 대기권의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며, 별들이 보이는 하늘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즉 셋째 하늘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갈 때, 체질(*the elements*)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다. 여기서 체질은 물질의 성분과 관계가 있으며, 모든 물질은 전 세계적인 핵의 파괴와 같이 파괴될 것이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또한 다 불살라질 것이다.²²⁾ 이것은 자연적인 모든 산물뿐만 아니라 인간이 여태까지 쌓아온 모든 문명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적인 대도시와 훌륭한 건물들, 경이적인 과학의 산물들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3:11 이제 베드로는 기롱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 대신 성도들이

22) (3:10) Instead of “burned up” (*katakatesetai*) the NU text reads “found” (*heur-ethesetai*), perhaps meaning “laid bare”

감당해야 할 의무들에 대해 설명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물질적인 모든 것은 망각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인간이 자랑하는 것들과,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은 기껏해야 지나가는 형적들에 불과하다. 물질적인 것을 위해 사는 삶은 일시적인 것을 위해 사는 삶이다. 상식(常食)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부터 돌아서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요구한다. 이것은 현재보다는 영원을 위해 살고, 물질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단순한 문제이다.

3:12 신자들은 또한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우리가 헌신되고 흔들림이 없는 봉사의 삶을 삶으로써 주님의 재림을 재촉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이러한 가르침에는 두 가지 난점이 들어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날(the day of God)은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지 않으며 둘째로, 설령 하나님의 날과 주님의 재림이 동일한 사건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시간이 그분의 백성들의 열심에 의해 변경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하나님의 날은 영원한 상태와 관련이 있다. 이 날은 하늘과 땅이 파괴되는 주의 날(the day of the Lord)의 마지막 국면 이후에 오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날은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려야 하는 날이다.

베드로가 “그 날에는”이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라는 말을 한 것은 하나님의 날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날은 최종적인 멸망이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다. 그 대신, 이 궁극적인 멸망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 이전에 일어나야만 한다.

3:13 신자들은 12절에서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라는 권고를 받고 있다. 여기서 그들은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로 묘사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날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영원한 상태와 관련이 있다는 견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사야 66장 17절과 66장 22절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영원한 상태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을 묘사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천년왕국 때에도 죄가 존재할 것이며(사 65:20) 어린아이들이 태어날 것(65:23)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절들이 천년왕국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베드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거하는 의(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현재는, 은혜가 의를 통해 다스리고(롬 5:21), 천년왕국 시대에는 의가 다스리며(사 32:1), 영원에서는 의가 거하게(dwel) 될 것이다. 지상왕국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의는 그분에 의해 강화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의가 다스리는 것이다. 하지만 영원에서는, 더 이상 철장이 필요치 않을 것이며 의는 편안히 쉬게 될 것이다. 그곳의 평화와 아름다움을 손상시키는 죄는 결코 그리고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3:14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진리는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소원을 더욱 심화시켜 주어야 마땅하다. 이 진

리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지탱해 주어야 할 진리이다. 하나님 앞에 곧 서게 되리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 안에 점도 흠도 없이, 즉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소원을 일으켜 주어야 한다. 그리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다름이 아니라 평강 가운데서 그분 앞에 나타나기를 열망케 해주어야 한다.

3:15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분의 심판이 연기되는 이유는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충분히 주시기 위함이다. 인간의 죄가 증가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종종 어떻게 주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을 그렇게 오래 참으실 수 있는지 의문을 품곤 한다. 그분의 인내가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죽음을 원치 않으신다. 그분은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벗어나 구원받는 것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바울에 대한 이와 같은 암시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이 나타나 있다.

(1) 첫째, 베드로는 안디옥에서 자기가 신실하게 행동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바울이 자신을 공개적으로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우리 사랑하는 바울’이라고 부르고 있다. 베드로는 그의 책망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음이 분명하다. 우리 모두는 적대감을 품지 말고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한다.

(2) 베드로는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함에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소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것은 틀림없이 그가 바울의 기록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암시이

다.

(3) 베드로의 편지를 읽는 성도들은 한 번 혹은 그 이상 바울의 편지를 대했던 것 같다. 이것은 바울의 편지들이 그들에게 직접 보내졌거나 아니면 그 편지들이 주변 지역의 성도들에게 돌려가며 읽혀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과연 바울의 편지들 가운데 어느 편지가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는 내용을 담고 있을까? 로마서 2장 4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3:16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모든 서신서에서 베드로가 두 편지에서 다루고 있는 이 위대한 진리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진리들 가운데에는 거듭남, 그리스도의 신성(神性), 그분의 흠 없는 고난의 삶, 대속적인 죽음, 부활, 승천, 재림 및 주의 날과 영원한 상태와 같은 것들이 있다.

성경의 진리들 가운데는 가령, 삼위일체(the Trinity),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주님의 고난의 비밀 등과 같은 인간으로서 는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문제들을 만났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혼란에 빠질 필요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하며 끝이 다함이 없다.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진리들을 깨닫기 위해 항상 하나님을 기꺼이 신뢰해야 한다.

베드로는 이해하기 힘든 진리들에 관해 이야기할 때 바울의 기록을 비평하지 않는다. 깨닫기 어려운 것은 바울의 문체가 아니라 그

가 다루는 주제이다. 이것에 대한 반즈(Banes)는 이렇게 말했다. “베드로는 바울이 의미한 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그가 가르친 위대한 진리를 이해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²³⁾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은 이러한 진리들을 단순히 인정하려는 대신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거짓 종파들은 죄를 드러내는 율법의 속성을 왜곡하여 그것을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침례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가르친다. 그들은 바울의 기록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부분도 이와 같이 왜곡한다.

베드로가 여기서 바울의 기록을 성경, 즉 구약과 신약의 다른 부분과 동일한 위치에 놓은 것을 주목해 보라. 그는 바울의 서신들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의 일부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3:17 신자들은 미혹의 위험에 대해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 진리를 더럽히고 모방하는 거짓 교사들은 어느 시대 어느 때를 막론하고 존재할 것이라는 지식은 우리를 늘 깨어있게 만들어야 한다. 경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자들의 미혹에 휩쓸려 들어가 영적인 균형을 상실하기 쉽다.

3:18 베드로는 신령한 지식 안에서 계속 성장해 가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다시 한 번 교훈한다.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에서의 성장, 즉 은혜와 지식 안에서의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은혜는 성령님의 열매를 실

23) (3:16) Albert Barnes, *Notes on the New Testament*, X:268.

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은혜 안에서의 성장은 끊임없는 활동과 머리의 지식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형상을 계속 닮아가는 것이다. 지식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배워가는 것을 의미한다. 지식 안에서의 성장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 및 가르침을 연구하고 끊임없이 순종해 가는 삶을 의미한다.

베드로는 그러나 이 편지를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으로 마치는 않는다. 절정의 순간은 항상 구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편지의 말미에서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는 아름다운 찬미를 발견할 수 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이며 따라서 본 서신서에 있어서 이 찬미보다 더 합당한 끝맺음은 없으리라.

참고 문헌

Barbieri, Louis A. First and Second Peter. Chicago: Moody Press, 1975.

Bigg, Charles.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Epistles of St. Peter and St. Jude (ICC). Edinburgh: T. & T. Clark, 1901.

Grant, F. W. "I and II Peter," The Numerical Bible, vol. 7. New York: Loizeaux Bros., 1903.

Ironside, H. A. Notes on James and Peter. New York: Loizeaux Brothers, 1947.

Jowett, J. H. The Redeemed Family of God. London: Hodder & Stoughton, n.d.

Lenski, R. C. H. The Interpretation of the Epistles of St. Peter, St. John G. St. Jude. Columbus: Wartburg Press, 1945.

Lincoln, William. Lectures on the First and Second Epistles of Peter. Kilmarnock: John Ritchie Publ., n.d.

Meyer, E. B. Tried by Fire. Fort Washington PA: Christian Literature Crusade, 1983.

Stibbs, Alan M. The First Epistle General of Peter.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59.

Thomas, W. H. Griffith. The Apostle Peter: His Life and

Writings.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1984.

Westwood, Tom. The Epistles of Peter. Glendale, California:
The Bible Treasury Hour, Inc., 1953.

Wolston, W. T. P. Simon Peter His Life and Letters. London:
James Nisbet & Co., 1913.